

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 증언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 증언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김기삼 저

비봉출판사

머 리 말

때로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인가 보다.

내가 이런 종류의 책에 서문을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말이다. 나는 늘상 글쓰기에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책을 쓸 정도로 부지런하지도 못했다. 책을 쓴다는 것은 나의 상상력 밖의 일이었다.

고백하건데, 나는 자서전을 쓸 정도로 삶을 살지 못했고, 회고록을 남길 정도로 인생을 오래 살지도 않았다. 이 작은 기록이 실패한 전직 정보요원의 한풀이나 뉘그러 정도로 치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을 — 직접 경험한 일뿐만 아니라 어깨 너머로 보고 들은 일들까지 포함하여 —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정보 종사자들은 재임 중에 지득(知得)한 비밀을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미덕으로 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가 알게 된 사실들은 나 혼자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눈이 멀어 민족을 배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또한 우리의 안보 책임자가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발목이 잡혀 국가를 반역하는 광경도 목도했다. 나의 양심상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몰랐던 게 하나 있다.

나는 김대중과의 싸움이 이렇게 오래 끌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나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리가, 정의가 금세 승리할 거라고 믿었다. 나의 판단착오였다.

나는 마치 양치기 소년으로 치부되었고, 당나귀 이발사 정도로 취급되었다. 나의 이마에는 배신자라는 부적이 나붙었고, 나의 등 뒤에는 음해의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오랫동안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야 했다.

내가 겪은 우리나라는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증오의 공간이었다. 내가 본 우리 사회는 갈가리 찢어지고 갈라져서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분열의 땅이었다. 진실과 양심과 용기가 조롱당하고 배척당하는 의미 없는 곳이었다.

나는 이제 이 지루하고 외로운 싸움을 접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어디서부터 꼬였고 언제부터 접혔는지 되짚어 보려 한다. 아울러,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는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보려 한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2003년 이후 내가 공개한 양심선언과 기자회견문을 모은 것이다. 양심선언은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과 대북송금, 임동원의 간첩 혐의, 국정원의 불법도청, 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무기비리와 비자금 등에 관한 것이다.

뒷부분은 ‘나’라는 인간에 대한 나의 설명이다. 이는 또한 “전직 국

정원 직원이 왜 양심선언을 하게 됐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내 나름의 변명이기도 하다. 물론 국정원에서 내가 보고 겪은 경험이 주요 내용이 되었다.

양심선언 이후, 나는 국정원의 치졸하고 어처구니없는 흑색선전에 시달렸다. 정신병자라느니, 돈을 노린다느니, 정치권에 기웃거린다느니, 여자문제로 미국으로 도망쳤다느니……. 일일이 대꾸하고 해명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나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싶었다. “도대체 ‘나’란 인간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해명하고 싶었다. 원고를 쓰고 나서 여기저기 출판사를 알아보았지만, 선뜻 출판해 주겠다는 데가 없었다.

겨우 어느 신생 출판사를 찾아 맡겼는데, 누구로부터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마지막 순간에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대한민국에서 관(官)이 이렇게 무서운 줄 미처 몰랐다”는 말을 남기고서,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출판할 생각을 접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2008년 4월 미국 법정에서 나의 미국 망명 허락이 났다. 망명 재판 후 주요 일간지들이 나의 망명 허락 소식을 기사화해 주었다. 일부 주간지들은 심층기사를 게재해 주었다. 그런데 동교동측은 여러 언론사들 중에서 유독 「일요서울」만을 골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나는 내 문제로 인해 곤란에 처한 「일요서울」에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뭔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일요서울」에 나의 원고를 연재하는 게 어떨지 문의했다. 의외로 선뜻 받아들여졌다. 그해 말까지 30회분을 연재했다.

그해 연말, 「일요서울」은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원고의 연재를 중단했다. 그 와중에 편집국장이 옷을 벗었다. 그 후 「일요서울」과 동교동 간에 벌어졌던 명예훼손 소송의 건은 서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다. 지난 10년간의 ‘반역의 세월’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뭔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끝내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 책을 쓰는 데 있어 몇 가지 밝혀두고 싶은 점이 있다.

먼저, 이 책은 순전히 나의 기억에 의존해 썼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나는 국정원을 나올 때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메모한 것도 없다. 평소 기억 안 되는 일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 기억은 희미해지고 퇴색되어 있었다. 더 이상 기억해 낼 수 없는 것도 있었고, 아예 왜곡된 형태로 기억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므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실관계의 부정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둘째, 이 책에 등장하는 누구에게도 아무런 사적(私的)인 감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나는 누구를 모욕하거나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누구의 명예도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셋째, 이 책에 소개되는 나의 체험은 순전히 나 개인의 관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해 국정원 직원에 대해 편향된 인상이 심어지

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넷째, 이 책을 쓰는 데 있어 보안문제를 고려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보안에 관한 내 나름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국익(國益)이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도, 알려져서 김정일에게 이로운 내용이라면 공개하지 않았다.

다섯째, 이 글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이름은 실명(實名)으로 실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인원보안을 우려하여 최소한 한 자 이상을 가렸다. 이 점에 대해 독자와 당사자들의 특별한 양해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판하는 데 신세진 분들을 기억하고 싶다. 한국에서 내가 속한 로펌으로 연수 온 전세준, 백종건 예비변호사는 친절하게도 교정을 봐주면서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간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신 비봉출판사의 박기봉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0년 7월 미국에서

차 례

저자 서문

제1부 양심선언

제1장 양심선언문

1. 회칠한 가면, 악마의 초상
-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과 대북 뒷거래 실상 -
김대중의 노벨상 노욕 17 / 국정원의 노벨상 공작 18 / 청와대의 노벨상 수상 공작 지휘 21 / 김대중의 반역적인 대북 뒷거래 실상 24 / 맺음말 28
2. 분칠한 가면, 간첩의 초상 - 임동원의 간첩 의혹 -
서언 32 / 임동원에 대한 의혹 33 / 박지원의 위커힐 호텔 난동 사건 35 / 임동원 씨에 대한 수사국의 내사 동향 37 / 임동원과 북풍사건 38 / 임동원씨의 의심스런 여러 가지 행적들 40 / 임동원의 대북 커넥션 44 / 맺음말 48
3. 거짓의 희극, 도청의 진실 -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 및 감청 실태 -
서언 53 / 메모 보고서의 생산과 유통 55 / 맺음말 58

제2장 김대중 정권의 노벨상 수상 공작

1. 기자회견에 즈음하여 62
2. 김대중 정권의 노벨상 수상 공작 개요 68

제3장 무기의 그늘, 부패의 온실

- YS, DJ 정권의 무기도입 비리 및 해외비자금 은닉 의혹 실태 -
- 1. 글을 시작하며 79

2.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납품비리 수사 80

올리컨 대공포 개량사업 비리 의혹 80 / 케이블 어셈블리 납품
관련 비리의혹 82 / 견인 수중음파탐지 장비(견인 소나시스템) 납
품 관련 비리의혹 83 /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결과 84

3. 권영해의 미스트랄 도입 비리사건 85

들어가면서 85 / 권영해와 김영삼 86 / 권영해와 이영우 88 /
미스트랄 vs 스텔러 89 / 권영해와 천용택, 그리고 미스트랄
92 / 미스트랄과 한미동맹 96

4. YS, DJ 정권의 비리의혹 사업들 97

백두 신호감청기/금강 영상정찰기 도입사업 98 / M-270 다연장
로켓/ATACMS 지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 101 / 무인정찰기 획
득사업 및 이스라엘제 Surcher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 103 /
BO-105 경 전투헬기 도입사업 104 / 동부지역 저자전 장비 도입
사업 / 인도네시아산 CN-235-200M 수송기 도입 사업 105

5. 김대중 정권의 무기도입 비리 의혹 105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106
차기 VHF 무전기 도입사업과 불곰사업 107

6. 조풍언의 무기도입 비리의혹 107

장거리 공대지(空對地) 유도미사일(AGM-142 Popeye) 도입사업
108 / AN/ALQ-165 ASPJ 대 전자전 방어 및 교란시스템 도입
사업 109 / 전투기 레이더 경고 수신기(RWR) 교체 사업 109 /
랩콘 항공기 착륙유도용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사업 110 / 조
풍언 커넥션 110

7. 끈끈한 비리의 사슬 112

권영해, 천용택, 김대중의 은밀한 뒷거래 112 / 권영해, 김영삼,
김대중의 해외 비자금 113 / 밝히려는 자 vs 숨기려는 자 116
/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고언 118

8. 글을 마치며 120

제2부 나의 이야기

제1장 젊은 날의 기억

정보기관과의 첫 만남 123 / 『돌베개』와 『사상계』 126 / 이념의 바다에 빠지다 130 / 미 8군 19지원사 법무감실 137 / 국정원 입사를 결심하기까지 142

제2장 어린 시절의 추억

충절의 고장에서 의열을 배우다 148 / 나의 가족 152 / 어린 시절 추억의 단편들 157 / 학창시절 기억의 편린들 162

제3장 병아리 기관원 시절

03정부의 정규 30기 168 / 정보학교의 생활 172 / 공수와 해양 훈련 180 / 부적부 번호 27444 186 / 국정원에 지망하려는 후배들에게 190

제4장 문민정부의 뒀안길 I

“같이 좀 못하자” 194 / ‘새끼’보좌관 200 / 문민정부의 ‘넘버쓰리’ 204 / ‘썬’TK vs ‘신’TK 206 / 계명구도와 낭중지추 210 / 미림팀과 미림보고서의 위력 213

제5장 문민정부의 뒀안길 II

정보보고서 읽기를 싫어한 YS 216 / 안기부가 정무수석 직속이다 218 / 김현철의 국정농단 221 / 경복고(k2) 출신들의 국정농단 224 / 문민정부와 언론 227 / 뉴스로 뉴스를 덮어라 231 / 연예계, 요지경 세상 234

제6장 해외공작국에서

‘쌍개’의 세계 241 / 접대와 ‘특조’ 247 / “여긴 착한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돼!” 250 / 다시 정보학교로 252 / 카일라일에서의 추억 255

제7장 대외협력보좌관실에서

‘오칠남’신세 262 /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265 / ‘S 사업’
또는 ‘NP(노벨상) 프로젝트’ 267 / 외신 대변인 270 / “알면 다
쳐!” 273 / 노벨상 드라마의 주연 274 / 반역의 트라이앵글 277
/ 노벨상 드라마의 조연들 281

제8장 안에서 본 국민의 정부 I

할 일을 잃다 284 / 국정원, 반역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다 287
/ 김대중의 이상화 작업조직, 제2건국위원회 290 / “니가 그리
잘 났냐?” 293 / 대북전략국 전략1과 295 / 통일운동가들에 대
한 단상 299 / 남북교류 현장의 이모저모 301

제9장 안에서 본 국민의 정부 II

‘악마적인’ 사기꾼 309 / 이종찬 국정원의 개혁의 망치소리 314
/ 천용택 국정원의 막가파식 행태 320 / 브레이크 없는 호남선
인사 열차 324 / 온통 깡패들의 세상이 되다 331

제10장 국정원을 퇴사하고 나서

‘김대중의 심장에 비수를!’ 334 / 쪽방에 갇힌 대붕(大鵬) 336
/ 북풍, 세풍, 안풍 339 / 미국으로 피신하다 345 / “15억 달러랍
니다” 349 / “내보다 더 많이 아내!” 352

제11장 펜실베이니아의 어느 시골에서

양심선언을 발표하다 358 / 양심선언의 언저리 362 / 대북송금
특검과 정몽헌 회장의 타살 의혹 368 / 무기도입 비리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 372 /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드러나게 된
경위 377 /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다 384

제12장 밖에서 본 대한민국

백척간두에 선 우리의 안보 390 / 북한의 가공할 비대칭 전력
398 / 한미동맹 현주소와 파경에 이르게 된 경위 404

저자 후기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412

제1부

양심선언

제1장 양심선언문

1. 회칠한 가면, 악마의 초상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과 대북 뒷거래 실상—

김대중의 노벨상 노욕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가면 뒤에 가려진 김대중 정권의 추악하고 위선적인 본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김대중 정권이 민족과 역사 앞에 저지른 지울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의 양심을 걸고 국민 여러분께 밝힙니다.

김대중이 ‘그토록 어처구니없는 대북 정책을 그토록 오랫동안 일관되게 잘못 추진한’ 근본 이유는 노벨평화상에 대한 지독한 노욕(老慾)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목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하여 해외공작을 진행하는 한편, 김정일에게는 약 2조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김대중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하여 벌인 노벨상 공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중의 노벨상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최규선 게이트의 녹취록과 노벨상 공작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습니다. 최규선이 공개한 ‘블루카펫 프로젝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보고서가 실제로 거의 그대로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규선과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을 전담한 김한정이라는 인물은 둘 다 유종근 전남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이미 이전에 함께 이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대중의 노골적인 노벨상 욕심은 그의 첫 인사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1998년 2월, 김대중은 초대 의전비서관으로 권영민 주(駐)노르웨이 대사를 내정했다가 일주일 만에 교체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김대중은 노벨상을 겨냥하고 권영민 대사를 의전수석에 내정했으나, 그가 김영삼 정권의 대사로 재임 중에 DJ의 노벨상 수상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낙마시켰던 것입니다.

국정원의 노벨상 공작

국정원이 노벨평화상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국정원 해외공작국(현재 2국) 동구과 북구팀의 주된 임무는 노벨상에 관한 업무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도 YS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지만 수상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DJ의 수상 저지에 주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초대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이종찬씨는 부임 초부터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 공작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의 짐작으로는, 정치적 야심이 대단했던 이종찬 원장이 김대중으로부터 환심을 사서 정권을 이양받기 위해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주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일요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원장은 YS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최중O(정규 13기) 말레이시아 참사를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최 참사는 1995년, 노벨상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최OO 주(駐)노르웨이 대사를 소환 조치하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과 노르웨이는 한때 불편한 외교관계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1998년 8월, 이종찬 원장은 비서실 산하에 대외협력보좌관실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고 김대중의 공보비서 출신인 김한정이라는 인물을 특별 채용하였습니다. 김한정은 이 원장에게 직보(直報)하면서 비밀리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규선 게이트에서 마이클 잭슨 공연 유치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K박사로 거론되었던 자가 바로 김한정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초청, 휴전선에서 ‘평화의 음악회’ 개최를 추진했는가 하면, 마이클 잭슨의 서울 공연에도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민주투사로서의 인생 역정, 외환위기 극복 등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책자를 발간하고 국제 세미나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현지에서는 공금을 들여 김대중의 인생 역정을 미화(美化)한 김대중 전기(傳記)를 북구어로 번역해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스웨덴 파견관 이병O(정규 11기) 참사는 1999년 초 계급정년으로 옷을 벗게 되자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이 원장을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한정은 또한 김대중의 국제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넬슨 만델라를 방한 초청하려고 했으나 만델라가 거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불발로 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9년 초, 북구와 유럽에 출장을 갔다 오

는 등 정열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의 그의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1999년 5월 말, 이종찬 원장이 갑자기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후임 천용택 원장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김한정의 노벨상 공작 활동에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부임 일주일 만에 김한정을 퇴사시켰습니다.

아태민주지도자회의(FDLAP)로 돌아간 김한정은 사업을 계속 진행시킨 결과, 1999년 7월 김대중에게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1999년 12월, 김한정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파격적으로 영전되어 현재까지 김대중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김한정이란 인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김대중의 최측근 심복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종합뉴스데이터시스템(KINDS)에서 검색하여 몇 가지 기사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2002년 8월 26일자 기사에 의하면, 김한정은 김홍업에게 면회를 가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2002년 2월 25일자 기사에 의하면, 김한정은 한화갑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원 특보의 재기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2002년 1월 25일자 기사에 의하면, 김한정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월간중앙 2000년 3월호 기사에 의하면, 박지원씨가 박선숙 공보비서와 함께 김한정을 가장 아낀다고 합니다. 이희호는 김한정을 가리켜 ‘배앓이 않고 얻은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신임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김한정의 아내는 이희호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김한정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의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는 대학 재학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1992년 대선까지 김대중의 공보비서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의 노벨상 수상 공작 지휘

2000년도에도 김한정이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계속 재임하면서 벌인 노벨상 공작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한정은 박경태 주(駐)노르웨이 대사, 김남오 주(駐)노르웨이 국정원 파견관(정규 23기), 박종오 주(駐)스웨덴 파견관(정규 24기), 그리고 국정원1국 동구과 북구팀 박노오 팀장(정규 17기)에게 직접 지시하면서 공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한정은 이 공작의 일환으로 노벨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5인 심사위원 중의 한 명인 노르웨이의 스톨셋 주교를 비밀리에 방한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톨셋 주교는 김대중의 노벨상 시상식에서 안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김한정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라모스 호르타 외무장관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김대중의 노벨상 추천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라모스 호르타 장관은 김대중의 노벨상 시상식에 초대된 사람입니다. 김대중이 그동안 동티모르에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시한 이유도 노벨상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한정은 스웨덴과 남아공에 해외홍보관(弘報官)을 신설, 파견

하여 현지에서 해외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에 홍보관을 파견한 이유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일 터이지만, 남아공에 홍보관을 신설한 이유는 그곳에는 만델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이 정권은 '홍보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을 정도로 해외홍보에 치중했는데, 그 이유는 모두 노벨상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8월, 김한정은 노벨상 결정에 막후 영향력이 있는 분데빅 노르웨이 전 총리와 저명 음악인 등 3명을 극비리에 방한 초청하였습니다. 이들 일행은 국정원 해외공작국 박노○ 북구팀장에 의해 비밀리에 제1차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들은 감격적인 남북이산가족상봉 장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목격하고, 김대중을 예방한 후 노르웨이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르웨이의 라프토재단은 김대중에게 라프토 인권상을 수여하였고, 이어서 노벨상위원회도 김대중에게 노벨평화상 수상을 결정했습니다. 분데빅 전 총리는 2002년 1월 두 번째로 노르웨이 총리가 된 후 또다시 방한하여 김대중의 극진한 환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한정의 이러한 공작활동을 보조한 자로 조준오라는 인물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전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조카로서, 김한정과 같은 시기에 이종찬 원장에 의해 특별 채용되어 대외협력보좌관실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는 1994년 국정원의 공개채용시험에서 낙방한 적이 있는 사람이지만, 1998년 조승형의 부탁으로 이종찬 원장이 특채하였습니다.

조준오는 김한정의 노벨상 공작을 보조하다가 2000년 8월 국정원을 퇴사하였으며, 현재는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

다. 그는 김한정이 국정원을 떠난 이후에도 2001년까지 김한정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청와대를 자주 사칭하다가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노벨상 공작은 흔히 ‘S’ 공작 또는 ‘NP Project’로 일컬어졌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과 박노○ 팀장과 김남○ 노르웨이 파견관, 박종○ 스웨덴 파견관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공작은 해외공작국(1국)의 최조○ 국장(정규 6기, 외대)과 이영○ 국장(정규 9기, 육사 26기) 재임기간 중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작을 지휘했던 최조○ 국장과 이영○ 국장은 그 후 각각 주 쿠웨이트와 핀란드 대사로 영전되어 나갔습니다. 이영○ 대사는 2001년 4월 1국장에 부임한 지 8개월 만에 박경○ 단장을 승진시키기 위해 해임되었기에 특히 입을 막아야 할 필요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YS 정권에서 안기부 출신이 대사로 영전되어 나간 것은 이병호 차장이 말레이시아 대사로 나간 것이 유일한 예입니다. 박노○ 팀장(정규 17기)은 그 후 동기 가운데 선두주자로 동구과장으로 승진하였고, 현재는 서구과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김한정은 1998년 미국 뉴저지주의 럿거스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귀국할 당시에는 전세집도 구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원장은 그를 가락동에 있는 국정원 안가(安家) 아파트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지금 김한정은 집을 두 채 이상이나 장만했을 뿐만 아니라 100억 원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모든 돈줄을 그가 쥐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의 반역적인 대북 뒷거래 실상

이어서 김대중이 노벨상을 수상할 목적으로 저지른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첩보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실 여부를 모두 검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1999년,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김대중은 자신의 업적과 경륜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면서 노벨상 수상 분위기 조성에 진력했습니다. 그 해 7월, 김대중은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벨상 사냥에 나섰습니다. 역대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 수상자 11명 가운데 6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이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돌파구만 마련할 수 있다면 노벨상을 목에 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김대중과 김정일 간의 은밀한 뇌물 뒷거래는 이러한 배경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1999년 말, 온 세상이 새천년의 기대에 한창 들떠 있을 즈음 김대중과 김정일은 극비리에 뇌물 뒷거래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김대중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뒷돈의 규모는 미화(美貨)로 15억 달러입니다. 인류가 뇌물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이후 최고의 뇌물 액수이자 앞으로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기록일 것입니다.

현대에서 이 뒷돈의 일부를 대었습니다. 지난 번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제기한 현대상선의 4천억 원은 이 돈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현대상선 대출금 일부가 남북정상회담 선금으로 건너갔고, 뇌물 잔금은 대부분 200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3월과 6월에 벌어졌던 현대의 왕자의 난은

정주영이 이 돈을 대기 위해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이 돈은 1천만 원권 수표 형태로 국정원에 넘겨졌고, 국정원은 주로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독일과 프랑스 등 6개 지부를 통해 이 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행낭의 책임자는 처음에는 최조O 국장이었다가 2000년 9월정부터는 박경O 단장으로 바뀌었고, 실무자는 고강O 사무관이었습니다.

박경O 단장(정규11기, 목포 문태고)은 2001년 4월, 이 정권에서 최단 기간 내에 국장으로 승진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던 인물입니다. 박지원의 문태고 후배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는 그는 국장이 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진급에 필요한 최소 연한을 채우지 못해 이사관(2급)으로 있다고 합니다. 박 국장의 이례적인 승진은 당시 「시사저널」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고강O 사무관(9급 출신, 목포 문태고)도 그 후 서기관 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국정원에서 행낭 담당자가 승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이 돈은 현지에서 주로 유로화로 환전되어 북쪽으로 전달되고, 수표는 다시 국내로 반입되어 국내 은행에서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유로화로 환전하는 일과 수표를 재반입하는 작업에는 우리나라의 유로화 책임자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유로화 책임자는 한국계 프랑스 국적을 가진 40대의 여인으로, 하이얏트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김대중·정주영·김정일이 직접 관여했을 것이며, 이들은 각각 김한정·김정남·정몽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박지원·임동원·이기호 등 지금까지 김대중의 옆을 지키고 있는 인사

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청와대를 떠났다가도 다시 그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대중은 대북 커넥션에 관련된 인사들은 배신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의 주위에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의 분신인 김한정 제1부속실장과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은 이 일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 등지에서 여러 차례 극비 접촉을 하였을 것입니다. 김한정과 김정남은 2000년 4월 10일 경,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전후하여 일본에서 만나 남북 뒤틀거래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들은 2000년 10월과 12월, 노벨상 수상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만나 노벨상 단독수상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5월 초, 김정남이 일본에 밀입국하다가 체포되었을 당시에도 김한정과 김정남은 일본에서 접촉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들어, 김대중과 김정일은 뒤틀거래 협상을 대충 일단락 짓고 각본대로 본격적인 국내외 분위기 조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대중은 1999년 12월 말,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천용택을 경질하고 임동원을 국정원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당시 천용택은 자기 부인(김아미)이 옷로비 사건에 연루된 것을 무마하려고 검찰 출입기자 몇 명을 국정원으로 초대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DJ의 대선자금 등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는 촌극을 벌인데다, DJ를 “김대중이가...”라고 부른 게 그만 일주일 후에 밝혀져서 불경죄로 잘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천용택은 역대 국정원장 중 자질이 가장 저열한 자였습니다. 그는 김대업 의인(?)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1월, 김대중은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고, 총선 후 제1당이 되고 나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겠다고 처음으로 운을 떼었습니다.

한달 뒤, 김대중은 일본 도쿄방송(TBS)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워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대규모의 대북 경제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충격적인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발표는 미국과 사전 교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격렬한 분노를 샀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분위기 조성 작업과 함께 김대중과 김정일은 2000년 1월부터 중국 등지에서 남북간 비밀회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쪽에서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주도했고, 김보현 전략국장이 실무를 맡았으며, 서훈 경협1과장이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김보현 전략국장과 서훈 과장은 남북정상회담 후 각각 신설된 3차장과 남북회담조정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김용순 대남 비서가 주도하고, 임동옥 아태 제1부위원장이 실무를 맡고, 권민(권호웅) 참사가 심부름을 하였습니다.(*권민 참사에 대해서는 제 2부 제 8장 ‘안에서 본 국민의 정부 I’〈남북회담 현장의 이모저모〉 참조.)

남북은 각각 박지원과 송호경을 얼굴마담으로 기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4·13 총선 직전, 김대중은 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남북은 일요일 오후에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김대중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월요일 아침으로 발표 시점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의도는 자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4·13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중기적으로는 노벨평화상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북 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삼아 새천년민주당의 호남당의 한계를 탈피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을 포함한 정계개편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결과

적으로 보면, 단기와 장기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노벨평화상을 받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맺음말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회칠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김대중의 악마적인 모습을 믿지 않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과 싸우기 위한 전략물자를 수송해야 할 국정원의 행낭이 적의 군자금을 보급하는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려울 줄 압니다.

참고로, 김정일은 김대중의 뇌물을 받아 고폭장치 등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자를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프랑스 등지에서 구입했습니다. 김정일은 또한 이 돈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40대의 신예 미그기를 도입하였고, 러시아로부터는 잠수함과 탱크 등 첨단무기를 구입하였습니다.(*이 지면을 빌려 지난 서해교전시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 해군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들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부터 달러화 유통을 금지시키고 결제수단을 유로화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도 뇌물로 받은 유로화 덕택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그 동안 약세를 면치 못하던 유로화에 대해(2000년 8월 30% 절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 북한에 넘겨진 15억 달러 상당의 유로화는 지금 현재의 환율로는 2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절상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지원되었던 34조원의 공적자금 중에서 현재 2조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최근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상선은 주력 알짜배기

업종인 자동차 운반선 사업을 15억 달러에 매각하였습니다. 김대중이 북한에 송금한 금액과 이러한 액수가 일치하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대중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공적자금을 현대에 지원하면서 현대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것입니다. 김대중은 리베이트의 일부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겠지만, 상당 부분을 북한에 뇌물로 바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현대는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일부를 북한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 독점사업권을 받은 것입니다. 북한은 현금을 챙기고 위장된 평화 생색을 내줌으로써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을 받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일꾼들이 한결같이 “현대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커백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깨고 김대중이 김우중의 대우그룹을 해체한 것과, 김정일이 “김우중이 가장 악질적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같은 맥락의 일일 것입니다. 북한의 소위 대화일꾼들이 우리의 경제원조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 많이 주었다”고 강변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이 목에 걸고 자랑스러워한 노벨상은 실로 북한 동포들의 피눈물과 절규, 그리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어우러져 응결된 결정체입니다. 지금 김대중은 잔설처럼 남아 있는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과거의 추악한 범죄 흔적을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합니다.

저는 지난 2년여 간 찬바람 부는 현실 속에서 어렵게나마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외롭게 이러한 일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비록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전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제가 얻은 정보는 진실에 가깝다고 확신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깨어 있는 민족이라야 자유와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실체적(實體的)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국민 여러분께 맡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월 30일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드림

***추신: 정보공개에 부쳐**

사랑하는 국정원 동료 및 선후배 여러분!

저는 오늘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서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보안(保安)을 위배하는 일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안을 지키는 일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년여 전, 회사를 나온 저는 이 정권의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수많은 번민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들을 알아냈고, 이제 국민과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저의 결심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정원 동료 및 선후배 여러분,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들이 당한,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더 당할지도 모를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2년여

전에 저는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며 퇴사를 결심했지만, 그때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비통한 마음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고의 세월을 참고 온 보람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민족의 운명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살아남아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글로 인해 실명이 거론된 분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염치없지만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분칠한 가면, 간첩의 초상

- 임동원의 간첩 의혹 -

서언

국민 여러분께 다시 드립니다.

조국의 안보 현실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짙은 핵 구름이 한반도 상공을 향해 빠른 속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어제(2003년 2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뒷거래에 대해 자기 나름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그 내용을 접하고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전에 “김대중은 뒤돌아서면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김대중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거짓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뻔뻔스러움에 아연할 따름이며, 영원히 구제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동정심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저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대북 뒷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은 미화로 15억 달러라고 주장합니다.

김대중은 노벨상, 4·13 총선, 그리고 정계개편을 겨냥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금강산관광 댓가 등을 포함하여 북한에 보내진 돈은 약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

사만이 이러한 뒷거래를 확실히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저는 지난 번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에서, 이 악마적 정권의 위선의 가면 뒤에 숨겨진 김대중의 본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편지에서 저는 이 정권에서 소위 ‘햇볕정책의 전도사’ 라고 불렸던 임동원 씨의 가면을 벗겨 그의 진면목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임동원에 대한 의혹

사실 그동안 임동원 씨에 대해서는 세간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출신 배경이 어떻다거나, 6·25 전쟁 중의 행적이 어떻다거나, 육사 입학시 거물간첩 최덕신이 신원보증을 섰다거나 하는 등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국정원에 재직하면서 직접 보고 들었던, 그러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임동원 씨의 의심스런 행적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 악마적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권력 핵심에 북한의 고정간첩이 있을 것’ 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같은 교활한 자는 남쪽의 심증을 정확히 꿰뚫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북대화에 응해 오지 않을 것’ 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만약 간첩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 하고 혼자서 남몰래 이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임동원이 간첩일 것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해 6월 서해사태 때 임동원 씨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우발적인 사태”라고 예단(豫斷)하면서 김정일의 지시와 개입을 부정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북 첩보에 의하면, 김정일은 1999년 6월 서해교전 후 해군사령관에게 “1년간의 시간을 줄 테니 반드시 보복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북한 해군은 보복 역량을 기르는 데 시간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1년 안에 그 지시를 이행하지는 못하고, 3년이 지난 후에야 그 명령을 정확히 수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임동원 씨가 서둘러 북한을 감싸고 돈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간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임동원 씨가 맹목적으로 북한을 감싸고 돈 것은 비단 그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99년 서해교전 시에도 임동원 씨는 북한의 의도적인 ‘영해 침범(侵犯)’을 굳이 ‘단순 월선(越線)’이라고 의미를 축소시키면서 북한의 도발을 호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육사 교수 모임에서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의 전쟁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김정일을 두둔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끝도 한도 없을 정도입니다.

한편, 임동원 씨는 김정일을 비난하고 북한의 민주화운동을 주장하는 황장엽 선생에게는 거의 연금상태나 다름없는 처지로 몰아넣으면서 일체의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황 선생은 그 동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없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으며,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는 철창 없는 감옥생활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소위 노벨상을 수상한 인권 대통령이라는 이 정권 아래에서 황 선생

의 기본적 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습니다. 국정원은 관리와 보호라는 미명 하에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가했던 것입니다. 지난 번 황 선생께서 미국에 가서 증언하겠다고 하자 임동원 씨는 “국정원에서 나가라!” 고까지 협박하면서 죽음으로 내모는 조치조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박지원의 위커힐 호텔 난동사건

제가 임동원 씨를 결정적으로 의심하게 된 것은 퇴사할 무렵 동료에게서 전해들은 에피소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0년 9월, 북한의 김용순이 전격 서울을 방문했을 때 위커힐 호텔에서 환영만찬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박지원 문화부 장관도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찬이 끝나갈 즈음, 만취(滿醉)한 박지원 씨가 갑자기 난동을 부려 행사장이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거의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국정원 내에 빨갱이 새끼가 두 놈 있다. 너희들은 정권이 바뀌면 청문회에 서게 될꺼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지원이 말한 ‘빨갱이 새끼 둘’ 이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임동원 씨와 김보현 씨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난리를 친 이유는 남북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얼굴마담 노릇을 하면서 임동원 씨와 김보현 씨의 언동에서 간첩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지원 씨 난동사건의 배경에 대해 제 나름대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박지원 씨는 한빛은행 대출비리 사건으로 코너에 몰려 있었고, 실제로 위커힐 사건이 있는 지 약 10일 후에 문화부 장관에서 해임되었

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국정원에서는 “민심 수습을 위해 박지원을 잘라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이러한 동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임동원 원장에 대해 감정이 극히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지원 씨의 입장에서는 ‘임동원이 나에게 칼을 겨누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박지원 씨를 비롯한 동교동계와 임동원 씨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후 임동원 씨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자 동교동쪽에서는 2000년 8월경 의약분업 실패 등을 이유로 대면서 “국내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을 동교동계 핵심 측근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즈음 실제로 임동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되돌아가고 국정원 직원 30여 명이 통일부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이 직접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교통정리를 하는 바람에 이 문제는 유야무야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후속 조치란 것이 북쪽으로 뇌물 잔금을 보내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임동원 씨와 동교동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또 다른 에피소드도 소개하겠습니다.

1999년 12월 임동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당시 원장 비서실장이던 최기O 씨(정규 10기, 전주고)에게 “여기는 왜 전라도 사람 밖에 없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조실에서는 부랴부랴 이영O 강원지부장을 비서실장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이야기가 좀 벗어납니다만, 이영O라는 분은 강원도 출신으로 국내 부서에서 경제분석에만 전념한 책상물림이어서 비서실장 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영O 실장은 2001년 4월 신진 원

장이 취임한 후에는 감찰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자리 역시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박지원 씨를 비롯한 동교동계와 임동원 씨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 허물어져가는 이 정권의 권력의 주축을 떠받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말이나 주고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그날 위커힐 호텔에서 박지원 씨가 벌였던 해프닝은 불문에 붙여졌습니다. 내가 짐작하기로, 이 사건은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 직원들끼리만 쉬쉬하는 문제가 되었지만, 저는 이 일로 인해 임동원 씨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원 씨에 대한 수사국의 내사 동향

퇴사 후 저는 우연히 수사국 선배에게서 “임동원은 간첩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잘 아는 수사국의 어느 동료 직원이 오랫동안 임동원을 내사해 왔는데, 99년 12월 임동원이 갑자기 원장으로 부임해 오자, 담당 과장과 상의한 후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몸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저는 그 수사국 직원 이름이 하세O이며, 부산 출신으로, 86년 경 수사 기본과정으로 입사했고, 현재는 사무관(5급)이며, 실제로 99년 12월 말 본부에서 경기지부로 전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부에 근무하는 수사국 사무관 직원이 이유 없이 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수사국의 경우 지방에서는 서기관 진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세O 씨를 만나 임동원 씨에 대한 내사 자료의 존재 여부와 내사 시기, 내사 진행 정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그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나같은 후배에게 극비에 속하는 보안 사항을 털어 놓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세O 씨가 임동원 씨를 내사해 왔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직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임동원 씨의 내사 동향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임동원 씨의 간첩 의혹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되었고, 혼자서라도 이 일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원과 북풍사건

그 후 저는 공개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임동원 씨의 행적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1998년 월간 『신동아』에 실린 권영해 전 부장의 공소장에서 임동원 씨의 대북 접촉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권영해 부장은 1998년 소위 「북풍(北風)사건」의 법정 진술에서 “임동원은 아태재단 사무총장 신분으로, 95년 10월경부터 중국의 장성호텔 등지에서 안병수 등 북측 아태위 인사들을 수차례 접촉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이 공소장을 보면서,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1998년 4월 소위 「북풍사건」이란 것을 일으켜서 한나라당을 처 죽일 듯이 난리를 치다가 ‘왜 갑자기 덮어 버렸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당시 권영해 부장 등 관련 피고인들의 입에서 임동원 씨의 간첩행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자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파고드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덮어라”고 지시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시 수사 검사들은 안기부의 공작파일 등 핵심 증거 자료는 참조하지 못하고 외부자료 없이 오로지 관련 인사들의 증언에만 의존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검사들은 “솔직히 우리도 대북관련 문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고 하며, 그래서 대북관련 사항은 덮어두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풍사건」에 대해 제가 국정원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 대북공작국에서는 임동원 씨의 대북접촉 첩보를 여러 차례 입수했다고 합니다. 「북풍사건」의 공판정에서 권영해 부장이 북한의 간첩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던 허동웅이라는 자의 입에서도 “임동원이 북한 쪽을 돕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진술이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대북공작국은 97년 초 임동원 씨에 대한 이러한 혐의점을 정리하여 수사국으로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수사국에 근무하는 모 전라도 출신 직원이 이러한 동향을 민주당으로 유출시켰다고 합니다. 소위 「북풍사건」을 둘러싸고 안기부와 민주당 간의 정보전쟁은 이미 97년 초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천용택과 정동영이 이 정보전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의 짐작으로는, 수사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임동원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북공작국으로부터 임동원 씨에 대한 공작 자료를 이첩 받았을 것입니다. 권영해 부장은 수사국과 대북조사국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보고받아 임동원 씨의 간첩활동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권영해 부장이 소위 「북풍사건」이란 것에 휘말렸던 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것처럼 선거 직전에 무모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권영해 부장이 조기에 석방된 것도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사실 저는 그 후 권영해 부장과 김대중 간에 엄청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은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임동원씨의 의심스런 여러 가지 행적들

사실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 임동원 씨의 역할이 이렇게까지 막중하게 되리라고 짐작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정권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한 임동원 씨는 과히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서 시작하여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다시 통일부 장관, 그리고 탄핵을 받고서도 다시 외교안보통일특보로 청와대로 재임성하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안보 관련 수장을 완전히 한 바퀴 사이클링한 것입니다.

그는 통일부 장관으로 되돌아간 후에도 국정원의 대북 부서를 마치 제 부하 다루듯이 취급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대통령 및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황장엽 선생도 김대중과 임동원을 “북한과 깊숙이 결탁한 관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초기, 이종찬 원장과 라종일 차장은 햇볕정책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임으로써 임동원 씨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보

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안보라인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을 제거하고 난 후 임동원 씨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허울 아래, 가히 굴욕적이라고 할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박재규, 홍순영, 정세현 등 역대 통일부 장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안보 관련 수장(首長)들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면서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4월, 엄익준 차장이 죽기 직전에 임동원 씨는 엄 차장의 손을 잡으며 “이 다음에 장관으로 천거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장관 자리 하나 정도는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권 초기, 대북 첩보 수집부서에서는 “남북관계가 잘 풀리려면 임동원이 책임 있는 자리에 나서야 한다”는 북한 쪽의 첩보가 수시로 입수되었습니다. 북한이 남쪽과 대화할 때 남쪽 대표가 북한 출신이기를 선호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아주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사전에 북한과 입을 맞추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동원 씨가 간첩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임동원 씨의 옛날 행적을 몇 가지만 더 더듬어 보겠습니다. 임동원 씨는 91년 남북합의서 체결 시에 우리 측 실무대표로 북한을 십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북한 측에서 그에게 누이와의 만남을 몰래 주선해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임동원 씨의 심정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임동원 씨와 북한 간에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후 임동원 씨가 이른바 훈령조작 사건을 언론에 흘려서 대북 강경론자

인 이동복 특보를 낙마시켜버린 사건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94년 초, 임동원 씨는 김대중이 설립한 아태재단(亞太財團)의 제2대 사무총장으로 앉았습니다. 북한의 김용순은 94년 7월, 마치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하고 공개적으로 아태재단과의 교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러한 용어를 선택한 점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주체사상을 주장하던 시절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그들에게는 생경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시아태평양’ 일까요?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추지 않고서는 붙이기 힘든 명칭이 아닐까요?

임동원 씨가 아태재단의 사무총장으로서 비밀리에 북한과 접촉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임동원 씨와 김용순은 95년에서 97년까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임동원 씨와 김용순은 동갑 나이이지만 서로 개인적인 스타일은 판이합니다. 그런데도 둘 사이는 대화가 아주 잘 통합니다.

저는 또한 임동원 씨가 북한의 대남문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임동옥(춘길) 아태위원회 제1부위원장과도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의심할 질게 가지고 있습니다. 임동옥은 임동원 씨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입니다. 저는 이 시기의 임동원 씨의 대북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그의 간첩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임동원 씨의 행적에는 너무나도 의심스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는 항상 결벽증에 걸린 사람처럼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면서 뭔가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과잉 보안의식은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부하직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이 수족처럼 부리는 보좌관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초기인 이종찬 원장 시절, 임동원 씨는 이상스럽게도 손발을 맞추어야 할 안보관련 고위인사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할 안보 장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김보현 대북전략국장은 직속 상관인 라종일 차장과 이종찬 원장을 제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임동원과 직거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명령과 복종을 중시하는 국정원의 분위기로 볼 때, 이러한 일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천용택 원장 시절인 1999년 하반기,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임동원 씨는 미국을 방문하여 페리 전 장관 등 미국측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때에도 임동원 씨는 자신의 행적과 협의 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국정원 파견관을 의도적으로 따돌렸습니다. 당시 최덕만 샌프란시스코 파견관은 임동원 씨의 방미활동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천용택 원장으로부터 “당장 철수하라!”는 질책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임동원 씨는 당시 자신의 통역관에게 “누구에게도 통역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최덕만 영사는 해외공작국 북미과장 시절에 일을 너무 간간히, 열심히 하는 탓에 부하직원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2001년, 저는 그분이 위장암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직업병으로 돌아가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분이 동향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임동원

씨는 극비리에 행동해야만 했을까요?

2000년 초, 임동원 씨는 국정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모든 해외 파견관들에게 대북 비선(秘線)접촉라인을 개척하라고 특별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북경에 파견된 통일부 직원(통일관)이 국정원 몰래 대북 비선라인 구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일관은 대북 브로커인 흑민경(흑룡강성 민족경제위원회) 사장 최수진이란 자를 통해 아태위의 김완수 참사와 연계해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동향을 보고받은 임동원 씨는 필요 이상으로 격노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통일부 직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임동원 씨의 그러한 과잉 반응은 도무지 의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임동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동안 가장 고통을 받았던 직원들은 단연 북한국(北韓局) 분석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국 동료들로부터 “도대체 원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푸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보고서를 올려도, 북한에게 조금만 불리한 내용이면, 어김없이 질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임 원장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북한국의 분석관들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전혀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임동원의 대북 커넥션

저의 견해로는, 2001년 3월에서 8월까지가 임동원 씨와 북한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3월 초,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팀이 채 구성되지도 않은 때에 성급하게

준비도 안 된(?) 미국 방문으로 처참한 외교적 실패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뒤에 알려진 바를 참고해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은 이때 김정일의 5월 남한 방문과 평화선언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의 양해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방미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가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본 북한은 즉시 계획되었던 ‘장관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발표했다는 점과, 3월 27일 임동원 씨가 국정원장에서 밀려나자마자 이틀 후인 3월 29일 모든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점입니다.

그해 3월 중순 방북했던 김한길 문화부 장관과 오사카 탁구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던 북한이, 임동원 씨가 국정원장직에서 경질되자마자 일체의 남북접촉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중앙일보 최원기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이 시기에 북한에서도 김용순이 체포되는 등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숨 가쁘게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임동원 씨가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2001년 3월 말 임동원 씨는 이임하면서 당시 대북전략국 김만O 1단장에게 남북정상회담 녹음테이프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만O 단장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박모 과장, 윤모 팀장 등에게 자료파기를 지시했으나, 이들이 “책임질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당시에는 이를 파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테이프들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아니면 결국 파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테이프를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전략1과에 잠시 근무

하는 동안 정상회담 녹취록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1급 비밀로 분류되어 5~6부 정도 발간되어 청와대 등에 배포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녹취록은 테이프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서둘러 파기하려고 한 임동원 씨의 저의가 아주 궁금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에 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 간헐적으로 흘러나온 것도 있고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기도 하여, 제가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상회담이라면 당연히 남북의 정상인 김대중과 김정일이 모든 사항을 직접 논의해야 옳을 것인데, 녹취록의 대부분은 임동원 씨의 발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정상 간에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은 보이지 않고, 마치 임동원 씨가 남북 양쪽의 중개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1년 4월, 김대중은 신임 신건 국정원장에게 “북한이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한 이유를 분석 보고하라”고 지시, 대북전략국의 안태원 종합과장이 중심이 되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안 과장은 국정원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그 즈음 미국대사관 직원에게 보안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어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김대중은 그 당시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국정원에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짐작됩니다.

김대중은 ‘김정일이 이미 받을 것 다 받아 챙기고 이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대중은 자신이 방미하여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지

못한 데 대해 김정일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북 관련 직원들만 감쪽같이 속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히 김대중의 ‘악마적 통치술’이 발현된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임동원 씨가 통일부 장관으로 되돌아간 2001년 4월 이후, 남북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부터 몇 달간 임동원 씨의 북한에 대한 자세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 출연해서는 대북 전력지원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하는 등, 그 전의 일방적인 ‘폐주기’와는 상당히 다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1년 5월, 김정남의 일본 밀입국 체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난 번 편지에서 ‘이때 김정남이 일본에서 김한정을 만나기로 약속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2001년 6월, 김정일은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와 제주해협을 통과하도록 지시하여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저장도 긴장을 유발하였습니다. 아마도 김정일은 우리 정부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해군이, 어떻게 대응해 나오는지 떠보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이 시기 임동원 씨는 북한의 파트너인 김용순의 입지를 강화해 주려고 탄지를 걸고 있었고, 김정일은 임동원 씨의 입지와 태도를 시험해 보려고 의도적으로 도발을 감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간첩과 간첩을 부리는 자 간의 의사전달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2001년 8월, 8·15 방북대표단 문제에도 임동원 씨는 예상 외로 대표단 파견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말썽 많았던 대표단 파견은 김대중이 북측의 전화를 받고나서 직접 결정하여 임동원 장관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2001년 8월 14일, 아침까지만 해도 대표단 파견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임동원 씨가 오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접 지시를 받은 후 대표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8월 14일 오후에 부랴부랴 대표단을 구성하다 보니 온갖 ‘오사리잡놈’이 다 끼인 대표단이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방북 시의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행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급조된 대표단이 북한에 가서 벌인 행각은 아직도 국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은, 대표단 파견 과정에서 당시 북한쪽 일꾼들 사이에서는 “이제 임동원씨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이전까지는, 또는 그 이후에는, 임동원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맺음말

국민 여러분, 이상으로 제가 임동원 씨를 간첩이라고 의심하게 된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공개하는 데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지라 무리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발표하게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마도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의 수장(首長)이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저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는 이러한 엽기적인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난 번 저의 편지에서도 확인하셨을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동안 김정일이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깔본 이유’를 짐작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란(累卵)의 형국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김정일은 “미군만 없으면 3일이면 남한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김정일은 “통일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안보 거부감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떤 놈들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을까요?

저는 임동원 씨가 서독의 빌리브란트 수상인 개인 수행비서였던 쿤터 기욤이나, 지난해에 죽었다는 베트남의 부응옥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임동원 씨의 위치와 역할로 볼 때 그들보다도 훨씬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것으로 봅니다.

며칠 전에 임동원 씨는 “햇볕정책의 모든 업적은 대통령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김대중의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권력 핵심에는 크고 작은 간첩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정권의 최고 핵심 실세의 할아버지가 해방 직후 빨갱이로 활동하면서 자금조달을 위해 위조지폐를 제조하다가 검거되었

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정권 내내 모든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한 핵심인사의 형이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있으며, 오래 전부터 김대중과 활발히 연계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를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정황으로 보아 근거 없는 말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해 전에 국군기무사의 모 간부가 청와대 모 인사의 간첩혐의를 조사하다가 강제로 전역 조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국정원 수사국의 모 직원도 청와대 모 인사의 간첩혐의에 대해 수사계획을 작성해 올렸지만, 부서 상관으로부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하는 질책을 받고 사건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 정권에서 간첩이 검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득시글거립니다. 문제는, 간첩 떼거리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못 잡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간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조국의 안보가 극히 위태롭습니다. 저는 2000년 7월 월간조선에 실린, 이대용 공사가 쓴 ‘월남 적화 과정과 요즈음 한국사회’라는 글을 한 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글에는 우리와 일란성 쌍둥이라 불리는 월남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수사국의 간부들도 그 글을 회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직도 영 희망이 없는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땅굴을 찾아내기 위해 힘쓰던 어느 애국자가 수원 부근에 있는 땅굴 현장에서 과로로 숨졌다고 합니다. 땅굴을 찾아내야

할 국방부와 국정원은 오히려 갖은 방법으로 민간 땅굴 탐사자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침용 땅굴을 발견하고자 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저들의 방해로 인해 접속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합니다. 자유는 공기나 물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애국시민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국민만이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 외침이 부질없는 메아리로 그칠 때, 우리 조국의 운명은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3년 2월 14일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드림

***추신: 사랑하는 국정원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악마적 초상을 공개한 데 이어, 우리가 원장으로 모셨던 임동원 씨의 가증스러운 초상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도 저를 조직에 누를 끼치는 철없는 배신자라고 생각하실 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퇴사한 후에도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직을 지키고 싶고, 조직이 바로 서는 모습을 보고 싶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심정을 이해해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정원 동료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들 사이에서는 “조국의 안보를 조선일보에 맡기고 있다”는 자조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조국의 안보니 통일이니 하는 거창한 구호는 남의 이야기인 양 치부하고 ‘월급봉투와 월초 수당에 목을 매는 초라한 월급쟁이의 쪼들린 삶’을 살아온 우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대의(大義)에 목숨을 거는 자랑스러운 국정원 직원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당당한 자세를 지닌 국정원 직원의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겸손한 국정원 직원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저의 행동이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이며, 저의 결심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3. 거짓의 희극, 도청의 진실

-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 및 감청 실태 -

서언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드립니다.

조국이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글을 통해 김대중 정권의 위선과 기만,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여러분께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노벨상 공작과 대북 뒷거래 송금, 그리고 임동원 씨의 간첩혐의를 밝힌 저의 글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악한 무리들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부도덕하고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들의 졸렬한 대응에 꽤넘치 않습니다만, 때가 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저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믿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특검제가 도입되어 진실 규명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특검제를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조국애가 발현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실제적 진실이 발견되는 그 순간까지 망심하지 말고 경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편지에서,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도청 문건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거짓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자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은 죄악입니다. 한 개인의 거짓도 용서될 수 없는 것이거늘 하물며 국가가 조직적으로 거짓을 조장한다면 더욱 더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말이 국가권력으로 옹호되고 권장되는 사회에서 교육부장관을 열 번 바꾸고 교육개혁을 백 번 외쳐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진정 후세대에 게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도청 문건과 관련하여 신진 원장은 이제까지 이루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번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국정원장으로서 그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은 이제 용인(容忍)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의 거짓말을 들을 때마다 국정원 직원의 업보(業報)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는 민주당 대변인과 청와대 비서실장마저도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우기면 된다’는 저들의 천박하고 저열한 발상에 치가 떨리도록 분노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거짓에 대

해 단 한 번만이라도 엄정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도청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다. 이 문건은 국정원 내에서 ‘메모 보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때는 ‘물가정보’라고 불린 적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줄여서 ‘메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2002년 9월, 한나라당에서 도청 문건을 폭로한 후 신건 원장은 과학보안국을 해체하고 일부 인원과 기능을 수사국과 외사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저는 과보국이 해체되기 전 상황을 중심으로, 현재 시점에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 보고서는 국정원 내에서 가장 민감한 보고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정원 내에서도 이 보고서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90년대 중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서인 대공정책실에서 부서장의 보좌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보고서를 직접 담당할 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모 보고서의 생산과 유통

메모 보고서는 과학보안국(당시 8국)에서 생산합니다. 과학보안국은 국내 통화와 국제 통화를 도·감청하는 부서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국정원 내에서도 음지(陰地) 중의 음지 부서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조차 과학보안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국정원의 진정한 힘의 원천(源泉)은 바로 과보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과보국에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 부서는 3교대로 운영되었습니다(*그 후 4교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확인은 못했습니다).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모든 유무선 통신을 무차별 도·감청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감청도 없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은 불법으로 도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도·감청의 분야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내용이 많 습니다만,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 도·감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공정책실에 근무하던 당시, 대구대학교의 학내 문제와 관련 재단측과 반 재단측이 오랫동안 분쟁하였습니다. 재단측의 모 인사가 외국에서 국내로 전화하는 내용이 오랫동안 이 보고서에 실렸 습니다. 당시 반 재단측의 주요 인사가 이번에 교육부 장관에 오른 사 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휴대전화도 도·감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통신의 011- 전화는 오래 전부터 도청된다는 것은 국정원 내에서는 상식입니다. 언제부터 인가 국정원 직원들은 011- 에 가입하기를 꺼려해 왔습니다. 저는 퇴 사하기 전인 1999년도에 기조실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구입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 다. 지금은 모든 휴대전화의 도·감청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의 형식은 지난 번 한나라당이 언론에 공개한 그대로입니 다. 통화자들의 대화를 그대로 녹취한 것이 아니라, 통화 내용을 개조(改組) 식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평가나 해석은 달지 않습니다. 가 능하면 원 통화자의 발언 내용을 살립니다. 문체(文體)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세련되지 않은 문체일수록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 국정 원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否認)하기 쉽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과보국은 도청한 자료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온라인으로 각 부서에 배포합니다. 이 보고서는 배포선(配布先)에 따라서 각 부서의 부서장실에 특정되어 있는 컴퓨터 단말기에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쇄는 안 됩니다. 도청한 자료 중에서 극히 민감하고 중요한 것은 메모 형태로 작성하여 인편으로 차장실에 배포하기도 합니다. 이 메모는 B5보다 작은 조악한 용지에 거칠게 인쇄된 것입니다. 이 또한 유출에 대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분량이 많지 않는 해외부서의 경우 보좌원이 아침마다 중요한 내용을 추려 필사(筆寫)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서의 분량이 많은 대공정책실의 경우, 이 보고서를 필사하는 직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필사를 전담하는 이 직원을 흔히 메모 보좌관이라고 부릅니다.

메모 보좌관은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개 서기관(4급) 고참이 담당합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인 김대중 정권 초에는 정치과 출신 6급 직원이 한동안 이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메모 보좌관은 대개 아침, 오후, 퇴근 전 등 하루에 세 차례 정도 보고합니다. 한 번에 보고하는 분량은 10여 쪽에 달합니다.

메모 보좌관은 무척 피곤한 자리입니다. 아침 보고를 위해 매일 새벽에 출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종일 골방에 혼자 앉아 모니터만 쳐다보며 무미건조하게 베끼는 단순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은 침침해지고 손가락 마디에는 굳은살이 박힙니다. 남의 말을 엿듣는데 남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속된 말로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보직을 마치고 나면 대개 진급시켜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메모 보좌관이 필사한 메모는 부서장이 먼저 읽고, 부서장이 다 읽고

나면 통상 부속실의 보좌원이 부서 내에 유통시킵니다. 보좌원은 먼저 부(副)부서장들에게 이 보고서를 일일이 전달하여 회람시킵니다. 부서장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담당과장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부속실에 와서 부서장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메모를 다시 메모해 가야 합니다.

메모 보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하거나 찢어갈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아주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이 또한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유통을 마친 메모 보고서는 보좌원이 책임지고 파기합니다.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대장(管理臺帳)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폭로한 자료는 이렇게 파기되었어야 할 것이 파기되지 않고 바깥으로 나온 것을 다시 워드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생산부서인 과보국에서 낸 것이 아니라 대공정 책실에서 유출된 것인 듯합니다.

이렇듯이 메모 보고서는 내용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생산 목적이나 활용 방법 등에 있어서도 일반 정보보고서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는 대통령이나 원장 등 상부(上部)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원재료가 되는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모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부서에서는 정보보고서의 생산에 참고하고, 수집 부서에서는 추가정보 수집에 활용합니다.

맺음말

저는 국정원의 도·감청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

니다. 저는 우리의 헌법과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도·감청이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남파간첩과,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김정일의 톨마니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도·감청보다 더한 불법적인 방어활동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도·감청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도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불법적인 도·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사찰이나 하고 있으니 당연히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책임자들이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이 처연한 코미디는 여기서 그쳐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에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받고 있는 심 모 과장이라는 분은 이 보고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분은 대공정책실 학원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능력 있고 민완한 정보관이었습니다.

지난 80년대에 학원 문제가 시끄러울 때 그분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여러 번 포상과 특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기(정규 16기)에 비해 진급이 빨랐고, 선후배들 간에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지역차별로 인해 오랫동안 부이사관으로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대북전략국(당시 5국)에 황장엽 선생 관리과가 신설되었을 때 대공정책실 경제과에서 옮겨와 겨우 과장으로 진급

했습니다.

이건모 전 검찰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청 문건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검찰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하게 일을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강직한 분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1999년 5월 말 천용택 원장이 부임했을 때, 출신 지역을 믿고 조직을 우습게 여기던 최 모 감사관(2급) 등 목포상고 출신들을 전격적으로 척결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4월 초 신건 원장이 부임했을 때에는,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정성○ 전 경제수집 2과장의 비리조사 자료를 가지고 원장에게 독대(獨對) 보고했다가 광주지부장으로 좌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신건 원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검찰의 조사는 분명히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입니다. 조사해야 할 국정원의 도청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도청 문제를 조사한 자체 검찰보고서의 유출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번에 검찰을 꼭 켜” 것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이 일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에도 몇 마디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선 직전 이 문건을 폭로하여 표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큰 오판(誤判)입니다. 한나라당도 잘 알고 있다시피 국정원의 도·감청은 김대중 정권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한나라당도 깨끗한 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구태정치라는 역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재였습니다.

선거가 불리하다고 해서 국익(國益)과 당리(黨利)도 구분하지 못한 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다. 밝히려고 했다면 전모를 당당하게 다 밝히든가, 아니면 영원히 덮었어야 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짚끔짚끔 흘리면서 선거에 전술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당장에라도 검찰에 당당히 나가 협조해야지, 지금처럼 여론이나 살피면서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에 신진 국정원장에게 몇 마디 권고드립니다. 이제까지 신진 원장은 자의든 타의든 국민을 상대로 무수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제 재임(在任)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동안의 거짓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 길만이 국정원을 살리고 자신도 사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저를 「국정원직원법」으로 고소하는 따위의 유치한 짓은 삼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의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지도 모를 과학보안국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여러분은 욕을 먹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일의 마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머지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소동(騷動)은 국정원이 바로 서기 위해 치러야 하는 아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담히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3년 3월 24일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올림

제2장 김대중 정권의 노벨상 수상 공작

1. 기자회견에 즈음하여

안녕하십니까? 김기삼입니다.

저는 오늘 김대중 정권의 노벨상 수상 공작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김대중 정권 5년간 국가 통치권자에 의한 반역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에 눈이 멀어 우리의 조국에 반역행위를 했다고 믿습니다(아래에서는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중 씨는 노벨상 수상을 공작하기 위해 햇볕정책이라는 기만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노벨위원회가 자신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인권만으로는 부족하고 “남북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breakthrough)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김대중 씨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에게 비밀리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저는 2003년 1월 발표한 글에

서 “남북이 정상회담 대가로 15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족에 대한 배신이고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김대중 씨를 ‘악마적인 사기꾼’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김대중 씨의 노벨상 수상 자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중에 누구라도 노벨상을 받을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이 정책 자체로서 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책이란 것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구사하는, 그야말로 ‘취사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햇볕 정책 뒤편에 감춰진 김대중 씨의 노욕(老慾)입니다.

김대중 씨는 자신이 5천년 민족사의 최고의 민족지도자로 추앙받으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2전국위원회라는 기구가 김대중 씨를 우상화하기 위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받기만 하면 국민이 자신을 떠받들어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햇볕정책은 처음부터 김정일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햇볕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 김정일에게 무한정 퍼주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술책이었습니다. 햇볕정책은 국제사회와 노벨위원회를 속여 한반도에 평화가 조성되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노벨평화상을 타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 김대중 씨는 정권 차원에서 로비와 공작을 벌였습니다.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노벨상 수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동원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국정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국정원은 ‘반역의 종범’ 노릇을 했습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 본연의 일은 눈치를 봐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대북 공작은 쓸 데 없는 짓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일에게 몰래 퍼주는 데 적극 나서다

가 급기야는 적에게 군자금(軍資金)을 대주는 데까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은 김대중 정권이 제공한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상시적인 핵 공갈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안보를 지키는 데는 소홀히 하고 안보를 허무는 데는 열심히 나섰던 결과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도 망가졌습니다. 김대중 씨는 김정일과 야합하면서 시종일관 동맹국인 미국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동맹국의 군사적인 협조 요청은 외면하면서도 우리의 국익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동티모르에는 군대를 파견하고 전폭적인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번 노벨평화상 수상자였던 동티모르의 호르타 외무장관으로부터 노벨상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은 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적이 먼저 쏘기를 기다려야 하는 한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서의 우리의 군사적 우위는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굴욕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에게 돈을 대기 위해 특정 기업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공적 자금을 편법 지원해주고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대중 정권 시절 현대그룹에 지원한 공적 자금은 34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출금 중 일부는 이미 상환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햇별정책에 비협조적이었던 모 기업은 시범 케이스로 공중분해 시켜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가 특혜대출 받은 자금 중의 일부는 김정일에게 갚다 바치는 데 쓰였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김대중 자신이 착복

하여 스위스, 홍콩, 미국 등지에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정권은 1989년부터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세계청년축제 같은 정치적인 행사에 국력을 지나치게 낭비한 나머지 경제가 소생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90년대 중반, 북한 내에서는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탄생한 1998년 즈음, 김정일 정권은 붕괴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가 다 죽어가던 김정일을 살려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그만큼 연장되었습니다.

김대중 씨는 자신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치적을 과장 선전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물론 노벨상 수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행동하는 양심’ 이나 ‘아시아의 만델라’ 등의 갖가지 신화가 조작됐습니다. 국가의 모든 홍보기관이 김대중 씨의 개인 선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국제 사회에서는 ‘홍보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뒤따랐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인권 수호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외국에 입양된 장애아를 초청하여 한바탕 쇼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쪽 동포들의 참혹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탈북한 동포들을 다시 사지(死地)로 내모는 비정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벨상위원회가 관심을 표명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전향 장기수를 조건 없이 대거 복송했습니다. 겉으로는 인도주의(人道主義)라는 포장지로 감쌌습니다. 정작 우리의 남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병긋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명예를 건지기 위해 우리나라의 명예는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민주화 투사임을 자처하던 김대중 씨가 국정원을 동원하여 불법 도청을 확대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자신의 정적을 감시하기 위해 그 어느 정권보다 정보기관을 남용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나서 언론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세무조사를 통해 보복했습니다. 유력 언론사 대표들이 줄줄이 투옥되고 언론사 사주 부인이 투신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한낱 메달에 눈이 먼 한 개인이 국가최고통치권자의 직위를 악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비극의 가장 밑바탕에 ‘저주받을 노벨 평화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아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라도 김대중 씨의 반역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합당한 사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나서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권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기울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임승차자들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내가 왜 이처럼 이역(異域) 하늘 아래에서 숨어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 수없이 자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옛날 중국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이 죽기 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취해서 잠자고 있는데 나 혼자 깨어 있다가 이렇게 내몰리게 되었다”고

자조(自嘲)하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권세에 의아(依阿)하여 만고에 처량해지기보다는 양심을 지키다가 일시적으로 외로워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진실과 양심에 비취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드림

2. 김대중 정권의 노벨상 수상 공작 개요

98/03/03 이종찬 국정원장, 스웨덴 미카엘 술만 노벨재단 이사장과
만찬. 술만 이사장은 외무부 주최 아셈회의에 스웨덴 대표로 방한.

98/05/18 이종찬 원장, 스웨덴의 한영우 박사와 면담. 한영우 박사는
오랫동안 스웨덴 정부의 공의(公醫: 주치의)로 근무, 스웨덴 정부 고
위 인사와 친밀한 교분 유지.

98/05/×× 이종찬 원장, 김한정 특채, 노벨상 공작 담당관으로 임명.
김한정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재학 중 운동권으로 활동한 후 미
뉴저지 주 럿거스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1988~92년
간 김대중의 공보비서로 근무. 92년 간첩 이근희를 이상수 의원에
게 소개.

이종찬 원장, 조준오 특채, 노벨상 공작 담당원으로 임명. 조준오는
김대중의 측근인 전 대법관 조승형의 조카로서 1998~2000년간 김
한정의 비서(조수) 역할을 함.

김한정은 2000년 중반 조준오의 후임으로 김형민을 발탁하는데. 김
형민은 현 외환은행 부행장(*이른바 론스타의 '검은 머리 대주주'
가 김대중일 가능성을 시사함).

98/06/10 양세훈 노르웨이 대사, 가이르 룬데스타드 노벨연구소장과

만찬. 양 대사는 룬데스타드에게 김대중의 대내외 업적을 설명.

98/06/11 양세훈 대사, 프란시스 세제르스테드 노벨위원회 위원장과
오찬. 양 대사는 세제르스테드 위원장을 향한 초청함.

98/07/06 양세훈 대사, 헬게 파로 노벨위원회 고문과 만찬 회동. 양
대사는 파로 고문에게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설명.

98/08/xx 이종찬 원장, 대외협력보좌관 제도를 신설하고 이종훈 이
사관을 임명. 이 보좌관은 전주고, 육사 출신(24기)으로 노르웨이
연수·파견, 동구과장, 구주단장 등을 역임한 노벨상 업무 전문가.

98/09/29 이종찬 원장, 서울에서 한영우 박사와 면담.

99/01/04 김한정, 한영우 박사 방한 초청. 김한정은 한영우의 서울
체류 시 모든 비용과 편의 제공.

99/02/10 김한정, LA 교포 치과의사 강대인과 이희호 저 『내일을
위한 기도』 출판 논의.

99/02/25 김한정, 건너 스톨셋 노벨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초청. 스톨
셋 주교는 노르웨이의 김수환 추기경으로 비견되는 인물. 김한정은
스톨셋 부위원장의 김대중 예방을 배설.

99/03/12 스톨셋 주교, 김한정에게 초청과 환대에 대한 감사 편지.
스톨셋은 2000년 6월, 김대중에게도 감사 편지 발송.

99/05/22 김대중, 이종찬 국정원장을 경질하고 천용택 임명. 이 원장
은 익일 국정원 고위간부 인사안을 결재할 예정이었는데, 동고동에

서는 이 원장이 차기를 노린다고 판단하고 전격 경질함.

99/05/31 천용택 원장, 김한정을 국정원에서 해임. 김한정이 아태민주지도자회의(FDLAP) 사무부총장으로 복귀한 후 노벨상 공작은 FDLAP 명의로 진행(*FDLAP 의장은 99년 3월 김상우 전 의원에서 한승주 전 장관으로 변경).

99/06/22 김한정, FDLAP 주최 버마 민주화 전략을 위한 국제 비민간기구 포럼 개최. 김한정은 동 행사에 안 램스타드 라프트 재단 부위원장을 방한 초청하고, 김대중 예방을 배설. 국정원은 램스타드 부위원장의 황장엽 면담을 주선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제공.

김한정, 동 행사에 노르웨이 단체 월드뷰 라이츠의 루네 허쉬빅 사무총장, 에릭 솔하임 의장을 방한 초청(*월드뷰 라이츠는 노벨상 수상식 후 축하 콘서트를 담당하는 기구임). 허쉬빅과 솔하임은 포럼에 참석한 후 마이클 잭슨 공연 관람(*당초 이 마이클 잭슨 서울 공연은 김한정이 노벨상 공작의 일환으로 기획했던 행사임).

99/07/04 김대중,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 수상.

김한정은 토마스 포글리에타의 지원을 받아 동 메달 수상에 성공. 포글리에타는 필라델피아 민주당 다선 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정부의 주이탈리아 대사로 재임. 그는 오랫동안 김대중 추종자로 활동한 공로로 김대중 노벨상 수상 행사장에 참석한 2명의 외국인 중 한 명임(*당시까지 동 자유의 메달 수상자 중 과반수가 노벨평화상도 수상. 이 상을 수여한 후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 공작은 본궤도에 진입. 이후 김대중은 김한정에게 노벨상 수상 공작에 대한 전권을 부여).

99/08/28 김한정, 스웨덴어 판 『감옥에서 대통령까지』 출간. 이 책은 김대중의 옥중수기를 스웨덴어로 번역한 것임. 이병춘 스웨덴 파견관(참사)이 동 책자 발간 특명사업을 총괄. 원장이 이 참사에게 특명사업을 지시하고 연장 근무를 명령.

한영우 박사가 동 출판 공작에 핵심 중개인 역할을 담당. 스웨덴 교포 최병은(김대중 추종자) 가족이 번역 담당. 팔메 여사가 서문을 쓰는 등 스웨덴 유력 인사 참여. 출판 소요경비는 김한정이 국정원 자금으로 지급.

99/08/31 김한정, 이종찬 전 원장을 대동하고 스웨덴·노르웨이 출장. 자서전 출판 후 현지 분위기를 탐문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김한정과 이종찬은 스톡홀름 주교 및 기타 유력 인사들과 면담.

99/09/29 박경태 노르웨이 대사, 가이르 룬데스타드 노벨연구소장과 오찬. 박 대사는 금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누가 될 것인지 문의.

99/12/03 국정원 ‘노벨상 100주년 기념 전시회(2002년 예정)’에 정부 차원의 경비지원 요청에 반대. 국정원은 예산 지원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사업 소요경비는 약 20억(200만 달러) 정도로 예상).

99/12/14 김대중, 김한정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 당시 김한정은 36세로, 전례 없는 발탁 인사였음.

김한정의 부속실장 취임 후 노벨상 공작은 청와대 주도로 진행. 김한정은 한영우 박사, 박경태 노르웨이 대사, 문정인 연세대 교수, 박노용 국정원 북구팀장 등에게 직접 지시.

김한정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 외무장관 호르타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99년 6월~99년 12월간 수차례 동티모르를 방문하여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 파견과 국회의사당 건축 지원 약속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문제 협의.

김한정은 99년 12월 김정일 장남 김정남과 남북정상회담을 뒷거래한 것으로 추정(*회담 대가로 15억 달러 제공 합의설).

2000/01/01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의 방북 관련 협의. 허쉬빅은 북측 윤이상 앙상블의 노르웨이 방문 공연과 남북한 판문점 평화 콘서트 공연을 협의하기 위해 윤이상의 장녀 윤정(미국 거주)을 대동하고 방북, 윤이상의 처 이수자(평양 거주)와 만남.

00/01/15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의 방북 결과 브리핑 받음. 허쉬빅은 “이수자가 윤이상 앙상블 공연과 관련 김용순과 협의했다”고 언급.

00/01/20 김대중 ‘노벨상 100주년 기념전시회’ 재정 지원 지시. 김한정은 한영우에게 김대중의 지시를 직접 전달. 국정원은 스웨덴 파견관의 보고에 극도로 당황한 모습. 외무부도 몹시 곤혹스러워함.

00/01/22 김한정 등 대외언론홍보 관련 핵심인사 비밀회동. 청와대가 모든 홍보활동을 총괄(컨트롤 타워)하기로 결정. 주 1회 홍보조정회의를 개최기로 결정.

00/01/xx 쟈 엘리자손 스웨덴 외교차관, 한영우 박사와 방북 관련 협의. 엘리자손은 2000년 3월 방북할 예정으로, 김대중의 대북 메

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국정부의 비밀 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

한영우, 엘리자손의 방북에 관한 김한정·박지원의 입장을 제보. 한영우는 “김한정과 박지원은 국정원이 동 외교차관의 비밀 방북 문제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매우 안 좋게 생각한다”고 언급.

한영우, 손명현 스웨덴 대사의 김대중 언급 관련 제보. 손 대사는 “공관장 회의차 방한 시, 김대중이 엘리자손의 방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김대중이 ‘엘리자손이 놀랄만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고 전언.

00/01/27 김한정, 동티모르의 구스마오 대통령, 라모스 호르타 장관 방한 초청. 김한정은 이들에게 국회의사당 건립 등 지원을 약속. 호르타의 노벨상 추천 대가로 거액 전달(*삼성이 스폰서).

00/02/01 2000년 노벨평화상 추천 마감.

00/02/03 박경태 대사, 가이르 룬데스타드 노벨연구소장과 오찬. 박 대사는 (CIA 관점에서) 북한 정세를 설명하고, 한국의 경제위기(IMF 사태) 조기 극복이 김대중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자랑.

00/02/15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 허쉬빅의 2차 방북 관련 논의.

00/02/29 김한정, 한영우 박사와 마이클 술만 노벨박물관장 방한 초청. 김한정은 한영우와 엘리자손의 3월 방북시 김정일에게 전할 대북 메시지 전달 문제를 협의하고, 마이클 술만 노벨박물관장과 ‘노벨상 100주년 기념전시회’ 경비 지원 문제를 마무리.

김한정은 술만의 김대중 대통령, 이종찬 전 원장, 박지원 문화부 장관, 유종근 전북지사 등과의 면담을 배설(유종근 지사가 방북 메시지 전달자로 지목된 것으로 추정). 술만의 방한 초청 경비(약 2만 달러)와, 한영우에게 지급한 사례금(2만 달러)은 국정원 예산에서 집행. 노벨박물관과 호암재단은 의향서(the Letter of Intent)를 교환하고, 호암재단이 동 기념전시회 경비 전액을 부담기로 합의.

00/02/31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만찬 회동. 허쉬빅의 2차 방북과 윤이상 앙상블 노르웨이 방문 초청 공연 등 협의.

00/03/10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오찬 회동. 허쉬빅은 “북한이 윤이상 앙상블 핵심 연주자의 부상을 핑계로 노르웨이 방문 콘서트를 취소했다”고 전언.

00/03/17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오찬 회동. 허쉬빅의 2차 방북과 남북한 판문점 평화콘서트 등 논의.

00/03/18 켄 엘리아손 스웨덴 외교차관 방북. 엘리아손은 김영남 의장, 백남순 외상 등과 면담.

00/03/31 박경태 노르웨이 대사, 스톨셋 주교 부부 초청만찬 회동. 박 대사 스톨셋에게 베를린 선언과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해 설명. 스톨셋은 박 대사에게 베를린 선언 관련 자료 제공 요청.

00/04/07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통화. 파견관은 허쉬빅에게 북쪽과 직접 연결선을 구축하도록 조언.

00/04/10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면담. 허쉬빅과 김용순의 직접 채널 구축 등에 관해 협의.

00/04/11 한영우 박사, 스웨덴 엘리아손 외교차관의 방북 결과 청취. 엘리아손 차관은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놀랐다”고 언급. 엘리아손은 “방북 시 북측에 정상회담 개최를 권고했는데, 북측 인사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

00/04/14 박광태 대사, 룬드 전 주한 대사 만찬 참여, 스톡홀름 주교와 면담. 박 대사는 남한의 인권상황과 국가보안법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 스톡홀름은 비전향 장기수 문제에 관심 표명.

00/04/21 국정원, 김대중에게 올해의 노벨상 수상 전망 보고. 동 보고서는 이제까지의 활동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접근방향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극도로 보안에 유의할 것을 강조. 특히 “노벨위원회 측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있어야 김대중의 수상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고.

00/04/26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통화. 허쉬빅은 이수자와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윤이상 앙상블 공연과 판문점 평화 콘서트 공연 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보고.

00/05/04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오찬 회동. 허쉬빅의 2차 방북과 윤이상 앙상블 노르웨이 공연, 남북한 판문점 평화 콘서트 공연 등에 대해 계속 논의.

00/05/24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통화. 허쉬빅은 자신의 방한 관련 일정 변경을 통보. 허쉬빅은 박지원 장관, 박상권

KBS 사장, 김상우 아태지도자회의 의장 등과 면담 예정이라고 언급.

00/05/25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의 방한 관련 논의.
박종재 파견관은 허쉬빅에게 “조수미를 만나보라”고 조언.

00/06/05 박경태 노르웨이 대사, 스톨셋 주교와 오찬 회동. 박 대사는 스톨셋에게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과 김정일의 최근 방중 동향에 대해 설명.

00/0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00/06/19 박경태 노르웨이 대사, 룬데스타드 노벨연구소장과 면담.
박 대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

00/06/21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통화. 남북한 판문점 평화콘서트 공연 개최 등에 대해 협의.

00/06/22 국정원 노르웨이 파견관, 오메가 TV의 프랑크 잔센 사장과 오찬 회동. 잔센은 “한반도에 화해를 가져온 사람에게 노벨평화상이 수여되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

00/06/24 김한정, 노르웨이·스웨덴 방문(*김한정의 7번째 북구 방문). 김한정은 노벨상 수상 마스트 플렌을 구상.

00/07/06 박경태 대사, 룬데스타드 노벨연구소장과 오찬 회동. 박 대사는 남북적십자회담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

00/07/14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통화. 허쉬빅은

남북한 평화콘서트 장소가 판문점에서 서울로 변경되어 8·15 때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언.

00/08/01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분데빅 전 수상과 허쉬빅 사무총장의 방한 논의. 허쉬빅은 “자신들의 서울 체류일정을 아태지도자회의 측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 부탁할 일은 없다”고 언급.

00/08/15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김한정은 분데빅 전 총리 일행의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배설하고, 국정원 박노용 북구팀장에게 분데빅 일행을 비밀리에 이산가족상봉 행사장으로 안내하도록 지시. 김한정은 이들과 임동원 원장, 박지원 장관 등과의 면담도 주선.

00/08/20 박경태 대사, 스톡홀름 주교·룬데스타드 소장과 만찬 회동. 박 대사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 동향에 대해 설명.

00/08/22 국정원 노르웨이 파견관, 잔 람스타드 라프토 재단 부이사장과 면담. 라프토 재단 주최 ‘2000년 한반도 인권’ 행사 관련 논의. 동 행사는 오슬로에서 11월 개최 예정으로 국제세미나와 회의, 라프토상 수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 람스타드는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수상 후보임을 시사.

00/08/23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허쉬빅 사무총장과 통화. 허쉬빅은 파견관에게 분데빅의 방북 의사를 통보하면서, 북측의 방북 초청장을 보내주겠다고 약속.

00/08/25 국정원 노르웨이 파견관, 잔 람스타드 부위원장과 통화. 람스타드는 김대중에게 라프토 상을 수여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면서

10월 4일 공식 발표시까지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

00/09/05 박경태 노르웨이 대사, 스톨셋 주교와 만찬 회동. 스톨셋은 정상회담 후 김정일의 변화 동향에 관심 표시. 스톨셋은 비전향 장기수의 대북 송환에 대해 문의.

00/09/07 박경태 대사·파견관, 잔 람스타드 부위원장과 만찬 회동. 박 대사와 김남용 파견관은 라프토 상 수여에 감사 표시. 람스타드는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당초 10월 4일 발표할 계획을 변경, 9월 28일 수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00/09/08 국정원 노르웨이 파견관, 프랑크 잔센 사장과 오찬 회동. 잔센 사장은 한국의 인권상황 신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모 위원회가 자신에게 그 문제에 대해 조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하고, 그 위원회가 노벨위원회임을 암시.

00/10/13 노벨위원회, 김대중 대통령에 노벨평화상 수상 결정.

00/11/05 김대중, 라프토 인권상 수상.

00/12/10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제3장 무기의 그늘, 부패의 온실

- YS, DJ 정권의 무기도입 비리 및 해외비자금 은닉 의혹 실태 -

1. 글을 시작하며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발표한 세 차례의 글을 통해 김대중의 위선과 기만, 그리고 임동원 씨의 간첩 혐의 및 국정원의 도청 실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세 번째 글에서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비장한 심정'으로 글을 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펜을 들면서 그러한 저의 다짐을 깰 수밖에 없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영달이나 사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글이 혹시라도 국민 여러분께 뭔가 가르치려 들거나 훈계하려는 것으로 비춰질까 두렵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단 하나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 모두가 지난날을 바로 알고, 오늘날을 다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며, 다가올 날을 올바르게 설계하자는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글에서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에 벌어진 무기 도입 관련 비리의혹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밝히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군인들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의 이 글이 그런 대다수의 선량한 군인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납품비리 수사

지난해 12월, 청와대 직속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원형 전 국방부 품질관리소장과 이영우 AM코퍼레이션 대표, 정호영 한국레이콤의 회장 등을 구속하고 천용택 전 국방장관 등을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이번에 특수수사과가 수사한 주요 사건은 1) 올리컨(Oerliken) 대공포 개량사업 2) 케이블 어셈블리 납품 사업 3) 해군 견인 소나 장비 납품 사업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장교들이 청와대에 투서한 편지가 계기가 되어 이번 무기비리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군 내에 양심적인 젊은 군인들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위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체 무기비리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만, 아직 제대로 진상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기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리컨 대공포 개량사업 비리 의혹

이 사업은 총 5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와대 주위와 수도권에 배

치되어 있는 GDF-001 대공포의 성능을 개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1998년 기원전자의 정호영이 천용택 국방장관에게 로비하여 사업권을 획득한 후 대부분의 사업비를 착복하였고, 이원형 품질관리소장에게 로비하여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공포는 스위스 올리컨(Oerlikon)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GDF-00 135mm 이연장 대공포입니다. 이 대공포는 레이더 유도 방식의 대공포라고 합니다. 지난 75~78년간 36문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대공포는 도입 당시 성능이 매우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대가 대공포 2문과 슈퍼 플레더마우스(Super Fledermaus) 사통레이더 1대로 구성되는데, 수방사에서 18개 포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당초 638억원의 사업비를 책정, 이 대공포의 소모부품을 국산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호영이 천용택에게 로비하여 부품국산화 사업을 성능개량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대공포의 성능을 개량한다는 발상 자체도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대공포를 전혀 만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에게 성능개량 사업을 맡긴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2002년 성능개량 사업을 종료하였는데, 사업 종료 후 올리컨 대공포의 성능이 사업 이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성능개량 사업이 아니라 성능개악 사업이 된 것이지요.

성능개량 사업 후 목표물을 포착하는 데서부터 사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동으로 조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성능개량 사업을 한답시고 기존의 레이더를 못 쓰게 만든 데 있다고 합니다.

정호영은 1992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사건 이후,

기원전자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무사에 납품하면서 군납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정호영의 기원전자는 주로 통신장비의 비화기(秘話器)를 제작하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군납사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원전자에는 송응섭 고문(육사 16기, 육군대장), 이학건 사장(육사 16기, 육군준장) 등 천용택의 육사 동기 2명을 비롯하여, 예상오(육사 22기, 육군소장), 김정호(육사 23기, 보안사준장), 유보선(육사 25기, 국방부 차관) 등 고위 군출신 인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보선 국방차관이 국방부 내 입단속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케이블 어셈블리 납품 관련 비리의혹

이 사건은 연합정밀 대표 김인술이란 자가 문일섭 획득실장과 이원형 획득정책관에게 로비하여 국방부에 납품되는 각종 케이블어셈블리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의혹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비리의혹은 육군의 통신장비 획득사업인 SPIDER에 들어가는 케이블어셈블리와 커넥터의 납품을 가로챈 사건이라고 합니다.

SPIDER에 들어가는 케이블과 커넥터는 100여 종인데, 당시 광남텔레콤(대표 홍정휘)이 대부분을 국산화하였고, 한국레이콤(대표 정호영)과 셀렉트론(대표 함태환)이 23종의 케이블을 수입,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일섭과 이원형이 주 계약자인 삼성전자(현 삼성탈레스)를 협박하여 기존 납품업체인 광남텔레콤의 납품계약을 취소시키고 납품업체를 연합정밀로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납품업체가 교체된 후

삼성전자 성진용 사업담당 부장이 연합정밀 상무이사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비리의혹 사건으로는 이원형이 연합정밀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국산화 규정을 수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원형은 37국산화 규정이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어떤 업체에게 독점 지정되어 있는 국산화 제품 중 국산화율이 85% 이하인 품목의 경우, 다른 업체에게도 다시 국산화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현대모비스(현 로템)에서 생산하는 케이블 어셈블리 37종과, 대우종합기계와 삼성테트윈에서 생산하는 K-9 자주포와 K-200 장갑차용 케이블 43종의 계약을 취소시켜, 납품업체를 연합정밀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합정밀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원형이 연합정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능 미달 제품이 납품되었다는 의혹도 자연히 따르게 되었지요.

참고로, 2001년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과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덮어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김인술 연합정밀 대표가 지난 번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인 수중음파탐지 장비(견인 소나시스템) 납품 관련 비리의혹

견인 수중음파탐지 장비(Towed Sonar System)란 구축함에 사용되는 최첨단 수중 음파탐지 장비라고 합니다. 구축함은 자체의 소음으로 인

해 바다 속의 음향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견인 소나 장비를 2km 후방에 끌고 가면서 수중 음파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엠텍(대표 최창선)은 해군의 소나 시스템(Sonar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98년 대우통신이 부실화하면서 대우통신의 방산사업부가 엠텍과 머큐리사로 양분되면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엠텍은 1994~99년간 30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견인 소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해군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엠텍은 이미 2000년부터 KDX-1, 2 사업에서 7척 분량의 견인 소나 시스템을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인 케이블이 종종 끊어지는가 하면, 감아올리는 원치가 자주 고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원형 품질관리소장이 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창선 엠텍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구속되었으며, 수사 도중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결과

2004년 4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원형 전 국방부 품질관리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정호영 한국레이콤사 회장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수수사과의 수사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줄작이었습니다. 비리의 본질에는 아예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헛다리만 굽다가 또 하나의 ‘태산경동서일필(泰山驚動西一匹)’ 식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저질러진 모든 무기 관련 비리에는 천용택 국방장관, 문일섭 획득실장, 이원형 획득정책관 등 호남 군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천용택은 무기도입 비리뿐만 아니라 군납, 군 인사, 군 시설 공사 등 모든 군 관련 비리의 최종 결정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가 처벌을 면한 것은 부실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원형은 평소 주위로부터 괘찮은 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김대중 정권의 무기비리에 대해 총대를 멘 것입니다. 현재 수의를 입고 있는 그의 심경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3. 권영해의 미스트랄 도입 비리사건

들어가면서

그동안 무기도입(획득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비밀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비밀은 부정을 낳기 마련입니다. 절대비밀은 절대부정을 낳습니다. 무기도입 사업이 역대 대통령들의 비자금 마련 창구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사건들은 전체 무기비리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사소한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전체 무기비리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정부가 지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1백 수십조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율곡사업과 방위력 증강사업의 핵심적인 위치에 권영해 국방장관/안기부장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천용택 국방장관/국정원장을 비롯한 호남 군맥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특히 1998년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대중과 천용택은 권영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권영해의 무기비리를 덮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비리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무기 도입 사상 최악의 비리사건이자 최대의 국제 사기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산 미스트랄(Mistral) 휴대용 대공미사일 도입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스트랄 도입사업은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엄청난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미스트랄 3차 사업을 결정했던 1997년은 극심한 외환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2천8백억 원 정도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사업 집행시인 1998~99년도에는 환율인상으로 인해 4천8백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권영해와 김영삼

구체적인 사건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이야기이지만 먼저 권영해와 김영삼 간의 관계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1998년 5월 28일자 동아일보의 「비화(秘話) 문민정부」 기사는 김영삼 정권시절 권영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고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초기 권영해 국방장관은 군내 하나회를 척결하는 선봉장 노릇을 하면서 김영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1993년 말, 권영해는 「올곡비리 사건」에 자신과 친동생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잠시 낙마하였다가 한국야구연맹(KBO) 총재를 거쳐 1994년 12월 김현철의 후원으로 안기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권영해는 1992년 5월 김현철의 장인인 김용세 롯데월드 사장을 통해 김영삼에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를 전후하여 권영해의 부인은 국군중앙교회에서 김영삼이 다니던 충현교회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때 권영해는 김영삼에게 거액을 바치고 국방장관 자리를 예약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 1993년 정권교체기에 권영해 국방차관은 거취를 묻는 부하직원에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나가는 사람들이나 잘 챙겨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낙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국군중앙교회의 장로였는데, 자신의 국방장관 취임 축하 예배에서 김영삼에게 아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김영삼 대통령을 대한민국에 보내셨으니, 저는 제사장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권영해는 안기부장 재임 중에도 군 내에 별로 배경이 없는 공군 출신의 이양호를 국방장관으로 천거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뒤에서 직접 모든 무기도입 사업을 주물렀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만만한 이양호가 린다 김과 결탁하여 백두/금강 사업에 끼어들자 얼마 가지 않아 잘라버렸습니다. 그 후 김영삼 정권의 안보분야는 줄곧 그의 독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영해는 안기부장 재임 중, 안기부 청사 내에 있는 공관으로 국방부 핵심 인사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직접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우리나라에 국방장관이 둘 있다. 권영해 안기부장이 사실상 국방장관이고, 김동진 국방장관은 차관이다”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권영해와 이영우

이번에 구속된 AM코퍼레이션 대표 이영우라는 자는 권영해의 오른팔이자 개인 심부름꾼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무기 브로커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이원형은 권영해 밑에서 무기도입의 실무를 담당했으며, 김대중 정권 시절 자행된 모든 무기도입 비리의 최고위 실무책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영해와 이영우와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영우는 뉴욕에서 보험영업(외판) 사업을 하던 교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의 부인은 뉴욕에서 뷰티서플라이 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가발장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권영해가 아직 군에 있을 때 그의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그 때 이영우가 그 딸을 돌봐주면서 서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한때 시중에는 권영해와 이영우가 인척지간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이영우는 권영해의 아파트 옆집에 살면서 권영해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권영해의 심부름으로 프랑스를 수십 차례나 갔다 왔습니다. 이영우가 프랑스 무기 도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브로커로 알려진 것도 이러한 연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우는 AM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미스트랄 도입 사

업의 에이전트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F-16 전투기의 시뮬레이션 장비를 1대 납품한 것 이외에는 전혀 실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영우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천용택 장관, 문일섭 획득실장, 이원형 획득정책관 등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박지원 씨와는 뉴욕에서부터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영우는 미스트랄 사업을 성사시킨 후 프랑스로부터 산업기사 작위(훈장)를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이영우 이외에 이 훈장을 받은 사람으로는 조중훈 회장과 김우중 회장이 있다고 합니다.

미스트랄 vs 스팅어

미스트랄은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인 마트라(Matra)사의 제품으로, 미국 휴즈(Hughes)사의 스팅어(Stinger)나 북한의 SA-16과 같이 저고도 방어를 위한 휴대용 대공 유도미사일입니다.

당시 미스트랄은 아직 실전에서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고, 스팅어보다 무게가 두 배가량이나 더 나가 두세 사람이나 동원되어야 운반할 수 있는데다 삼각대로 고정시켜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의 작전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스트랄은 스팅어보다 기당 가격도 훨씬 더 비싸서 경제적으로도 못했습니다. 또한 마트라사는 계약상으로 미사일의 핵심 기술을 우리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스트랄은 국제 무기시장에서 대만이나 카타르 등에 시험용으로 300기 정도 수출된 것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

의 특수부대조차도 자국의 미스트랄이나 제블린, 스타버스터를 쓰지 않고 스팅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가격이 싸고 시험과 실전에서 이미 그 우수성이 충분히 입증된 스팅어를 도입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시 스팅어는 실전에서 300여 회 이상의 격추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팅어는 아프간 반군이 소련군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팅어는 무게가 15kg 정도로 병사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데다 견착식(肩着式) 사격이 가능하고 야간사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우리의 작전 환경에 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스팅어는 명중률에서도 경쟁 미사일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스팅어는 자동 재발사 기능(Automatic Refire Capability)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적군기의 교란 방어장치(Flare Decoys)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스팅어에는 피아기 식별장치(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라는 탁월한 장점이 있었는데, 이는 미 NSA가 운용하는 인공위성 코드로 아군기를 자동적으로 추적하여 아군기와 적군기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기능이었습니다. 이 피아기 식별(IFF) 기능은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당시 휴즈사는 우리 군에 미래의 저고도 미사일(PSAM) 기술과 고고도(高高度) 방어체계인 PAC와 연계한 기술이전도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삼성항공과 LG정밀 등과의 합작생산과 향후 제3국으로의 수출까지도 파격적으로 보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군 내의 의견도 절대다수가 스팅어를 선호했습니다. 스팅어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도입 기간이 다소 길다는 것이었으나, 그에 대

해서도 휴즈사는 단축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 권영해가 미스트랄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군 내에서 격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군의 경우 주로 미군의 무기체계를 채택하고 있어서 미스트랄이 기존 해군의 무기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해군 함정에는 발사 장치대가 없어서 조준사격이 곤란하고, 함정의 이동에 따라 안정 사격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윤돈 해군 조함사업단장(준장, 해사 19기)은 “우리 함정에는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맞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권영해는 “함정을 뜯어 고쳐서라도 미스트랄을 배치하라”고 으박질렀다고 합니다. 그 후 93년 8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권영해는 직권으로 주윤돈 제독을 보직해임 시켜버렸다고 전해집니다.

권영해는 국방장관이 된 이후에는 이영우를 아예 가락동의 자기 호화아파트 옆집으로 이사시켜 아침저녁으로 만났습니다. 이영우는 권영해의 심부름으로 프랑스를 제집 드나들 듯 갔다 왔다 했습니다.

또한 권영해는 자기의 동향(경주) 후배인 최동진 소장(육사 25기)과 이흥환 준장(육사 26기) 등을 육군본부와 교육사 시험평가 부서 등에 배치시켜 무기도입 비리에 이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최동진 장군은 최근 까지 국방부 획득실장이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편, 권영해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신 모 박사라는 사람 등을 통해 미스트랄과 스팅어의 비용효과지수(Cost/Efficiency Index)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1996년 7월에 성능시험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KIDA는 미스트랄의 경우 96년도 데이터를 적용하고, 스팅어는 91년도 데이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스트랄의 명중률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반면에 스팅어의 명중률은 의도적으로 낮추어진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가격, 절충 교역, 명중률 등에서 미스트랄이 스팅어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조작 평가하였습니다. 스팅어의 장점들은 고의적으로 무시되고, 미스트랄의 장점은 없는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한심한 부정이 총체적으로 저질러진 것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권영해는 안기부장 재직 시에도 수시로 국방부 획득부서 관련 간부들을 안기부장 공관으로 불러 직접 프랑스산 무기와 장비의 구입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1997년 1월 중순과 하순, 주한 프랑스 대사와 톰슨사 부사장, 톰슨사 에이전트인 백동립 등을 안기부 청사 내에 있는 공관으로 초청했고, 국방부 간부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의 하복만 장군도 배석시켜 프랑스 장비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권영해와 천용택, 그리고 미스트랄

미스트랄과 스팅어는 한국에서 세 번에 걸쳐 경쟁하였는데, 세 번 모두 미스트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국제 무기시장에서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미스트랄이 스팅어를 이긴 것입니다.

미스트랄의 1차 도입은 1992년에 이루어져 900기가 공군기지와 일부 육군에 배치되었습니다. 미스트랄의 2차 도입은 1994년에 이루어져 360기가 해군함정에 배치되었습니다.

미스트랄의 3차 도입은 1997년 말에 계약이 성사되어 1,278기를 직도입하고, LG IT에서 1,153기를 국내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가장 컸던 3차사업에서 문제 또한 가장 심각했

습니다.

더욱이 3차사업은 워낙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니 당초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미스트랄의 3차 도입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권영해는 “미국이 스팅어를 구매하라는 압력을 넣는다”며 교묘하게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언론플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97년 6월 15일자 사설은 「한미 미사일 논란」이라는 제하로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권영해는 또한 “1, 2차 도입 때는 미국이 스팅어 판매를 거부했다”고 거짓 선전을 해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97년 10월 13일, 국방부는 “스팅어가 아니라 미스트랄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프랑스 간 미스트랄 3차 도입 계약은 97년 12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삼의 최종 결재는 9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있었습니다. 이때 청와대로 결재를 받으러 들어간 권영해는 김영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개국 이래 최고의 성군이시다”며 극단적인 아부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1998년 초, 이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마찰이 심해지자 김대중 정권의 인수위에서는 사업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모르는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이 천용택 국방장관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용택과 문일섭은 들은 척도 않고 별도의 재심의 없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98년 3월 29일에 준장, 대령 등 4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인수조사팀(Acceptance Inspection Team)이 프랑스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측은 생산공정이나 생산제품은 보여주지도 않고 포장이 끝나 선적 대

기 중인 나무상자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조사팀은 물건 검사는 하지도 못하고 관광과 향응만 즐기다가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제출한 귀국 조사보고서는 이 ‘뜨거운 감자’를 서로 떠넘기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당시 인수조사팀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규격과 외관이 다른 ‘성능 개량탄’이 도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조달본부에 정식으로 서면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달본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문일섭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였습니다.

98년 6월 28일, 3차사업의 첫 선적 500기가 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실무자들은 인수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물건이 계약서상의 제품과 중량, 속도, 사거리, 시커(Seeker) 등에서 상이한 제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97년 12월에 작성된 계약서에서는 ‘모든 물건이 신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계약된 물건과 다른 물건일 경우 2개월 전에 통보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당초 계약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들어왔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은 “제품의 외형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디지털 전자 첨단공학을 도입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프랑스 측은 “인수조사팀에게 이미 성능 개량탄(미스트랄II)이 갈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와 무관은 뻔뻔스럽게도 “한국은 참 운이 좋은 나라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만 유일하게 새로 개량된 미스트랄II를 들여왔다”고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천용택의 국방부는 이러한 사기극

에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이들을 방조하였습니다.

미스트랄II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마트라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2,000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97년에는 업그레이드는 고사하고 단 1기의 생산실적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3차 도입 시에 인수받은 미스트랄은 계약서상의 설명서(Spec)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때 도입된 미스트랄의 제작 일련번호가 1991년 도입한 것과 순서가 일치하여 재고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기술력으로는 도입탄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국방부는 도입탄이 신형탄인지 재고탄인지 확인하기 위해 1999년 9월에 다시 조사팀을 프랑스로 파견하였습니다. 당시 2발을 시험사격하고 난 후 성능 개량탄으로 인정하고 잔여분의 도입을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미 국가안보국(NSA)이 재고탄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토국의 모든 항공기와 미사일에는 미 NSA의 피아식별(IFF) 코드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미 NSA의 확인에 의하면 “98년 도입된 미스트랄의 IFF 코드는 90년 말에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NSA는 “97~98년에는 마트라사가 미스트랄을 전혀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IFF 코드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측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이로써 프랑스가 재고로 있던 미스트랄의 제조일자와 제조번호를 조작하고 시커와 노즐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 ‘업그레이드한 개량기종 미사일(미스트랄II)’이라고 사기를 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후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다루었지만, 증거가 부족한데다 육군이 철저히 은폐로 일관함으로써 비리가 묻히게 되었습니다.

미스트랄의 추진체(Booster) 수명이 10년에서 12년 정도임을 감안하

면, 현재 육·해·공군에 배치되어 있는 대다수의 미스트랄은 이미 수명이 다했거나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트랄의 추진체를 교체하는 데에는 기당 2천~3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신궁(神弓)」이라는 국산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미스트랄의 추진체를 교체할지, 아니면 아예 신궁으로 교체 배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건 당분간 우리 하늘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스트랄과 한미동맹

권영해가 이렇게 ‘미친 지랄’ 하듯이 미스트랄에 집착한 이유는 프랑스와 비밀리에 합의한 막대한 중계수수료(커미션) 때문이었습니다. 국제 무기시장에서의 중계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비의 2% 내외 정도이고 많아야 5%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중계수수료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미스트랄의 경우 중규모 이상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미션이 평상의 경우보다 거의 열 배가량이나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스텔어의 경우 FMS(Foreign Military Sale) 방식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FMS 방식의 경우, 커미션의 상한선은 5만 달러로 묶여 있으며, 중계 컨설팅료도 1~2%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스트랄의 경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소액인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FMS 방식의 무기도입을 거부할 때, 흔히 가격이나 미국측의 까다로운 기술이전 조건 또는 무기 구입선 다변화 등의 구실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FMS 방식으로는 커미션을 거의 먹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미스트랄 도입 사업은 부도덕한 프랑스의 국영 군수업체, 국내의 무기업자, 국방부의 관계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가 결탁한 전형적인 총체적 비리였습니다. 프랑스는 서방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패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개통된 프랑스산 고속철도 도입 사업은 아직도 비리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천마 레이더와 미사일, 군의 통신장비체계인 스파이더, 해군 함정에 탑재된 각종 장비 등 프랑스산 장비와 무기에는 언제나 비리의혹이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스트랄 사건은 단순히 무기도입 비리의 차원을 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트랄이 한미동맹 관계를 격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에 우수한 자국산 미사일을 배치하지 못해 유감이라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을 동맹의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층의 부패로 인해 우리 안보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한미동맹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방위력을 증강하려던 사업이 오히려 우리의 방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권영해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총살해야 마땅합니다.

4. YS, DJ 정권의 비리의혹 사업들

미스트랄 도입 사건은 권영해가 저지른 무수한 무기도입 비리의 대

표적인 한 예에 불과합니다. 권영해는 이미 노태우 정권에서 율곡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의혹을 남겼습니다.

권영해는 미스트랄 이외에도 김영삼 정권 말기에 몇 가지 무기 도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아마도 김영삼의 퇴임 후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서둘러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8가지 무기도입 사업은 권영해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김대중 정권의 인수위에서 사업추진을 중단시켰으나 천용택 국방장관과 문일섭 획득실장이 집행을 강행했던 사업들입니다.

- 미스트랄 휴대용 대공 유도탄 도입사업
- 백두 통신감청 정찰기/금강 영상정보 수집 정찰기 도입사업
- M-270 다연장로켓/ATACMS 지대지 미사일 도입사업
- 이스라엘제 Surcher 무인항공기 도입사업
- BO-105 경 전투헬기 도입사업
-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도입사업
- 인도네시아산 CN-235-200M 수송기 도입사업

이 중 미스트랄 도입사업은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대강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두 신호감청기/금강 영상정찰기 도입사업

이 사업은 린다 김의 ‘몸 로비’ 보도로 인해 비교적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백두는 감청장비를 탑재한 통신정보수집 정찰기 도입사업이고, 금강은 영상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er)를 탑재

한 영상정보수집 정찰기 획득사업입니다.

당시 공군은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RF-4C와 RF-5A 정찰기를 대체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두사업비는 2,400여억 원이고, 금강 사업비는 2,800여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1997년 11월 계약이 체결되었고,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천용택은 이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국방장관이 되고 난 98년 3월에는 이 사업의 집행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백두사업에 쓰인 감청장비와 백두/금강에 사용된 비행기가 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공군이 원한 기종은 감청장비는 독일제, 항공기는 프랑스제 팔콘 50기였습니다. 이들 장비와 항공기는 선정된 E-시스템사의 장비와 호커800xp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도입된 E-시스템 장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장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문 제작한 맞춤형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미국의 NSA는 국방부 사업단에게 8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식적으로 “E-시스템 장비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 서한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양호와 권영해의 외압으로 인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린다 김은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항공기도 직접 선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워 E-시스템사의 모회사인 레이시온사가 제작하는 호커800xp기가 선정되도록 로비하였습니다.

호커 800xp는 개인용 소형비행기로서 군사 목적의 정찰기로 사용하

기에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크기가 너무 작고 출력이 낮아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ROC)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작았던지 내부를 넓히기 위해 화장실을 뜯어내고도 운용 요원이 탑승할 공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탑재하는 장비 무게가 비행기의 탑재허용 중량을 초과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이 비행기는 적의 미사일에 쉽게 격추될 정도로 비행고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공군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민감했습니다. 유사시 격추될 줄 뻔히 알면서 조종사를 내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장비의 열을 식히는 냉각기와, 전원을 공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군에서는 4시간의 작전 성능을 요구하였는데, 이 비행기는 작전 가능 시간이 1시간 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를 풀가동하더라도 고작 한나절의 작전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난 후 미국 측에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NSA가 이미 제품의 성능에 대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통보한 데다 FMS 방식으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기종 선정 후 비행기의 구매방식을 FMS에서 상용으로 변경한 것도 의혹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FMS 방식으로 는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으니 상용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김대중 정권은 결국 사건을 덮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사업단장인 양치규 준장은 사업을 종결하고 관련 서류들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린다 김이란 여자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동족이라고 부르기에든 부끄러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그 동안 신동아와의 인터뷰, 자서전 등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하나같이 진한 립스틱 빛 거짓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김치 카우보이’라는 미군부대 탄파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벌 2세랑 어찌구, 연예인 지망생이 저찌구, 카쇼기가 어떻고, 박종규가 저똥고 하는 얘기들은 모두 순도 100%의 거짓말들입니다. 몇 건을 했느니, 조풍언과의 관계가 어떠니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90년대 초 LA 폭동 시에 혈값으로 변두리 호텔을 하나 인수하여 돈을 좀 모은 다음 무기장사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몇몇 국회의원 할아버지들을 인터콘티넨탈 호텔이나 하이얏트 호텔로 모셔서 다양한 선진 몸 로비 기술을 선보인 끝에 백두사업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도 곧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린 죄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린다 김은 우리나라 어린 여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M-270 다연장로켓/ATACMS 지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

M-270 다연장로켓(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와 ATACMS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은 미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장비라고 합니다. 한 대의 장비가 포병 수 개 대대의 화력과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김정일은 평양을 방문한 지미 카

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장비만은 한국에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97년 7월 15일, 3억 3천6백만 달러어치의 장비를 도입하기로 미국과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후 정권이 바뀌고 외환위기 상황에서 집행하기가 무리라는 점이 지적되어 김대중 정권 인수위가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98년 4월 천용택 장관과 문일섭 획득실장이 사업 집행을 지시, 총사업비 4천7백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발사대인 M-270 MLRS, M26 로켓 포드(Pod),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인 ATACM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4천7백억 원을 들여 우리가 도입한 장비를 살펴보면 M-270 MLRS 29문, M26 6연발 로켓포드 271대, ATACMS Block1 미사일 111기 및 기타 훈련장비와 차량 등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간단합니다. 우수하기는 하나 너무 비싼 무기를 들여온 것입니다. 그것도 외환위기 상황에서 말입니다. 들인 비용에 비해 전술적 가치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악지형이 MLRS의 능력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71대의 M26 로켓 포드는 개전 시 6시간 동안 사용할 분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할 때, 개전 시 10일간의 탄약 값이 무려 1조 6,000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국내 에이전트인 KCC사(사장 황선우)는 이 사업으로 막대한 커미션을 챙겼다고 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2002년 약 5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차 MLRS 도입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MLRS 발사대 29문과 사정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신형 ATACMS Block1A 미사일 110기 등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인정찰기 획득사업 및 이스라엘제 Surcher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

무인정찰기(UAV) 획득사업이란 적 지역의 첩보수집을 위해 정찰용 무인항공기 7식(35대~40대)을 국내 개발/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98년 현재 총사업비는 1천5백억 원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3년 10월, 대우중공업이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비조(飛鳥)’라는 UAV 획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96~97년, ADD 주관 하에 개발품에 대한 기술시험을 한 결과 감지기의 성능, 항속거리, 탐지능력, 순항속도 등 주요 항목의 ROC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11일, 국방부는 작전 요구 성능(ROC) 수준을 미달된 UAV 수준으로 낮추어줌으로써 대우중공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이어서 97년 11월 29일, 국방부는 278억 원의 개발예산을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권영해 안기부장은 96년 3월, 안기부 정보전력화 사업계획에 의거 이스라엘제 Surcher 무인정찰기 2식 1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무인정찰기는 이종찬 국정원장 시절인 99년 8월에 도입되어 O군단과 O군단 공중정찰 중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국내 개발 도중에 외국제품을 도입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Surcher 정찰기를 도입할 당시 이미 국내 개발품의 성능 미달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1998년 감사에서 국내 개발 장비와 해외 구매 장비의 동시 운영에 따른 운용체계의 이원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국내에서 개발한 무인정찰기는 낙하산 착륙 방식의 문제

점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고, 카메라 초점의 고정유지 문제도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01년 8월 30일 “지상 1~2km 상공에서 밤낮으로 영상정보를 수집, 지상 부대에 전해주는 저고도 정찰용 UAV를 10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험평가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내년 중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BO-105 경 전투헬기 도입사업

이 사업은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AH-1S/F 코브라헬기의 목표 획득용 정찰헬기 12대를 국내에서 기술 도입하여 생산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대우와 삼성의 로비전에 휘말려 대우중공업에 특혜를 준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우중공업은 2대를 직도입하고 10대를 기술 도입하여 생산할 목적으로 생산라인을 설치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기술 이전이나 축적은 전무했다고 합니다.

기종 결정 후 대우의 헬기가 작전 요구 성능(ROC)상의 계기 능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명되자, 형상(무장 장착 형태)의 임의변경을 허용하고 편법으로 GPS수신기를 탑재하는 선에서 적당히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도 권영해가 대우를 밀어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였고, 김대중 정권 인수위에서 부당성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문일섭 획득 실장이 재검토 없이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도입사업

이 사업은 권영해가 저지른 대표적인 무기도입 비리 사업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규모가 70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초 독일의 DASA사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영해의 강압으로 프랑스의 톰슨사 제품을 들여왔습니다. 처음 들여와서 시험해 보니 ‘불만 깜빡이는’ 먹통을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제품은 작전 요구 성능(ROC)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의 코메른사가 추진하였는데, 당시 이 회사는 스텔러 미사일 제조업체인 휴즈사의 에이전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메른사는 스텔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CN-235-200M 수송기 도입 사업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송기를 8대 도입한 사업입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바로는 사업규모가 거의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사업도 대표적인 비리의혹 사업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보다 한참이나 후진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비행기를 구입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참고로, 권영해는 그 이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동종의 비행기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5. 김대중 정권의 무기도입 비리 의혹

김대중 정권에서 무기도입 비리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놈들이 아귀처럼 달라 들어 경쟁적으로 부스러기를 뜯어먹었습니다.

물론 두 말하면 잔소리겠지만, 큰 덩치는 김대중이 직접 챙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중의 평생 비밀 금고지기인 이수동이가 이러한 일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무기도입 비리를 자세히 설명드릴 준비가 안 되었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비리의혹이 가시지 않은 몇 가지 사업들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이 사업은 김대중 정권 시절 무기도입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무수한 논란 끝에 보잉사의 F-15K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대중은 이 과정에서 보잉사로부터 엄청난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잉사의 아파치 헬기 에이전트인 이영우가 김대중에게 거액을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김홍업, 천용택 등 여럿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F-15K가 승리하였지만, 권노갑 씨와 박지원 씨 등은 라팔 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라팔 측의 떡고물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풍언의 후원을 등에 업은 일광공영 이규태라는 자가 라팔 측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4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5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차기 VHF 무전기 도입사업과 불곰사업

그 외에 비리의혹이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차기 VHF 무전기 도입사업과 러시아제 휴대용 대전차 유도미사일 도입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부터 차기 VHF 무전기를 도입해 왔는데, 이 사업에는 권노갑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제 무기 도입사업(일명 불곰사업)은 애초에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의 상환조건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들여온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제 휴대용 대전차 유도미사일(METIS-M) 도입사업은 사업비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조풍언과 천용택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풍언을 대신하여 일광공영의 이규태가 전면에 나서 일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6. 조풍언의 무기도입 비리의혹

김대중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무기 도입사업에는 조풍언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비리의 실무는 천용택, 문일섭, 이원형 라인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의 6가지 사업은 김대중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무기 도입사업 중 특히 조풍언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AGM-142 Popeye) 도입사업
- AN/ALQ-165 ASPJ 대 전자전 방어 및 교란 시스템 도입사업
- 전투기 레이더 경고 수신기(RWR) 교체사업
- 랩콘 항공기 착륙 유도용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사업
- 공군 공지 통신장비 도입사업
- 이스라엘제 Harpy 대 레이더 공격용 무인정찰기(UAV) 도입사업

장거리 공대지(空對地) 유도미사일(AGM-142 Popeye) 도입사업

이 사업은 아군의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바깥에서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1천 6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8년 말에 결정되어 이스라엘 라파엘사와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의 합작제품인 AGM-142 Popeye 미사일 100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F4-E 전투기를 개조한 후 이 미사일을 장착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쟁 기종은 미국 Rockwell사(현재 보잉사로 합병)의 AGM-130이었다고 합니다. 양 기종 가운데 AGM-142가 AGM-130보다 사거리가 더 긴 장점이 있는데다, 우리보다 터키가 먼저 AGM-142를 구매한 적이 있어서 분위기가 AGM-142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조풍언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승진(대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라는 회사를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AN/ALQ-165 ASPJ 대 전자전 방어 및 교란시스템 도입사업

이 사업은 KF-16에 탑재되는 ASPJ(Airborne Self Protection Jammer) 전자전 장비를 도입한 것입니다. ASPJ 전자전 장비란 전투기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의 전자파를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군이 KF-16을 도입할 당시에는 아직 이 장비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96년 장비개발이 끝나 김영삼 정권 때 대량 도입되었고, 김대중 정권 때인 99년도에도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조풍언은 기흥물산이라는 회사를 설립, 직접 에이전트를 맡아 이 사업을 처리하였고, 사업 종결 후 회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전투기 레이더 경고 수신기(RWR) 교체 사업

이 사업은 우리 공군의 F-4, F-5, F-16(초기도입 모델)에 탑재되어 있던 구형 레이더 경고 수신기(RWR, Rader Warning Receiver)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규모는 650여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사업이 결정되어 이스라엘 EASRA사의 SPS-2000이라는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쟁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AN/ALR-56M으로, 이것은 KF-16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PSI사(대표 이달화 예비역 공군준장)가 표면에 나섰지만, 실제 배후에서 모든 일을 조종한 사람은 역시 조풍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렘콘 항공기 착륙유도용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사업

이 사업은 공군과 육군의 항공기 착륙유도용 항공관제 레이더를 도입한 사업입니다.

96~97년, 공군은 미국 ITT(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사로 부터 렘콘 레이더 4대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레이더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하는 절충교역을 했습니다. 또한 육군도 2000년 동 회사의 이동식 레이더 2대를 도입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 동 레이더가 장비결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94년 1차 구매 시에 결함을 발견하고도 2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육군이 레이더를 구입할 당시, 공군 측이 육군의 전투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 결과를 통보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디지털로 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레이더에 가끔 항적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육군의 이동식 렘콘 레이더 2대의 경우 레이더 간에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그 후 시정되어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풍언 커넥션

조풍언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무기 브로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김대중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

으로 모든 무기도입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단히 치밀하고 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워낙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법 사실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도입 분야에 관한 한 그야말로 ‘천재’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그만한 자질을 가진 자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주로 에이전트를 내세워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업이 끝나면 회사를 정리해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미국과 이스라엘 제품을 도입하는 사업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감시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1천억 안팎 규모의 사업을 주로 취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조풍언은 러시아제 대 전차 유도미사일 도입사업과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에서 일광공영 대표 이규태라는 자를 전면에서 내세워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급 경찰관(경사) 출신인 이규태라는 자가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과 고철 및 비금속 수입 사업을 독점한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규태 뒤에 조풍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풍언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대중의 비자금을 밝혀내기 위해 조풍언 커넥션부터 먼저 밝혀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풍언과 이규태, 그리고 조풍언과 이수동과의 커넥션 고리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차기 잠수함 건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풍언이 개입한 의혹 또한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7. 끈끈한 비리의 사슬

이상으로 김영삼, 김대중 양 정권에 걸친 무기도입 사업의 비리의혹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0년여 간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모든 무기도입 비리사건에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안기부장)을 거친 권영해와 천용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리들이 왜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고 덮여 버리게 되었는지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이 비리의 주역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이들이 해외에 숨겨 놓고 있는 비자금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밝히기 전에 먼저 이해를 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 와 있는 한낱 망명객에 불과합니다. 일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들의 커백션과 비자금의 전모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들이 해외에 숨겨놓고 있는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실체를 파악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권영해와 김영삼, 김대중은 모두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두환과 노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해, 천용택, 김대중의 은밀한 뒷거래

김대중은 집권 초에 이미 권영해의 무기비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자신도 장차 무기도입 사업으로 돈을 먹으려고 계획했

기 때문인지, 문제를 밝히기보다는 문제를 덮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1998년, 정권이 바뀌고 난 후 김대중 정권은 본격적으로 권영해를 압박하였습니다. 권영해는 「북풍사건」으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데다 무기도입 비리까지 겹쳤으니 크게 손을 봐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권영해는 김대중 측과 거래를 하려고 발버둥 쳤으나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조사를 받으면서 할복자살이라는 연극을 꾸미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할복이 아니라 비계 깎질을 살짝 굶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권영해는 구속이라는 불리한 처지에서 김대중 측과 거래를 벌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장관이었던 천용택이 나섰습니다. 이 때 권영해는 천용택에게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천용택은 국방부 내의 문제는 자신이 직접 수습했습니다. 천용택은 정권 인수위가 중단시켰던 여러 사업들을 강행하면서 반발하는 실무자들을 눌렀습니다.

권영해와 김대중 간의 본격적인 뒷거래에는 박지원 씨가 나섰다고 합니다. 권영해는 ‘무기 비리는 덮고, 북풍에 대해서만 처벌 받는’ 조건으로 김대중에게 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홍콩에 개설되어 있던 권영해의 비밀계좌에서 홍콩에 있던 김대중의 비밀계좌로 이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권영해는 10여 년간 무기비리로 치부했던 돈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토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권영해, 김영삼, 김대중의 해외 비자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을 제외하고는 권영해만큼 부패한 자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권영해는 홍콩 등 여러 곳에 수 개의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2천억원 대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권영해는 극비로 북한제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위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구입 자금으로 쓰려던 안기부의 특수사업비 수백억 원은 그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 그의 비밀계좌로 들어간 것입니다.

비리의 교사범이자 공범인 김영삼도 대만 등 여러 곳에 1천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비자금을 묻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약소한(?) 규모이지만, 아직도 김현철을 십여 차례는 국회의원에 당선시킬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최근 홍인길은 어느 인터뷰에서 “김영삼은 빈털터리다”고 낮간지러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의 측근들은 “가정부에게 월급을 줄 돈도 없다”며 김영삼에게 푼돈을 모아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두환의 29만원 사건에 버금가는 민망한 코미디입니다. 그나마 좀 평가해줄 만한 부분이 있다면, 김영삼은 최근 몇 명의 대통령들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해먹었다는 것입니다.

비리의 또 다른 공동 정범인 김대중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저액의 비자금을 해외에 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이 혈세를 도둑질하여 스위스, 홍콩 등지에 분산 예치하고 있는 비자금의 규모는 최소 6천억 원에서 1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범죄 규모로 보나 죄질로 보나, 김대중이 우리 역사상 가장 극악한 부패 사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희대의 악마적인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는 전라도 백성들의 손에 의해 부관참시 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대중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개막식 연설을 마치고 호텔에서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스위스 방문 목적이 WHO에서 연설이나 하려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번 스위스 방문이 “그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의 상속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의 친필 사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위스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김대중의 유럽여행 경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코미디입니다. 아직도 그의 사기 행각에 철저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대중은 “4월 말경에 상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이 결국 취소되었는지 아니면 비밀리에 실행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김대중의 중국 방문도 홍콩에 있는 그의 비자금 계좌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밝힌 바와 같이, 김대중은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2억 달러 이상을 챙겼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저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북한에 송금할 돈의 10%는 킱백(리베이트)으로 되돌려 받기로 약속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번 글에서 “99년 12월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15억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북한의 최고위층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그 정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출처가 북한의 최고위층과 접촉한다는 사실을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에 건너간 돈은 15억 달러보다 좀 더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3억 달러씩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더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노벨상 단독 수상이나 김정일의 방한 약속 실행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1월, 김대중은 2억 달러 송금의 건을 시인하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후 예기치 못했던 제 글이 발표되자 마지못해 5억 달러를 보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특검은 4억 5천만 달러밖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5천만 달러(10%)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현대상선 미주지부에서도 북으로 3억 달러를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몽헌은 죽기 직전에 “권노갑에게 3천만 달러를 바쳤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3천만 달러는 권노갑이 먹은 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3억 달러의 리베이트(10%)로 김대중의 스위스 계좌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김대중은 또한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인 한화로부터 수백억 원을 뇌물로 받고 대한생명을 특혜 분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의 사주인 김승연이 소유하고 있던 경향신문이 지난 5년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것은 이러한 커넥션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김한정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돈 심부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나라당의 모 의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화 비서실 관계자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2년 10월에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신건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감청부서인 과학보안국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밝히려는 자 vs 숨기려는 자

여러분은 이제 김대중 시절, 김영삼이 김대중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김대중이 권영해를 구속하면서 치부를 들춰내려 하자 김영삼이 반격에 나섰던 것입니다.

아마도 김영삼은 공격을 받을수록 더 전투의지를 발휘하는 특이한(?) 승부사 기질을 가졌나 봅니다. 우리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저들은 저들끼리만 아는 언어로 그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93년 감사원장 시절 울곡비리 감사에서 권영해의 비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의 반대로 권영해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 『시사저널』이 보도한 대로, 당시 권영해 국방장관은 이회창 감사원장이 울곡비리를 캐고 들어오자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 카드를 들고 나와 이회창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이회창 총재는 권영해와 김영삼을 처단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숨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회창과 김영삼이 끝까지 화해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이 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지난해(2003년) 12월 16일, 임복진 전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비리의 일단을 증언했습니다. 임복진 전 의원은 특정지역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음을 용서바랍니다 — 보는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김대중 정권에서 초대 국방장관으로 내정되었으나 개인적인 실수가 빌미가 되어 낙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천용택이 권노갑에게 고자질하여 국방장관 자리를 가로챘기 때문에, 그 후 두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임복진 전 의원의 지난 번 인터뷰가 단순히 천용택에 대한 사적 감정의 발로라고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임복진 전 의원은 누구도 선

불리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용기 있게 발언한 것입니다.

저는 임 전 의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증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제에 국방부 내의 양심 있는 젊은 군인들도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발표한 글에서 “권영해가 조기에 석방된 것이 석연치 않으며, 김대중과 권영해 간에 엄청난 뒷거래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썼습니다. 저는 저들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얼마 후 김한정은 제3자를 통해 은밀히 제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자기가 국정원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저와 국정원간에 중재를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김한정의 의도가 “내가 얼마나 아는지 떠보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글을 발표하고 난 후 여러 사람들로부터 “김한정과 무슨 악연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또는 “김한정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와 아무런 사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를 과대평가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의 사람됨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도 사악한 김대중의 가련한 희생물이기에 측은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고언

저는 이 기회를 빌려 노무현 대통령에게 몇 마디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부패를 청산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다면, 무기비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모 비서관에게 몇 차례 연락을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진실로 수사의지가 있다면 제가 적극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실망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복진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내의 계좌추적을 통한 수사로는 심부름꾼의 폰돈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비리의 몸통에는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고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건네진 큰 돈은 모두 해외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구좌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국이나 우방국에게 정보협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정보기관의 대외 신인도를 감안하면 이마져 난망한 일입니다. 결국 노 대통령께서 통치권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정보기관에 대해 감히 한 마디 사족을 달겠습니다. 정보기관은 속성 상 현재의 사용자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어땠건 간에 현재의 주군(主君)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노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정보기관을 못 미더워하면서 제쳐두고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보기관은 눈, 코, 귀, 손, 발, 축수, 더듬이와 같은 것입니다. 눈과 코와 귀를 막고, 손발을 묶고, 축수 더듬이를 부러뜨린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국정원과 기무사는 과거 독재와 반역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어두운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개혁의 도구로 쓰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무사 방산 보안실 캐비닛 안에 존안(存案)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십시오. 조속히 민군 합동수사대를

구성하고 기무사와 국정원이 적극 정보협조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십시오. 이 모두가 오로지 노 대통령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8. 글을 마치며

국민 여러분, 이상으로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무기 관련 비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기비리 전체의 그림 가운데 몇 조각의 작은 퍼즐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슴속에 진실을 품고 있으므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저의 이 작은 글이 그분들에게 용기가 되어 양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이 되는 이 지독한 시대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이 끔찍한 세상은 어서 빨리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가 더 이상 없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저의 이 글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하여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때, 비로소 이러한 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리의 사슬을 끊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의 안보도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의 글이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 데 일조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18일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삼 드림

제2부 나의 이야기



제1장 젊은 날의 기억

정보기관과의 첫 만남

내가 정보기관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1992년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당시 나는 종로5가 부근 어느 고층건물의 맨 꼭대기 층인 13층에 있던 「안기부」(안기부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줄임말로, 「국가정보원」의 옛 이름이다)의 물색팀 사무실에 내발로 직접 찾아갔다. 언젠가 나보다 먼저 안기부에 입사한 대학 친구 O국진에게서 안기부의 물색팀 사무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 사무실은 안기부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회사 바깥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안가(安家)’ (안전가옥) 중의 하나였다.

내가 처음 만난 안기부 직원은 아마 이종O 선배였던 것 같다. 그는 얼마 전까지 국정원의 공보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 발로 찾아오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탓인지, 그는 나를 보더니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내가 서울법대생이라고 밝히자 그는 더욱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당시에는 제 스스로 정보기관에 지원하는 서울 법대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종O 선배는 처음 보는 지원자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묻지도 않

았는데 그는 나에게 정보기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외교는 앞문이고 정보는 뒷문이다”라고 말했다. 내가 어리둥절해 한다고 생각했던지 “외교관들이 품 잡으면서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고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금은 성의 없는 글씨였지만, 입사지원서를 썼다. 추천인을 기입하는 난은 공란으로 비워 두었다. 나는 왜 그런 난이 있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다른 동기들은 하다못해 학과장의 추천이라도 받아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지난 후의 일이었다. 입사 목적 난에는 “조국통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서”라고 썼다.

요즘은 국정원에 입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정보기관이 취업 지망생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부상했다고 한다. 해마다 입사경쟁이 수백 대 일이라는 보도를 듣는다.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평소 학점 관리는 물론이고 수험준비를 위해 스터디그룹이 생기고, 국정원 입사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도 등장한 모양이다. 국정원 입사시험을 위해 마치 고시공부 하듯이 준비하는 취업지망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쉬리」, 「아이리스」, 「7급 공무원」 등 정보기관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이러한 인기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국정원이 나름대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정원이 다른 공무원직에 비해 보수가 괜찮다는 입소문도 한몫 했을 것이다. 아무튼,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취업기회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추세가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정보기관은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원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90년대 후반부터였을 것이다.

그때는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저 ‘무서운 기관’ 정도로 인식되었다. 정보기관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나 가족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응시인원 자체가 많지 않았고, 입사경쟁도 그리 심하지 않았다.

내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서울대 졸업생이면 어렵지 않게 안기부에 입사할 수 있었다. 적어도 학점 때문에 서울대 졸업생이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서울대 졸업생이면 학점이 어느 정도 나빠도 서류전형에는 무사히 통과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내가 입사한 후 몇 년이 지나니 “서울 법대생이 서류전형에서 떨어졌다”는 소리가 들렸다.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두어 달 후에 입사시험이 있었다. 강남의 어느 중학교에서 일요일에 시험을 봤다. 나는 입사시험 준비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떨어져서 창피를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았다. 시험이라면 이골이 난 몸이기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다. 사실은, 뭔가 준비하고 싶어도 시중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도 없었다.

시험과목은 영어와 국어, 도덕, 국사 등이었다. 영어 등은 선다형 객관식 문제였고, 국사는 논술시험이었다. 객관식 문제는 거의 학력고사 수준이었기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논술문제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골라 쓰는 것이었는데, 나는 ‘구한말과 현재의 시대상황을 비교 설명

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술하라’는 문제에 대해 썼다. 서론으로 주변 4강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안보 현실에 대해 조금 개괄하고 “자주적이고 열린 자세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평이하고 맛있는 답안지였다.

『돌베개』와 『사상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의 청년시절과 대학생활에 대해 좀 소개하고 넘어가려 한다. 내가 어울리지 않게 정보기관이란 곳에 몸을 담게 된 동기를 설명하자면, 아무래도 청년시절 얘기부터 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기 때문이다. 한참 지나서 뒤돌아보니, 1980년대 나의 청년시절은 그야말로 폭풍노도의 시기이자 상실과 방황의 나날이었다.

1983년 봄, 나는 부산 서면에 있는 재수학원에 등록했다. 그 전 해 겨울, 나는 서울대 사회대에 원서를 썼다가 안타깝게도 낙방하고 말았다.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이미 입시 위주의 공부에 대한 회의감만 가득했다.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마음이 많이 상했다. 사회에 대한 원초적인 반항심이 싹텄다.

그해 4월 어느 날, 부산의 보수동 헌책방 거리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책을 두 권 샀다. 하나는 장준하 선생의 자서전인 『돌베개』라는 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문화혁명기의 어느 학생이 쓴 『홍위병』이라는 번역서였다. 나는 이 두 권의 책을 접하고 나서 갑자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기분이었다. 『돌베개』를 통해 항일 독립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홍위병』을 읽고 나서는 문화대혁명이라는 소용돌이를

처음 알게 되었다.

『돌베개』는 말하자면 장준하 선생의 회고록 같은 것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장 선생이 야곱이 베고 잔 돌베개에서 그런 제목을 따온 모양이었다. 책에서 그는 일제 말 강제 징집되었다가 일본군대를 탈출하여 독립군을 찾아 나선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게다가 그는 당시 독립군의 이념적인 분열상과 처참한 실상에 관해서도 가감 없이 썼다.

5월 초순, 나는 학원을 그만두고 무작정 시골로 내려갔다. 학원의 담임선생님이었던 박영돈 선생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강사이자 나와는 동향이었다. 하도 강의를 많이 한 탓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쉼소리가 묻어났다. 그는 나에게 “니가 그러고도 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진다”며 폭언을 하면서, 나의 시골행을 한사코 만류했다. 아마 동향의 후배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판단하고 진정어린 충고를 해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장을 지지진 볏길에 두고 보면 알 일이고’ 우선은 갑갑한 재수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여름 내내 농사일을 도우며 시골집에서 지냈다. 보리타작과 모내기도 하고, 때로는 땀별 아래에서 농약 치는 것도 거들었다.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러다가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향이 주는 푸근함 속에서 잠시 안락을 만끽했다. 여름밤 강둑에 올라 풀벌레 소리와 밤하늘 별들의 황홀한 향연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 시골집 사랑방 서가에는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정기 구독하여 보시던 『사상계』(* 『사상계』는 장준하 선생이 6·25 전쟁 통에 부산에서 창간하여 손수 리어카를 끌고 배달하면서 일구어온 잡지로, 전후 한국의 지성과

저항을 대표하는 잡지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사상계를 읽지 않으면 지성인으로 대접받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사상계는 1970년, 김지하 씨의 문제작 「오적(五賊)」을 게재한 후 강제 폐간되었고, 몇 년 후 발행인이었던 장준하 선생도 포천 약수봉을 등반하던 중에 실족하여 추락사했다. 장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사라며 타살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보관되어 있었다. 창간 직후부터 60년대 말까지 백여 권의 잡지가 뿔뿔이 꽃혀 있었다. 어떤 책은 너무 많이 읽어서 누렇게 변한 표지가 너털거리는 것도 있었다. 어떤 책은 읽은 횟수를 표시한 것인지 기사 머리마다 빨간 인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은 것도 있었다. 기사 가운데는 동그라미가 예닐곱 개나 그려져 있는 것도 더러 있었다.

큰아버지는 어릴 때 돌팔이의사에게 허리에 침을 잘못 맞아 평생 불구로 지내셨다. 흔히 말하는 ‘누운뱅이’였다. 어머니의 전언에 의하면, 그래도 그는 ‘시골에서는 꽤 유식한 사람으로 통했다’고 한다. 동네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해결사(?)로 활약하곤 했다고 한다. 한평생 『사상계』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보았으니, 아마 그럴 만도 했을 것이다.

나는 금세 사상계에 심취하게 되었다. 대학 입시준비에 정나미가 떨어진 재수생에게는 더 없이 좋은 소일거리였다. 사상계에는 한국 논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함석헌 선생의 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읽을거리가 많았다. 당시로서는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을 소개하는 글들도 좋았고, 전후 리얼리즘 소설을 읽는 맛은 더욱 짜릿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우연히 사상계가 꽃혀 있던 서가 한 귀퉁이에서 누렇게 변색된 옛날 신문무치를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놀랍게도 1960년 4월 혁명 전후의 「동아일보」였다. 아마도 큰아버지가 사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중히 보관했던 모양이었다. 신문 곳곳에 검열로

잘려나간 백지 기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신문 문치에서 4월 혁명의 피 냄새가 났다. 방황하던 재수생의 눈에는 불이 튀는, 적나라한 내용들이었다.

나는 특히 이 신문문치와 함께 1960년 6월에 발행된 『사상계』의 4월혁명 특집호를 감명 깊게 읽었다. 그 책에는 서울법대 강사로 소개된 김치선이란 분이 쓴 ‘아우의 주검 앞에서’라는 수필이 실려 있었다. 그 글은 4·19 의거 때 경찰의 총격에 숨진 아우를 회상하며 쓴 글이었다. 나는 ‘서울대에 들어가서 김치선이란 분을 만나보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듬해 서울법대에 들어가서 보니, 김치선 교수는 법과대학 학장이 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갓 들어온 열치기 운동권 학생이었는데, 그분은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학생들의 데모를 적극 만류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래도 나는 서울대 재학 중에 관악 캠퍼스 안쪽 구석에 있던 4·19 기념공원에 들러 그 아우의 기념비를 참배하곤 했다.

이렇게 나의 청년시절은 『사상계』로 시작하여 『사상계』로 끝났다. 재수 시절에 『사상계』에 의해 뿌려진 이념적 방향의 씨앗은 그 후 대학시절에 줄곧 영향을 미쳤다. 『사상계』는 나의 이념의 교사이자 나침반이었던 셈이다. 그 시절 동안 나는 『사상계』를 옆에 끼고 살다시피 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아예 시골집의 『사상계』를 통째로 서울로 가지고 올라왔다.

『사상계』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언제나 마음이 뿌듯했다. 언젠가 80년대 말 즈음에 『사상계』 영인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원본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한껏 고양되기도 했다. 가끔 청계천에 들러 내가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상계』 결본을 사 모으는 게 취미였을 때도 있었다. 우스운 일이지만, 이념의 과잉이 빚어낸 일종의 해프

닝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일백 권이 넘는 잡지를 보관하는 일이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다. 자취생 주제에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은 데다 귀귀한 책 냄새도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다. 특히 이사 다닐 때마다 애물단지가 되었다. 대학생살이 끝나갈 즈음 ‘이념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자각이 싹트면서 『사상계』와 작별하게 되었다.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던 시절이었다.

내가 봉천동 국사봉 꼭대기에 살던 90년대 초, 나는 집 옆의 공터로 『사상계』를 모두 가지고 나가서 불태웠다. 이를테면 ‘이념의 화형식’을 거행한 셈이었다. 불타는 책을 보면서 ‘이제 이념과는 결별이다’고 다짐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사상계』를 없앴 게 조금은 후회가 되기도 한다. 그 잡지는 말하자면 큰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우리 집의 가보(家寶)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념의 바다에 빠지다

다시 재수 시절의 얘기로 돌아가자.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자 나는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불현듯 ‘아무래도 대학에는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그야말로 인생의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났다. 부랴부랴 짐을 싸 들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감만동에 살던 누님 댁에서 우선 여장을 풀었다.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이미 진도도 맞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했다. 시험까지는 약 3개월 정

도 시간이 있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공부했다. 특히 수학은 문제 유형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당시에 안성탕면이 처음 나왔는데, 독서실에서 끓여 먹었던 그 라면 맛은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치른 1983학년도 입시에서는 점수가 그런 대로 잘 나왔다. 서울대 법과대학에 응시해서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고대하던 대학생활이 시작되었다. 나의 대학생활을 얘기하자면 언제나 가슴이 먹먹하다.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들추어내는 느낌이다. 나는 처음부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나 같은 촌놈에게는 대학이라는 곳이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이방(異邦)이었다. 젊음이고 낭만이고 뭐 그런 것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런 건 나에게 사치일 뿐이었다. 이런 곳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싶었다.

내가 입학한 1984년에 학원자유화조치라는 게 시행되었다. 군사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든지, 기만적인 유화정책으로 돌아선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침 80년도 초에 「녹화사업」에 끌려갔던 선배들이 속속 복학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녹화사업」이란 전두환 정권이 문제(?) 학생들을 강제로 군에 입대시킨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황과 맞물려 학생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학도호국단이 폐지되고 총학생회가 재조직되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도서관 앞 아크로광장에는 거의 매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다. 날이면 날마다 캠퍼스 내에 최루탄과 지랄탄이 난무했다. 학생회관 주변에는 언제나 대자보가 뽁뽁이 나붙었다. 그 시절에는 복학생협의회 대표이던 유시민 선배가 대자보를 붙이는 날이면 뉘을 잃고 쳐다보곤 했다. 물론 대자보는 작성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강 작성자를 알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때엔 그가 글을 참 쫄깃하게 잘 썼다.

아마도 87년인가로 기억되는데, 그가 학원폭력 사태로 인해 구속되고 난 후 쓴 항소이유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명문장이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운동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어찌도 그리 설득력 있게 설명했던지, 그 글을 읽은 판사도 감동했다고 한다. 그때에 비하면, 요즘의 그는 많이 망가진 듯하다. 언젠가 그가 평상복을 입고 국회에 출현했을 때에는 마치 흰옷 입은 블랙 코미디언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선 사회과학 서적을 섭렵하는 게 일종의 유행이었다. 법과대학에서는 고시공부를 한답시고 법서(法書)라도 끼고 다니면 팔불출로 취급되는 분위기였다. 각 서클마다 수준에 따라 읽어야 하는 필독서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수업에 빠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혼자 이념서적을 탐독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고, 별 재미도 없고,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이지만, 그때엔 꽤나 진지하게 읽었다. 초기에는 여러 사람이 쓴 『해방전후사의 인식』에서 시작하여 이영희 교수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 『베트남 전쟁사』, 『우상과 이성』 등 여러 책들을 읽었다. 책 표지에 별거벗은 베트남 여자가 네이팜탄을 피해 달아나는 그림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도 읽었다. 『죽음을 넘어...』 어찌고 하는 황석영 씨가 쓴 광주사태 관련 책도 읽었다. 당시에는 학생들 사이에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이 무슨 코스처럼 되어 있었다.

그즈음 나는 특히나 세계의 혁명사에 깊이 빠져 있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러시아 공산혁명을 거쳐 중국 공산화와 베트남 전쟁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모든 혁명사에 관련된 기록들을 가리지 않고 두루 섭렵했

다. 물론 혁명가들에 대한 전기물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는 물론이고 그람시, 로자 룩셈부르크, 체 게바라, 카다피 등도 읽었다.

한길사에서 펴낸 20권짜리 『함석헌 전집』도 거의 다 읽었다. 물론 사상계를 통해 이미 함석헌 옹이 쓴 글들을 단편적으로 접한 적이 있지만 전집으로 읽으니 새롭고 깊은 맛이 있었다. 함석헌 옹의 호쾌하고 자유분방한 사고에 한동안 매료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사고는 급속히 좌편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른바 흔히 말하는 ‘골수 좌익’이 됐다.

나는 특히 중국혁명에 빠졌다. 앞서 언급한 『홍위병』의 영향이 컸다. 중국어를 수강 신청하여 나름대로 꽤 열심히 공부했다. 「인민일보(人民日報)」를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다. 중국과 관련된 책이라면 닥치는대로 구해 읽었다. 당시에는 중국 관련 서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청계천을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야 겨우 관련 서적을 몇 권 건질까말까 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서적에 대한 판금이 풀리면서 중국 관련 책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The Red Star Over China)』이나 닐 웨일즈의 『위대한 길(The Great Road)』 등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서 읽었다. 당시 스노우와 웨일즈는 부부였는데, 1930년대 말 국민당의 삼엄한 포위망을 뚫고 중국 내륙 깊숙이 연안까지 들어가 중국공산당 혁명가들을 만난 후 이 책들을 썼다고 한다. 후에 모택동은 스노우를 ‘평생의 친구’라며 높이 평가했다.

님 웨일즈가 쓴 또 다른 책인 『아리랑』은 당시 연안에 있던 김산 — 본명은 장지락이라고 알려져 있음 — 이라는 한국 혁명가의 일대기였는데, 이 책은 80년대 대학가에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나도 『아리랑』을 읽은 후 한동안 ‘직업 혁명가’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덩달아 나의 고향 출신 혁명가였던 약산 김원봉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나는 이른바 ‘이념서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고전연구회’라는 서클에는 가입 문턱까지 갔지만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후에 보니, ‘고전연구회’와 연결되는 ‘언더(under)’가 주사파의 본거지가 된 모양이다. 나의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탓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좀 꺼려진 탓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념서클이란 곳에서 선배란 사람들이 뭔가 가르치려 드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말하자면 나는 ‘이념을 강요당한다’는 느낌이 싫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더 비민주적으로 행동하는 듯이 보이기도 했다. 물론 자칫 잘못 발을 담갔다가는 ‘평생 신세 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도 없지 않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처럼 품성이 괜찮고, 촌놈에다가, 장남이 아닌 저학년 학생들이 이념서클 선배들의 집중적인 모집 대상이 된다는 얘기도 돌았다.

하지만 대안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도 내가 이념서클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만든 걸림돌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운동권의 북한에 대한 입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했지만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동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애초부터 나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약칭)’이나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 동지의 약칭)’에는 동의

할 수 없었다.

운동하는 친구들은 대개 품성이 괜찮은 녀석들이었다. 순진한 녀석들이 선배들을 따라 꺾렁꺾렁 데모에 따라 나서더니 어느 날 갑자기 투사가 되고 열사가 되어 갔다. 암전하던 녀석들이 어느 날부터 도망 다니더니 잡혀서 끌려가고, 그렇게 쓰러져 갔다.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소위 현장이란 곳으로 진출하면서 인생의 향로가 갈라져 갔다.

그들의 치열한 삶에 비해 나 자신은 비겁하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다.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뭔가 채무의식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정한 혁명가는 작은 일에 자신을 쉽게 드러내선 안 된다’며 스스로에게 변명하곤 했다.

학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의 대학생활은 첫 학기부터 엉망으로 망가졌다. 1학년 1학기는 학사경고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성적표가 온통 ‘시들시들(C, D)’ 했다. 하마터면 ‘푸들푸들(F, D)’ 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다. 당시 학칙으로는 평균 C학점 이하이면 학사경고였다. 적어도 ‘비실비실(B, C)’ 성적표는 받아야 했는데 그나마도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2학기에 접어들면서 시위가 점점 격렬해지더니 집단으로 중간고사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시험을 거부하면 퇴학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두 학기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퇴학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1학기 때 경고 받은 사람들은 시험장에 들어가라”고 종용했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대신 휴학을 선택했다.

이때 시작한 휴학으로 인해 그 후 대학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 후에는 복학과 휴학을 반복했다. 내가 휴학계를 제출한 횟수가 무려 여섯 번이나 되었다. 휴학이 아예 전공이 되었다. 그리하여 대학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데, 재수 시절까지 치면,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나의 대학시절 얘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서울대 역도부 생활이다. 나는 1학년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음 붙일 곳을 찾아서 역도부실의 문을 두드렸다. 역도부실은 자연대에서 교수회관으로 올라가는 호젓한 오솔길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건물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관악 캠퍼스 내에서 가장 전망 좋은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배들 말로는, 옛날 관악 캠퍼스가 삼성의 컨트리클럽이었던 시절에 삼성가에서 화실(畫室)로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했다. 지난 1970년대 초, 서울대가 동숭동에서 관악산 기슭으로 이전했을 때, 역도부 선배들이 ‘어깨 힘으로’ 쟁취한 공간이라고 했다.

서울대 역도부는 시적이면서도 멋있는 부훈(部訓)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인의 가슴 속에 원시적 힘을!’ 이라고 했다. 나는 어쩌면 그때 상처받은 가슴을 채워 줄 뭔가 ‘원초적인 에너지’를 갈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역도부에 들어간 후, 흔히 말하는 이념 운동권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의 운동권(?)에 투신했던 셈이다.

서울대 역도부에는 단지 근육을 키우고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하는 것을 벽안시하는 분위기였다. 헬스클럽쯤으로 생각하고 도장을 찾아오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도부는 글자 그대로 역도를 통해 심신을 수양하는 도장(道場)이었다.

이를테면 역기를 들어 올릴 때에도 ‘도(道)’를 닦는 마음으로, ‘고뇌하는’ 마음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말 없는 역기를

들어 올리면서 거대한 중력에 저항하는 자신의 존재와 한계를 깨달으며 역기와 대화를 나눈다는, 뭐 그런 식이었다.

역도부원들 중에는 역도부실을 양산박 내지는 청학동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나는 그런 조류에 적극 동조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만나기만 하면 부실 앞마당에서 술판을 벌이곤 했다. 가끔은 관악산 개울 건너에 가서 막걸리 파티를 하기도 했고, 신림사거리 순대타운까지 진출할 때도 있었다.

점차 도서관을 향하는 발걸음은 뜸해지고 역도부실에 죽치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책가방과 멀어지는 만큼 소주병과는 친해져 갔다. 그리하여 소위 ‘술병에서 별이 스러지던’ 나날이 이어졌다. 혼돈과 방황의 계절이었다. 늦가을, 역도부실 앞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마시던 소주 맛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이다. 땀 흘리고 나서 캠퍼스 구석에 있는 폭포에 몰려가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 목욕하던 기억도 즐겁다. 아마 으스스한 곳을 찾았던 아베크족들에게는 못할 짓(?)이 되었을 것이다.

미 8군 19지원사 법무감실

그 즈음 나는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먼저 군대라도 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군에 들어가면 뭔가 사고를 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일부러 카투사를 택했다. 85년 말에 카투사 시험에 응시했다. 당시엔 ‘카시가 국가 5대 고시 중의 하나’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물론 시험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학력고사 수준이었다.

입대를 기다리고 있던 86년 4월, 서울대 김세진·이재호 학우가 신림사거리에서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엔 대학생들이 전방에 입소하여 일주일간 교련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도중 그들은 “양키의 용병교육을 거부한다”며 온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한 것이었다. 나는 내 자신이 미군의 용병이 되어 미국 군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심한 자괴감을 느껴야만 했다.

1986년 5월 15일, 경부선 철로변에 만발한 아카시아 꽃을 보면서 나는 논산 훈련소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훈련소 앞 이발관에서 머리를 밀면서 거울에 비친 나의 젊은 날의 초상을 바라보았다.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군대로 도망온 창백한 젊은이의 모습이 거울 속에 어른거렸다. 현실, 이념, 방향, 젊음,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하고 싶었다.

훈련소에서 신체검진을 받고 나서 내가 간디스토마(간흡충)를 앓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다. 팔뚝에 피부반응검사를 했는데 붉은 반점이 둥그렇게 커다랗게 나타났다. 양성반응이었다.

역도부에서 운동을 할 때 생각보다 근육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간디스토마 때문이었다. 간디스토마는 낙동강 연안 지역의 풍토병이었지만, 나는 그때까지 민물고기 회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간이 상해가는 줄도 모르고 운동과 과음으로 미련하게 몸을 혹사했던 것이다. 후회해 봐야 이미 지난 일이었다. 뒤늦게나마 발견하게 된 것만도 천만다행이었다. 의무실에서 주는 독한 약을 먹고 치료했다.

논산 훈련소에서 박박 기던 기억들 가운데 고산 유격장까지 밤새 야간 행군했던 것이 가장 오래 남는 일이었다. 달빛 아래 완전군장을 하고 밤새 행군했다. 정태춘, 박은옥의 노래들을 흥얼거리며 걷고 또 걸었다.

유격훈련장은 전주 운장산 기슭에 있었다. 2주간의 유격훈련은 힘들었다. 고등학교 동창 녀석 하나가 조교로 와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유격장 아래 고산 저수지가 있었다. 구름에 묻힌 운장산의 풍경과 달빛이 내리 비치는 저수지의 풍광은 황홀하게 아름다웠다.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평택의 미군부대 내에 있는 카투사 훈련소로 이동하여 다시 4주간 훈련을 더 받았다. 논산에 비해 평택은 훈련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험령한 곳이었다. 무엇보다 식사의 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논산에서는 멀건 국에 시커먼 찜밥만 먹다가, 평택에서는 갖가지 기름진 양식에 후식까지 먹을 수 있었다. 한동안은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애초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지원해 볼까 생각하고 있었다. 내 판에는 ‘남북의 분단상황을 직접 체험해 봐야겠다’는 자만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방에 갈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공동경비구역에 지원하려던 마음을 바꾸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만약 판문점에 갔더라면 어떤 형태로든 사고를 쳤을 것 같다.

훈련을 마치고 대구에 있는 미 8군 19지원 사령부 법무감실에 배치 받았다. 법무감실의 영문명은 SJA(Staff Judge Advocate)였다. 공교롭게도 공동경비구역(JSA)과 영문 약자 스펠링 순서가 바뀐 이름이었다. 한국군 지원부대장이 나의 출신 학교를 고려해 특별히 배려해준 덕택이었다. 그는 ‘고급 인력이 미군부대에서 운전병으로 썩으면(?) 안 된

다'며 나를 법무감실에 밀어 넣어준 것이다. 고마운 일이었다.

나는 대구의 앞산 앞에 있던 캠프 워커에서 숙식하고, 시내에 있던 캠프 헨리에서 근무했다. 카투사로서 근무하는 낮 생활은 군대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이었다. 군화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숙소와 사무실을 버스로 출퇴근했다. 함께 근무하는 미군들도 나에게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대부분 나의 상관들이었지만 계급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은 없었다. 나의 영어가 별로 신통치 못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법무감실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담당하는 한국인 군무원이 한 분 있었고 카투사는 나 혼자였다. 전임자도 없었다. 아마 내가 제대한 후에는 후임자도 없었을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군대생활 중에 어려웠던 일은 주로 군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고 난 후에 벌어졌다. 비록 2인 1실의 내무반 생활이었지만 카투사들끼리 집합이 걸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한국군의 못된 악습이 카투사에도 남아 있었다.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초기에 선임병들로부터 얼차려를 심하게 받았다. 흔히 겪게 되는 것처럼, 원산폭격에다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같은 것이었다. 구타도 종종 있었다. 몇 번 하고 나니 머리에서 손톱만한 허연 비듬이 떨어졌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참고 지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러한 악습에 저항하기로 했다. 미군들 사이에 부대끼며 스트레스 받는 것도 서러운 판에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시달려야 한다는 데에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선임병들에게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얼차려를 거부했다. 내가 같이 죽겠다고 나서는 데야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선임병들 중에는 ‘어쩌다가 이런 괴물 같은 놈이 신병으로 들어오게 됐나’ 하며 울분을 토하는 자들도 있었다. 나의 개인적인 사보타지가 후임병을 괴롭히는 악습을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선임병장이 되고 나서는 선임병이 후임병을 학대하는 어떤 종류의 행동도 엄격히 금했다. 신병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려고 애썼다.

그런데 세상은 참 좁다. 지난해, 제대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 군대 후배로부터 메일이 왔다. 내가 선임병장 하던 시절에 전입 온 신병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내왔는데, “왕따에 집단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김기삼 병장이 저를 24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해 주었다”고 썼다. 아마 인터넷 상에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변명해 주느라 그런 글을 올린 모양이었다. 나는 잊고 있었는데, 그는 고맙게도 기억해 주었다.

미군의 사법집행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미군의 사법체도가 생각보다 훨씬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후에 들으니, 미군의 사법체계가 미국의 일반 사법체계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온갖 반미 사고에 절어 살다가 우편번호 상으로나마 — 미군부대는 우편번호상 샌프란시스코(APO SF)였다 — 미국의 한 모퉁이를 실제로 겪어보니, 미국이란 나라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 이때의 경험으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미국 법과대학에서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군부대에서의 경험은 내가 이념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일병 시절 숙소에 이념서적을 수십 권 갖다 놓았다. 당시 유행하던 월간 『말』지도 창간호부터 십여 권을 사물함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다.

『말』지는 광화문에 있던 논장서점에서 틈틈이 사 모아 둔 것이었다.

초창기 『말』지는 두께는 얇았지만 내용은 알찼다. 저장도 전쟁이니 하는 용어를 그 잡지에서 처음 접했다. 후에 『말』지가 두꺼워지면서 내용은 오히려 빈약하고 조악해졌다. 같은 방을 쓰던 선임병장은 “인사계가 방을 검열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걱정해 주곤 했다.

그런데, 미군부대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나 자신이 서서히 이념과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걸 느꼈다. 미군들과 섞여 지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GI문화만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여러 모로 크게 앞서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흔히 ‘떨쩡하던 녀석도 미군부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반미주의자가 되어 나온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나는 반미주의자로 들어갔다가, 비록 친미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반미주의에서는 탈피해서 나왔다. 나로서는 다행스런 일이었다.

말년 병장 시절에 군대 내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88서울올림픽 경기를 보았다. 그 해 11월 말 전역했다. 정확히 30개월 9일간의 군대생활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대개 27개월 복무하고 제대했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대학 다닐 때 교련 훈련을 두 학기 이수하긴 했지만 휴학으로 인해 1학기만 두 번 이수했다는 이유로 단 하루도 복무단축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정원 입사를 결심하기까지

내가 정보기관의 문을 두드리기까지는 많은 주저와 망설임이 있었

다. 나도 오랫동안 정보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면서도 ‘내가 위장취업을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기도 했다.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스스로 골수 문제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다.

흔히 “20대에 좌익에 빠지지 않으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40대에 여전히 좌익에 빠져 있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고 말한다. 나도 20대에 한 때 깊이 좌경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생각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문득 깨달은 것은 ‘현실세계를 이념의 틀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 복학해 보니 모든 게 변해 있었다.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은 이미 졸업하고 없었다.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운동권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 민주화 조치와 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자체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모두 방향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했다.

나는 복학하고 나서도 한동안 방황하며 보냈다. 후배들 틈에 끼여 그럭저럭 학교는 다녔지만 열심히 공부하지는 못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마음잡고 고시공부나 해 주기를 원했다.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시공부를 하지는 않겠다’ 고 생각했다. 사법시험에는 한 번도 응시해 보지 않았다. 지난 번 도청사건 이후 많은 언론들은 나를 실패한 고시병 환자로 묘사했다. 나로서는 기분이 과히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사법고시 시험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사실은 변변히 준비하지도 못했다.

나는 고시준비를 한 것도 운동권에 투신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어정

정한 상태로 되어 갔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주변인이 되어 갔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빵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란 말이 더 이상 레닌이 쓴 책 제목이 아니었다. 바로 내 문제였다.

그래서 우선 조금 더 만만하게 보이던 외무고시를 보기로 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행정고시를 보자니 별로 전망이 없어 보였다. 그러저럭 외무고시 1차는 무난히 합격했지만 2차는 준비 부족으로 중간에 나와 버렸다. 1년 더 재수해볼까도 생각해 봤으나, 공부를 더할 돈도 기력도 없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복학 후 나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파일 폭로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社勞盟)」 사건이었다. 나는 89년 복학하여 남궁호경 교수로부터 형법총론을 배웠는데, 이 괴짜 교수님은 형법은 강의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얘기만 했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석사과정에서나 다루어야 할 과목이지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들이 배울 과목이 아니었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것은 남궁 교수가 자신의 교단권을 남용한(?) 처사였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남궁 교수는 몇 년 후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남궁 교수는 학생들에게 두 권의 책을 과제로 주었다. 한 권은 『남영동 24시』이고 다른 한 권은 『보안사』라는 책이었다. 『남영동 24시』는 김근태씨가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한 경험을 기록한 책이고, 『보안사』는 김병진이라는 재일교포 청년이 보안사에서 근무경험을 기록한 책이었다. 김병진은 신림동에서 간첩활동을 하다가 보안사에 체포된 후 보안사에서 역용(易用) —자수한 간첩이 협조자로 바뀌어

활동하는 것—으로 일하다가 일본으로 탈출한 후 그 책을 썼다고 한다.

나는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 내부의 여러 일들이 내가 『보안사』라는 책에서 읽은 것과 똑같은 데 놀랐다. 상관의 이름이나 내부의 분위기, 업무 행태와 구조가 책에서 보았던 내용과 비슷한 게 많았다. 나는 일개 육군 이병이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발각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데 대해 놀랐다. 이때 나는 ‘정보기관이란 데에 한 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몸소 들어가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나는 이 기회를 빌려 윤석양 씨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윤석양 씨는 월간중앙 2004년 7, 8월호에 ‘아담의 굶은 사과’라는 자전적인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 글을 통해 양심선언 전후에 겪었던 내면적인 갈등을 담담하고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우선은 먼저 들어가서 직접 보고 나서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는 사노맹(社勞盟)에 가입한 활동가는 아니었지만, 사노맹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박노해 시인이 발간하던 『노동해방 문학』이나 여러 가지 유인물들을 통해 그들의 활동 내용이나 지향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지금은 제목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김미영인가 하는 여 조직원이 쓴 수기 형식의 책도 읽었다. 그 책은 안기부 도서관에서 다시 본 적이 있다.

당시 나의 사고는 NL계열보다는 PD계열에 조금 더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니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 동지)’이니 하고 외치는 친구들을 경멸했다. 북한을 대안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자주적으로 남한의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려는 사노맹이 마음에 들었다. 그들이 말하던 소위 ‘과학적인 투쟁’ 방법론도 높게 생각했다.

그런 사노맹이 안기부에 의해 일망타진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전국에 있는 사노맹 중앙위원들이 하루아침에 검거되었다. 이는 안기부 정형근 수사국장의 작품이었다고 한다. 갑자기 ‘도대체 안기부라는 데가 어떤 곳이지’에 한 날 한 시에 사노맹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의아심이 생겼다. 정보기관 안에 들어가서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점차 굳어졌다.

나는 나중에 안기부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을 때, 수사국 출신의 교수로부터 사노맹을 검거하게 된 경위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안기부는 사노맹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 안기부는 사노맹 중앙위원이었던 남진현이라는 사람의 뼈를 의도적으로 고장냈다고 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뼈는 최첨단 통신장비여서 청계천에서만 수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사국 수사관들은 청계천 수리점에 잠복하고 있다가 남씨의 꼬리를 잡았다고 한다. 그 후 사노맹 조직을 완전히 파악하고도 한꺼번에 다 잡기 위해 기다렸다가 일망타진했다는 것이다.

체포된 박노해 씨가 자신을 심문하는 수사관들에게 “당신들 같이 충직한 사람들과 함께 혁명사업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본 후, 안기부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더욱 궁금해졌다. 나는 안기부에 들어가서 박노해 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읽어볼 수 있었다. 그 후로는 『노동의 새벽』이나 『노동해방 문학』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그에 대한 환상을 대부분 버리게 되었다. 그도 별 수 없는 또 한 명의 노동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본시 ‘사기업(私企業)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업할 자본이 없으니 취직은 해야 했지만, 사기업에 들어가 평생을 사(私)노비처럼 살기는 싫었다. 그래서 차라리 국가의 녹을 먹는 관(官)노비가 되겠다는 심산으로, 눈 딱 감고 안기부에 입사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나름대로 정보기관에 대해 사전 연구를 좀 했다. 먼저 입사한 친구에게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었다. 정보기관과 관련되는 책이라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구해다 읽었다. 김경재 전 의원이 쓴 세 권짜리 『김형욱 회고록』을 비롯하여, 동아일보에서 펴낸 『남산의 부장들』이란 두 권짜리 책자와, 조갑제 씨가 쓴 『국가안전기획부』라는 책도 읽었다. 다 합하면 10여권 이상 읽은 것 같다. 하지만 훗날 뒤돌아 생각해 보니, 이 서적들이 내가 정보기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다. 정보기관이란 곳은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2장 어린 시절의 추억

(*나의 국정원 체험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 장에서는 ‘나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좀 설명하려고 한다.

사실 출판에 앞서 이런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망설여졌지만 넣기로 했다. 왜냐하면 “전직 국정원 출신이 왜 외국으로 망명까지 하면서 김대중 씨의 반역행위를 고발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어느 정도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 나의 딸과 아들이 이 못난 아버지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 — 영영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 한 번쯤 읽어 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의 국정원 체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독자는 이 장을 건너뛰어도 무방할 듯하다. 지극히 사소한 신상잡설을 늘어놓는 데 대해 먼저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총절의 고장에서 의열을 배우다

1964년 한가위를 며칠 앞 둔 어느 날, 나는 경상남도 밀양의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다. 자손이 귀한 집도 아닌데다 한창 바쁠 때 세상에 나온 죄로, 나의 이 세상 데뷔는 그리 떠들썩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주위의 정황으로 볼 때, 나의 탄생은 그저 없는 살림에 ‘먹는 입(식구) 하나 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다.

나의 고향은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대흥동이라는 곳이다. 대흥동은 일본식 명칭이다. 아마 우리 동네가 일제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1930년대 초, 일제는 대륙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른바 산미증식(産米増殖) 계획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전국의 황무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했다. 낙동강의 한 지류였던 남천강(밀양강)에도 제방을 쌓고 농지를 만들었다. 이 제방공사에 동원되었던 인부들이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 동네는 남천강의 강둑을 따라 길게 자리잡고 있다. 강둑은 높이가 10여 미터에 이르는데다 길이는 족히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다. 그래서 내 기억 속의 고향마을 풍경은 이수복 시인의 ‘봄비’ 이미지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 푸르른 보리밭/ 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 지껄이겠다/ …〈후략〉”

어린 시절, 나는 온전히 남천강가에서 자랐다. 남천강은 나의 놀이터요 젖줄이었다. 해마다 봄철이면 강가 하천부지에서 노고지리 사냥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늦봄이 되면 밀밭 고랑에서 전우놀이를 하며 뛰어다녔다. 강가 모래사장에서는 빠꾸미를 잡고, 강둑에서는 소똥벌레를 잡았다.

여름철이면 하천부지에 소 먹이러 가서 동네 애들이랑 축구하고, 목마르면 강 중간으로 헤엄쳐 들어가 강물을 마시곤 했다. 마른 모래톱 사이에서는 새하얀 물새알을 줍고, 젖은 모래톱에서는 노오란 재첩 조개를 잡았다. 나는 지금도 나의 피 속에는 남천강물이 흐른다고 믿는다.

내 고향 밀양은 충절(忠節)의 고장이다. 조선조 사림(士林)의 태두인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선생이 난 곳이다. 점필재의 아버지 강호

(江湖) 김숙자(金叔慈)는 야은(冶隱) 길재(吉再) 선생의 학풍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조선 개국에 반대하던 야은이 금오산에 은거하고 있을 때, 김숙자가 그의 문하에 들어갔다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강호 김숙자가 처가인 밀양으로 이사해서 점필재를 낳았다’ 고 한다. 점필재가 태어났을 때 ‘마을을 가로 질러 흐르던 시냇물이 단물로 변했다’ 고 하는 전설이 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시내를 감천(甘川) 또는 감내라고 부른다.

사림의 본거지이다 보니 밀양에는 아직도 유교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남아 있다. 조선 후기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한창일 무렵 안동 사람들이 밀양을 낮추어 ‘소밀양(小密陽)’ 이라고 비하한 데 대해 ‘소안동(笑安東)’ 이라고 응수해 줬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이다. 구한말, 경부선과 경전선(慶全線) 분기점이 밀양이 아니라 삼랑진으로 정해진 것도 유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우리 집안의 재실(齋室) 이름은 탁삼재(卓三齋)이다. 풀이하자면 ‘충(忠)·효(孝)·열(烈) 세 가지에 뛰어났다’ 는 말이다. 우리 집안의 시조는 임진왜란이 나자 90노모를 등에 업고 의병에 나선 분이라고 한다. 그의 두 아들은 병자호란이 나자 의병에 참가해 경기도 광주의 쌍령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한다. 그 부인들은 남편들의 주검을 장례지내고 난 후 자결하여 절조를 지켰다고 한다. 이렇게 2대에 걸친 충·효·열의 정신이 우리 집안의 재실 이름에 남게 됐다.

밀양에는 또한 ‘정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다’ 는 아랑의 전설이 살아 있다. 아랑의 전설은 해마다 여름이면 남량특집극으로 TV에서 단골로 이용되는 소재이다. 요즘도 아랑을 기념하여 매년 5월 초순이면 며칠간 아랑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아랑제는 남원의 춘향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 문화축제 행사 중의 하나로 꼽힌다.

밀양은 또한 의열(義烈)의 고장이기도 하다. 사명대사(四溟大師)를 배출한 곳이다. 밀양의 재약산 기슭에 있는 천년 고찰 표충사(表忠寺)에는 그 이름에서부터 사명대사의 열이 서려 있다. 사명대사의 생가 부근에 있는 사명대사 비(碑)는 요즘도 ‘국난(國難)이 있을 때면 맘을 흘린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밀양은 또한 의열단(義烈團)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의열단은 권총 한 자루로 일제에 저항했던 항일결사 단체였다. 1919년 4월 의열단이 만주에서 최초 결성되었을 때, 의열단 단장(義伯)이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을 비롯하여 열 세 명의 단원 가운데 일곱 명이 밀양 사람이었다고 한다. 의열단은 밀양경찰서 폭파사건, 종로경찰서 폭파사건 등 1920년대의 주요 국내외 의거를 주도했다. 의열단 단원들이 후에 광복군을 조직하는 모태가 되었다.

김원봉과 의열단은 그 후 일제 말 중국에서 광복군으로 진화해 나갔다.

여담이지만, 몇 해 전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제에도 출품하여 대단한 상을 타기도 했다고 한다. 그 영화의 선전 포스트에 밀양을 ‘시크릿 선샤인 (Secret Sunshine)’ 이라고 번역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아마 무지에서 비롯된 오역이거나 아니면 햇볕론자들이 억지로 끌어다 붙인 오역인 것 같다.

밀양은 한자어로 ‘빽빽할 밀(密)’에 ‘별 양(陽)’자를 쓴다. 굳이 풀이하자면 ‘햇볕이 잘 드는 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무리 늘려서 해석하려고 해도 무슨 ‘비밀스런 햇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는 ‘햇볕’이란 용어에 조금 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식의 오역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낀다.

실제로 밀양은 소백산맥 줄기의 남쪽 편에 위치한 분지이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곳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요즘도 가끔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밀양이 뉴스에 나오곤 한다. 달기로 소문난 얼음골 사과가 바로 밀양산이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과일의 당도는 일조량이 결정한다.

이 기회에 밀양의 명칭에 대해 뱀 발(蛇足)을 좀 더 그려 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밀양의 고유한 우리말 명칭은 ‘미리벌’이다. 통일신라 시대에 이를 이두식으로 표기하여 ‘추화군(推火郡)’이라고 불렀다. ‘미리벌’을 한자로 음역(音譯)하면 ‘밀(미리) 추(推)’에 ‘불(벌) 화(火)’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밀주(密州)’ 또는 ‘밀양’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후,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나의 가족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은 대가족이었다. 부모님 이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고, 위로 형이 두 명 있고, 누나와 여동생이 각각 한 명씩 있었다. 우리 마을은 이름대로라면 크게 흥해야 마땅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명칭과 다르게 가난한 곳이었다. 당시 시골은 어디나 다 살기 어려웠지만, 특히 우리 마을은 오갈 데 없는 뜨내기들이 모여들던 곳이어서 더 가난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편이었다. 머슴을 한 사람 둘 정도는 되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저축하여 조금씩 땅을 늘린 덕분이었다. 덕택에 나는 어린 시절에 도시락을 못 싸 가서 굶거

나, 등록금을 못 내서 야단을 맞은 적은 없다. 물론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월간조선 2003년 3월호 ‘노벨상 국제로비 진상’ 제하 기사에서는, 필자가 자장면 한 그릇 못 먹어본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선생님을 따라 읍내 고전읽기 시험을 치러 가서 자장면을 먹어 본 기억이 있다. 물론 그때 먹은 자장면 맛도 생생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농사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바깥으로 나다니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농사일은 주로 어머니 차지였다. 험한 농사일을 감당하느라 어머니의 고생이 심했다. 우리 어머니는 아마 이 세상 어느 어머니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사신 분일 것이다. 어머니는 고된 농사일에 단련된 탓인지, 한창 때는 어지간한 남정네들보다 근력이 더 좋았다.

어머니는 소박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고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새벽기도를 나가셨다. 물론 할머니가 된 요즘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고 계실 것이다.

지난번 내가 망명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어머님께서 나에게 국제전화를 하셨다. 그때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요즘 널 위해 매일 밤 샘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 짐작에, 기도 제목은 뻔하다. “하나님, 아직도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 셋째를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대충 그런 내용일 것이다.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회에 나갔다. 어린 시절엔 나도 어머니를 따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갔다. 교인이 10여 명에 불과한 초미니 교회였다. 나는 교회에서 받은 상품으로 초등학교의 거의 모든 학용품을 조달하다시피 했다. 나의 기본적인 도덕관념은 전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친구 영국

이와 함께 2km 정도 떨어진 학교까지 뛰어서 갔다. 도회지 아이들처럼 엄마 손에 이끌려 첫 등교하는 것은, 우리 같은 시골 애들에게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학교에 도착해 보니 운동장에는 이미 많은 애들이 모여 있었다. 예쁜 여선생님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날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이를테면 ‘정체성의 위기’ 라고 할 만한 사건(?)을 겪었다. 나는 그때까지 내 이름이 김기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나를 김기삼이라 불렀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호적이라는 곳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여덟 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나를 ‘만(滿)으로 다섯 살’ 이라고 했다.

나는 왜 갑자기 이름이 바뀌고 나이가 세 살이나 줄어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호적이 뭔지도, ‘만(滿)으로’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나는 ‘뭔가 잘못됐다’ 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선생님이 이름을 틀리게 부르고, 나이도 엉터리로 가르쳐 준다’ 고 생각했다.

솔직히 나는 아직도 내 이름에 약간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기삼(基三)이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좀 촌스런 느낌이 있다. 나는 끝에 숫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대체로 어감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일, 삼, 오, 칠, 팔, 구, 어느 숫자도 이름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심지어 단위가 좀 더 큰 천, 만, 억, 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숫자가 들어간 이름은 어딘지 성의없이 지어진 이름이라는 느낌이 든다.

아마 나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후 즉시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남자아이들 가운데 셋째라는 생각에 그냥 별 뜻 없이 ‘기삼’ 이라고 등록했던 모양이다. 그리고는 집에서는 그냥 기환이라 불렀다. 아직도 나의 시골 친구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

이름만 틀린 게 아니라 생년월일도 잘못 등재됐다. 나의 호적상 생년

월일은 실제보다 1년가량 늦다. 생일도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기재되었다. 아마도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시골에서는 ‘살아남는 것 보라며 적당한 때에 호적에 올린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던 모양이다.

얘기가 나온 김에 나의 출생에 관한 에피소드를 한 가지만 더 소개해야겠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무척 건강했기 때문에 모두 자로 잔 듯 두 살 터울이었다. 그런데 유독 나와 바로 위의 형은 네 살이나 터울이 졌다. 어릴 때 나는 그 점이 항상 궁금했다. ‘혹시 나와 형 사이에 한 명이 일찍 사고라도 당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다.

언젠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어머니에게 그 점에 대해 물어 본 적이 있었다. “어무이(어머니), 와(왜) 히야(형)하고 내하고는 네 살이나 차이가 나능교?”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가 세치(셋) 나코(낳고) 더 안 나올라(낳으려) 했는데(했는데) 할무이(할머니)가 하도 더 나라고(낳으라고) 캐싸서(해서) 니하고 니 동생하고 나온 기다(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불현듯 할머니가 그리워졌다.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가족계획 캠페인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전후 베이비붐이 일어 인구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산아제한이 국가의 주요 사업이 되었다. 요즘처럼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 되어 아이를 더 낳으라고 채근하는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새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소위 ‘3-3-33’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풀이하자면, ‘세 명의 자녀를 세 살 터울로 서른세 살 이전에 낳자’는 구호였다. 당시에는 이런 식의 표어가 유행했다. 군사정권은 숫자와 친했다. ‘하면 된다’ 정신이 지배했다. 목표 지상주의, 효율 지상

주의가 판을 쳤다.

당시 유행하던 표어 중에서는 ‘3-3-3’ 이란 것도 있었다. ‘하루에 세 번, 식사 후 삼 분 이내, 삼 분간 이를 닦자’ 는 캠페인이었다. 요즘 기준으로 좀 황당하고 우습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지금은 모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얘기 같지만, 따져 보면 그리 먼 옛날 얘기도 아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속에 보건소에서 줄지어 예방접종을 맞고, 학교에서 집단으로 채변검사를 하고 구충제를 나눠 주던 시절이 있었다. 어쨌든, 우리 어머니도 혁명정권의 시대정신에 동참하여 세 명만 낳고 그만 낳으려 했는데 구시대 정신에 살고 계셨던 할머니의 강권에 의해 나를 낳았다는 말이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두는 게 좋겠다. 할머니는 전형적인 갱상도(경상도) 시골 할매(할머니)였다. 내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박박 밀지 않고, 스포츠형으로 좀 길게 깎아서 돌아오기라도 하면 “와(왜) 온 돈 주고 반 머리 깎아 왔노(왔느냐)?” 라고 핀잔을 주시던 분이였다.

할머니는 한글을 전혀 읽지 못했다. 아주 완전히 까막눈이었다. 글자는커녕 숫자도 읽을 줄 몰랐다. 심지어는 시계조차 볼 줄 몰랐다. 할머니 방에는 작은 아버지가 생선선물로 사준 꽤종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심각하게 말씀하셨다. “야야, 아무래도 저 시계가 고장이 났는 갑다. 어제 밤에 저 시계가 한 번 땡 치고, 한 참 있다가 또 한 번 땡 치고, 세 번이나 그카더라...”

그 시계는 매 시각 중간마다 한 번씩 울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할머니는 우연히 12시 30분 이전부터 1시 30분 이후까지 깨어 계셨는가 보

다.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난 후 할머니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적적했으면 그런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지독히 아끼며 살다 가셨다. 평생 좋은 옷 한 벌 입어보지 못하고 남루하게 지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아끼는 게 유일한 생존비결인 걸로 아신 분이였다. 벋 알 하나, 밥풀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우리 집 마당은 할머니가 하도 많이 쓸어서 언제나 반질반질했다. 어쩌다 소죽물에 밥풀이 하나라도 발견되는 날이면 마치 큰 난리라도 난 것처럼 온통 경을 치셨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도시락에 밥알을 하나라도 남겨 가면 혼나기 때문에, 도랑에서 도시락을 씻어서 들어가곤 했다.

어린 시절 추억의 단편들

나는 여느 시골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랐다.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았다. 아마도 나는 문명 이전의 마지막 세대에 속할 것 같다. 우리 마을엔 전기도 전화도 수도도 없었다. 나는 예습이란 말도 복습이란 말도 몰랐다. 학교 갔다 와서는 진흙탕 속이나 모래사장에서 뒹굴면서 자랐다. 바쁜 농사철이면 농사일도 도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 먹이고, 꼴 베고, 소죽 끓이는 일은 늘 내 차지였다.

당시 시골의 주요 교통수단은 소달구지였다. 좀 지나서 경운기라는 물건이 들어오면서 달구지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대동 경운기’를 몰고 오시던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 이웃 동네는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서 전기도 일찍 들어 왔지만 우리 동

네는 그렇지 못했다. 찻길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기가 어려웠다. 재수가 좋은 날이어야 겨우 한 대 볼 수 있을까 말까 했다.

어쩌다 멀리서 먼지 폴폴 날리며 제무시(GMC) 트럭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우리들은 “차차차, 차~온다”면서 ‘3-3-7 박수’를 치며 환호하곤 했다. 그리고는 트럭에 한참 매달리어 갔다가 차 뒤 번호판 위에 달린 꼬마전구를 전리품으로 ‘수확’해서 돌아오곤 했다. 어릴 때 나에겐 기차가 오히려 친숙했다. 멀리 강 건너 마을에 경부선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기다란 화물열차가 지나갈 때면 재미로 차량 숫자를 세어보곤 했다. 한밤중에는 ‘철거덕, 철거덕’ 하는 기차소리가 가깝게 들렸다. 후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제초작업을 나가 보니, 우리 중대에서 내가 낯질을 제일 잘 했다. 그때 나는 ‘내가 천생 촌놈인 게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얘기하는 김에 나의 어릴 적 생활에 대해 좀 더 소개해 보겠다. 나는 여느 시골 아이들처럼 들에서 스스로 놀 거리를 찾았다. 이른 봄철이면 노고지리를 잡으러 온 들을 뛰어다녔다. 노고지리 사냥은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다. 우선, 노고지리 둥지를 찾아야 하는데, 무작정 들을 헤맨다고 둥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노고지리가 착지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노고지리라는 녀석은 영리한 동물인지라, 하늘에서 곧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녀석들은 자기 집 근처에 착지하고 난 후, 나름대로 사주경계를 펼친 다음 안전한 걸 확인하고 걸어서 제집으로 찾아 들어간다. 노고지리가 들어가 앉고 나서 조금 지난 후에, 갑자기 달려들어야 한다. 놀란 노고지리 녀석이 자기 집에서 ‘퍼드득!’ 하고 날아오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

이다. 그렇게 해서 노고지리가 날아오른 주위를 뒤지면 보리밭 사이에 다소곳이 자리잡은 등지를 찾을 수 있다. 일단 등지만 찾으면 잡는 건 시간문제이다. 한 군데 출입구만 남겨두고 등지를 봉쇄한 후, 출입구에 다 텃을 놓고 잠복근무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장마철이 지나고 큰물이 진 다음에는 강가에서 빠꾸미를 잡아 싸움을 붙이고, 여름철이면 강둑에서 쇠똥구리를 잡아 싸움을 붙이며 놀았다. 빠꾸미는 모래밭 속 한 뼘쯤 깊이의 구멍 속에 사는 애벌레이다. 구멍에 밀집 대를 꽂은 후 모래를 파내고 나면 잡을 수 있다. 잡은 빠꾸미 두 마리를 고무신 뒤축에 넣어 두면 지들끼리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한다. 빠꾸미는 대가리 색깔이 금색을 띠는 금 빠꾸미와 은색을 띠는 은 빠꾸미가 있는데, 대체로 금 빠꾸미가 싸움을 잘한다.

쇠똥구리는 쇠똥 옆에 구멍을 뚫고 사는, 검은 색깔의 조금 큰 곤충이다. 이놈을 잡으려면 우선 쇠똥을 치우고, 고무신이나 장화로 물을 떠와서 구멍 속으로 물을 부어 넣으면 된다. 한 10여 분쯤 지나면 녀석들이 질식해서 스스로 기어 나온다. 쇠똥구리 수놈은 특히 이마에 멋진 뿔을 달고 있어서 보기가 좋다.

할일 없는 겨울철에는 구슬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등을 하며 놀았다. 특히 ‘망구’라는 놀이를 많이 했다. 아마 표준말로는 ‘술래잡기’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겨울철이면 시골에서는 도박이 유행했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어릴 때부터 화투치기를 많이 했다. 초등학교 시절, 이미 민화투는 물론이고 뽕이나 육백 등 다양한 화투놀이를 두루 섭렵했다. 일찍부터 ‘잘잘이’와 ‘도리짓고뽕’에 눈을 떠서 동네 형들과 어울려 놀곤 했다.

시골에는 마땅한 군것질 거리가 없었다. 나는 간식거리도 흙 속에서 자체 해결해야 했다. 기본적으로 들에서 자라는 것은 모두 먹거리였다.

봄철이면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독에서 ‘피기’를 한 움큼씩 뽑아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초봄에는 참꽃을 꺾어 먹고, 늦봄에는 감꽃을 주워 먹었다. 감꽃은 아삭거리는 감촉과 달콤 씹살한 독특한 맛이 있었다. 감꽃을 지푸라기로 엮으면 예쁜 목걸이를 만들 수도 있었다. 목걸이를 만들어 벽에 걸어 두면 하얀 꽃이 짙은 갈색, 즉 감색으로 변한다. 감이 어느 정도 자라 땡감이라도 되면 소금물에 넣어 푹은 맛을 없애고 먹기도 했다.

여름철이면 참외, 수박 등 서리할 품목들이 온 들에 널려 있었다. 별 맛은 없지만 밀이나 완두콩도 좋은 서리감이었다. 이웃 동네까지 원정을 가서 복숭아와 자두, 포도 등을 서리해 먹는 짜릿한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가끔은 재미로 고구마나 무를 서리해 먹기도 했다. 초등학교 5학년 가을 하교 길에 이웃 동네의 무밭을 서리하다 들켜 줄행랑을 쳤는데, 일부가 가방을 빼앗기는 바람에 다음날 학교에서 단체로 몽둥이찜질을 당하기도 했다. 물론 구루마 떼기로 변상도 해야 했다.

먹을 게 없는 겨울철이면 ‘꼬꾸랑’이나 ‘올빼’를 캐먹었다. 꼬꾸랑이나 올빼는 모두 그 지방의 사투리인데 정확한 표준말은 나도 알 수 없다. 꼬꾸랑은 논에서 자라는, 기다랗고 꼬불꼬불한 풀뿌리 같은 것이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마후라(?)가 막힌다. 그 시절 시골에서는 꼬꾸랑을 먹고 뒤가 막혀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후벼내는 사태가 심심찮게 벌어지곤 했다. 올빼는 겉은 까맣게 윤이 나고 속은 하얀, 동그란 모양의 풀뿌리였다. 씹으면 아삭거리는 것이 제법 맛이 있었다. 겨울철에 캐먹는 ‘배똥구리’는 별미 중의 별미였다. 배똥구리는 겨우살이이라는 채소의 뿌리였는데, 배추 뿌리보다 더 달고 푹푹한 맛이 났다. 이제는 기억 속에나 있는, 배고픈 시절의 아련한 추억들이다. 나는 요즘 ‘우리가 못 먹고 헐벗었던 시절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당시엔 초등학교에서 무료급식으로 빵을 나누어 주던 시절이었다. 반듯한 정육면체 모양에 밑 부분은 조금 단단하게 놓고 새하얀 속살이 포슬포슬한, 무척 맛있는 빵이었다. 이 빵을 얻어먹으려고 일곱 살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이 적지 않았다. 입학할 때는 우리 학년이 70여 명이었는데, 2학년이 되고 보니 5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빵 얻어 먹으러 입학했던 애들이 유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학년은 6년 내내 한 반에서 배웠다. 내 아내는 6년간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내 짝이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머리가 조금씩 튀었다. 그때부터 “착하고 공부 잘한다”는 칭찬을 듣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들려주시던 ‘반쪽이’ 이야기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 나의 최초의 문명사회 경험도 이때 이루어졌다. 선생님을 따라 십리 길을 걸어 읍내 부근에 있던 공중목욕탕이라는 곳으로 단체관광(?)을 갔던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어린이회장이 되었다.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잠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줄어 폐교가 되어 있었다. 운동장에는 잡초가 수북이 덮였고, 그네와 미끄럼틀은 녹슬어가고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마을에 전기라는 것이 들어 왔다. 아마 1975년 늦가을 어느 월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다. 우리 집 마당에는 대한전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다리가 네 개 달리고 가구같이 생긴, 커다란 흑백 텔레비전이 하나 설치되었다. 그 텔레비전은 브라운관 앞에 여닫이문이 있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들었다.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그 텔레비전에서는 군대 행진곡 같은 음악과 함께 ‘육탄의 용사들’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당시 우리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전우(戰友)’라는 드라마였다. 나시찬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이었다. 우리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전에는 김일의 박치기나 압둘라 부처의 16문 킂이라도 보려고 하면 10원짜리 동전을 몇 개 들고 이웃 동네 만화방까지 원정을 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해 가을, 나는 ‘집념(執念)’이라는 드라마에 푹 빠졌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무생 씨의 데뷔작쯤 됐던 작품이었다. 밀양에는 허준이 약초를 캐다는 재약산과, 허준이 스승 유의태의 시신을 해부했다는 석골 동굴이 있다. 석골 동굴은 얼음골과 더불어 여름철에도 얼음이 언다고 하여 요즘도 가끔 뉴스에 나오곤 한다. 근처 석골사 주지가 유의태의 친구였다는 전설도 있다. 이 드라마는 그 후 몇 차례 리메이킹 되기도 했고, 세 권의 책으로 출판되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어릴 때 나는 ‘드라마 제목을 왜 집념이라고 했을까?’ 하고 궁금해했다. 집념이란 말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 ‘잡을 집(執)에 생각 념(念)이라니... 생각을 어떻게 잡는다는 말이지?’ 주위에 물어봐도 시원스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집념’이란 말이 나에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다.

학창시절 기억의 편린들

1977년, 면 단위 중학교에 진학했다. 한 학년에 4개 반이 있었다. 나

로서는 갑자기 훨씬 큰물로 나간 것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는 학교 수업 이외에 따로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다. 대신에 책은 조금 읽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 교실 내에 학급문고라는 것이 들어온 후 『투명인간』, 『해저 이만리』, 『삼총사』 같은 책들을 재미있게 읽었다. 고전읽기라는 게 생긴 후에는 『신유복전』이니 『박씨전』이니 하는 책을 읽고 읍내에 시험을 치러 가기도 했다.

중학교 시절에는 좀 더 많은 책을 읽었다. 어느 일본 사람이 쓴 다섯 권짜리 『삼국지』는 여러 번이나 읽었다. 『걸리버 여행기』, 『로빈슨 크루소』 등도 읽었다. 『세계 위인전』이란 두꺼운 책도 읽었는데, 그 책 속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막사이사이, 케말 파샤, 앵그루마 같은, 세계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들어 있었다. 이런 책들은 모두 큰형이 사다 놓은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대지(The Good Earth)』라는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다. 어린 내 마음에도 그 소설 속의 이야기와 우리 집이 비슷한 데가 많다고 느꼈다. 특히, 소설 속의 여주인공인 오란과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모습이 똑 같았다. 차이점이라면, 대지의 주인공 왕룽은 어찌하다 운 좋게 큰 부자가 되었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소설 속에 혁명가로 나서는 셋째 아들을 — 지금은 그의 이름도 기억할 수 없지만 — 한동안 나의 이상형이라고 믿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나도 공부라는 걸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강권한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내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가장 골짜기 동네인 남산 구비기라는 동네에 사는 친구가 “우리 마을에 서울법대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며 자랑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런 산골짜기에서도 서울법대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고 못 갈 이유가 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친구가 말한 서울법대생은 장기표씨였다. 그분은 당시 시국사건으로 제적되어 쫓기고 있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내 자신이 작은 독재자가 되는 체험을 했다. 그때도 나는 학생회장이 되어 있었다. 나는 ‘나 혼자 공부 잘하는 것보다 친구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학교에서는 아예 내 공부는 팽개치고 다른 아이들을 감독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쉬는 시간이나 자습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방해하는 친구들을 혹독하게 매로 다스렸다. 여자아이들도 엄하게 다루었다. 나는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했다. 고등학교에 가서야 중학교 때 내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집에서는 혼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글자 그대로 ‘코피 터지게’ 공부했다. 시골 중학교에서는 유례없는 높은 성적을 받았다. 동네 사람들이 “천재 났다”고 수군거릴 정도였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마 모르고 한 소리였을 것이다.

중학교를 마칠 즈음,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나고 시국이 어수선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자신의 은사이자 상관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다. 시골 아이들에게는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해 겨울은 어느 때보다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김재규 부장이 사고(?)를 치고 나서 “형님, 한다면 합니다!”라고 외쳤다고 했는데, 웬일인지 나에게서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1980년, 읍내에 있는 밀양고등학교로 진학했다. 형님들은 모두 마산 고로 유학을 갔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진학하던 시절에는 이미 뽕뽕이(무시협)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밀양에 남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그런대로 잘 봤다.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운 내용에서 몇 개 틀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은 거의 다 맞았던 것 같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그야말로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했다. 1학년 때는 집에서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자전거로 통학했다. 1학년 2학기 때 드디어 전교 1등을 차지했다. 거의 전 과목에서 수를 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학년이 끝나갈 즈음에 “너 같은 아이가 잘 돼야 한다”며 격려해 주셨다.

그런데, 나에게 고등학교 공부는 쉽지 않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의 기초학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쉽게 극복이 되지 않았다. 특히 수학과 영어가 문제였다.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 전 학원에서 이미 『성문(成文)기본영어』를 뺏다느니, 『성문(成文)정통영어』를 배웠다느니 했는데, 나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도통 몰랐었다. 과외라는 것은 더더욱 몰랐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남들이 다 다닌 유치원이란 곳이 있는 줄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니, 나의 사정이 한심할 따름이었다. 그렇다고 시골에서 별다른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다. 오로지 학교에서 지정해 준 독서실에서 죽어라고 공부해야만 했다. 국어와 국사 등 인문사회 과목은 재미도 있었고, 내가 가장 잘했다. 모의고사를 치면 항상 국어성적이 수학성적보다 더 높게 나왔다. 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 했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됐다.

입시공부만 하다 보니 고등학교 때에는 별다른 추억거리가 없다. 고

등학교 시절에도 독서는 꾸준히 했다. 집에 형님이 사다 놓은 책들이 있었다. 동서문화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전집을 두루 보았다. 한때 도스토옙스키에 매료되어 『죄와 벌』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을 읽었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내용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심리 묘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고등학교 2학년 말에는 입시 위주의 공부에 회의가 들어 한동안 방황하기도 했다. 그래도 그럭저럭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러나 1982년 치른 학력고사에서는 썩 만족스런 점수를 받지 못했다. 수학 25개 문항 중에서 여덟 문제를 찍었는데, 불행히도 모두 빗나갔다. 여덟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맞았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운이 없었다. 수학 한 과목에서 잃은 점수가 전체 과목에서 잃은 점수를 합한 것과 비슷할 정도였다. 서울대 사회학과에 원서를 냈다가 간발의 차로 떨어졌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형이 보던 고시 잡지에서 고승덕이라는 사람이 쓴 「4년간의 휴가」라는 장문의 합격기를 감명깊게 읽었다. 소위 고시 3과를 최연소, 차석,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의 수기였다. 나는 그의 합격기를 가방에 넣어 다니며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곤 했다. 그 글 덕분에 힘든 수험생활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때는 그가 나의 영웅이었다.

그 후 고승덕 씨는 박태준 회장의 사위가 되었는데, 김대중 정권 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일약 유명해졌다. 그 후에는 증권전문가로 변신하여 TV에도 자주 얼굴을 내미는 모양이었다. 나는 국내 부서에 근무하는 친구에게서 고승덕 씨에 대해 들었는데, 조금은 실망

스러운 내용이었다. 그는 지난번 총선 때에는 서울 서초에선가 당선되었다는 뉴스를 본 것 같다.

그 즈음 『마당』이란 잡지의 오효진 기자가 쓴 ‘고등학교는 시험선수 양성소인가?’라는 글도 인상깊게 읽었다. 이 분은 그 후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군수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내 기억에, 그 잡지는 아마 젊은 시절의 조갑제씨가 편집했던 것 같다. 그 잡지는 지질도 좋았지만 내용은 더 좋았다. 편집도 잘 되었고 사진도 좋았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넌더리를 내던 때였기에, 그 글이 더욱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시험선수’라는 말이 한동안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성격이 좀 재미없는 사람이어서 별명이란 게 없다. 아주 어릴 때에는 ‘역도산’이라고 불린 적이 있다. 역도산은 일본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이다. 김일의 스승이었다는 설도 있었다. 나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키가 제일 컸다. 터울이 많이 진 탓에 어머니의 영양상태가 회복된 덕분이었던지, 아니면 원기소를 많이 먹었던 탓인지, 어쨌거나 발육상태가 괜찮은 편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 머슴이던 우(상) 아저씨가 나에게 ‘역도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듣기 싫지 않은 별명이었다.

고등학교 때에는 ‘소크라테스’라고 불린 적이 있었다. 학교 독서실에서 친구들과 얘기 중에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들은 “악법도 법이다”며 사약을 들이킨 소크라테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자기의 소신에 따라 죽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변호했다. 그때부터 친구들은 나를 ‘소크라테스’라고 불렀다. 요즘도 가끔 인터넷에 글을 쓸 때면 ‘소크라테스’라는 필명을 쓸 때가 있다. ‘김남천’이라는 가명을 쓸 때도 있다. 물론 남천강에서 따온 이름이다.

제3장 병아리 기관원 시절

03정부의 정규 30기

1993년 1월 10일, 나는 안기부 정보학교에 입소했다. 1998년 3월,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원으로 개명되었다. 정보학교는 그 후 정보대학원으로 승격되었다.

한 겨울이었다. 내가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고, 정식으로 정보기관원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입사하기 전에도 인성검사다 뭐다 하며 몇 차례 드나들긴 했지만, 막상 정식 요원이 되어 들어가니 기분이 달랐다. 청사 내에 줄지어 서 있던 곧게 뻗은 소나무가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보였다. 텅 빈 운동장에 누렇게 변색된 잔디가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당시엔 안기부 청사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었다. 해외와 대북정보를 담당하던 부서들은 이문동 청사 내에 있었다. 물론 우리가 입소한 정보학교도 이문동에 있었다. 이문동 청사는 행정구역상 동대문구 석관동에 속했으나 통상 이문동이라고 불렸다. 1995년 청사 이전 후 정보학교도 경기도 성남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국내정보 부서와 대공수사, 외사보안 부서들은 남산 청사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편하게 이문동, 남산이라고 불렀다. 이문동 청사 자리는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의 2대 부장이었던 김형욱 씨가 헬기를 타고 직접 물색했다고 한다.

이문동 청사의 운동장은 당시로는 보기 드문 천연잔디 구장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운동장은 예전에 중정의 축구팀이었던 양지축구단의 연습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양지축구단은 ‘1968년 로마 월드컵에서 북한이 8강에 진출했는데, 김형욱 부장이 이에 자극을 받아 창설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 시절에는 정보기관이 그런 일에만 신경을 썼는가보다.

청사 내를 가로지르는 나지막한 언덕에는 조선조 경종(景宗)과 그의 부인의 묘인 의릉(懿陵)이 아래위로 자리 잡고 있었다. 왕릉은 대개 풍수지리상으로 좋은 땅에 위치해 있다. 당연히 경치 또한 좋다. 봉분 아래에는 양지못이라고 불리는 인공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왕릉 아래에다 못을 팠다고 해서 이씨 종친회의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양지 못에는 서슬 퍼런 시절에 생겨난 코미디 같은 전설이 있었는데, 중정 시절에는 “양지 못의 금붕어를 관리하는 붕어아비도 고향에 내려가면 군수가 직접 영접을 나왔을 정도였다”고 한다.

내가 입소한 정보학교 교육과정은 정규과정 30기였다. 정규과정이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1년간의 신입 부원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는 국정원의 기간요원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정규과정 출신들은 매년 엄격한 서류심사와 공개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원들이다. 이들은 1년간의 고된 합숙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한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은연중에 국정원의 주인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매년 정규적으로 배출되다 보니 선후배 정서도 강한 편이다. 이에 비해, 정규과정이 아닌 일반 공개채용 직원들은 비정규 또는 기본과정이라고 부른다. 요즘은 정규과정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한다.

정보학교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맞아준 사람은 훈육관(訓育官)이었

다. 훈육관은 우리의 일년 간 교육을 전담할 사람이다. 우리 훈육관은 송경〇이란 분으로, 정규과정 20기였다. 학사장교 출신이다. 그는 처음 우리 일행을 맞이한 자리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너희들은 03정부의 정규 30기다”라고 일장 연설을 했다. 우리 기수의 입사를 김영삼 정권의 출범과 연관지어 의미를 부여하려는 듯했다.

훈육관은 교육생들과 긴밀히 교감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기관이란 곳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사 10년 차의 직원 중에서 선발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런 전통이 깨졌다고 한다. 요즘은 12~3년 차 선배 기수에서 훈육관이 선발되는 모양이다. 훈육관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년 선발할 때가 되면 어느 정도 경쟁 분위기가 형성된다. 대개는 해당 연도 동기회가 선거를 통해 품성이 괜찮은 동기를 그 해의 훈육관으로 추천한다. 훈육관은 보통 한 명이지만, 요즘처럼 입사 인원이 늘어나면 두 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때에는 여자 동기들을 담당하는 여자 훈육관이 한 명 있었다.

훈육관은 어렵고 힘든 자리이다. 교육기간 동안에는 교육생들과 같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몇 달 간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백여 명의 인원을 지휘 통솔하는 일이 간단치 않은 데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직접 일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고달프기까지 하다. 당연히 교육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장 훈육관의 훈육 책임부터 따진다. 나처럼 좀 큰 사고(?)를 치면 더더욱 훈육책임을 묻게 된다.

우리 훈육관은 첫인상이 별로였다. 생김새며 목소리가 영 호감이 가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첫인상과는 달리, 그가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사실 나는 교육기간

중이나 국정원 생활 중에 훈육관으로부터 과분한 애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에 건너오고 난 후 아직까지 훈육관에게 변변히 전화조차 못했다. 미안한 마음 때문이다.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 동기는 남자가 100명, 여자가 20명이었다. 우리는 모두 40명씩 세 개 반으로 나뉘어졌다. 나는 A반 17번이었다. 전반기 교육의 모든 과정은 반 단위로 이루어졌다. 운동경기도 반 단위로 시합이 벌어졌다. 우리는 정식 신분증 대신 노란색의 임시 명찰을 지급받았다. 청사 내에서는 항상 명찰을 양복 상의에 부착하고 다녔다. 노란색은 병아리를 연상시키는 색깔이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테면 노란 명찰은 병아리 기관원의 임시 신분증이었던 셈이다.

동기들 간에 나이 편차가 있었다. 나이 많은 동기와 가장 어린 동기는 7~8년간의 차이가 났다. 대학을 마치고 곧바로 입사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서 몇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동기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다. 재수와 휴학으로 인해 입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동기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내가 형이라고 불려야 하는 동기도 더러 있었다.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언어 문제로 불편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언어문제 때문에 서로 토론도 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결론이 잘 내려지지 않았다. 입사동기라면 서로 친구처럼 지내야 하는데,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성인이 된 후 입사한 탓에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내 경우에도 동기 중에 고등학교 3년 후배가 있었다. 그래서 같은 동기지만 나이 차이가 좀 나면 서로 존댓말을 쓰곤 했다.

입사 첫날, 우리는 양지관이라는 기숙사에 입소했다. 방은 2인 1실로 배정받았다. 양지관은 사각형 모양의 다층 건물이었었는데, 건물 중간에 조그만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양지관뿐만 아니라 이문동 청사 내의 거의 모든 건물들은 대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미관상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중간이 뚫린 사각형 구조가 폭격을 맞을 경우 건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라고 했다.

양지관은 우리 기수가 최초로 입주한 신축 건물이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의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매일 청소 때면 바닥을 쓸고 닦았다. 난간에는 손때가 묻지 않도록 기름칠도 했다. 양지관은 겉은 번지르르했으나 사실은 부실투성이 건축물이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철이 벗겨져 금세 흉물로 변했다. 당시에 엄삼○ 기조실장이 건축과정에서 ‘많이 해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보학교의 생활

정규과정 교육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피교육생 신분이란 게 다 그렇지만, 머리가 굳어진 후 통제된 생활을 강요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간이나 하다 보면 지치고 진이 빠진다. 처음 몇 달 간은 한겨울의 훈련이라 더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르겠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이었지만, 그렇다고 지옥훈련 같은 것은 아니었다.

처음 몇 주가 지나자 “퇴사하겠다”고 나서는 친구들이 생겼다. 제임스 본드를 꿈꾸고 들어왔는데, 막상 겪어 보니 논산훈련소에 재입소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퇴사하는 요원이 생겨 결원이 되면 금방 차순위 입소자가 그 자리를 메웠다. 나도 처음 세 달은 무척 견디기가 힘들었다. 전혀 새로운 세계에 내 자신을 적응시켜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럭저럭 그런대로 잘 참고 넘겼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모두 곤색 유니폼 양복을 입고 다녔다. 이동할 때는 언제나 줄을 맞추어 걸었다. 다행히 발까지 맞출 필요는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청사 내에서 선배 직원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저 멀리서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해야 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단지 선배라는 이유로 소리 높여 인사하는 게 고역이었다.

하루 일과는 대개 아침 6시에 시작되었다. 한겨울의 아침 6시는 캄캄한 새벽이다. 기상나팔은 없지만, 방송실에서 보내주는 기상음악 소리에 잠을 깬다. 노래 선정은 학생회장이 했는데, 대개 경쾌한 곡조로 골라 틀었다. 학생회장은 한두 달마다 돌아가면서 선출했다. 한 번은 짓궂은 동기 녀석이 「철의 노동자」를 트는 바람에 모두가 혼비백산하기도 했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양지관 앞에서 아침점호부터 했다. 점호가 끝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청사 내에서 2km 정도 아침구보를 했다. 대개 사열(四列) 종대로 줄을 맞추어 군가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구보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다시 군가를 부르는 것이 어딘가 좀 어색할 때가 있었다. 구보가 끝나면 씻고, 방 정리하고, 수업 준비를 한 후 아침식사를 했다.

수업은 보통 9시에 시작해서 하루 6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수업이 끝나면 대개 한 시간 정도 합기도를 배웠다.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좋겠지만, 그런 날은 거의 없었다. 정식 교과과정이 끝나는 시간부터 정작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군대에서 내무반 생활이 더 어

려운 것처럼 말이다. 양지관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통제된 생활이 이어졌다.

저녁을 먹고 나서 또다시 단체 구보를 했다. 2km 정도 하고 간단히 끝나면 그날은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대개는 운동장에 남아서 더 달리거나 체육관으로 옮겨가서 여러 가지 구기 종목을 했다. 운동시간이 끝난 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거의 매일 집합이 걸렸다. 집합이 걸리면 또 다시 양지관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거나 운동장을 돌아야 했다.

비록 통제된 생활이긴 했지만, 양지관 생활 중에 그나마 여유가 있는 시간은 저녁시간이었다. 물론 이때에도 완전히 자기만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대개 강당에 모일 일이 생겼다. 입소 초기에는 거의 매일 모였다. 그리고 나면 또 다시 청소하고 정리하고 취침점호에 들어갔다.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끝나야 비로소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었다.

양지관에는 다목적실이라고 불리는 강당이 있었다. 이 강당은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매일 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행사가 열렸다. 가끔은 영화를 보여줄 때도 있었다. 시중에 개봉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검열(?)하는 영화도 있었다. 훈육관이 어디에선가 필름을 구해 왔다. 시중에 공개되지도 않은 영화를 입수하는 것은 아마도 정보기관이 잘 나가던 시절의 유산이 아니었는가 싶다. 가장 먼저 봤던 영화는 스나이퍼(저격수)라는 영화였는데, 내용은 별로인 시시한 영화였다.

어떤 때에는 선배들이 위문하러 와서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다. 바로 위의 선배 기수들이 오기도 했고, 훈육관 기수가 온 날도 있었다. 대개 그런 날이면 푸짐한 음식도 같이 준비해 오곤 했다. 낮에 정식으로 받기 어려운 교육을 밤 시간에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

내용도 가지가지였다. 강사를 초빙하여 사교댄스를 배우기도 했고, 사교모임에서의 에티켓 같은 것을 강의할 때도 있었다. 차력사나 기(氣)치료를 초청해 오기도 했다.

양지관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런 일 중의 하나가 취침점호였다. 논산훈련소에서나 하던 취침점호를 양지관에서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양지관의 취침점호는 논산훈련소에서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되었다.

점호가 시작되면 훈육관은 각 방의 청소 상태나 사물정돈 상태부터 철저히 점검했다. 점호 시 번호와 성명을 복창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그 복창 소리를 장난이 아니게 크게 질러야 했다. 양지관이 아주 떠나갈 듯이 요란스러웠다. 나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 멀리 복도 끝에서 “51번 이영O입니다!”라고 소리치던 친구의 고함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듯하다.

점호를 하다 갑자기 집합이 걸리는 수도 종종 있었다. 옛날 선배들은 추운 겨울날에도 팬티바람으로 양지못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행히 그 정도로 험악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여자 동기들 덕택이었을 것이다. 훈육관이 아무리 악독해도 한겨울에 여자들을 얼음물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꽤나 시달렸다. 그나마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그것도 여자 동기들 덕분이었을 것이다.

정규과정 교육은 크게 전반기 과정과 후반기 과정으로 나뉘었다. 전반기 과정은 정보요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품성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로 기본 교양과목을 배웠다. 물론 건전한 국가

관을 함양하기 위한 정신교육에 주안점이 주어졌다. 영어와 일어도 100시간씩 배우고, 정보원이 알아야 할 다양한 주제의 교과목들을 배웠다. 국내정세와 국제정세, 북한정세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국정원 교육이라고 해서 뭔가 기상천외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다. 여담이지만, 예전에 모 신문이 국정원의 정규과정 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중앙일보 2006. 5. 29. '국정원 교육현장 언론 첫 공개' 제하 기사 참조). 그 기사를 보니, 그제나 이제나 교육 분위기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그 기사에서는 정규과정 학생들이 기억술이나 독심술 등을 배우는 것으로 소개되었는데, 조금 과장된 느낌이 들었다.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중에 가끔은 희귀한 자료를 접할 기회도 있었다. 우리는 김정일의 비밀파티에서 기쁨조가 캉캉춤을 추고 있는 영상물을 본 적도 있고, 한총련의 비밀 대의원 회의를 찍은 비디오를 본 적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실무 부서에서 입수한 자료들일 것이다.

전반기 교육에서는 체력단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반기 말에 계획되어 있는 공수훈련과 해양훈련에 대비하여 체력을 길러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체력을 기르는 데는 아무래도 구보(驅步)가 최고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줄을 맞추어 구보를 했다. 하루에 평균 6~7km는 족히 달린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무릎 관절을 상하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자연히 구보 때마다 부상을 핑계로 열외(例外)하는 친구가 생겨났다. 유독 상습적으로 열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녀석의 별명은 '열외거사(例外居士)'가 되었다. 나는 중국말로 그를 '리와이(例外)'라고 불렀다. 그는 아마 지금쯤 중국 땅 어느 하늘 아래에서 정보관 노릇을 하고 있을 것

이다.

매일 합기도를 한 시간씩 단련했다. 합기도 교관은 ‘칠룡사부’라고 불렸다. 그 분의 성함이 ○칠룡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합기도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흰칠한 키에 시원한 발차기와 꺾기가 아주 일품이었다. 칠룡사부가 재미있게 가르쳐줘서 처음 한동안은 합기도가 교육과정의 활력소가 되었다. 우리는 전반기 교육을 마칠 때쯤에 단체로 심사를 받고 모두 공인 유단자가 되었다. 이를테면 속성으로 단증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권총사격 훈련도 받았다. 사격장은 양지관 근처 산기슭에 있었다. 사격 교관은 정재○이라는 분이었는데, 특등사수 출신인 것 같았다.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사격훈련이 그다지 강조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우리는 공기소총부터 시작하여 점차 실탄 권총사격까지 수십 시간 배웠다.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권총사격에 상당한 자질이 있었다. 배운 대로 조준하고, 차분하게 격발한 뒤, 표적을 확인해 보면 언제나 성적이 그런대로 괜찮게 나왔다. 우리 반에서는 나와 ‘열외거사’의 사격 실력이 가장 나은 편이었다. 우리는 사격실력을 놓고 조그만 내기를 걸기도 했다. 교육 후 실무에서는 실제로 권총을 잡아 볼 기회가 없었다. 요즘은 사격이 레저 스포츠쯤으로 인식되기 때문인지, 내곡동 청사 내의 국가정보관에 시뮬레이션 사격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방문객들도 연습사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전반기 교육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난 후에는 역사탐방이라는 명목으로 강화도와 같은 사적지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오기도 했다. 역사교육을 담당했던 교수는 김창○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수업 중에 우리에게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열변을 토할 때가 많았다.

처음 세 달 간은 외출도 없는 지루한 훈련병 생활이 이어졌다. 가끔 목욕 외출이라는 구실로 바깥 세상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때에도 회사 부근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게 고작이었다. 대개 삼삼오오 잠시 나가 맥 주나 한 잔 하고 돌아와야 했다. 나 같이 결혼한 교육생들에게는 이때가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목욕 외출은 결혼한 교육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훈육관이 배려한 제도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짧은 틈을 이용해 아내와 꿀 같은 접선(?) 시간을 가졌다. 입사 바로 직전에 황급히 결혼하느라 제대로 된 신혼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욱 더 절실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목욕 시간이 되면 아내에게 전화해서 회사 앞에 대기하도록 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여관 문을 나서다가 아는 동기 부부들과 서로 멧쩍은 조우를 하기도 했다.

나는 별로 좋은 교육생이 못 되었다. 성적은 나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학입시 학력고사를 치르고 나서 ‘다시는 성적을 가지고 남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더라도 양보하기로 했다. 다른 동기들은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곤 했지만, 나는 언제나 태연자약했다.

다들 성적에 신경을 쓰느라 더러 컨닝 비슷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백지를 낼지언정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호기를 부렸다. 나는 친구들에게 ‘봉황은 오동나무 가지가 아니면 앉지 않고, 죽실(竹實)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며 혼자 고고한 척 주접을 떨기도 했다.

시험은 대개 주관식으로 출제되었는데, 나는 그야말로 ‘주관적인’ 답안을 냈다. 그런데 가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었다. 교수님 중에는 틀에 박힌 모범답안보다 나의 ‘독창성’이 듬뿍 반영된 개성

있는 답안지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와 언론을 가르쳤던 박상O 교수님이 나의 반골 기질을 높이 사주었다.

교과목 가운데 영어 성적은 그런 대로 괜찮았지만, 새로 배우는 과목들은 성가시기만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어가 골칫거리였다. 나는 아예 열등생으로 분류되어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다. 가끔 교수님께 불려가 혼나곤 했다. 그래도 ‘공부해야겠다’는 항학열의가 별로 생기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경쟁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성적 상위자 20명을 뽑아 교육 후에 2주간 미국으로 여행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근도 나에게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모르긴 해도, 아마도 나는 성적 하위자 20위권에 들었을 것이다.

이 시절 나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운동은 원 없이 했다. 매일 밤 잠을 내어 혼자서 양지관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 나의 인생 중에서 이때가 가장 체력이 좋았던 때가 아닌가 싶다. 그땐 나도 근육맨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짱 정도는 되었다. 옷통을 벗고 달리기라도 하면 여자 동기들이 “우~!” 하고 야유를 보내곤 했다. 하복 맞추러 갔을 때 재단사 아가씨는 “무슨 운동을 하세요?” 하고 물었다.

나는 수업시간에 노상 졸았다. 정보학을 가르치는 모 교수님은, “우리 동기 중에 수업시간에 제일 많이 졸던 동기생이 가장 먼저 부서장을 지내고 벌써 퇴사했다”고 하면서 고맙게도 나의 졸음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교수님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지간히 졸더라도 이해해 주는 분위기였다.

우리는 교실 내에서 자리를 번갈아 바뀌가며 앉았다. 여러 친구와 사귄 수 있도록 한 훈육관의 배려였다. 한 번은 이충O과 짝이 되었는데,

그는 여러모로 재미있는 친구였다. 어느 외국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을 하다가 입사했다는데 순발력과 기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유머가 있어 좋았다.

그 녀석과 이런저런 농담을 하던 중에 ‘앞으로 어떤 직원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다. 그는 “까도 까도 속이 안 보이는 양파 같은 공작관이 되겠다”고 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몇 조각으로 나누어 운용할 수 있는 마늘 같은 정보관이 되겠다”고 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각자 이름하여 ‘양파 허심법(虛心法)’과 ‘마늘 분심법(分心法)’을 연마하자는 데 의기투합 했다. 그는 성공적인 허심법을 단련한 덕분에 지금쯤이면 훌륭한 공작관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나는 분심법을 연마하던 도중에 「노벨평화상」이라는 고비에서 주화입마(走火入魔)에 걸린 꼴이 되고 말았지만.

공수와 해양훈련

전반기 교육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즈음 산악훈련을 갔다. 나는 동기들이 먹을 쌀자루를 지고 북한산에 오르느라 땀 깨나 흘렸다. 북한산과 도봉산 일원에서 야영을 하며 며칠을 지냈다. 신동아 2008년 7월 호에서 정규과정 학생들의 지리산 종주 훈련을 기사화 했다. 요즘은 북한산 일대에 등산객이 너무 많아 산악훈련 장소를 지리산으로 옮긴 모양이다. 그 기사는 산악훈련 과정을 현장감 있게 잘 소개하면서 정보와 감동을 함께 전달하는 훌륭한 기사였다.

우리들은 산 속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낮에는 체력단련을 하고 야간에는 담력훈련을 했다.

몸이 고되기는 했으나, 돌이켜보면 즐거운 추억이었다. 비좁은 텐트 속에서 야영하다 보니 동기들끼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가끔 훈련 후에는 소주 한 잔으로 회포를 풀 때도 있었다. 북한산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소주는 특별한 정취가 있었다.

밤이면 텐트 속에서 끈들끼리 몰래 어울려 세븐오디 포커를 치기도 했다. 세븐오디가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포츠라는 걸 알게 되었다. 혼육관은 이런 종류의 여가 선용(?)은 관대하게 눈감아 주었다. 그 후 양지관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몰래 포커 판을 벌였다. 교육 후에도 마음 맞는 동기들끼리 가끔 여관이나 음식점에서 밤새 포커 판을 벌이곤 했다.

전반기 교육과정의 하이라이트는 공수와 해양훈련이었다. 두 훈련 모두 체력과 담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었다. 공수훈련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특전사 훈련장에서 3주간 실시되었다. 공수 훈련장에 도착해 보니, 훈련장이 모래사장일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어긋났다. 그저 산골짜기에 나무를 베어내고 적당히 정리한 곳이었다.

우리는 일반 훈련병들 틈에 끼여 함께 훈련을 받았다. 처음 2주간은 기본동작과 막타워(모조시설) 훈련을 했다. 기본동작을 익히기 위해 실 새 없이 뛰고 구르는 동작을 반복했다. 막타워는 높이가 10m쯤 되었다. 인간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그 정도 높이라고 했다.

나는 평소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타워에서 뛰어내릴 때 도통 자세가 나오지 않았다. 두 손으로는 예비 낙하산을 착 감싸 쥐고 다리를 곧게 펴서 몸을 V자 모양으로 만들면서 양 발로 동시에 착지해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나는 그게 잘 안 되었다.

부끄럽게도 여자 동기들 중에도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는 유감스럽게도 영 ‘아니올시다’였다. 뛰어내릴 때마다 몸이 오그라들다 보니 자세가 잘 나오지 않았다. 겁에 질려 눈을 감는 것도 큰 문제였다. 착지 자세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먼저 통과하여 쉬고 있었는데, 나는 항상 맨 나중까지 남았다.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와중에 모 방송사의 무슨 드라마 제작팀이 와서 공수훈련 장면을 촬영하고 돌아갔다.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탤런트 최수종 씨가 막타위를 멋있게 뛰어내렸다”고 했다. 그가 생긴 것 하고는 다르게 ‘깡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무슨 연속극에서 그가 장보고를 연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가 보여준 카리스마는 그의 성격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수훈련 중에 한 번은 우리 동기들과 학사장교 출신 훈련병들 간에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다.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집단인데 비해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오합지졸들이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두들겨 뺐다. 같이 공수훈련을 받던 하사관 후보병들도 있었다. 그들은 노란색의 임시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단풍하사’라고 불렸다. 그들의 눈에 우리들이 좀 과격해 보였던지, 그들은 우리를 ‘대북 침투요원’이라며 수군거렸다.

그런데, 문제는 패싸움 후에 발생했다. 구타를 당한 장교들이 사병들 앞에서 집단으로 구타를 당해 장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다며 ‘훈련을 거부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훈련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바깥으로 소문이 날 리는 없었지만, 외부로 알려지면 좋을 게 없는 일이었다. 그 전 해에는 공수교육을 받던 안기부 훈련생들이 외출 중에 음주사고를 일으킨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말썽이 된 적도 있었다.

이번에도 훈육관이 나섰다. 마침 훈육관이 학사장교 출신이어서 장교들을 달래는 데 유리했다. 훈육관은 패싸움을 주도한 동기들을 불러내 공개적으로 뺏따를 쳤다. 몽둥이가 여러 개 부러져 나가면서 약간의 전 시효과가 있었다. 훈육관이 그런 식으로나마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자 학사장교들도 분이 좀 풀어진 것 같았다. 그들도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았다. 다행히 사건이 그 정도에서 원만히 해결되었다.

공수훈련은 처음 2주간 기본훈련 기간이 힘들었고, 마지막 주 실전 낙하 때는 오히려 편했다. 나는 체력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다른 동기들은 매우 힘들어 했다. 특히 여자 동기들은 불쌍하게 보였다.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으나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했다.

공수훈련은 최악의 후유증을 남겼다. 부상자가 여럿 발생했다. 낙하산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안전이다. 부상하지 않는 게 중요했다. 안전하게 낙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낙하지점을 잘 잡아야 한다. 중앙 십자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평지에 착지해야 한다. 적어도 훈련장 안쪽에 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점은 두 발을 동시에 착지하는 것이다. 낙하하다가 지면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땅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당황하여 발을 헛디디면 발목을 빼게 된다. 자갈밭에라도 떨어지게 되면 다리뼈가 부러져 나간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네 차례 점프하기로 되어 있었다. 기구 점프 1회, 헬기 점프 1회, 그리고 야간과 주간 비행기 점프 각 1회씩이었다. 기상 악화로 인해 기구 점프는 몇 명만 실행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었다. 헬기 점프는 그런대로 무사히 넘어갔다. 그런데 야간 비행기 점프 때 운이 좋지 못했다. 불행히도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밤이었다.

나는 낙하 대열의 중간쯤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 십자로 근처의 안전 지대에 무사히 착지했다. 하지만 동기들 중에는 바람에 밀려 훈련장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 버린 친구도 있었다. 어떤 동기는 바위에 부딪혔고, 일부는 나무에 걸렸다. 마이크로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지휘하던 통제관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거침없이 튀어 나왔다.

다음 날 주간 낙하 때에도 불운이 이어졌다. 두 번의 낙하 훈련에서 부상자가 열댓 명이나 나왔다. 단순히 발목을 뺀 정도는 아예 부상자 측에 끼지도 못했다. 대부분 다리뼈가 부러져 나갔다. 그나마 평생 불구자가 안 생긴 걸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 정도였다. 그 전 해에 교육받은 선배 중에서는 심하지는 않았지만, 평생 불구가 된 경우도 있었다.

부상한 동기 가운데 김준O이는 사고를 당할까봐 “발톱도 깎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가 가장 크게 다쳤다. 시퍼렇게 부어 오른 그의 다리를 보고 있자니 애처로운 기분이 들었다. 그는 큰 수술을 받고 여러 달 동안 гип스를 한 채 살아야 했다.

훈련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니 강대O 교무과장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 전례가 없었다”며 심하게 나무랐다. 그는 우리들이 군기가 빠져서 사고가 많이 난 것처럼 믿고 있었다. 다친 학생들을 위로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자신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 후 김대중 정권에서 국정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관리국장이 되었다고 한다.

공수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해양훈련을 떠났다. 해양훈련은 인천 월미도 부근에 있는 모 UDT 부대에서 몇 주간 실시되었다. 나는 수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어린 시절 강가에서 익힌 수영실력이 도움이 되었다. 나는 우수 수영요원으로 뽑혀 따로 수중폭파(스쿠버) 훈련도 맛보기로 약

간 배웠다.

낮에는 뺨발을 기고, 밤에는 하수도 구멍을 통과했다.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행군하고, 노를 저어 상륙하는 훈련도 받았다. TV에서 보던 UDT 병사들이 하는 훈련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했다. 모두들 육체적으로는 고단해 했다. 이번에도 여자 동기들이 특히 많이 힘들어 했다. 후에 교육을 마치고 그들이 실무 부서에 배치되고 나서 “공수와 해양 훈련 때 고생한 게 아까워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전반기 교육을 마칠 즈음 강남에 있는 향군회관에서 위로파티가 열렸다. 나는 여기서 일생일대의 커다란 실수를 하고 말았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독한 술을 넘죽넘죽 받아 마시다가 속된 말로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것이다. 마신 것과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횡설수설 해댔다고 한다. 나는 양지관으로 돌아온 후에도 깨어나지 못했다.

훈육관이 단단히 화가 났다. 나 하나 때문에 전 동기들이 한밤중에 집합하여 운동장을 수십 바퀴나 돌았다. 나는 인사불성이 되어 땀 수도 없었기 때문에 동기들이 돌아가면서 들쳐 업고 뛰었다고 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깨어나 보니, 모두들 지난 밤 나를 업고 뛰었던 무용담을 들려주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돌이켜 보면, 나는 교육과정 중에 몇 차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첫 번째 실수는 전반기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도중에 미쳐 재채기를 참지 못했다. 가까스로 입을 틀어막았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일부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져 나간 밥알이 테이블에 원 바운드하더니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던 여자 동기의 식반 안으로 골인해 버렸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고맙게도 그 여자 동기는 현명하게 사태를 수습해

주었다. 그녀는 키도 작고, 입도 작고, 나이도 작고, 모두 다 작았는데, 마음 하나만은 넓고 깊었다. 그녀는 훈련을 마치고 동기와 결혼했는데, 아마도 회사생활과 결혼생활을 다 잘 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실수는 전반기 교육이 끝날 즈음에 일어났다.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단체로 테니스를 배웠다. 그런데, 코트 수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았다. 한 코트에 여러 명이 들어가서 쳤다. 나는 혼자서 서비스 연습을 했다.

그런데 나의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던 탓인지 내가 친 공이 상대방 코트에 있는 여자 동기의 얼굴을 강타하고 말았다. 그녀는 공수훈련 때 막타워 자세가 가장 훌륭하게 나왔던 여걸(?)이었는데, 내 공을 맞고는 짚 단 넘어지듯이 그 자리에 펍 쓰러져버렸다.

급히 가까운 경희대 병원으로 그녀를 실어 갔다. 불행하게도 눈에 정통으로 맞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민이 되었다. 병원비는 나와 동기회가 반반씩 부담했다. 정식으로 사고를 보고하게 되면 골치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적으로 처리했던 것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몇 주간 입원 후에 무사히 퇴원했다. 동기들은 “네가 결혼만 안 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건데”라며 놀려댔다. 결국 그녀도 병원에 자주 면회를 갔던 어느 동기생과 결혼하게 되었다. 아마 그녀도 지금쯤은 훌륭한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부적부 번호 27444

후반기 교육은 출퇴근하면서 받는 교육이었다. 전반기에 비해 훨씬

여유가 있었다. 반도 다시 조정되었다. 각자 보직하게 될 업무 위주로 소규모 반으로 재편성되었다. 우리들은 국내정보반, 해외정보반, 북한 정보반, 공작반, 수사반, 심리전반, 통신반 등 각각 세부 전문 직역별(職域別)로 나뉘었다.

나는 국내 정보반에 배속되었다. 전반기 교육을 마칠 즈음에 훈육관과 진로상담이 있었는데, 나는 “국내정보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해 놓은 터였다. 우리 반은 남녀 합해 모두 15명이었다.

후반기 교육은 주로 현장실습 위주였다. 예를 들면, 면담유출 기법을 실습하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사를 접촉하여 특정한 정보를 알아내 오는 과제가 부여되기도 했다. 그밖에 미행 감시하는 요령이나, 공작원을 접촉하는 방법, 공작망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방법, 카메라나 녹음기 등 채증 장비를 사용하는 요령 같은 것을 실습했다. 교수님들은 진지하게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피교육생들은 그저 느슨하게 임했다.

나는 후반기에도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학과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동기들과 어울려 놀며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후반기 교육 중에 단체로 자동차 면허도 땀다. 당시에는 아직 자동차 운전이 일반화되기 이전이라 입사한 친구 중에 면허증 소지자가 많지 않았다. 우리는 면허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후 단체로 면허시험을 쳤다.

나는 하도 농땡이를 쳐서 혹시 필기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요행히 가까스로 붙었다. 면허증을 땀 후 18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10년 된 대우 로열살롱 중고차를 샀다. 구닥다리 톱차였지만 꽤 큰 차였다. 크기로만 보면 ‘국장급 차’라며 친구들이 놀렸다. 이 차는 내가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 분당 - 내곡 간 고속도로에서 술 먹고 한밤중에 성능을 마음껏 시험해 본 적도 있었다. 철없던 시절이었다.

후반기에는 산업시찰이나 판문점과 땅굴 견학 등 여러 가지 명목으

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마침 그해에 대전에서 과학엑스포가 열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며칠간 숙박하면서 엑스포를 관람하기도 했다. 당시엔 정규과정 학생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지부 요원들이 아주 융숭하게 신경을 써주는 게 관행이었다.

전국 각지를 다녀보니 각 지방마다 음식문화가 많이 달랐다. 전주에서 먹었던 비빔밥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비빔밥 자체도 맛있었고, 무엇보다 밥상 위의 그 푸짐함이 인상깊었다. 광양제철소에 들르는 길에 남원에서든 그럴듯한 한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마산에 들렀을 때는 그 지방 특산의 최고급 해물탕을 먹었는데, 맛이 영 별로였다. 경상도 음식은 그저 맵고 짜기만 했다. 나는 경상도 출신이지만, 경상도 음식이 그렇게 형편없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다.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우리들은 정식으로 부적부(部籍附) 번호가 새겨진 신분증을 지급받았다. 부적부 번호란 국정원 직원 개개인의 고유 번호이다. 나는 27444란 부적부 번호를 부여받았다. 번호의 시작이 1번부터인지 10001번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보다 앞서 국정원을 거쳐 간 선배들이 적어도 만 명 이상은 된다는 의미였다.

신분증에는 상반신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각자 고유의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다. 국정원 직원의 신분증은 단순히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전자출입증 구실을 한다. 청사를 출입할 때 신분증이 열쇠 구실을 한다. 청사 내에서는 직원들의 동선이 완벽하게 모니터링된다는 뜻이다. 누가 지각을 했는지, 누가 야근을 했는지 자동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외부인이 신분증을 입수하게 되면 무단으로 국정원 청사에 접근할 수 있다. 외부인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그런 이유로 신분증 분실은 주요 처벌 대상이다. 국정원 직원의 징계는 거의 8~9할이 신분증 분실로 인한 것이다. 징계의 최하가 부서장 경고감이다. 경고라도 받게 되면 제때 긴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의 신분증 관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아주 철저하다. 대부분의 직원은 신분증을 아예 와이셔츠 윗주머니 속에 핀으로 고정시키고 다닌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을 가장 쉽게 감별하는 방법은, 와이셔츠의 윗주머니를 보면 된다. 주머니 속에 딱딱한 신분증을 숨기고 있으면 국정원 직원이 틀림없다.

이렇게 중요한 신분증이다 보니 이에 얽힌 에피소드도 많다. 국정원 직원들은 소위 ‘신분증을 까는’ 일을 극도로 창피하게 여긴다. 그래서 평소 신분증을 까지 않고 상황을 수습하는 능력(?)을 길러 두어야 한다.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거리에 차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신호위반에 걸리더라도 “야 비켜! 바빠!” 정도로 가볍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이야 사정이 어디 그런가. 시절이 변해 이제는 거리의 의경이 가장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괜히 부딪혔다간 창피만 당하기 십상이다.

옛날에는 “포(包)가 포(包)를 잡아먹는 법이 어디 있는감?” 정도로 얘기하면 피차간 적당히 요해(了解)가 되었던 모양인데, 요즘에는 “같은 정부미 먹는 사람끼리…”라고 구차한 동질감을 호소해도 잘 먹히지 않을 때가 많다. 최악의 경우에는 “야! 지금 미감(미행 감시) 중이야!”라고 업무내용을 고백(?)하고서야 겨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나도 언제인가 애마(愛馬) 로열살롱을 몰고 시내를 운전하다가 까칠한 의경에게 걸린 적이 있다. 부득이 신분증을 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짧은 의경은 나의 신분증을 이리 저리 한참이나 살펴보고 난

후 “신호를 더 잘 지켜야 하실 분이…”라며 빼(?) 있는 창피를 졌다.

국정원에 지망하려는 후배들에게

이상으로 정규과정 1년간의 교육에 대해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회상해 보았다. 나의 경험이 국정원에 입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젊은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나의 국정원 정규과정 교육경험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회를 빌려 국정원을 지망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평소 개인적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말을 몇 마디 전하고자 한다.

요즘은 국정원이 꽤 인기 있는 직장이라고 한다. 입사 경쟁도 아주 치열하다고 한다. 도청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서 국정원의 인기는 여전한 모양이다. 내 짐작으로는, 국정원의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 등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더욱 그런 경향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 싶다.

사실 국정원의 봉급은, 다른 모든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기밀로 취급되어 오랫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요즘은 국정원의 물색관들이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공개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렇지, 요즘 입사하는 후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잘 생기고 실력들도 대단해 보인다. 다들 우수한 성적에다 영어는 기본이고 여타 외국어에도 능통하다고 한다. 국정원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실력 있는 인재가 몰리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희망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나는 국정원을 지원하려는 젊은이들에게 국정원에 지원하기 전에 먼

저 ‘조국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권고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냐”고 타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말이다. 진심이다.

국정원 요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학점도 영어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애국심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 소명의식이다. 조국을 절실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국정원은 보람 있는 직장이 되기는커녕 평생 지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살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국정원 요원이 될 자격이 있다.

국정원은 쉬운 직장이 아니다. 그저 “대우가 좀 괜찮다더라” 또는 “공무원이 안정적이라더라” 해서 입사했다간 후회하기 십상이다. 국정원의 급여가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크게 많은 것은 아니다. 국정원도 엄연히 정부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 규정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다. 공무원 봉급이 절대로 풍족한 수준일 리가 없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사기업을 알아보는 것이 낫다. 간혹 돈에 현혹되어 알량한 정보기관의 권력을 이용하여 허튼 짓을 하는 직원을 보게 되는데, 경험상 그런 직원들은 틀림없이 사고를 친다. 사고를 치면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을 욕보이게 된다.

국정원은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이 아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곳이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건 국정원 직원은 상시적으로 긴장해야 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신체적 위해(危害)를 걱정해야 할 때

도 있다. 때로는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96년의 최덕근 영사 사건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신문에 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남미의 가이아나에서는 파견관의 아내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이아나는 남미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북한 요원들이 국적 세탁을 위해 경유하는 곳이다. 미국에 침투하는 북한 요원들은 대개 가이아나에 잠시 체류하여 국적을 세탁했다가, 캐나다로 가서 국적을 다시 한 번 세탁한 다음, 중국적으로 미국에 침투한다. 그래서 가이아나에는 북한 요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우리 동기들의 예만 보아도, 북측에 의해 체포 직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친구도 있고, 연변에서 공작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한 달 이상이나 중국의 지하 감방에 수감된 친구도 있었다. 신포 경수로 현장에서 한전 직원으로 위장하고 오랫동안 북측의 위협 속에서 활동한 친구도 있었다. 마약사범을 검거하러 나갔다가 조폭이 반항하는 바람에 자동차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친 친구도 있었다. 지난 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사들이 피랍된 사건에서 우리측 협상대표로 활약했던 소위 선글라스 맨도 우리 동기이다. 이 모든 일들은 다 목숨을 건 위험한 활동들이다.

국정원의 업무는 대체로 품 잡고 고상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미 말했다시피, 제임스 본드와는 거리가 멀다. 정상적으로 안 되는 일을 국가 이익이라는 목적에 맞추려다 보면 때로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욕을 먹는 것은 정보기관 요원의 숙명이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은 “익명(匿名)에의 정열, 음지(陰地)에서의 헌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누가 알아주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때로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 그래서 사명감과 소명의식(召命意識)이란 에너지원 없이는 버틸 수가 없다.

흔히 정보요원은 눈, 코, 귀는 기형적으로 발달시켜야 하지만 입(口)은 흔적만 남은 기관처럼 퇴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치 천형(天刑)을 진 사람들처럼 말이다.

정보기관에서는 자기주장이란 게 있을 수 없다. 지조(志操)라는 말은 사치이다. 싫든 좋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권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때마다 내면적인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이 떠나야 한다. 자신을 죽여야만 살 수 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제4장 문민정부의 뒀안길 I

“같이 좀 못하자”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며칠 휴가를 보낸 뒤, 나는 94년 1월 초부터 소위 ‘남산’으로 출근했다. 일반인들에게는 공포와 전율의 대명사로 알려진 ‘남산’이었지만, 나는 그저 무덤덤한 기분이었다. 당시 남산에는 국내정보 부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와 외사방첩 부서, 그리고 감찰실 등 안기부의 핵심부서가 모두 모여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국내정보 수집부서인 대공정책실로 발령이 났다.

우선 ‘대공정책실(對共政策室: 對政室)’이라는 명칭부터 좀 설명하는 게 좋겠다. 대체로 국정원 부서의 명칭은 그 부서의 실제 업무 성격과 거리가 있다. 굳이 ‘위장 명칭’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대공정책실’은 명칭대로라면 간첩을 잡기 위해 정책을 세운다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어야 제격이겠는데, 실제로는 국내 정치정보 수집부서였다.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서울 분실’이라고도 불렸던 모양이다.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나는 윤성O라는 동기 한 명과 함께 신문과(新聞課)에 배치되었다. 국내 정보반에서 함께 교육받았던 나머지 13명은 모두 국내정보 분석부

서인 기획판단국(企劃判斷局)으로 발령을 받았다. 나중에 듣기로는 “신문과의 이양○ 기획관이 정보학교까지 직접 찾아와서 우리 둘을 선발했다”고 한다. 이런 일은 흔히 있었던 일은 아니다.

당시에는 80년대 말부터 진행된 민주화 분위기에 힘입어 언론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정보기관이 예전처럼 언론을 ‘조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협조를 받아내기도 점차 힘들어지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언론 여건이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학벌이라도 받쳐주는 직원을 언론 수집관으로 차출하려다 보니 우리 둘이 불려오게 된 것이다. 나는 서울법대 출신이었고, 같이 간 동기는 경기고와 고려대 출신이었다.

이양○ 기획관은 80년대부터 오랫동안 조선일보 담당관을 지낸 탓에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조선일보는 서울법대 출신이 아니고는 접근이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아마 조선일보 편집진에 유독 서울법대 출신이 많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 싶다. 어쨌거나 신문과에 발령나기 전부터 나는 이양○ 기획관에 의해 장차 조선일보 담당관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신문과에 배치되어 인사를 갔을 때 과의 선배들은 “언론고시를 쳐서 조선일보에나 들어갈 것이지, 여긴 뭣 하러 들어왔냐”며 농담으로 핀잔을 줬다. 나는 “아무렴 일국의 정보기관이 일개 신문사보다야 못할리가 있겠습니까”라며 웃으면서 받아넘겼다.

처음 일주일만 적응(오리엔테이션) 기간으로 각 과를 돌며 인사를 했다. 나는 하루에 한 과씩 순례하면서 대공정책실 요원들의 안면을 익혔다. 첫날 정치과를 방문하니 강욱○ 선배가 육중한 몸매에 어울리지 않게 특별한 방식으로(?) 애정을 표시해줬다. 그는 우리들에게 “앉았다 썼다”를 시키는가 하면 코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마치 군대에서 새로

전입 온 신병들이 너무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꼭 참았다.

다음 날 학원과에서는 OO대학을 담당하고 있던 조광O 선배 등으로 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특히 입사 1년 선배인 금장O 선배가 우리를 살갑게 대해 주었다. 사회과에서는 조성O, 김남O 등 젊은 직원들이 우리를 서울역 시위현장으로 데리고 나가 현장실습을 시켜주었다. 종교과에서는 먼저 입사해 일하고 있던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다.

나는 이렇게 대공정책실 전체 10여개 과를 돌았다. 평소 안기부 수집관이라면 굉장한 사람들일 거라는 선입관이 있었는데, 막상 만나 보니 별달리 특별한 점이 없었다. 모두가 그저 평범한 공무원들처럼 보였다. 조금은 의외였고, 조금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때 생각으로는 ‘정보기관이란 곳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는 게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기관을 알 잡아 보다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나의 행색에서 촌티가 가시지 않았던 탓인지 사람들은 나를 고대 출신으로, 같이 갔던 다른 동기를 서울대 출신으로 착각하곤 했다.

나는 신문과 기획반에 배속되었다. 기획반은 팀장인 기획관을 중심으로 2~3명의 기획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획반은 과의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행정과 기획을 담당했다. 기획반은 수집관들로부터 각자의 일일 수집계획을 파악하기도 하고, 상부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기획반의 가장 말단 직원을 행정관이라고 부르는데, 행정관은 과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었다. 행정관은 자질구레한 행정사항을 모두 챙겨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의 개인비서 노릇도 해야 했기 때문에 고달픈 직책이었다. 청운의 뜻을 품고 정보기관에

들어와서 1년간 고된 훈련을 마치고 막상 실무에 투입되었는데 고작 허드렛일이나 하고 있으면 한숨이 저절로 난다. 그래서 각과의 행정관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저녁나절이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한 대를 나눠 피우면서 서로의 애환을 나누곤 했다.

신문과장은 이장O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는 덩치에 비해 좀 좀스런 데가 있었다. 그는 행정관을 혹사시키는 스타일이었다. 전임 행정관인 윤점O 선배는 “과장의 집 전기료를 대납해 주러 은행 심부름을 가기도 했고, 심지어는 과장 딸의 교과서도 대신 타다 주기도 했다”며 투덜거렸다. 그는 행정관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였던지 우리를 무척 반기는 듯했다.

나는 신문과에 빠르게 적응해 갔다.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했다. 매일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청소와 걸레질부터 했다. 당시까지도 대정실 청사 사무실 바닥은 대걸레로 청소해야 했다. 선배들과도 그런대로 잘 어울렸다. 선배라고 해봐야 비슷한 또래였다.

나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양O 기획관은 성격이 매우 꼼꼼하고 까탈스런 분이었는데, 웬일인지 나에게는 특별히 잘해 주었다. 아마 자신이 직접 골라온 직원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나에게서는 칭찬도 인색하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과의 벽시계를 고쳐 놓았더니 “시계가 틀려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새로 전입해 온 직원이 바로 고쳐 놓았다”며 공개적으로 나를 칭찬했다. 그때부터 나는 줄지에 기획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다.

이 기획관은 내가 부속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와 후에 대공정책실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많이 아쉬워했다. 내가 외국으로 연수 나간다고 인사했을 때에도 특별히 불러 전별금 봉투를 건네주기도 했다. 그는 진심으

로 나를 훌륭한 OO일보 담당 후계자(?)로 키우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하루는 같이 배치되었던 동기가 “할 얘기가 있다”며 “복도에서 좀 보자”고 했다. 그는 대뜸 나에게 “네가 사무실에서 너무 잘하는 바람에 내가 상대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비쳐져 불편하다”며 노골적으로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차라리 같이 좀 못하자. 선배들에게도 깎듯이 할 게 아니라 적당히 말도 놓고 쉽게 지내자”고 제안해 왔다.

나는 그의 얘기를 듣고 조금 황당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신입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때문에 시기를 받을 줄은 몰랐다. 내가 동기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는지 반성해 보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그때 ‘정보기관이란 곳에는 가치가 전도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 동기는 그 후 이종찬 원장 시절, 한화그룹을 담당하는 수집관으로 활동했는데, 돈 문제로 인해 면직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는 집권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경기고 출신 모 선배에게 긴급히 구명을 요청한 덕에 간신히 살아났다고 했다. 한참 후에 그가 퇴사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그 자신을 위해서도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신문과에 발령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올시 미 CIA국장의 방한 사실이 한겨레신문에 보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한겨레신문 1994. 1. 21.자 1면 사진 기사 참조). 극비로 방한한 우방국 정보기관장의 동선이 노출되었으니 커다란 보안사고가 터진 것이다. 한겨레의 사회부 기자들은 올시 국장의 방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국방부 청사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 진행 요원들이 가까이서 찍은 필름은

압수했지만,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은 빼앗지 못했던 모양이다.

사건이 일어난 후, 검찰실은 어디서 보안이 새 나갔는지 파악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하지만 끝내 유출자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아마 추어인 청와대에서 누설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만 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문민정부에서는 이러한 보안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그 점에서는 참여정부의 행태와 많이 닮았다. 보안사고는 준비 안 된 아마추어들의 통과외레 같은 것이었다. 그때 특종을 주도한 한겨레 사회부의 이 모 기자는 그 후 노무현 정권에서는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되었다.

한겨레신문 사회부는 문민정부 내내 정권을 꽤나 괴롭혔다. 그들은 팀을 조직하여 김현철을 파파라치처럼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한겨레는 김현철이 고려대에 편입하기 전, 한성대에 다닌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할 시점을 저울질하기도 했다. 당시로서는 김현철 관련 정보가 가장 민감했다.

한겨레의 특종으로 ‘물먹은’ 여타 신문들이 후속 취재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일보의 박 모 기자가 “러시아 해외 정보기관(SVR)의 프리마코프 국장이 93년 말에 방한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특종 보도했다. 알고 보니 박 기자는 나와 동년배로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었다. 서양 속담에 “남의 집 마당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고 하더니, 그때 내 꼴이 좀 그랬다. 특종 기자가 부러웠던 것은 아니지만, 정보기관에 들어와 허드렛일이나 하고 있는 내 처지가 조금은 한심해 보이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간 직후, 또 다른 신문은 한발 더 나아가 ‘한·미·러 3국의 정보기관장이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썼다. 이 기사는 너무 ‘오버’한 것이었다. 순전히 추측에 근거한 소설이었다. 언론사간의 과당경쟁이 빚어낸 해프닝이었다. 이 사건을 겪으

면서 나는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라 할까,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새끼’ 보좌관

나의 신문과 생활은 의외로 빨리 끝났다. 대공정책실 부속실 보좌원으로 불려갔기 때문이다. 신문과에 배정된 지 한 달여가 지난 때, 인천 지부장에서 새로 대정실장으로 부임한 오정소 실장이 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를 대공정책실 부속실의 보좌원으로 임명했다. 보좌원도 대개 보좌관이라고 불렀다. 혹자는 ‘새끼’ 보좌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내가 보좌원으로 불려간 것은 일종의 행정착오 성격이 있었다. 왜냐하면, 보좌원은 대개 부서에 배치된 지 1~2년이 지나 부서 돌아가는 사정을 좀 아는 직원 중에서 뽑는 게 정상이었기 때문이다. 오정소 실장은 내가 부서에 배치된 지 1~2년 지난 직원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고려조차 하지 않고 그저 나의 학력 등을 보고 대충 뽑았을 것이다.

신문과장은 내가 부속실로 불려가는 게 못마땅했던지 “오 실장과 무슨 사이냐. 어떻게 해서 부속실로 가게 됐느냐”며 나에게 취조하듯이 따져 물었다. 그러다가 내가 부속실로 옮겨 갈 것이 확실해지자 그는 금세 태도를 바꿨다. 별안간 아부 모드로 돌변했다. 그 후 그는 부속실에 올 때마다 나에게 ‘보좌관님’ 이라며 깍듯이 존칭어를 썼다. ‘보좌관에게 잘못 보이면 불편해진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이었다.

국내 부서의 국정원 직원들은 권력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권력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먼저 엎드렸다가, 권력의 바람이 지나기 전에 먼저 일어선다. 서글픈 일이지만 나는 국정원 간부들이 겨자 씨만한 권력 앞에서도 비굴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목격할 때가 많았다. 정보기관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자연히 체질이 그렇게 바뀌나 보다. 아마도 일종의 ‘직업병적’ 증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속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곳이었다. 팽팽하게 긴장된 생활이었다. 보좌원의 하루 일과는 실장이나 부실장의 잔심부름을 비롯한 부속실의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경에 출근했다. 출근하자마자 실장실과 부실장실의 재떨이를 비우고 손때 묻은 책상 위 유리부터 닦았다.

당직을 서는 선배들은 “보좌관이 왜 청소를 하느냐”고 만류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직원이 아침부터 걸레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던가 보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사무실에 들어올 수 없고 여직원은 늦게 출근하니, 우선은 내가 대충 청소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했다.

실장과 부실장은 대개 8시 전후에 출근했다. 이들이 출근하기 전에 간밤의 상황을 체크하고 보고서를 정리하는 일이 아침나절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보고서 중에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할 것은 복사도 해 놓아야 했다. 낮 시간 동안의 주된 업무는 복사가 금지된 보고서를 회람시키는 일이었다. 모든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복사가 금지됐기 때문에 실장이 다 읽고 나면 재빨리 세 명의 부실장들에게 회람시켰다. 특히 일일 보고서와 메모 보고서를 회람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였다.

타 부서로부터 문서를 수발하거나 우리 부서의 첩보보고서를 다른

부서로 전달하는 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공식적으로 수발해야 할 문서 이외에 비공식인 문서 수발의 심부름도 모두 내가 했다. 매주 금요일 경에는 박성도(*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국내 정보담당 차장으로 다시 발탁되었다) 정치과장 방에 가서 주례보고를 비공식적으로 받아오기도 했다. 이른바 문서수발이 나의 주된 임무였다.

보좌원은 부속실 내의 모든 문서의 수발과 회람, 관리, 파기 등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자리였다. 대공정책실 부속실은 국내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정보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문건이 많았다. 일일 보고서는 기획판단국에서 생산하여 매일 청와대에 보고하는 보고서였다. 메모 보고서는 과학보안국에서 작성하여 대공정책실로 전송한 것을 메모 보좌관이 필사한 보고서였다. 메모 보좌관은 하루 세 차례 보고했다(*메모 보고서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는 제1부 ‘거짓의 희극, 도청의 진실’ 참조). ‘미림 보고서’는 실장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

대공정책실 부속실에는 모두 네 명이 근무했다. 나 외에 보좌관과 여직원, 그리고 메모 보좌관이 있었다. 보좌관이 자리를 비울 때에는 내가 보좌관 업무도 대신해야 했다. 보좌관은 이용○라는 선배였는데, 그는 기획판단국에서 분석업무를 하다 인천지부로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오 실장을 만나 다시 대공정책실로 따라 올라온 사람이었다. 그는 오 실장의 고대 후배라서 그런지, 오 실장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다. 그는, 보기와는 달리 센스와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메모 보좌관은 배충○이라는 분이었는데, 정치과 기획관을 하다가 옮겨 왔다. 메모 보좌관을 거치면 대개 과장으로 진급시켜 주는 분위기였다. 그는 베테랑 정보원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관한 한 전문가였다. 배 보좌관은 나에게 고마운 분이다. 회사생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여

러 가지로 마음을 많이 써 주었다. 그는 지난 번 미림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모양이다. 나로서는 본의 아니게 마음의 빗을 지게 되었다. 이 지면을 빌려서나마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부속실 업무 가운데 실장의 전화를 연결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보좌관이 자리를 비우면 내가 전화를 연결해야 할 때가 많았다. 전화를 연결하는 일은 섬세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었다. 나는 한동안 전화교환수 노릇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공포를 느꼈다.

전화 교환수의 자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수화기를 들면 상대방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감각적으로 알아차려야 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다. 물론 나의 어눌한 언변도 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핸디캡으로 작용했다.

한 번은 퇴근 직전에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어이!”라고 한마디 하고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즉각적인 사태파악이 안 되어 조금 버벅댔는데, 그러다가 된통 크게 깨졌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다름 아닌 오 실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어떻게 내 목소리도 분간하지 못하냐”며 야단을 쳤다.

전화를 연결해 주는 상대방의 권력관계에 따라 누구를 먼저 바꾸어 주어야 하는지를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였다. 물론 권력 순위가 낮은 당사자가 먼저 받도록 하는 게 노하우였다. 이 문제로 인해 전화 상대방의 보좌관과 머리싸움을 하고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권력순위라는 게 단순히 ‘정부 직제상의 순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더했다. 때때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다. 중요한 상대방에게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집무실에서 몇 발자국을 옮길 것인가를 초 단위까지 계산했다가 연결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도 살 떨리는 스트레스였다. 한마디로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문민정부의 ‘넘버 쓰리’

내가 부속실에서 상관으로 모셨던 오정소 실장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 실장을 문민정부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문민정부의 핵심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는 문민정부의 막후 핵심 실세였던 김현철 씨와 고등학교와 대학(고대 사학과) 동창이라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 김대중 씨는 누구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점에서 양 김 씨는 크게 대조된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이름을 불러주면 최측근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가령 “영춘아, 오늘 나랑 조깅하자”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 김영춘 의원이 금방 최측근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한 번은 김 대통령이 서울시를 순시하면서 “정소는 어디 갔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금세 “오정소가 최고 실세”라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오 실장은 김영삼 정권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90년대 말,

주먹의 세계를 해학적으로 그려낸 「넘버 쓰리」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얻었다. 좀 억지이긴 하지만, 오 실장은 ‘문민정부의 넘버 쓰리’에 비유될 만했다. 물론 문민정권의 ‘재떨이’는 이원종 수석 정도가 될 것 같다.

문민정부 초기, 안기부 내에서는 오 실장과 황창평 차장이 실세였다. 그들에 비해 김덕 원장은 학자 출신이라 그런지 정보기관장 답지 못했다. 그는 정보기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조직을 장악하는 데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황 차장과 오 실장은 서로 잘 통했다. 아마 고대 동문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오 실장과 황 차장은 문민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라고 한다.

특히 황 차장은 이른바 「노란봉투 사건」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노란봉투 사건」이란 노태우 정권 말년에 YS가 소위 노란봉투를 들고 청와대에 들어가 노태우 대통령과 정면승부를 벌인 사건이다. 봉투 안에는 “안기부가 YS를 뒷조사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결과론적으로, 이 사건은 YS가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하여 후계권력을 접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황창평 기관국장이 문제의 노란봉투를 YS측에게 건네줬다”고 한다. 확인된 얘기는 아니었지만, 분위기상으로 아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듯 했다.

오 실장은 원래 해외공작국 출신이었다. 노태우 정권 말기, 그는 해외공작국 행정과장을 하다가 대공정책실 협력단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언론 여건이 취약해지자 언론을 조정 통제하기 위해 대정실 내에 협력단이란 조직을 신설했는데, 그가 초대 협력단장이었다. 해외부서의 간부가 국내부서로 옮기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아마 언론계와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연이 고려되었던 것 같다.

그의 친형은 모 언론사 간부 출신이고, 그 자신 젊은 시절부터 한국

일보 사주였던 장강재 회장 등 언론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다. 조선일보 국제부장을 하던 김철 씨는 오 실장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아마 고교 동창이었던 것 같다. 오 실장과 김 부장은 서로 “소야!”, “철아”하면서, 끝까지 “부어라”, “마셔라”하는 사이였다.

그 후 김철 부장은 조선일보를 그만 두고 오 실장의 — 당시엔 이미 차장으로 승진한 후였지만 — 후원으로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당의 대변인까지 되었다.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원’ TK vs ‘신’ TK

보좌관과 보좌원 간의 업무분장이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실장과 부실장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비공식적인 잡무도 모두 내 차지였다. 대체로 이 보좌관이 주로 오 실장을 챙기는 데 반해, 보좌원인 나는 세명의 부실장을 챙겼다. 제1부실장은 임경O 단장이었는데 그는 정치, 학원, 종교 분야를 담당했다. 임 단장은 김기섭 기초실장의 대구 영남고 후배였다. 그 후 그는 오 실장이 차장으로 승진하자 대공정책실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당시 우스개 소리로 ‘TK도 여러 가지’라는 말이 돌았다. 이른바 ‘신(新) TK’와 ‘원 TK’가 있다고 했다. 구 정권에서 잘 나가던 TK 인사들은 ‘원 TK’라고 불렸고, 신정권에서 새로 부상한 TK 인사들은 ‘신 TK’라고 불렸다. 안기부 내에서는 영남고 출신들이 대표적으로 ‘신 TK’로 분류되었다. 김기섭 실장과 임 단장이 영남고 출신이었다. 핵심 보직인 검찰과장을 지냈던 이순O 과장도 영남고 출신이었다. 그

는 김대중 정권에서 해임되자 「국강투」(국정원 강제퇴직자 투쟁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검찰에서 홍준표 특보가 파견되어 왔는데, 그도 영남고 출신이었다. 홍 검사는 박철언 씨와 이진개 씨를 조사한 탓에 검찰 내에서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안기부로 파견되어 나온 것도 김기섭 기조실장과 의 인연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다. 정형근 씨가 영입해 왔다는 말도 있었다. 홍 검사는 안기부 재직 시절 여러 가지 튀는 행동을 많이 했다. 그는 체질적으로 조직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 보였다. 소신이 너무 강해 보였다. 팀워크보다는 단독 플레이에 능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에 비해 당시 ‘쉴 TK’의 대표적인 인사는 박철언 씨나 박준규 씨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대부분 감옥으로 갔거나 집에서 쉬었다. 박철언 씨는 노태우 정권에서 소위 황태자라 불리면서 월계수회를 조직하는 등, 정권의 2인자로서 한창 잘 나갔던 사람이다.

박철언 씨는 ‘LP’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Little Prince’인지 ‘Little Park’인지 아니면 ‘Little President’인지, 어쨌든 그는 그렇게 불렸다. 나는 우연히 이 “LP”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다. 아마 홍준표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였던 것 같다. 그 보고서에는 박철언 씨가 빠짱코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던 정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여담이지만, 당시 박철언 씨의 비리혐의를 찾고 있던 때여서 그랬는지 그에 대한 첩보가 심심찮게 올라왔다. 대부분 난잡한 사생활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런 첩보들 가운데 이러한 것도 있었다. “LP는 꽃값에 인색하여 여대생들로부터 짜짜하다고 욕을 먹는다.” 어느 첩보에서는 “감옥에서 나가면 두 사람은 반드시 손을 볼 것이다”고 한 내용도 있

었다. 그 두 사람이란 강 모 씨와 이 모 씨라고 했다. 강 모 씨는 그 후 한나라당의 최고 중진이 된 사람이고, 이 모 씨는 문민정부에서 국정원 고위직을 지낸 인사이다. 아마 그들 간에는 우리 범인(凡人)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사연과 곡절이 있었던 모양이다.

우스운 얘기지만, 박철언 씨의 아내인 현 모 씨에 관한 첩보도 심심찮게 보고되었다. 후에 그녀는 남편을 대신하여 대구에서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현 모 씨에 대한 첩보는 주로 “맞바람을 피운다”는 3류 첩보가 주류를 이루었다. 수영강사와 테니스 코치가 등장하는 등, 믿거나 말거나 식의 양아치 정보들이었다.

이러한 첩보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음해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필자가 이러한 첩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러한 첩보의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다. 다만, 정보기관이 수집하는 첩보의 범위와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이 이런 양아치 첩보를 더 이상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속실에서 나는 주로 임 단장의 보좌관 역할을 했다. 그의 사소한 개인 심부름도 자주 했다. 좀 짜증나는 일이긴 했지만, 가끔 은행에 가서 미국에 유학중인 그의 아들에게 생활비를 부쳐주는 심부름도 했다. 임 단장의 심부름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김현철에 관련된 첩보를 친전(親展) 봉투에 넣어 김기섭 기조실장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었다. 문민정부 초기에는 김현철 씨의 신상 관련 첩보는 김기섭 실장이 직접 관장했기 때문이다.

김기섭 씨는 신라호텔 상무 출신이라고 했다. 그는 정보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던가 보다. 상도동이 정권을 잡고 난 후 아마추어 측

근들이 어떻게 하든지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박 터지게 다들 때, 그는 “안기부 기조실장 자리를 자원해 경쟁 없이 무혈 입성했다”고 한다.

그는 무척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매일 새벽 5시경 출근하여 청사를 한 바퀴 돈 후 하루 업무를 시작하곤 했다. 그는 나름대로 “안기부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김현철의 최측근으로 행세하면서 물의를 빚었지만, 어찌 보면 동정심이 가기도 한다.

제2부실장은 이근O 단장으로, 그는 경제와 사회 분야를 담당했다. 이 분은 어떻게 단장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도 소신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랫사람으로서 그를 성심껏 모셨다. 한 참 후에 이 단장이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날 아무렇게나 대하는데 너는 좀 다르구나”하고 말했다. 나의 성의에 고마움을 표시한 말이었다.

이 단장의 방에는 진OO, 최OO 같은 고참 직원들이 하루 종일 죽치고 노닥거리기 일쑤였다. 진 씨는 별명이 ‘진도깨비’였는데, 아마 젊은 시절엔 국내외 부서를 오가며 한가락 했던 것 같았다. 그는 오 실장의 경북고 선배였기 때문에 아무리 땡땡이를 쳐도 오 실장도 어찌지 못했다.

최 씨는 안기부 최고의 한량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주색잡기에 일가를 이룬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김대중 정권에서 일약 감사관으로 승진하여 거들먹거리더니 급기야 보안사고를 쳤다. 그는 이른바 「남촌 사건」(*이 책 제9장 ‘안에서 본 국민의 정부 II’, 322 페이지 관련 부분 참조)의 주인공이었다. 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정보기관이란 데가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제3부실장은 이강O 단장이란 분이었는데, 그는 언론을 총괄했다. 제

3부실장은 언론을 조정하는 협력단장을 겸했다. 이 단장은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전혀 정보기관 사람 같지 않았다.

그는 초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다. 내가 국정원에서 겪어본 사람 가운데 이 단장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는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없었다. 매일 저녁 8시에 가판(街販)이 나오면 직접 꼼꼼히 챙겨 읽고 문제 기사를 조정한 후에야 퇴근하곤 했다. 일이 터지면 12시를 넘기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고도 다음날 아침 8시가 되기 전에 꼬박꼬박 출근했다. 오 실장은 그런 이 단장의 성실성을 높이 샀다. 그 후 그는 권영해 부장의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

그는 비서실장 시절, YS의 사생아 문제를 제기하여 물의를 빚었던 손 모 씨를 관리했던 모양이다. 이 단장이 언론 전문가이다 보니 그 일에 적임이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 당시 손 씨는 『김대중 X파일』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단장이 그 일에 어느 정도 연루되었던 모양이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뀐 후 이 단장은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소문에 의하면, 이 단장은 발가벗긴 채 극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나는 언젠가 수사국 친구에게 “어떻게 한술 밥 먹던 전직 간부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며 따진 적이 있다. 그 친구가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물었다. 이 단장은 그 후 “국정원이 나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계명구도와 낭중지추

오정소 실장은 ‘문민정부의 해결사’ 였다. 모든 악역을 도맡아 했다.

실제로 “오 실장이 96년 12월 전격적으로 잘리지만 않았더라면 문민정부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주간동아 2005. 08.29. ‘오정소 침묵에 국정원 떠난다.’ 제하 기사 참조). 나는 그러한 견해가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오 실장은 평소 계명구도(鷄鳴狗盜)와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중국의 고사성어를 즐겨 인용했다. 계명구도란 말은 ‘점잖은 사람이 배울 게 못 되는 하찮은 기술이나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씩 재주는 있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낭중지추란 말은 ‘능력 있는 사람은 마치 가죽부대 속에 들어 있는 송곳처럼 그 능력이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말이다.

오 실장은 특별히 재주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곁에는 괴팍하고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언젠가 오 실장이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꼴통들만 모이냐?”고 농담 삼아 물은 적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당신이 꼴통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꼴통은 꼴통끼리”라는 말이 목구멍 안에서 맴돌았다.

오 실장 주위의 인사들 중에서도 정성O 씨와 공운O 씨는 내가 국정원에서 만난 가장 별종 인간들인 동시에, 해결사 오 실장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다. 정성O 씨는 후에 진승현 게이트의 주인공이고, 공운O씨는 안기부의 미림팀장으로 언론에 소개된 사람이다. 나는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매일 보았다.

정성O 씨는 광주의 어느 명문고를 졸업하고 육사에 진학했다고 한다. 육사 1학년 때 진해 해군사관학교로 하계훈련을 갔다가 철모로 해군 제독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퇴학당했다고 한다. 그는 서울의 모 대학 법과를 마치고 안기부 정규과정 13기로 입사했다. 그는 신입직원 시절부터 강패들과 어울렸다고 한다.

90년대 초,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을 때 그는 큰 사고를 쳤다고 한다. 수원지법 강 모 부장과 모 조직폭력배 두목 등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는데 옆방에서 술을 먹던 부하 깡패들끼리 시비가 붙어 칼부림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 일은 한참 후에야 언론에 한 줄 기사가 났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세네갈 파견관으로 나갔다. 정보기관에서 도피시켜 준 것이다. 그때 해외공작국 인사과장이 오정소 과장이었다.

그는 파견관 생활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오면서 대공정책실에 합류했다. 오 실장이 그를 대정실로 부른 것 같았다.

정성O 씨는 언제 봐도 시한폭탄이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검찰과 깡패 사회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 실장의 특명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검찰의 청와대 보고서를 입수해 오기도 했다. 검찰의 청와대 보고서는 검찰이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문건이었다. 가히 ‘검찰의 영혼’이라 불릴 만한 것이었다. 안기부에서 이 보고서를 입수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이러한 일을 해냈다.

그는 98년 정권이 바뀐 후 한동안 전라도 출신들에게 찍혀서 한직으로 맴돌았다. 그러다 어느새 다시 권력 핵심으로 진입하여 엄익준 차장과 김은성 차장의 최측근으로 행세했다. 진승현 게이트는 그가 이 두 차장 아래에서 특명사업을 수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나의 판단으로는, 진승현 게이트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정성O 씨는 진승현 사기사건으로 1년 6개월간 감옥 신세를 졌는데, 그는 출옥한 후에도 뒤에서 진승현의 사기행각을 계속 조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감옥 안에 있던 진승현을 형 집행정지로 빼낸 후 미국의 한 벤처 기업의

문 모 씨와 합작으로 위장 투자와 허위 공시 등을 통한 국제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있다.

그는 일찍부터 정치권에 줄을 댔던 것 같다. 2001년 구속되면서 그는 조선일보와 전격 인터뷰를 했다. 그는 그때 폭탄선언을 하듯이 자신과 김홍일과의 관계를 밝히기도 했다.

정성O 씨는 출옥하고 난 후 DJ의 사생아 문제(*SBS 뉴스추적 2005년 4월 20일 방영, 'DJ의 숨겨진 딸' 편 참조)와 정몽헌 씨 피살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월간조선 2006년 2월호 '정몽헌 현대 회장의 죽음의 행로' 기사 및 동지 3월호 '정몽헌 회장 죽음의 5대 미스터리' 제하 기사 참조). 그는 동교동의 배신에 배신으로써 답한 것으로 보인다.

공운O 씨는 선린상고 야간부를 졸업했고,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일에 관한 한 그는 민완하고 배짱 있는 사람이었다. 책임감도 강하고 의리도 있었고 열정과 자부심도 대단했다. 지난 번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그가 무슨 크게 '나쁜 짓'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 나는 그가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누군가 욕을 먹어야 한다면 그에게 그런 일을 시킨 사람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림팀과 미림보고서의 위력

어느 날인가 미림팀 요원으로 일했던 선배가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그가 TK 인사들에 대한 작업(?)을 마치고 한참 지난 후 장비를 회수하러 작업실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확 덮치더라는 것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치 채였구나' 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적반

하장으로 ‘미친 듯이 대들어서’ 겨우 상황을 모면했다고 한다.

공운O 씨도 비슷하게 낭패당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 한 번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예약한 자리에 도청기를 꽂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 비서실의 누군가가 저녁 식사자리에 나타나리라고 짐작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는 것이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출현에 혼비백산하고 줄행랑을 쳤다고 한다.

미림 사업은 극비에 속하는 사업이었다. 안기부 직원들 중에서도 같은 부서 내 사람들만 어렵듯이 짐작만 했을 뿐, 대부분의 직원들은 모르던 사업이었다. 김덕 부장 같은 사람은 존재조차 모르고 퇴임했을 정도였다. 그만큼 민감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공운O 씨는 그런 일을 태연스fp 해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냈다.

미림팀은 공운O 팀장을 비롯해 3명으로 이루어진 초미니 조직이었다. 공 팀장과 그를 보조하는 젊은 직원이 두 명 있었다. 장OO와 박OO이었다. 이들은 둘 다 착하고 책임감 있는 요원들이었다. 미림팀 일이 위험한 일이다 보니 아무도 이 일을 선뜻 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래서 공 팀장은 요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언젠가 공 팀장은 나에게 박OO을 팀원으로 영입할 때의 에피소드를 들려 준 적이 있었다. 공 팀장이나 박OO이나 둘 다 정규 일반직원이 아니라 행정 보조요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이었다. 공 팀장은 박OO에게 ‘9급 출신이 회사 내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림 일이 가장 낫다’ 라고 설득한 끝에 그를 영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 번 미림팀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박OO은 가택수색까지

당하고 악의적인 언론에 시달렸다. 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내가 미림팀의 존재와 실상을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그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순수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이 지면을 빌려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공운O 씨는 매일 오전 부속실에 들러 밤새 작업한 결과를 보고했다. 미림팀이 수집한 정보는 손꼽을 정도의 인원만 볼 수 있는 안기부 내의 최고급 정보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야사(夜史)였다. 그가 작성한 미림 보고서에는 오 실장이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내가 볼 수는 없었다. 부속실의 모든 보고서는 내가 책임지고 관리했지만, 미림보고서만은 예외였다. 나는 어찌다 오 실장의 책상 위에 놓인 미림 보고서를 힐끗 볼 수 있었을 뿐이다.

그가 수집해 온 정보는 언제나 나라를 뒤집을 만한 폭발력이 있는 소재들이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난 번 언론에 소개된 대로, 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도 미림 보고서 한 장에 단번에 날아가 버렸다.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이회창 국무총리나 박상범 경호실장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경질되었다. 나는 미림 보고서가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면서 정보기관의 힘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미림팀의 활동에 대해서는, 2005. 5. 22. 방송된 ‘손석희의 시선 집중 인터뷰’ 참조).

제5장 문민정부의 뒀안길 II

정보보고서 읽기를 싫어한 YS

돌이켜보면, 대공정책실 보좌원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보고 들었다. 권력의 턱 밑에서 일하다 보니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다. 장막 뒤편에서 정치권력이 지어 보이는 음흉한 미소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무대 뒀편에서 정치권력이 토해내는 거친 숨소리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의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지켜보았다. 초등학교 어린애들 다툼 같아 보였다. 아니 그보다도 못해 보였다. 전국 각지에서 사건사고가 봇물 터진 듯 일어나고 사회 각계각층의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아마추어 문민정부가 갈팡질팡 허둥거리던 장면도 가까이서 관찰하였다.

정치와 언론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기이한 공생관계도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신문에 보도된 수많은 사건의 행간에는 보도되지 않는 은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방송에 보도되는 수많은 사건의 뒷면에도 방영되지 않는 깊숙한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추락한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연예계 사정이라는 칼을 빼들었을 때에는, 연예계라는 별천지의 치마 속 풍경을 흘깃 들여다보는 행운(?)도 누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열한 인간들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형편없는 곳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 사회는 정치권, 언론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종교계, 학계, 재계 등 어느 곳 하나 성한 구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내가 본 우리 사회는 수술하려고 칼을 들었다가 상태가 너무 심하여 그냥 덮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다. 비록 오래 전 일이지만, 이 기회에 내가 본 문민정부의 뒀안길과 우리 사회의 뒷모습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중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이 대단했다. 그는 과거 야당 시절에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로부터 감시당하고 구박받았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는 듯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자신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정보기관을 신뢰하고 감싸주어야 했는데, 그는 체질적으로 그러질 못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정보기관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했다. 피는 고사하고 먼지도 묻히기 싫어했다.

문민정권 초기, 김덕 부장이 매주 목요일 오전에 청와대로 주례보고를 갔다. 그런데 심심찮게 “대통령이 진지하게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렸다. “YS가 보고서 읽는 걸 싫어한다”는 말도 들렸다. 어떤 때는 “부장이 보고하러 들어갔다가 보고서를 그냥 책상 위에 놓고 왔다”라는 수군거림도 있었다. 대통령이 챙겨보지 않는 보고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각 수석실에서는 보고서 제목만 대충 보고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개 이런 과정에서 보안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삼의 청와대와 노무현의 청와대는 많이 비슷하지 않

았나 생각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향이 많이 비슷하다고 판단한다.

“안기부가 정무수석 직속이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챙기지 않다 보니 문민정부에서는 정보가 왜곡되어 유통되는 폐단이 생겼다. 다시 말해, 보고서가 엉뚱한 곳으로 갔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원종 정무수석에게로 몰렸고 김현철이라는 사인(私人)에게로 흘러들어 갔다. 문민정부 내내 안기부의 국내 부서에서는 “안기부가 정무수석 직속이다”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돌았다.

사실 나도 개인적으로 안기부의 정무수석 예측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음을 고백한다. 내가 오 실장의 부속실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원종 정무수석에게 보내는 주간 정치권 동향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는 내부 보안규정을 위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첩보 수집 부서인 대공정책실에서는 정보보고서를 만들 권한이 없기 때문이었다. 국내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보고서는 기획판단국의 소관이었다. 보통 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원칙대로라면, 감찰실에서 보안조사를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감찰실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다.

당시에는 매일 오후 2시가 첩보 보고 마감시간이었다. 요즘이야 수집관이 컴퓨터로 첩보를 작성해 전산망을 이용하여 분석데스크로 송고하겠지만, 내가 대정실에 근무하던 시절만 해도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첩보보고서도 손으로 작성했다. 매일 각 과의 행정관들이

첩보를 수거하여 행정과에 가져오면, 행정과 기획팀에서 커다란 가방에 담아 기획판단국으로 배달하곤 했다. 부속실에서는 행정과에다 “매일 첩보 가방이 기관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부속실부터 들러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날 수집된 첩보들 중에서 가장 ‘쓸 만하고 푹푹한’ 것들만 따로 골라내어 복사했다. 주로 정치인들의 동향과 가십성 첩보만 가려냈다. 이렇게 하루에 몇 건만 추려내도 일주일이면 수십 건의 첩보가 쌓였다. 골라낸 첩보를 토요일 오후에 요약하여 보고서 형태로 정리했다. 보통 한 페이지에 두 건씩 해서 20내지 30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었다.

원래 이 작업은 오 실장이 이용○ 보좌관에게 시킨 일이었는데, 그는 보고서 정리하는 게 귀찮아서 그랬는지 그 일을 자꾸 내게 미루었다. 그래서 정보분석 경험도 전혀 없었던 내가 이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많아졌다. 정보기관에 갓 입사한 말단 직원이 그렇게 민감한 정보를 취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오정소 실장이라는 막강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후에 내가 대정실을 떠난 후에는 그 일은 정치과 기획반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부속실에서 작성하던 정치권 주간 동향보고서 이외에 방송과에서는 언론계 주간 동향보고서를 만들었다. 서진○ 방송과 기획관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사실 언론권 동향보고서는 신문과에서 말아야 제격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재○ 방송과장이 먼저 그 일을 차지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과장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겠다. 그는 부산에 집을 두고 서울에서 호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회사 일로 가정까지 포기

한 사람처럼 보였다. 일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는 풍부했지만 인간성은 별로였다. 그는 윗사람에게는 확실히 아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군림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는 부산지부에서 정보과장을 오래 했지만 사실은 전라도 사람이었다. 출신이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헷갈리는(?) 사람을 우리는 은어로 ‘얼룩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전형적인 얼룩이었다. 언론계 주간 동향보고서 덕택에 그는 김영삼 정권에서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그는 더욱 승승장구했다. 그는 대구지부장으로 영전하여 소위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었다.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 때 이탈리아의 섬유 패션산업과 협력하는 다양한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구상되어 추진되기도 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기반이었던 부산지부장을 지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이용○ 보좌관이 우리 부속실이 작성한 정치권 주간 동향보고서와 방송과가 정리한 언론계 주간 동향보고서를 들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 두 비공식적인 보고서의 위력은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이원종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계 동향보고서를 양손에 쥐고 정치권과 언론계를 완벽하게 쥐락펴락했다. 이들 보고서 덕택에 그는 정치권과 언론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었다. 신문기자들은 이 수석이 어떻게 그렇게 언론계 동향을 잘 아는지, 자신들이 몰래 장관들과 만나는 사실을 이 수석이 어떻게 그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하는지를 신통해했다.

나는 가끔 내가 쓴 비공식적 보고서의 위력을 보고 나 자신도 놀랄 때가 있었다. 가령 장관급 인사의 비리에 대해 보고서를 올리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목이 날아가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할 때가 있었다. 나는 ‘7급 공무원에 불과한 내가 장관의 모가지를 자르는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다. 이러다가 ‘내가 너무 교만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부속실에 근무하는 덕분에 매일 수천만 원어치의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런 짓은 너무 오래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김현철의 국정 농단

나는 문민정부의 화려한 비상과 허무한 결말이 ‘김영삼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에 많은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간파하고 충족시켜줄 줄 아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정권 초기에는 이러한 성향 덕택에 국민으로부터 초유의 인기를 누렸다. 한때 지지율이 90%대에 육박했다. 대통령 자신이 “지나치게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평소 그의 지론은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조깅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머리 좋은 사람을 찾아 쓰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가 기용했던 수많은 인사들은 김현철을 통해 소개된 ‘이류(二流)’ 인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어쩌면 체질적으로 ‘일류(一流)’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즉흥적인 사람이었다. 모든 일을 정치적인 ‘감(感)’에 의존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측근들도 대체로 하나같이 ‘감’에 의존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오정소 실장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사람이었다. 이들은 ‘감’은 예리하고 순발력은 뛰어났지만 논리는 허술하고 지구력은 부족했다. 골방에 앉아서 끼리끼리 작당하는 데는 능했으나 광장에 나와 백년대계를 논의하기에는 턱없이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문민정권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끼리끼리 작당하면서 망가졌다. 그 중심에는 항상 소산(小山) 김현철이라는 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현철 씨의 국정 농단이 심해질수록 정권은 더욱 심각하게 망가져 갔다.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대정실에 근무할 당시, 김현철 씨의 국정 개입은 이미 너무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개 사인에 불과한 30대 젊은이가 한 국가의 모든 인사를 주무르다시피 했다. 개각 때마다 기관국에서 5배수의 추천 명단을 올렸는데, 이와 별도로 대정실에서도 따로 5배수를 올렸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보고서는 당연히 김현철에게 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김현철 씨에게 비판적인 자세를 보인 사람은 가차 없이 잘려나갔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도 그런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덕룡 의원도 “현철을 유학 보내라”고 건의했다가 권력 핵심에서 밀려났다. 모든 게 이런 식이었다. 청와대에서 거의 유일하게 현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던 민병환 비서관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안기부로 자리를 옮겼다.

게다가 문민정부는 권력 주변에 기생하는 잡쓰레기 인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정권 초기부터 “박태중을 비롯한 김현철의 측근들이 발호하고 있다”는 첩보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장학로 청와대 제1 부속

실장이 “주는 대로 먹는다”는 소문도 일찍부터 나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뇌물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의 구속으로 인해 문민정부의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아무리 대통령 혼자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오정소 실장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방객이 찾아오면 주로 내가 정문으로 나가 에스코트를 했다. 문민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전병민이란 사람도 오 실장을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소위 「동승동」 팀의 팀장이었다. 김현철 씨의 최고 핵심 측근이었다. 문민정부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었다. 그가 자주 내방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권력 내부의 문제를 서로 의논하는 것 같았다.

나는 김현철 씨의 전화도 여러 번 받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전화할 때마다 “여의도 김 소장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처음에 그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여의도에 무슨 군인이 있어 여기로 전화를 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여의도 사무소의 김현철 소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전화 매너만은 괜찮은 사람이었다. 말도 자근자근 신사적으로 했고, 나 같은 하급 직원에게도 항상 존댓말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참 후 그가 「한보(韓寶) 사건」에 연루되어 정치적으로 떠밀려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가 ‘어쩌면 억울해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는 구속되면서도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아마 아직까지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이 나온 김에 김현철의 인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소개하겠다. 당시 시중에 나돌던 우스갯소리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지옥에까지 지부(支部)가 설치되어 있는 3대 패밀리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바로

해병대 전우회와 고대 동문회 그리고 호남 향우회가 그 주인공들이라는 것이었다.

경복고(k2) 출신들의 국정 농단

이 중에서 문민정부 시절에는 고대 동문회가 힘을 썼다. 고대 출신이면서 특히 경복고 출신이 성골(聖骨)이었다. 경복고 출신들은 은어로 ‘케이투(K2)’라고 불렸다. 일제 때 경기고(京畿高)가 경성 제1고보(K1)였던 데 이어 경복고(景福高)가 경성 제2고보(K2)였던 데서 연유한 것 같다. 김영삼 정권을 PK 정권으로 보는 것은 조금 잘못 본 것이다. 물론 숫자상으로는 부산·경남 출신이 많이 중용되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대개 육두품(六頭品)이었다. 기껏해야 진골(眞骨)이었다. 문민정부의 핵심 실권은 모두 경복고와 고대 출신들이 좌지우지했다. 이에 비해 김대중 정권 때에는 호남 향우회가 모든 것을 독차지했다. 양 정권의 차이점이라면, 김영삼 정권 때에는 ‘눈치껏’ 지역안배를 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김대중 정권에서는 그나마 ‘눈치껏’ 하는 것조차 과감하게(?) 내던져 버렸다는 정도일 것이다.

문민정부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은 “김영삼 정권은 김현철을 중심으로 한 경복고/고대 세력과, 부산/경남고 세력 간의 알력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한다. 이는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당시 청와대 안에서는 이원종 정무수석과 김광일 실장이 사사건건 부딪혔다.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용 실장도 김현철 일파에 의해 단칼에 밀려났다. 내가 이미 언론에 밝혔듯이, 박관용 실장은 고등학교 동창과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한 내용이 미림의 도청에 걸려 전격 경질되었다(*주간동아 2005. 8.

2.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도 도청했다’ 제하 기사 참조).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초, 김현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즈음에 가서야 여론에 밀려 경북고/고대 세력의 중심이던 이원종 씨를 잘랐다. 이 수석은 별명이 ‘핏대’라고 불릴 정도로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 핏대를 올린 장본인이었다. 기자들은 그를 ‘혈죽(血竹) 선생’이라고 조롱했다.

사실은 이원종 수석이 잘리기 전에 오정소 차장이 먼저 갈렸다. 오 차장은 1996년 12월 중순, 연합통신에 기사가 나기 10분 전에 “전격적으로 경질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YS의 친구였던 고(故) 김윤도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정소를 잘라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아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오정소 차장은 퇴임인사차 부내를 순시하면서 고대 후배인 박성도 정보비서관에게 “성도야, 새로 오는 xx하고 잘해 봐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박성도 비서관은 권영해 부장의 최측근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를 총괄하고 있었다. 오정소 차장이 말한 ‘새로 오는 xx’는 박일룡 경찰청장을 두고 한 말이었다. 당시 박일룡 차장은 부산 세력의 대표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초원복집 사건」에서 영도다리를 언급했던 주인공이다(* 「초원복집 사건」은 대선 직전 정주영 후보 측에서 김영삼 후보 측근들을 도청한 사건이다). 오 차장과 박 청장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서로 견원지간이었다”고 한다.

오 차장과 이 수석의 전격 경질은 문민정권 몰락의 전주곡이 되었다. 97년 1월, 여당은 안기부법 개정안과 금융개혁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다 여론에 밀려 실패했다. 이 와중에 한보 사태와 기아 사태가 터져 나왔다. 삼폐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던 나라의 경제는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다. 국가부도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데도 김영삼 정권은 정국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식물정권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김현철의 국정 농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양산하고 야당은 부채질을 했다. 급기야 검찰이 김현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정권을 방어하려고 총대를 메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박일룡 차장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김현철을 난타하던 언론이 “예전 같으면 안기부가 보도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줬는데…”라며 의아해 할 정도였다. 김영삼 정권의 마지막 해에는 정권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지면서 나라 경제는 외환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정권 말기 권력의 공백이 가져온 비극이었다.

이회창, K2 세력들에 불신당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잃어버린 10년」 간의 좌파 반역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는 김영삼 대통령 부자의 원죄가 컸다. 김 대통령의 무능력과 판단착오가 좌파들에게 집권 기회를 제공했다. 김현철의 국정농단은 문민정부 스스로 몰락을 재촉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권이 말년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는 국가부도 사태가 났고 정치적으로는 국정파탄 사태가 났다.

언젠가 문민정부 초기에 김영삼 대통령은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깜짝 놀랄 인사가 나타날 것’ 이라고 했다. 당시 이 깜짝 놀랄 인사는 아마 이인제 씨를 지칭한 것일 거라고 해석되었다. 이때부터 K2(경복고) 세력들은 이인제 씨를 은밀히 미는 분위기가 있었다. 같은 경복고 출신

이라도 김덕룡 씨나 김한동 씨는 일찌감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이들이 경북고 출신에 집착하다 보니 경기고 출신이었던 이회창 씨를 배제하고 경원시했다는 점이다. 경북고 출신들은 자신들이 “온정을 베풀어 이회창 씨를 감사원장으로 영입하고 국무총리까지 시켜줬다”고 믿는 것 같았다. 이회창 씨가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강조하는 등 간간하게 나오자 한동안 견제하는 것 같더니 기어이 낙마시키고 말았다.

그 후 이들은 이회창 씨가 신한국당의 총재가 되고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 난 후에도 그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않았다. 아마 이회창 씨의 인간됨이나 성향으로 볼 때 ‘칼자루를 거꾸로 들이댈 것’으로 판단하는 듯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와 끝내 갈라서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정권이 김대중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김영삼 측으로서는 ‘김대중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는 데 더 이로울 것이다’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김대중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니 자기를 겨누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법했다. 나는 이 부분이 김영삼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이었고, 또한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자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나라를 부도냈기 때문이 아니라 반역정권의 탄생에 공헌했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민정부와 언론

문민정부는 지나치게 여론에 신경을 썼다. 대통령 자신이 언론의 보

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 나는 짧은 기간 동안 신문에서의 생활과 대공정책실 보좌원으로 근무하면서 정권과 정보기관과 언론간의 관계에 대해 참 많이도 보고 들었다.

내가 대공정책실에 근무하던 94년에도 이미 정권과 언론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당시 김영삼 정권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문민정부는 언론 사정이라는 칼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직접 들이대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김대중 정권은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언론을 탄압한 적이 있다.

한 번은 오 실장이 조선일보 김철 부장을 초청하여 대공정책실 직원들에게 언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강연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김철 부장은 “대한민국의 언론은 무조건 조져야 한다. 주먹으로 대하는 게 제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언론인이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민정부 시절 내내 조선일보의 힘은 막강했다. 요즘은 보수 일간지들을 죽이기 위해 사방에서 하이에나 떼처럼 합동작전을 벌이고 있으나,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찌라시 수준의 인터넷 매체들과 경쟁하게 되리라고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조선일보 사주는 소위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다. 실제로 그는 그만큼 힘이 있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천칭의 한 쪽에 여타 신문을 쌓아 놓고 다른 쪽에다 조선일보를 얹으면 천칭이 조선일보 쪽으로 기울어지는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다. 광고 내용처럼 조선일보는 다른 모든 언론을 합친 것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당시에는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 내기가 골프장에 부킹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던 시절이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대다수 신문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세계일보, 국민일보 같은 신문들은 매년 수백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었다. 그때에도 한국일보는 부도직전에서 간당간당했다. 경향신문의 사주였던 김승연 회장은 “한화 야구단보다 못한 놈들”이라며 신문사 관계자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한겨레도 만성 적자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시절에 조선일보만은 나 홀로 엄청난 흑자를 구가했다. “언론계 전체가 내는 세금보다 조선일보 한 회사가 내는 세금이 더 많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다. 조선일보는 회사만 잘 나간 게 아니라 소속 기자들도 잘 나갔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조선일보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언론계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의 보수나 대우가 가장 나은 편이었다. 다른 매체에서 취재력을 인정받으면 조선일보로 옮겨가는 게 일종의 정해진 코스처럼 여겨졌다.

당시는 신문기자들의 콧대가 쏠랐다. 신문기자들은 방송기자를 아예 기자로서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신문기자들은 방송기자들을 ‘제 손으로 기사 한 줄 제대로 못 쓰는’ 실력이 형편없는 기자들로 치부했다. 아예 동종업계 종사자로 끼워주지 않으려는 분위기마저 있을 정도였다.

신문기자들 중에서도 조선일보 기자들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정권을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 조선일보 기자들 중에 소위 ‘YS 장학생’들이 있었다. 김 모 기자와 이 모 기자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조선일보 고위층에서 이 장학생들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장학생들은 “그럴 수

없다. 차라리 사표를 쓰겠다”며 버렸다고 한다. 그러자 중앙일보가 이 기자들을 스카우트해 갔다.

오 실장은 각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나 정치부장 같은 핵심 간부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이들과는 정기적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모임에 나갈 때는 언제나 현금이 두둑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 소위 촌지(寸志)라고 하는 것이었다. 촌지라고 하기보다는 뇌물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오 실장의 판공비는 대부분 기자들에게 주는 촌지로 쓰인다고 할 정도였다.

당시에는 “안기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말하던 시절이었다. 내가 직접 헤아려 보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한번 나갈 때마다 수천만 원은 들고 나가는 것 같았다. 한 사람에게 족히 수백만 원은 돌아가는 액수였다. 물론 기자들의 직위에 따라 촌지의 규모는 조금씩 달랐다. 이러한 기름칠이 효력을 발휘한 덕분인지, 오 실장은 그 후 고비마다 언론의 도움을 받았다. 김대중 정권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언론들은 축소 보도하는 쪽으로 그를 보호해 주었다.

김영삼 정권에서 오 실장이 했던 역할은 김대중 정권에서는 박지원 씨가 했다. 둘 다 언론을 조지고 얼러대는 중책(?)을 맡았다. 나는 언제인가 박지원 씨를 도청한 미림팀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오정소 xx가 우리를 도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떠들어 대고 있었다. 사석에서의 그의 말은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었다.

지난번 대북송금 특검에서 ‘오정소 차장이 박지원에게 김영만을 소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오 차장과 박지원 간

에 어떤 거래가 벌어졌는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어쨌거나 ‘욕하면서 배우고 싸우면서 닦는다’는 말은 진실인가 보다.

“뉴스로 뉴스를 덮어라”

문민정부의 출범은 그야말로 창대(昌大)했다. 애초에 문민정부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문민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온 사회에 겁 없는 망나니의 칼춤이 어른거렸다.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군대 내 사조직과 특정 인맥을 과감하게 잘라냈다. 엘리트 장교가 쫓겨나간 자리에는 또 다른 부패한 인물들이 들어섰다.

비록 기득권층의 반발과 개혁세력의 준비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법조계와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뿌리 깊은 고질병을 도려내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시도한 점은 인정해줄 만했다. 몇 가지 부분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화에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와 공직자 재산공개 같은 것들은 문민정부가 아니고서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민정부 초기에는 이러한 개혁정책 덕분에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다가 정권이 둘째 해를 맞으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전국 각지에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다. 마치 겨우내 얼어붙었던 축대가 봄이 되면서 무너져 내리는 형국이었다. 육·해·공뿐만 아니라 지하에서조차 연쇄다발로 사고가 일어났다. 구포에서 열차사고가 일어나더니 격포에서는 여객선 사고가 이어졌다. 마포에선 지하철 공사장에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 행렬은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앉으면서 절정에 달했다. 공교롭게도 사고가 나는 곳은 모두 ‘포’자 지명을 가진 곳이었다. 소위 ‘카더라’ 통신이 난무했다. “다음번에는 김포에서 비행기 사고가 난다더라”, “영등포에서 지하철 사고가 터진다더라”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나갔다. 사회가 어수선해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조창호 소위의 귀환에 대한 얘기는 좀 소개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통일부의 ‘국군포로 탈북 귀환 현황’ 자료에 의하면, 1994~2008년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포로 가운데 74명이 탈북해서 귀환하였다. 조창호 소위의 탈북이 효시였다. 1994년 10월, 멀쩡하던 성수대교가 어느 날 아침 중간이 끊어져 내려앉으면서 수 십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부랴부랴 묘책을 찾아야 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더 큰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탈북 국군포로였던 조창호 소위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사실 안기부는 애초부터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서 중국을 통해 귀환을 시도하고 있던 동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만 있었다.

조창호 소위는 출신 집안이 괜찮았다. 서울과 미국에 사는 친지들이 그의 탈북을 돕고 있었다. 조 소위의 조카가 중국 현지까지 들어가서 조 소위를 동반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일보 사회부의 최우석 기자였다. 정보기관이 해야 할 일을 언론사의 기자 하나가 대신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초 조 소위 일행은 조그만 통통배를 이용하여 서해를 건너려고 시도했다. 첫 번째 시도는 파도가 너무 높아 실패하고 되돌아갔다. 두 번

째 시도에서는 풍랑으로 인해 배가 실종되고 말았다. 김덕 부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창호 소위를 살려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안기부는 수산청의 어업 지도선을 총 동원하여 서해를 이 잡듯이 뒤졌다. 수색작업은 수산청을 담당하던 최 모 서기관이 주도했다. 총력을 기울여 수색한 끝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사흘 만에 조 소위를 구출해낼 수 있었다. 정부는 즉각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거창한 환영식을 베풀었다. 이렇게 하여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1호가 탄생한 것이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당초 조 소위 집안에서는 북쪽에 남겨진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극력 반대했다. 그들은 북쪽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한 달 만이라도 공개를 좀 늦추어 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북쪽의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것은 물어보나마나 한 일이었다.

그 후 조창호 소위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몇 차례 워싱턴에까지 와서 북한의 참상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나는 인사라도 드리려고 그의 숙소를 찾아갔지만, 끝내 만나보지 못했다. 몇 년 전 그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많은 인생살이에서 대한민국에서의 그의 말년이 얼마나 보상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문민정권 시절에는 임기응변의 ‘땀질식’ 처방이 잦았다. 사건이 터지면 더 큰 사건을 만들어서 뉴스로 뉴스를 덮으려고 했다. 97년 황장엽 선생의 망명 사건도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문민정부는 정권의 마지막 해를 시작하면서 노동법과 금융관계법을 날치기로 개정하려다가 실패했다. 정국이 경색되면서 야당은 김현철 문제를 들추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현철

사건이 엉키면서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황급히 정국을 전환할 소재를 찾기 시작했다. 황장엽 선생의 망명은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초보적인 공작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황 선생 같은 거물은 북측 깊숙이 심어두고 오래도록 활용하려 했을 것이다.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하다 보니 허겁지겁 데려온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황 선생과 김덕홍 선생의 가족이 애꿎게 희생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가 황 선생과 김덕홍 선생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황 선생의 망명에 대해서는 월간중앙 2001년 10월호와 11월호 ‘황장엽 망명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참조).

연예계, 요지경 세상

나는 우리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으로 타락해 있는지 절감했다. 정계와 재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 언론계, 연예계 등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의 싹이 보이는 구석이 없었다.

내가 들여다본 우리 사회는 이미 절망적인 수준이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부패와 뇌물, 협잡과 비리가 만연했고, 반칙과 편법, 음모와 모략과 술수가 판을 쳤다. 건전한 직업윤리, 정직과 양심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몇 년 간 황우O, 신정O라는 두 명의 걸출한 스타가 나타나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를 온몸으로 웅변해 보였다. 내가 본 90년대 중반의 한국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정인을 거론해서 좀 안됐지만, 내가 본 두 사람의 공인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점잖고 젠틀하고 인자한 이미

지를 가진 모 중견 남자 아나운서가 있었다. 그는 여러 모로 대한민국 최고의 신사들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사생활은 신사의 그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그는 “룸살롱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온갖 지저분한 짓을 스스럼없이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가 어느 상갓집에서 술에 취해 가발이 벗겨지도록 행패를 부리는 걸 내 눈으로 두어 차례 본 적도 있다.

또 다른 예로, 어느 미스코리아에 대한 얘기를 들 수 있겠다. 90년대 중반 “소위 명문 K대 출신이 최초로 미스코리아에 선발됐다”고 세상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성을 겸비한 인물이 미스코리아로 뽑힐 때가 되었다”며 그럴듯한 당선 소감까지 곁들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작 그녀 자신은 승마 특기생이었다. 아버지가 부산에서 부동산 갑부였다. 승마 특기생이라고 해서 지성을 갖추지 말란 법은 없지만 ‘글쎄다’ 싶었다. 그녀는 한동안 텔레비전에 자주 나왔다.

참고로, 우리나라 미스코리아 선발은 그제나 이제나 문제가 아주 많다. 미스코리아는 유명 미용실에서 ‘만들어’ 낸다는 게 정설에 가깝다.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미스코리아 행사는 매년 모 신문사가 주관한다. 이 신문사의 전 사주가 한 때 화류계에서 좀 놀던(?) 사람이었다.

말이 나온 김에 연예계 얘기를 좀 더 해야겠다. 나는 연예계라는 곳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이자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난장판이라고 생각한다. 요즘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연예계는 가십거리가 마르지 않는 곳이었다. 쓰레기 같은 스캔들을 스물 네 시간, 사시사철, 연중무휴로 생산해 내는 공장이었다.

어느 영화 선전 문구에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그 이상을 볼 것”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연예계가 바로 그 짝이었다. 온갖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벌어지는 요지경이었다. 물신주의와 한탕주의가 판치는 복마전이였다.

몇 년 전 시중에는 누구는 손만 들면 된다고 해서 ‘택시’라고 불린다느니, 누구는 줄만 서면 된다고 해서 ‘버스’라고 불린다느니 하는 말들이 돈 적이 있다. 그 중 한 명은 청순한 이미지로 인기 있던 배우였는데, 그 후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신세를 지기도 했다.

내가 대공정책실에 근무할 당시 연예계에서는 “OO아, 차 바꿀 때 되지 않았니?”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이 말은 연예계의 3대 투쟁 중의 한 명으로 알려진 중견 아줌마 연예인이 인기 정상에 있던 어느 여자 연예인에게 “오늘 밤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할 때 사용한 암호(?)였다고 한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매춘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서비스산업이다. 이에 대해 도덕을 논하는 일은 부질없는 짓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바닥의 특수한 현실에 대해서는 몇 마디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몇 마디 사족(蛇足)을 덧붙여 보겠다. “대개 꽃값은 그 시대의 구두 한 켤레 가격과 맞먹는 선에서 정해진다”는 게 통설적 위치를 점하는 설명이다. 그런데, 위의 암호호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는 구두 한 켤레, 옷 한 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승용차 한 대 값이라고 했다. 요즘은 수억 원이나 하는 승용차도 있으니 얼마나 더 올랐는지는 모를 일이다.

이런 일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순간 일할 맛이 싹 가시

게 된다. 입이 딱 벌어지고 욕부터 나오게 된다. 인류 역사상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꽃값 인플레이가 심한 곳이 또 있었을까 싶다. 유일하게 21세기 한반도에만 있는 일이다. 아마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 고상한(?) 서비스업이 정치권력과 경제 금력을 이어주는 은밀한 유희유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연예인 매춘은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소개하는 뚜쟁이와 돈을 대는 기업인, 그리고 수요자인 정치권력이 정교한 메커니즘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물론 이 서비스업은 우리의 세계적인(?) 수준의 요식업과 숙박업 같은 ‘빠까 뻔쩍한’ 후방산업이 견실하게 받쳐주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95년 초 연예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있었다. 표면적인 명분은 연예계에 만연한 부패를 일소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국민의 비판을 탄 데로 돌리기 위한 호도책이었다. 당시 연예계 사정은 검찰이 수사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청와대의 민병O 비서관이 총대를 댔다. 안기부의 방송과가 측면에서 정보지원을 했다.

검찰이 막상 연예계 내부를 들춰보니 악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돈과 섹스와 마약이 미쳐 돌아가는 난장판이었다. 재미있었던 현상은 ‘청순한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일수록 뒷말이 더 풍성했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커넥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메커니즘의 주요 부분이 촌지와 뇌물과 로비였다. 우리나라 언론계 중에 “유독 연예계와 스포츠계 기자들의

부수입이 가장 짹짹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유도 아마 그런 데 있을 것이다.

당시 주말연속극에 갓 등장한 까만 용모의 눈이 크고 귀여운 여자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기까지 과정을 들어 보니 그야말로 ‘인생역정(人生歷程)’이라 할 만했다. 그녀는 요즘 코미디 프로로 전향하여 활동하고 있는 모양이다.

언제인가는 미모의 모 텔런트 모녀가 모 재벌 3세를 엮으려고 공항에서부터 입체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 안테나에 잡히기도 했다. 얼마 전 그녀는 그 재벌 3세와 불화설이 나돌더니 결국 이혼하고 말았다. 요즘 다시 텔레비전에 복귀하여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연예계를 들여다보고 놀랐던 점은, 어머니가 직접 매니저를 하는 연예인일수록 사생활이 더욱 문란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연예계는 어머니가 자기 딸을 매춘으로 내모는 믿기 어려운 ‘비정한’ 세계였다. 육감적인 미모를 자랑하는 모 연예인이 특히 그렇다는 수군거림이 있었다.

연예계의 3대 투쟁이가 누구누구라느니 하는 소문도 대체로 사실로 확인되었다. PD와 연예인들 간의 몸 상납과 PD와 기획사 간의 ‘잃어주기’ 포커도 사실로 드러났다. 유명 시나리오 여류 작가와 그녀의 대 학동창이자 친구였던 모 여자 텔런트가 배역(配役) 장사를 한다는 소문도 거의 사실이었다.

당시 어느 음악방송 유명 DJ는 기네스북의 방송 연속출연 기록을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느닷없이 잠적해 버렸다. 검찰이 자신에 대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DJ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신곡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곡당 2~3백만 원가량의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 곡당 그 정도로 받았다면 벌이가

괜찮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그를 체포해서 사법처리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몇 달간 진행된 검찰의 수사도 결국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었다. 수사에 불려나온 연예인들의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거니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성을 입증할 물증을 잡기 어려웠다. 정권으로서도 한바탕 보도했기 때문에 내심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문민정부에서 행해진 연예계 사정이라는 클래식한 레퍼토리는 2002년 국민의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그대로 재현된 바 있다. 사정을 시작한 동기도 붕어빵처럼 똑같았고, 진행 과정과 결말도 대략 그저 그렇게 비슷하게 났다. 아무렴,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보다.

마지막으로, 국정원과 연예계가 관계되는 얘기를 하나만 더 소개하겠다.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건으로 알려진 소위 「O양의 비디오」 사건에 얽힌 얘기다. 비록 내가 직접 확인한 일은 아니지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대충 다음과 같다.

국정원이 이 사건에 개입한 사연은 좀 우스꽝스럽다. 비디오에서 남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종마처럼 잘 빠진 남자배우 H씨는 마약 중독자였다고 한다. 그는 O양이 뜨기 전에 매니저 겸 애인이었는데, 훗날을 대비하여 문제의 비디오를 찍어두었다고 한다.

한참 후, 그는 O양과 헤어진 후 돈이 궁해지자 이 비디오를 들고 한국의 모 대형교회 당회장의 아들인 J씨를 협박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O양이 J씨의 애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협박을 당한 J씨는 처음 한두 차례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계속된 협박에는 그만 손을 들고 말았다.

이즈음 이종찬 원장은 J씨가 운영하는 모 일간지 담당 수집관에게 이 비디오의 원본 입수를 지시했다. 당시 그 일간지 담당 수집관은 내가 신문과에서 부임했을 때 행정관이었던 윤 모 선배였다.

이종찬 원장과 J씨의 부친과는 평소 돈독한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수집관이 비디오 원본을 입수했을 때에는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유포를 막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대충 그렇고 그런 스토리였다. 2005년 필자가 미림팀의 존재를 제보한 후 유독 이 일간지만 전직 직원으로서의 본인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나는 대공정책실 부속실에서 1년 정도 일하고 나니 “볼 것 안 볼 것 다 보았다.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긴장된 부속실 생활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피폐해진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일을 핑계로 가정에도 너무 소홀해진 것 같았다. 나는 좀 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선배들은 하나같이 “그 자리는 오래 있을 데가 못 된다”고 충고해 줬다. 메모 보좌관이었던 배 모 보좌관은 “이젠 국내 부서는 사양산업이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외 부서로 옮겨라”며 진심으로 충고해 주었다. 고민이 되었다.

이즈음 나는 ‘나의 성격이 국내 부서와는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애초에 정성O 씨나 공운O 씨 같은 훌륭한(?) 수집관이 될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하루라도 빨리 해외연수도 가고 싶었다. 연수를 가려면 아무래도 국내 부서보다는 해외 부서로 옮기는 것이 유리했다. 생각 끝에 오 실장에게 “부속실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해외 부서로 보내주십시오”하고 부탁했다. 오 실장은 별다른 군말 없이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마”고 승낙해 주었다.

제6장 해외공작국에서

‘쌍개’의 세계

1995년 2월 어느 날, 나는 해외공작국의 이병O 행정과장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아주과에서 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해외공작국 아주과는 젊은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었다. 우선 과의 분위기가 괜찮았고, 업무량도 적당했다. 다른 과에 비해 해외 파견관으로 나갈 기회가 일찍 찾아오는 곳이기도 했다.

물론 해외공작국의 핵심 과는 북미과였다. 하지만 나는 공작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북미과는 과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전해들은 터인지라 아예 처음부터 북미과로 갈 마음은 없었다. 후에 실제로 해외공작국에 가서 살펴보니 ‘북미과에 안 가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거기는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다. 과의 분위기도 살벌했다. 무슨 할 일이 그리도 많은지, 북미과 직원들은 하루 종일 책상에 고개를 처박고 살았다. 사무실 내에서 과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는 분위기였다.

사실 나는 내심 정보협력과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외공작국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당시는 기존의 해외 정보

수집 방식에서 탈피해서 외국 정보기관과 정보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나는 이병○ 과장에게 “정보협력과에 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해외공작국의 정영철 국장에게 정식으로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 그는 나를 보더니 대뜸 “니가 김기삼이냐?” 라고 말했다. 첫 인사치고는 뉘앙스가 좀 묘했다. ‘오정소 실장의 직접 부탁으로 전입해 온 녀석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라는 투였다.

당시 안기부 내에서는 고대 삼인방이 이른바 실세였다. 오정소, 정영철, 남영식 실장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각각 국내와 해외, 그리고 대북 수집부서의 부서장들이었다. 이들이 국정원의 핵심 꽃보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은 연배도 비슷한데다 젊은 시절부터 해외공작국에서 동고동락했던 친구 사이인지라 서로 잘 어울리고 협조도 잘 했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고대 정신(?)에도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오 실장은 그 후 국내 차장으로 먼저 승진했고, 남 실장은 황장엽의 망명을 막후에서 직접 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차장급인 특보로 승진했다. 정영철 국장은 차장으로 승진하지는 못했지만 정권이 바뀌고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살아 남았다.

해외공작국 정보협력과는 신○○이란 분이 과장이었다. 그는 노무현 정권에서 해외공작국장을 지내고 그 후 아시아 어느 나라의 대사로 나가 있다. 신 과장은 나의 국정원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나를 자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정보협력과 3계에 배속되었다.

내가 처음 맡은 일은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 자료를 만드는 일이었다. 주로 외국 정보기관에 제공할 정보협력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과, 외국 정보기관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통역업무를 조정하는 일

이었다. 정보협력과 3계에는 한국외국어대학 동시통역대학원 출신의 전문 통역사들이 여러 명 있었다. 나는 이들 전문직 직원들의 번역과 통역 일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나는 또한 일주일마다 타국 정보기관과 교류한 정보협력 실적을 종합하여 실장에게 보고하는 일도 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각 과에 연락하여 한 주 동안의 정보협력 실적을 파악하였다. 이런 일을 통해 외국 정보기관과 무엇을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자료를 주고받는지를 전체적으로 대충 조감할 수 있었다. 안기부와 외국 정보기관과의 관계가 대충 눈에 들어왔다.

너무 개인적인 일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보협력과 사람들에게 대해 좀 더 소개하는 게 좋을 듯하다. 국정원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이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신 과장은 경북고, 서울대 언어학과 출신으로 영어를 특히 잘 했다. 유학이 아니라 국내에서 배운 영어를 우리끼리는 ‘된장 영어’라고 불렀다. 안기부 역사상 ‘된장 영어’로 가장 유명했던 분은 이동복 특보와 현홍주 차장이었다. 나는 이동복 특보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영어를 잘 했는지 모르지만, 들리는 말로는, 외신 기자들에게 영어로 브리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이 특보는 특히 어려운 단어와 표현들만 골라 써서 조금 현학적으로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현홍주 전 미 대사가 영어로 대답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다. 대학시절 AFKN을 통해 ABC 방송의 심야 대담프로인 「나이트 라인」을 즐겨 보았는데, 언젠가 전두환 정권의 말년 즈음에, 현 대사와 민주당의 박실 의원이 그 프로에 참여하여 토론한 적이 있었

다.

당시 집권 여당의 상황이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사는 유창하고 거침없는 영어로 유연하게 변명해 나갔다. 반면에 박실 의원은 한참이나 유리한 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버벅거리며 공격의 포인트를 잡지 못했다. 현 대사의 완벽한 한판승이었다.

신 과장의 영어실력은 이들 전설적인 선배들에게도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영어는 쉬우면서도 깔끔하고 품위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어 실력이 “부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전부”라고 늘 겸손해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후배들에게는 “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는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 보고서도 빼어나게 잘 썼다. 우리가 올린 보고서의 초안이 그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된 보고서로 변해서 나오곤 했다. 우리는 그를 ‘신의 손’ 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그가 우리들의 초안 보고서를 잘 손질해 줬다는 말이다.

신 과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공보비서실에서 일했다고 한다. 5공 때 청와대의 영문 자료는 모두 그가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청와대에 근무할 때 안기부 간부들이 부러웠다고 한다. 5공 시절에는 안기부의 과장급 간부에게도 관용차가 지급되고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 보고도 하고 그랬기 때문이다. 그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자원하여 안기부로 옮겨 왔다. 그는 아무런 인맥도 연고도 없었지만 실력 하나로 남들보다 빨리 승진했다.

당시 정보협력과 1계장은 내가 노벨상 공작에 관한 글에서 밝힌 박경O 씨였다(*박경O 씨의 출신 배경과 노벨상 공작에서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는, 1부 양심선언 ‘회칠한 가면, 악마의 초상’ 참조).

그는 본래 외사국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도미니카에 파견관으로 나갔다가 귀국한 후 정보협력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정보협력과 1계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 CIA 한국지부와 정보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당시 박경O 계장은 CIA와 모든 정보협력을 관장해야 할 직책에 앉아 있었는데, 능력이 안 되어서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관 밑에서 일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 보였다. 그는 하루 종일 영자신문의 간지를 보며 소일했다.

그래서 CIA와의 정보협력 업무는 박 계장 대신, 7급 직원에 불과했던 박지O이 거의 도맡다시피 했다. 정영철 국장은 박 계장이 자기의 고대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데다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신 과장은 그런 박 계장을 과장으로 진급시키기 위해 애를 써 주었다. 신 과장의 후원 덕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박 계장은 막차로 간신히 지원조정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이란 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98년에 정권이 바뀌자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신 과장을 구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내쫓듯이 그를 유엔 공사로 내보냈다.

마침 박경O 과장도 뉴욕 참사로 발령이 났다. 직급상 엄연히 신 공사가 상관이고 박 참사는 아랫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직급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내가 확인한 얘기는 아니지만 들은 바로는, 박 참사는 신 공사에게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죽은 듯이 지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기가 실세이니 ‘설치지 말고 알아서 처신하

라’는 경고였던 셈이다. 권력의 비정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박경O 참사는 워싱턴으로 옮기더니 99년 9월경 갑자기 단장으로 승진해 본부로 들어왔다. 그는 2001년 4월, 노벨상 공작을 성공시킨 후 국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승진은 계급 연한조차 채우지 않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박경O씨의 이례적인 진급은 문민정부 시절의 오정소 차장의 진급만큼이나 파격적인 것으로, 언제인가 시사저널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다(*제1부 ‘회칠한 가면, 악마의 초상’ 참조. 그 후 그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스라엘 대사로 나갔다).

박경O 계장의 후임으로 정보협력과 1계장으로 온 분은 김용O 계장이었다. 신 과장이 단장으로 진급한 후 그는 후임 정보협력과장이 되었다. 이후에도 이 분은 계속 신 과장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신 공사에 이어 워싱턴 공사를 지냈다. 내가 이 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외람된 일이지만, 이 분의 인품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흔히 해외공작국 요원들은 스스로를 비하하여 ‘쌍개’라고 불렀다. 아마도 ‘상놈의 개새끼’라는 말의 줄임말일 것이다. 평생 남의 뒤통수나 치면서 험하게 살다 보니 그런 자조적인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정보관이란 게 원래 그런 속성이 있다. 남의 잘하는 짓은 보고할 만한 게 없고, 매일 남이 잘못 하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해외공작국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에게서 어딘지 모르게 인격이 꼬이고 비틀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평생 남의 뒤통수나 캐고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는가 보다.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 계장은 예외적인 존재였다. 이런 험악한 여건에서도 온전한 인격을 보존한 보기 드문 케이스였다.

접대와 ‘특조’

각설하고, 정보협력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정원장과 차장 등 간부들의 해외출장을 준비하는 일과 외국 정보기관 간부들을 방한 초청하는 일이었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 채널을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의 정보협력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보기관 간부를 방한 초청하는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초청 교섭은 해당국에 파견된 파견관들이 직접 하지만, 일단 초청되어 국내에 들어오면 정보협력과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했다. 보통 외국 정보기관 고위 인사들의 초청 목적은 원장과 차장과의 접견을 주선하는 것이었지만, 향응과 접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었다. 정보협력과 요원들은 이들의 방한 행사를 기획하고 가이드 노릇까지 했다.

정보협력과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익힌 후, 나는 캐나다와 루마니아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 도쿄에 주재하던 캐나다 정보기관(CSIS) 요원 000은 정보협력차 한 분기에 한 번씩 서울에 들어왔다. 그는 주로 북한 정세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루마니아 정보기관은 서울에 신임 파견관을 두고 있었다. 당시 대우자동차가 루마니아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우와 루마니아 간에 인적 교류가 많았다. 대우 덕택에 루마니아와의 정보협력이 긴밀히 잘 이루어졌다. 루마니아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기타 동유럽 국가들과의 정보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동유럽 국가들과 수교가 이루어지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의 경제개

발 노하우와 경제원조를 원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접근 능력을 원했다. 우리가 주로 동유럽 정보기관 간부들을 초청할 때가 많았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대우와 기아·현대자동차 공장을 견학시켜 주는 등 산업시찰에 데리고 다니는 일이 많았다. 재미있었던 사실은, 이들은 하나같이 대우자동차를 대단히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반드시 대우차를 사겠다”고 스스럼없이 얘기하곤 했다. “동유럽의 다른 차들보다 대우차의 품질이 좋다”고들 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외국의 정보기관 사람들을 주로 많이 데리고 간 관광지는 경복궁, 민속촌, 경주, 제주도 등이었다.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골프 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방문객들에게 줄 선물은 세심하게 골랐다. 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토속 공예품을 선택할 때가 많았지만, 조금 중요한 방문객에게는 용봉향로 모조품이나 신라금관 모조품, 그리고 고려청자 모조품 등이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

외국 정보기관 사람들의 초청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주로 저녁행사였다. 이들을 접대하면서 나는 팔자에도 없는 요정과 림살롱을 출입하게 되었다. 최고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거나하게 접대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2차까지 이어질 때가 있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를 ‘특조’라고 불렀다. ‘특별 조종’의 줄임말이다.

선배들은 특조 때에 아가씨들을 불러다 놓고 주의사항을 전달하곤 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마치 조방이 된 듯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다. 적성에도 맞지 않고 한마디로 ‘못할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선진국 정보기관 간부들은 발목이 잡힐까 우려해서인지 ‘특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후진국 정보기관 사람들일수록 ‘특조’에 훌쩍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슬람권 국가의 정보기관 사람들은 낮과 밤의 생활이 달랐다. 그들은 낮에는 술과 여자를 멀리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밤이 되면 노골적으로 여자를 요구하곤 했다.

나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행사는 러시아 특수부대인 알파 부대원들을 초청한 행사였다. 당시 러시아에 주둔했던 현대의 한 간부가 모스크바의 버스 안에서 인질로 잡혔는데, 알파부대의 진압작전으로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다. 현대가 감사의 표시로 이들 알파 부대원들을 방한 초청했다. 우리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현대가 제공한 차량으로 전국을 순회 관광했다.

나는 이들을 데리고 과천에 있는 경찰의 대 테러 진압부대를 방문하여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고, 용인에 있는 특전사 훈련장에 데리고 가서 합동시범도 했다. 그들은 우리의 대 테러 부대와 특전사 병사들의 시범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것이었다. 입국 시에 보니 이들은 하나같이 엄청나게 무거운 가방을 하나씩 들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보드카를 한 가방씩 가지고 온 것이었다. 아마 한국에서 술이 비쌀 것이라고 짐작하고 자기들이 마실 거리를 자체 조달해 온 모양이었다.

이들은 이동할 때마다 보드카를 한 컵씩 들이켰다. 그것도 엄청 큰 컵으로 마셨다. 이들은 마치 습관처럼 차에 오를 때마다 한 잔씩 들이부었다. 문제는 자기들만 마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에게도 강권하는 것이었다. 술 문화는 그네나 우리나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도 술잔을 건네며 우정을 확인하는 모양이었다. 이들과 다니면서 독한 보드

카 때문에 사고생을 많이 했다.

정보협력과의 장점은 여기저기 다녀 볼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다. 외국 손님을 접대한답시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 중에서도 경주에는 여러 차례 갔었는데, 갈 때마다 기분이 새로웠다. 사실 나는 경주가 그리 낯선 곳은 아니었다. 경주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외부세계를 경험했던 도회지였다. 숙부 댁이 그곳에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화랑의 집’이란 곳에서 며칠간 수련하느라 방문한 적도 있었다.

경주는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볼거리가 있었다. 도시 전체가 잘 다듬어지고 관리된 문화재와 같았다. 언젠가 벨기에 정보부 차장을 데리고 보문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쪽샘 거리인가 하는 곳에 있던 어느 음식점에서 전통 음식을 먹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콩잎 삭힌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나물반찬이 여간 정갈하고 맛깔스런 게 아니었다.

그곳을 둘러 본 후에 경상도 음식도 먹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파부대를 인솔하고 경주에 들렀을 때는 동행하던 서울 주재 러시아 정보기관의 파견관이 “경주에 맛있는 만두집이 있다”며 가자고 강권했다. 나도 어릴 적에 경주에서 만두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물어 물어 어느 만두집을 찾아 갔다. 그러나 예전에 먹던 만두 맛은 아니었다.

“여긴 착한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돼!”

정보협력과에서 1년 반가량 일하고 나니 해외로 연수 나갈 기회가

생겼다. 과의 계장들은 전입은 지 얼마 안 되었다며 나의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눈치였다. 과에서는 일할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로 젊은 직원의 연수를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가끔 연수를 신청하는 직원과 남아 있는 직원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은 연수 가지 못하고 일 못하고 꼴 보기 싫은 직원이 연수를 가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도 종종 일어났다.

고맙게도 신 과장이 직접 나서서 계장들을 설득해 주었다. 그는 ‘젊은 사람에게 자기계발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나의 연수를 강력히 밀어 주었다. 신 과장 덕택에 나는 스타일 구기지 않고 해외연수 허락을 얻어낼 수 있었다.

연수를 떠나기 전 어느 날 신 과장은 “둘이서 부 내에서 점심이나 먹자”고 했다. 청사 내에서 과장과 둘이 따로 식사해 본 일이 없어 좀 의아하긴 했지만, 군소리 없이 응했다. 식사 후 같이 청사 내를 한 바퀴 산책하던 중에, 그는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 어렵지만, 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일을 찾아 봐라.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너는 나보다 심성이 더 착한 것 같다. 여기는 착한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된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 바닥에서는 ‘착하다’라는 말은 칭찬이기보다 욕으로 해석될 때가 많았다. 쌍개의 세계에서는 ‘착한 사람은 곧 공작관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의어였다. ‘공작관은 무자비하고 냉혈한이어야 한다’는 미신이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신 과장의 진정어린 충고에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쉽게 하기 어려운 충고를 해준 것이었다. 몇 년 후 연수를 마치고 그에게 귀국 인사를 갔던 적이 있다. 98년 어느 늦여름이었다. 그땐 이미 정권이 바뀐 후라 그의 입장이 아주 어려운 때였다.

그날 우리는 강남의 진동희집에서 소주를 한 잔 했다. 진동희집은 언제나 처럼 북적거렸다. 그는 말없이 소주잔을 기울이다 갑자기 “전에 내가 한 말을 생각해 보았나?”라며 불쑥 물었다. 나는 “예, 생각해 보았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신 과장의 충고가 아니었더라도 나는 이미 ‘정보기관이란 곳이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만 두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다시 정보학교로

각설하고, 96년 8월 실무에 배치된 지 3년 만에 다시 정보학교로 돌아왔다. 정규과정 시절에는 교육생 신분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이제 다시 교육생이 되니 마치 해방된 기분이었다. 연수기간은 2년이었다. 처음 1년간은 정보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은 다음 나머지 1년은 해외에서 현지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김기섭 기초실장은 ‘정치공작 하는 데 쓰던 돈을 직원들 재교육하는 데 쓰겠다’며 직원들 연수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다. 정보학교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노어를 가르쳤는데 네 과정을 합해 매년 백 명가량 선발했다. 영어 과정은 전체 60명가량이었는데, 15명씩 4개 반으로 나누었다. 나는 영어 D반에 배속되었다. 우리 담임이었던 신종 O 교수님은 우리를 “드림반(Dream Team)으로 이름 짓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돌반(Dol Team)으로 하자”고 우겼다.

우리는 편의상 영어로 이름을 불렀다. 나는 제임스라고 불렀다. 제임스(짐)는 내가 초등학교 때 처음 읽은 외국 책인 『보물섬』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했고, 카투사 시절 가장 친했던 미군 병사의 이름이기도 했

고, 유명한 007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성을 영어로 읽으면 비슷한 발음이 나기도 했다. 나는 김씨를 영어로 Kim이 아니라 Gim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영어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웬만큼은 했다. 우리는 여러 명의 외국인 강사로부터 영어를 배웠다. 강사들은 대체로 친절환 편이었지만, 그 중에는 가끔 한국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영국 출신 강사와 감정 대립을 겪기도 했다.

우리와 잘 어울리던 캐나다 출신의 젊은 강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가 수업 중에 자신들에게도 도청을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나는 “당신은 도청당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해 줬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되었던 것인지, 그가 몇 년 후 마약사범으로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결국 그도 도청 대상이었던 셈이다.

우리는 하루종일 영어만 배웠는데도 영어 실력은 생각만큼 잘 늘지 않았다. 이미 외국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였다. 나는 영어 공부에는 별 재미를 붙이지 못했지만, 카투사 시절에 익힌 기본실력으로 그럭저럭 별 어려움 없이 지냈다. 나를 특별히 아껴주시던 신 교수님은 “제임스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줬으면 좋겠다”며 나의 나태함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곤 했다.

영어 듣기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문법을 좀 소홀히 해도 토플 점수가 그런대로 나왔다.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첫 토플 시험에서 627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다. 나이든 선배들 중에서는 토플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정 수준의 토플 점수를 받지 못하면 연수 기회가 무산되기 때문이었다.

영어 과정을 마칠 즈음에 1년 간 연수 갈 학교를 찾아보았다. 나는

‘미국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부설 어학과정에 가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이 개설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들은 등록금만 비쌌지 교육 내용은 그저 그런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영어 과정보다는 법과대학원 과정인 LLM 과정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에서는 1년간 어학 연수비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정해 두고 있었다. 그 이상은 자기 부담이었다. 내가 가려던 법과대학은 대개 등록금이 1만5천 달러 이상이었다. 당연히 차액은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참에 미국의 법과대학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요즘은 한국에도 로스쿨이란 것이 생겨 미국식 법과대학 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당시에는 미국 법대로 유학 가는 경우가 요즘처럼 흔하지 않았다. 나는 미군부대에서 법무행정병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미국의 법과대학 시스템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미국의 정규 법과대학은 대학원 과정으로 교육 기간은 3년간이다. 이를 ‘주리스 닥터(Juris Doctor)’ 또는 줄여서 그냥 ‘제이디(JD)’ 과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법과대학들에는 JD와 법학 박사과정 사이에 1년 기간의 LLM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말하자면, LLM 과정은 본래 3년간의 정규 법과대학원 과정(JD 과정)을 마친 학생을 위해 개설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법과교육 체계는 지극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LLM이나 박사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법과대학 교수들도 대개는 평생 학문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LLM 과정은 대개 외국 학생들이 미국의 법학 대학원에 입문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었다. 대개는 외국학생으로부터 현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LLM 과정이 대학의 랭킹 평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법과대학은 모두 LLM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카일라일에서의 추억

나는 여러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 주의 카일라일(Carlisle)이라는 소도시에서 있는 디킨슨 법과대학이 마음에 들었다. 등록금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시골에 위치해 있는 점이 좋았다. 애팔래치아 산맥 안의 시골 벽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 1년간은 한국 사람을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현지에서 도착해서 보니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런 시골 구석에도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제는 미국의 어느 시골 벽지에도 한국 사람이 없는 동네는 없는 것 같다.

카일라일은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더 없이 친절했다. 마을 전체가 가로수에 폭 파묻힌 듯, 수백 년 된 가로수들이 줄지어 늘어져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는 나무가 많다. ‘실베이니아’라는 말은 ‘숲’이란 뜻이다. 펜실베이니아는 ‘펜의 숲’이라는 말이다. 영국 왕이 펜 씨에게 숲으로 덮인 땅을 하사했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법원과 교회와 참전용사 기념비가 마을의 상징처럼 마을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었다. 담벼락도 없는 고색창연한 대학 캠퍼스가 마을 안에 있었다. 시냇가에는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우글우글했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달력에 나오는 그림 같은 풍경이 그대로 있었다. 여름날 초저녁이면 무수한 반딧불이의 향연이 꿈결처럼 황홀하게 피어났다. 겨울철에는 눈 덮인 들판의 언덕이 아련히 펼쳐지는 곳이기도 했다.

연수 갔다 돌아온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누구나 하나같이 자기가 연수 갔던 곳이 제일 좋은 곳이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나도 카일라일이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조금 살을 붙여 거창하게 ‘나는 카일라일이란 시골 마을에서 미국의 위대한 모습을 보았다’ 고까지 생각한다.

나는 요즘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가 많다. 특히 미국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볼 때마다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물론 미국 사회에 대한 나의 인상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요즘 미국은 볼수록 실망스럽고 겪을수록 한탄스런 나라가 되고 만 느낌이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국에게 배울 게 없어 보이기도 한다. 내가 본 카일라일은 한때나마 위대했던 유산의 한 자락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실제로 카일라일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화석처럼 흔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선거 날 투표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나는 미국식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실감했다. 그들의 선거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모든 절차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나는 이 시골 마을의 도서관에 가 보고서는 미국의 세계 지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골 마을 도서관의 장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의 큰 도회지의 도서관보다 더 나은 것 같았다. 카일

라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어디를 가나 마을마다 그럴 듯한 도서관이 있었다. 도서관끼리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필요한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의 유치원에서 초·중등학교까지의 교육시스템도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다. 여기는 촌지 같은 것은 받을 붙일 수 없는 곳이었다. 미국에서 50 달러 이상의 촌지는 뇌물로 취급된다. 미국의 공조직은 아직 부패되지 않았다. 이 점도 미국의 세계 지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촌지가 없어도 선생님들의 열성과 책임감은 놀라울 정도였다. 왕따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외국 학생에게 쏟아 붓는 애정과 관심에 황송할 따름이었다. 교육예산의 씹씹이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명의 지체 장애아를 돌보기 위해 서너 명의 교사가 달라붙어서 교육하는 게 예사였다. 나는 미국에 연수가려는 후배들에게 도시로 가지 말고 시골로 가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아직도 미국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서울이나 뉴욕이나 그게 그거다. 배울 게 없다. 연수지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미국이라고 다 같은 미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보면 그냥 미국이지만, 그게 아니다. 미국은 큰 나라이다. 하나의 대륙이다. 남과 북, 동과 서에 따라 기후도 천양지차이지만 분위기도 천차만별이다. 도시 다르고 농촌 다르다. 같은 농촌이라도 지역에 따라 문화가 확연히 다르다. 차를 타고 20분만 가면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공부할 요량이면 동북 지역으로 가는 게 좋고, 적당히 쉬러 갈 요량이면 남서 지역으로 가는 게 낫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다면, 어디든 도시보다는 농촌이 낫다. 생활비 차이가 많이 난다. 아들의 등하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버스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카일라일은 전형적인 학원도시였다. 이 동네에 있는 디킨슨 칼리지는 특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꽤 많은 명문 사립대였다. 디킨슨 칼리지 한 귀퉁이에 디킨슨 법과대학원이 있었다. 디킨슨 법대는 미국의 법과대학원들 중에 일곱 번째 설립된 유서 깊은 법대라고 했다. 이 학교는 시골 구석에 있어서 교세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내가 유학 간 그 해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 편입되었다.

카일라일에는 미군의 육군대학(Army War College)도 있었다. 미 육군의 영관급 장교가 장성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육군대학 같은 곳이었다. 우리 육군에서도 매년 대령 한 명을 이 학교에서 연수시킨다.

미국의 법과대학 대학원 과정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강의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더군다나 들리지 않았다. 속사포처럼 얘기하는데다 말소리마저 작았기 때문이다. 나의 영어 수준이 ‘밥 먹는’ 수준은 되었지만 ‘밥 벌어 먹는’ 수준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첫 학기는 수업을 따라가느라 정신없이 보냈다. 두 번째 학기에는, ‘이러다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저 미국 법대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맛만 보면 될 일이었다. 학점 잘 받는 것은 포기하고 운동과 여행으로 관심을 돌렸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연수 중에 IMF 사태가 터져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했던 것이 약간 아쉬운 점이었다.

1년 간 연수기간을 통해 나는 한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 미군부대에서 본 미국의 모습과 미국 현지에서 본 모습은 또 달랐다. 한국에서는 미국인들을 ‘나태하고, 뚱뚱하고, 거만하고,

비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직접 와서 겪어 보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 기숙사에 임시로 거처하는 동안 켈리 교수를 소개받았다. 그는 이미 정년퇴임한 교수였는데, 소일삼아 계속 학교에 나오고 있었다. 그는 아이리쉬(아일랜드 출신)계였는데, 한미 간에 한미행정협정(SOFA)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미국 측 책임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소파협정을 만든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변호사 자격증도 보여주었다. 외국인이 한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가 유일한 예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나는 미군부대에서 한미행정협정 관련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평소 관심이 있었는데, 이를 직접 만든 장본인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한국과의 인연 때문인지, 아니면 천성이 그렇기 때문이었는지, 나에게 특별히 잘해 주었다.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소장하고 있던 60년대 한국 레코드판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훈희라는 가수의 레코드도 있었는데, 그는 「강 건너 불빛」인가 하는 노래를 직접 흥얼거리기까지 했다. 그의 집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조그만 동종(銅鍾)도 있었다.

한 번은 켈리 교수가 나를 남북전쟁 재현 행사에 데리고 갔다. 미국에서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희비도 내고 소식지도 발행하며, 해마다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모여서 편을 갈라 실제로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우리는 안티탐 전투가 벌어졌던 메릴랜드 주의 해거스 타운 근처의 벌판에서 며칠간 야영을 했다. 안티탐은 게티스버그에서 남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남북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남북전쟁이 북군에게로 전세가 기울어지는 전환점이 된 전투였고, 안티탐 전투는 북군이 처음으로 대승하여 남북전쟁 최대의 분수령이 되었던 전투였다.

재현행사 현장에는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자원 병사들이 모여 들었다. 모두들 남북전쟁 당시의 전투복을 착용하고 당시의 무기였던 개스킷을 들고 나왔다. 물론 안전상 탄환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실제인 것처럼 화약은 장전했다. 신기하게도 이들은 이미 소속 부대와 계급까지 정해져 있었다. 자녀들에게 산 역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인지 아예 가족을 동반하고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어디서 구해 왔는지 수많은 군마(軍馬)와 수십 문의 옛날 대포도 동원되었다.

전투가 재현되는 현장에는 수만 명의 관객이 모여들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행사가 시작되자 몇 시간 동안 자욱한 포연이 이는 가운데 일진일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나는 일찌감치 총에 맞아 죽은 시늉을 하고 들판에 드러누워서 이들의 전쟁놀이를 감상했다.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의 시골에서는 재향군인회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라고들 하는데, 이들을 보니 왜 그런지 이해가 갔다. 이들의 역사의식이 부러울 뿐이었다. 우리의 현실도 함께 떠올랐다. 이에 비해 우리는 불과 50여 년 전의 전쟁도 되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나는 군대 시절 왜관의 다부동 전적지를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데 놀랐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는 민족에겐 미래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수기간 중에 정권이 바뀌었다. 야당이 승리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수평적인 권력교체가 이루어졌다. 때마침 나라의 경제가 부도나서 IMF 관리체제로 넘어갔다. 나는 새로 들어선 정권이 잘해 주기를 먼 곳에서 기원했다. 새로 정권을 잡은 분들이 자신들이 핍박받았던 경험을 잘 살려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바랐다. 망가진 경제를 조속히 회복하여 난국을 수습해주길 기대했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은 98년 6월, 나는 미국 현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행사에 보안지원 요원으로 차출되었다. 덕분에 법과대학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근접경호는 경호실에서 담당하고 우리는 원거리에서 경호정보 지원활동을 했다. 나는 뉴욕의 성 패트릭 성당 부근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여 김 대통령 내외를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게 있었다.

제7장 대외협력보좌관실에서

‘오칠남’ 신세

1998년 6월,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1년 간 연수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했다. 새로 보직을 받은 부서는 국제정책실 시사정보과(時事情報課: 이하 시정과)라는 곳이었다. 원래는 연수 이전 부서인 해외공작국으로 돌아가야 정상이었지만, 내가 귀국할 즈음엔 해외공작국에는 돌아갈 자리가 없었다.

정권교체 후, 국정원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한바탕 난리를 쳤다. 해외공작국은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했다.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연수 인원의 보직 문제는 제쳐놓았던 모양이다. 대신 영접결에 기구가 대폭 확대된 국제정책실(해외분석 부서)에는 자리가 남아돌았다. 결과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다시 부서를 옮기게 되었다.

시정과(時事情報課)는 국제정책실을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든 과였다. 과의 요원들은 주로 신입 직원이나 연수갔다가 복귀한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과의 주요 임무는 한반도 관련 해외 공개자료를 번역하는 일이었다. 이를테면, 새로 전입한 직원들에게 글쓰기 훈련을 시키는 곳이었다. 시정과는 매주 번역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정부 각 부처와 연구소 등에 배포했다. 사실 이 책자는 잘 챙겨보면 꽤 쓸 만한 내용이

었는데, 아쉽게도 꼼꼼히 챙겨 읽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듯했다.

나는 주로 미국의 언론에 게재된 한반도 관련 칼럼을 번역하는 일을 맡았다. 물론 「페리」 보고서나 「아미티지」 보고서와 같이 미 정부에서 낸 공식 보고서와 헤리티지 등 일반연구소에서 발행한 논문도 번역했다.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기사를 요약하고 간단한 평가까지 달았다.

이렇게 번역작업을 하다 보니 미국인들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이 대충 눈에 들어왔다. 미국 언론에 난 한반도 관련 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알게 되었다. 형편없기는 타임이나 뉴스위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알파하고 표면적인 분석을 담고 있는 기사들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글을 쓴 기자들 중에 한국어를 제대로 하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정과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일주일에 기사 두어 쪼가리만 번역하면 끝이었다. 도전할 만한 일도, 창의력을 발휘할 일도 없었다. 야근이나 조출(조기 출근)도 없었다. 다른 부서처럼 언제나 휴대전화를 켜 놓고 소위 ‘통신축 상’에서 움직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 국정원 내에서 이렇게 근무 여건이 양호한(?) 곳은 드물었다. 원래 분석부서란 데가 좀 한가한 곳이기는 하지만, 시정과는 좀 심한 편이었다. 월급 받는 것이 죄스러운 정도였다.

국제정책실에는 ‘오칠남’이란 말이 유행했다. 이 말은 ‘5국의 7급 남자직원’이란 말의 준말이다. 당시 해외분석 부서인 국제정책실은 편제상으로 5국이었다. 즉, 5국은 국제정책실의 또 다른 명칭이었다. 그 말 속에는 ‘해외정보 분석부서의 말단 남자직원은 별 볼일 없는 인생이다’라는 자조가 깊이 배여 있었다. 나도 이런 ‘책상물림’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 별수 없이 좀생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이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터졌다.

번역 일에 한창 몰이 오르고 있을 때 과장과 계장 사이가 틀어졌다. 어쩌다 보니 내가 그들 사이에 끼였다. 과장은 신경O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별명이 ‘신경질’ 과장이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성향이 그런 별명을 만든 원인이었을 것이다. 당시 그는 단장 진급에 목을 매달고 있었다.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요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보잘것 없는 번역일이나 감독하고 있었으니, 그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이다.

계장은 이규O이란 사람이었다. 그는 말은 어눌했지만 보고서는 잘 썼다. 내가 쓴 번역 보고서를 다듬어 주는 것을 보면 문제에 접근하는 틀이 잘 잡혀 있었다. 그는 부하직원인 나를 자상하게 대해 주었다. 그는 당시 국정원의 핵심 실세였던 전주고 출신들과 동문이어서 그랬는지, 회사 돌아가는 사정에도 밝았다. 나에게서는 이런저런 회사 돌아가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잘해 주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직속상관인 이 계장과 가까워졌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신경질 과장이 이 계장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장에게 직접 화풀이를 하지 못하고 대신 계원들을 들볶기 시작했다. 괜한 트집을 잡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했다. 내 옆 자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은 과장실에 불려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러면 나는 그 후배 여직원을 달래야 했다. 복도에서 후배 여직원을 달래고 있는 내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고 처량해 보였다. ‘오칠남 생활을 청산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나는 이곳저곳 옮길 곳을 알아봤다. 비서실 산하 법률보좌관실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법률보좌관실의 팀장과 간단한 대면 인사를 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서울법대 출신 다른 친구가 갔다. 그 즈음 원장 비서실 산하에 새로 생긴 대외협력보좌관실이라는 곳에 서도 ‘같이 일할 의향이 있느냐?’며 조심스레 물어왔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며칠 후 이종오 대외협력보좌관과 면담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나는 98년 6월, 연수기간 중에 김 대통령의 방미 행사에 차출된 적이 있었다. 그때 이 협력관은 뉴욕 부총영사로 일하면서 뉴욕에서의 경호정보 지원활동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안면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단도직입으로 전입희망 의사를 밝혔다.

나중에 들으니, 대외협력보좌관은 몇 달간 은밀히 적임자를 물색한 끝에 나를 픽업했다고 한다. 정보학교에서 나에게 영어를 지도했던 신교수가 추천해 줬다는 얘기도 있었다. 아마 내가 담당해야 할 일이 해외 언론이었으므로 영어에도 어느 정도 능통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좀 아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 내가 선택된 듯했다. 나의 진출 인사는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99년 2월, 나는 대외협력보좌관실로 정식 발령이 났다. 사무실에는 보좌관 아래 팀장 한 분과 파견 나온 과장 한 분 등 총 10여 명의 인원이 먼저 와서 일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국정원 외부에서 특채된 인원도 몇 명 있었다. 아직 고유한 업무가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지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했다. 뭔가 영성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구석이 있었다.

원장의 통역을 담당하는 박지○ 선배가 먼저 와 있었다. 우리는 반갑게 재회했다. 나는 그와 정보협력과에서 같이 근무했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에 있는 통역대학원에서 2년 간의 통역대학원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이 원장의 전속 통역관으로 발탁되어 대외협력보좌관실에 배치된 것이었다.

나는 발령을 받을 때만 해도 대외협력보좌관실이란 곳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 다만 ‘원장 직속의 부서이니 뭔가 원장의 특명 사항을 수행하겠거니’ 하고 짐작했을 뿐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신설 부서가 무슨 일을 하려는 곳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당시 대외협력보좌관은 이종찬 원장으로부터 “주변 강대국의 권력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특명을 받고 있었다. 쉽게 말해, 이들 강대국의 권력 핵심 인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로비 채널을 평소에 확보해 두라는 지침이었다. 정보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동안 손을 못 대고 있었던 일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이 원장이 떠나면서 이 일은 중단되었다. 천용택 원장 정도의 머리로는 이런 일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일은 애초에 이종찬 원장의 아이디어였다. 그가 정보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대상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이었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주요 관심 지역이었다. 클린턴 가(家)나 고어 가, 혹은 부시 가와 연이 닿을 수 있는 한인 교포들을 파악하는 작업부터 착수했

다. 해외 파견관들에게 여러 차례 이에 대한 특별수집 요청(SRI)을 지시했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가령, 삼성이 텍사스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부시 가문과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지 연구했다. 풍산이나 한화처럼 이미 미국에 끈을 가지고 있는 방위산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한 코트라(KOTRA)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접근방법도 연구되었다. 이종O 대외협력보좌관은 당시 외무부 대사 출신으로 코트라에서 고위 간부로 있었던 남 모 씨와 이 일을 자주 논의하곤 했다. 우리는 시니어 부시 대통령이나 탐 리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 미국의 유력 인사가 방한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장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는 성격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었다. 불행한 일이지만, 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은 자신의 재임 중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업무에 치중하게 마련이다. 이종찬 원장도 가시적인 성과물에 집착했다. 당연히 노벨상 공작에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다.

‘S 사업’ 또는 ‘NP(노벨상) 프로젝트’

이종찬 원장은 정치적인 야심이 큰 사람이었다. 그는 김대중의 노벨상 노욕(老慾)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김대중으로부터 차기 대권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노벨상을 안기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했다. 이 원장이 대외협력보좌관실을 신설한 것은 이

러한 나름의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벨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종O 대외협력보좌관이 가장 적임자였다. 이 보좌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북구어(北歐語)를 연수한 사람이었다. 노르웨이어와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였다. 그는 동구과장과 동구 단장을 거쳤기 때문에 북구 사정은 누구보다도 밝았다. 국정원 내에서 전체적으로 노벨상 업무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다.

사실 노벨상 업무는 해외공작국 동구과 북구팀의 오래된 업무였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파견관의 주요 업무는 노벨상에 관한 일이었다. 이미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노벨상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김대중 후보의 수상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당시 노르웨이 파견관은 최종O 참사였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북한 정보를 담당하는 3차장으로 발탁된 사람이다.

이종찬 원장은 해외공작국에서 추진하던 일상적인 노벨상 활동으로는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 활동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노벨상 수상 공작을 직접 지휘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종찬 원장이 본격적으로 노벨상 업무를 챙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공작국에서는 노벨상 업무를 ‘S사업’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S’는 아마도 ‘Special’의 줄임말일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자들끼리는 이 업무를 ‘NP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NP’는 물론 ‘Nobel Prize’의 준말이다.

이종찬 원장은 98년 5월, 노벨상 공작의 실무를 담당할 핵심 인물로 김한정이라는 인물을 특별 채용했다(*제1부 ‘회칠한 가면, 악마의 초상’ 참조). 김한정은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공보비서로

일한 적이 있는 젊은이였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보좌관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는 미국의 뉴저지 주에 있는 럿거스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김한정은 97년 대선에서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 후 귀국하여 할 일을 찾고 있던 중에 이 원장에게 소개되었다고 한다. 배기선 의원이 이종찬 원장에게 소개했다는 말이 있었다. 김한정은 민주당 설훈 의원의 이종 조카이기도 하다.

좀 벗어난 얘기지만, 김대중은 이상하게도 경상도 출신이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을 총애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구세주처럼 떠받드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했다. 나는 94년 대공정책실 부속실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과 강욱O 직원이 쓴 보고서에서 “아태재단에서 젊은 연구원을 뽑는다”는 첩보를 본 적이 있다.

당시 아태재단에서는 “경상도 출신을 특별 우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두고 있었다. 아마 경상도 출신의 젊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 첩보를 읽은 후 “회사 집어치우고 아태재단으로나 가야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설훈과 김한정은 경상도 출신이면서 김대중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내가 옆에서 지켜 본 김한정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독종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미국에 유학할 동안 접시를 닦으면서 하루 네 시간 자고 버텼다”고 했다. 주어진 업무에 관한 한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는 성격이었다. 그는 운동권 출신이어서 그런지 국정원 직원들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격도 다혈질인 편이었다.

이종찬 원장은 98년 후반기에 김한정의 노벨상 공작을 보조할 인물로 조준오라는 직원을 특채했다. 그는 김대중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승

형 대법관의 조카였다. 아마도 조승형 씨가 직접 이 원장에게 부탁하여 채용된 것 같았다. 조준오는 94년 안기부의 정규과정에 입사원서를 낸 적도 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조준오는 약간 엉뚱한 구석이 있는 친구였다. 그는 머리는 비상했는데 사고가 체계적이지 못했다. 사회생활에 어딘가 문제가 있었다. 공무원이 되기에 부적합한 유형의 인물이었다. 그는 경찰대를 다니다 퇴학당하고, 서울대에 들어갔다가도 자퇴하고, 결국 연세대를 졸업했다고 했다. 대학 졸업 후 대한항공에 취직했다가 퇴사하고, 미국의 어느 항공학교로 유학을 가서 조종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왔다고 했다. 마침 IMF 사태로 인해 비행기 조종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특채되었다고 했다.

외신 대변인

대외협력보좌관실에 특채된 또 다른 인사로 김영O 박사가 있었다. 라종일 차장이 그를 특채했다. 김 박사의 선친과 라 차장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다, 둘이 영국에 있을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했다. 김 박사는 런던정경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거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사람이었다. 런던정경대학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와 함께 영국의 3대 명문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학교이다. 주로 머리는 좋지만 돈이 많지 않은 수재들이 가는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점잖고 신사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김영O 박사는 국정원의 외신 대변인 자격으로 해외 언론을 조정 통제하는 일을 맡았다. 나는 김 박사의 해외언론 조정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맡았다. 말이 해외언론 조정 업무였지, 실상은 은밀하게 노벨상 수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 언론의 우호적인 논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 임무는 모든 해외 언론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햇볕정책을 잘 소개하도록 유도하는 일이었다. 관심 대상 언론은 일본이나 미국 신문들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구주(歐洲)의 신문들도 포함되었다. 물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북구라파 언론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때까지 우리 정부는 국내 언론만 챙겼지 외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외신업무를 담당하던 짧은 기간 동안 서울에 주재하던 외신기자들을 아주 특별히 대우했다. 외국의 여론에 신경을 쓰다 보니 외신기자들을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아마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이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아보기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라종일 차장은 가끔 외신기자들을 따로 초청하여 민감한 북한정보를 흘려주었다. 한번은 라 차장이 외신기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김정일의 어제 저녁 메뉴가 뭐였는지도 안다”고 떠벌리기도 했다.

우리는 이들 외국 언론들의 취재협조 요청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바깥에 나가 외신 기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은 김 박사가 맡았고, 회사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은 내가 담당했다. 내가 해야 할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일일 외신보도 현황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국정홍보처로부터 번역 자료를 팩스로 받아 요약하여 보고서로 만들었다. 국정홍보처가 번역한 한국 관련 기사는 급하게 번역하다 보니 썩 좋은 번역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후배 여직원이 초고를 쓰

고 내가 수정했다. 작성한 보고서는 김 박사가 라 차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당시 외신들은 경쟁적으로 황장엽 선생을 인터뷰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황 선생의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외신을 다루는 지렛대로 삼았다. 우호적인 외신에게 황 선생의 인터뷰를 먼저 시켜주었다. 반대로, 비협조적인 외신에게는 황 선생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나는 외신들의 취재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다. 그들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주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북한 정보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들은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영상물을 제공해 주기를 원했다. 나는 정보관리국에서 북한 관련 동영상을 구해다가 그들에게 전해 주곤 했다.

외신들은 또한 국정원이 관리하는 중요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주선해 주기를 원했다. 나는 무장공비 출신 인사들을 몇 차례 일본 언론에 소개해 주기도 했다. 한 번은 일본의 후지TV 방송국 인사들을 대동하고 진해까지 내려가 강릉 침투공비 이광수 씨를 만났던 적도 있다. 그는 무장공비답지 않게 내성적이었고, 마치 새색시처럼 수줍음을 탔다.

일반적으로 탈북 인사들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환영했다. 일본 언론은 취재원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언론과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인터뷰를 하면 반드시 짹짹하게 사례비를 지급했다. 이들은 인터뷰 장소도 세심하게 고려한다. 정보는 정보대로 얻고 댄으로 촌지까지 챙기려는 우리 언론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구미 언론들도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사례비를 뇌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언젠가는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기자에게 다대포 침투 공비였던 이상규 씨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다. 일본 연해에 북한의 괴선박이 나타

나 자위대가 추격하여 총격전을 벌이고 난 후였다. 광화문의 어느 호텔에서 만났던 것 같다. 이상규 씨는 구로다 기자에게 북한 공작선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상규 씨가 ‘자라는 아이들이 아빠의 정체를 알게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알면 다쳐!”

대외협력보좌관실에서 노벨상 공작을 직접 추진한 사람은 김한정이었다.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이종찬 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비밀리에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그는 외국에 다녀오기도 하고, 국내 인사들과도 빈번하게 접촉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 조준오가 그의 조수 노릇을 했다.

김한정은 정열적으로 일했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 내의 다른 부서 직원들과는 부딪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아무도 그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오해를 사기 마련이었다. 그가 기본적으로 기존 국정원 직원들을 불신하는데다 비밀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 더 그랬다.

1999년 초, 김한정은 햇볕정책을 홍보하는 대규모 국제세미나를 기획한 적이 있었다.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전략국 등 관련 부서에서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원장으로부터 “잘 협조해 주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하소연했다. 당연히 기획 책임자인 김한정에게 비난이 돌아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세미나는 결국 취소되었다.

한 번은 공항에서 근무하던 송경O 훈육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대뜸 “김한정이란 놈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내가 “무슨 일입니까?” 하고 되묻자, 그는 “김한정이가 외국 손님을 자주 초청해 오는데, 그때마다 굳이 더블 도어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졸라서 귀찮아 죽겠다”고 했다. 더블 도어는 국민급에게나 개방하는 곳이라고 했다. 나는 훈육관에게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김한정은 사무실에서도 자신의 상관인 대외협력보좌관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다. 무슨 이유에선지 이종O 대외협력보좌관은 노벨상 작업에 지나치게 신중했다. 단순히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몸을 사렸다. 아마 그가 노벨상 공작이 가지는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김한정은 그런 그의 태도를 몹시 못마땅해 했다.

내가 대외협력보좌관실에 전입하기 직전, 김한정은 이 보좌관과 “대판 싸웠다”고 한다. 김한정은 이 보좌관에게 “누가 회사를 먼저 나가는지 두고 봅시다”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국정원의 문화로는 일개 사무관이 부서장에게 감히 대들 수가 없다. 상하 관계가 엄격한 국정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김한정이 국장급(?) 사무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후에 김한정이 먼저 회사를 떠났지만, 이 보좌관도 결국 승진을 못하고 옷을 벗었다. 김대중 정권에서 전라도 출신 간부들 중에 승진을 못하고 옷을 벗은 사람은, 내가 아는 한, 그가 유일한 사람이었다.

노벨상 드라마의 주연

나는 김한정과 약 4개월 정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가 무슨 일

을 하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대충 어깨너머 눈치로 알게 되었다. 당시 우리끼리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다. 섬뜩한 말이었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노벨상 공작은 누구도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사무실에서 나는 김한정과 쉽게 가까워졌다. 서울대 출신은 그와 나 밖에 없었다. 내가 국정원 직원답지 않게 운동권의 정서를 잘 이해했던 것도 우리가 가까워지는 데 한몫 했을 것이다. 우리는 예의상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틈틈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가 회사에서 아무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또한 빈틈없이 했다. 나는 그의 그런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도 나에게 호감을 보였다.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서 볼 수 없는 점을 내게서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번은 조진오가 나에게 “HJ(김한정)가 김 선배(나)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한다”라고 귀띔해 주었다. 자기 팀의 업무가 더 늘어나면 나를 데려가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와 김한정의 만남은 예기치 않게 빨리 끝나고 말았다. 99년 5월 말, 이종찬 원장이 갑자기 경질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부임한 천용택 원장은 이종찬 원장이 추진하던 일들을 전부 중단시켰다. 같은 육사 동기면서도 서로 간에는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천용택 원장은 이종찬 원장이 추진하던 일에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할 때가 많았다.

천 원장은 부임하자마자 김한정을 퇴사시켰다. 그해 5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김한정은 원장실에 불려갔다 나오더니 부랴부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천 원장이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위험하니 밖에 나가서 해라. 대통령령에서도 허락을 하셨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퇴사하면서 천 원장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을 것이다.

김한정은 국정원에서 나간 후 아태민주지도자회의(FDLAP) 사무부총장 직함으로 노벨상 수상 공작활동을 계속했다. 사실 김한정이 99년 하반기 6개월 간 바깥에서 작업한 활동이 후에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의 초석이 되었다. 김대중이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수상한 것도, 동티모르의 호르타 장관과 관계를 튼 것도, 그리고 북한과 비밀회담을 추진한 것도 그 시기였다.

김한정은 99년 7월, 김대중에게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안기는 데 성공했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민주당 하원의원이었던 포글리에타가 적극 도와준 결과였다. 그는 당시 클린턴 정부에서 주 이탈리아 미국대사로 있었다. 그가 2000년 12월 오슬로에서 열린 김대중의 노벨상 시상식에 외국인으로서는 유일(唯一)하게 동티모르의 라모스 호르타 외무장관과 같이 초대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는 오랜 동안 김대중의 열성 지지자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 김대중이 사형을 면하고 사면 받아 미국으로 떠날 때, 그가 한국에 와서 동행했다고 한다.

김한정은 또한 동티모르에 상륙수 부대를 파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일을 막후에서 지휘했다. 그는 99년 하반기에 동티모르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동티모르에 민간 여객선이 취항하기 전부터 상륙수 부대의 군용기를 타고 갔다. 이렇게 해서 동티모르에 군대를 파견하고 국회의사당을 건축해 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라모스 호르타 외무장관은 김대중에게 그해 노벨 평화상 추천장을 써주었다. 2000년 1월 말, 호르타 일행은 청와대를 방

문하여 노벨평화상 추천장에 최종 서명을 했다. 매년 노벨상 추천장의 마감 시한은 2월 1일이었다. 마감 직전에 서명해 준 것이다. 김한정은 이 비밀스런 거래의 막후 밀사노릇을 했다. 이번에도 조준오가 내밀한 심부름을 했다.

내가 김한정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99년 8월의 어느 날이었다. 김한정은 김대중에게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게 하고 나서 대외협력보좌관실에서 같이 일했던 젊은 직원들을 불러 강남의 어느 룸살롱에서 크게 한 톱 냈다. 그는 이때 이미 김대중의 신임을 완전히 획득한 것처럼 호기를 부렸다.

그 자리에서 그는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 상금을 내게 다 맡겼다”며 돈을 펄펄 써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운동권 출신의 일면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는 있었다. 그는 술이 잔뜩 취해 봉사하는 아가씨들에게 팁을 뿌리면서도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이 생각난다. 술집 애들에게 이렇게 많은 팁을 주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절댔다.

반역의 트라이앵글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군대와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이 어느 정도 확고해지자 김대중은 취임 2년차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목표는 노벨평화상이었다. 이에 호응하여 98년 6월 16일, 정주영 회장이 소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넘었다. 그해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합법적으로 김정일의 뒷주머니에 거액의 현금을 넣어줄 방편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의 노벨평화상위원회 내에 김대중을 적극 돕는 협조자가 있었다. 바로 스톨셋 부위원장이었다. 그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인사였다. 그는 “김대중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남북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언질을 계속 보내왔다. 김대중도 ‘획기적인 돌파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김정일도 김대중의 노벨상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노벨평화상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탐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과 김정일 간에 은밀한 거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제공하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쇼를 성사시켜 나갔다. 현금을 챙긴 김정일은 태연스레 평화 제스처를 연기해 줌으로써 출연료에 보답해 주었다.

김대중 정권이 김정일에게 퍼다 준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금과 물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창과 칼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 머리 위로 되돌아 왔다. 그 당시 김정일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들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반역의 트라이앵글이 완성되어 갔다.

스톨셋 부위원장은 김정태 노르웨이 대사와 여러 차례 만나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소환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장기수를 소환하게 되면 인권 대통령으로서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시사했다. 김대중은 2000년 9월, 신광수를 비롯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급히 북한으로

송환했다. 노벨상 때문이었다.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나 납북자에 대해서는 입도 병곳하지 못했다.

99년 8월경, KBS TV가 일요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해 최초로 북한의 장마당 풍경을 방영했다. 이는 북한의 참상을 최초로 카메라에 담은 귀중한 자료였다. 이 비디오는 일본의 렌크(RENK)라는 대북 인권운동 단체가 안철이라는 탈북자를 북한 땅에 들여보내 몰래 찍은 필름이었다. RENK는 ‘북한 민중 구조 긴급행동 네트워크(Rescue The North Korean People! Urgent Action Network)’의 약자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나는 북한의 참상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수백 페이지 보고서보다 영상 한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서 구토가 났다.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카메라에 잡힌 내용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일요스페셜이 나간 후, 국정원은 이 자료에 영어 자막을 삽입하여 ‘북한의 내부’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를 만들었다. 세계 각국의 대사관과 현지 공관에 배포할 계획이었다. 정보협력과의 통역 요원들이 번역하고 심리전단(心理戰團) 요원들이 자료를 완성했다. 하지만, 배포 직전에 청와대에서 이를 금지시켰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그 비디오는 사장되고 말았다. 최근 나는 내가 보관하고 있던 이 비디오를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에 올렸다(*Youtube.com에서 ‘북한 꽃제비’ 또는 ‘Inside the North Korea’ 라고 클릭, 참조).

99년 말에는 북한을 탈출하여 러시아에 체류 중이던 탈북자 일행 일곱 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떠맡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이들은 탁구공처럼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다가 결국 북한으로 재송환된 것이다. 우리 정부마저 뒷집만 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들 일행의 탈북 과정도 2000년 초 KBS TV의 일요 스페셜에 소개되었다. 이들은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돌아가면 우리 전부 죽습네다!”라고 절규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 물에 뛰어드는 북한 처녀의 비참한 실상도 소개되었다. 김대중 정권과 국정원은 이들이 송환된 후에도 끝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얼마나 더 많은 절규가 들려야 들은 척이라도 할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햇볕정책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이상 햇볕정책에 동의할 수 없었다. 신물이 났다.

그 후 오랫동안 김한정과 나는 서로 연락이 없었다. 그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후 사람이 변했다는 말이 가끔 들렸다. 2000년 7월경 박 선배가 먼저 사표를 쓰고 나도 뒤따라 10월에 사표를 썼다.

나는 사표 수리를 기다리고 있던 중 퇴근버스 안에서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 결정 소식을 들었다. 그 뉴스를 들으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겹쳐 왔다. 한편으로는 ‘김한정이 드디어 한 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의 노욕으로 인해 희생당한 국가 이익이 생각났다. 모든 일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나는 버스 속에서 구역질이 났다.

퇴사하고 한참 후인 2001년 4월 어느 날, 김한정이 난데없이 집으로 전화해 왔다. 그는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나갔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나는 “김 선배가 바쁜 것 같아 연락하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그는 “대통령 안 계실 때 소주라도 한 잔 하자”고 했다. 나는 “나한테까지 신경 안 써 줘도 된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게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일하면서 철저하게 익명으로 살았다.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그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을 잡지 못했다. 심지어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에 대해 잘 몰랐다.

2003년 1월, 나의 글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난 후 일주일쯤 지나 김대중은 자신의 퇴임 후 비서관으로 김한정을 임명했다. 아마 그로서는 퇴임 후 김한정을 자기 품 아래에 두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서로 운명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후 김한정은 김대중의 입과 손발이 되어 한동안 퇴임 대통령의 곁에 머물렀다.

그런데 2005년 1월 말, 그는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허겁지겁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생긴 듯했다. 아마 검찰의 한화게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김한정이 한화의 돈 심부름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정 의원은 그 얘기를 “한화 비서실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노벨상 드라마의 조연들

이제 나의 대외협력보좌관실에서의 근무경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김한정이 노벨상 수상을 성공시키는 데 은밀하게 도와준 몇 명의 조연들을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하다.

김한정은 노벨상 공작을 수행하는 데 문화예술 방면의 행사를 기획했다. 대중을 속이는 데는 무엇보다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판문점에서의 평화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다. 결국은

북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잠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김한정이 기획한 문화예술 공연행사에 단골로 출연한 인사가 있었다. 바로 성악가 조수미 씨다. 아마 김대중의 노벨상 드라마에 여우조연상이라는 게 있다면 그 상은 마땅히 그녀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그녀가 김대중 정권에서 ‘천상의 목소리’라며 갑자기 뜬 것도, 북한 관련 행사에 단골 출연한 것도, 모두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김한정의 후원이 크게 작용했다. 김한정이 그녀를 섭외하여 출연시키고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 그는 그녀가 출연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항에서 현금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가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까지 했다. 이런 것까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한정은 그녀와 사적으로도 깊은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고향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고 대학도 같이 다녔다. 그녀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살았는데, 김한정은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길에 이탈리아를 들르곤 했다. 김한정은 최소 8회 이상 북구 지역을 방문했다(*제1부 ‘노벨상 공작 개요’ 참조).

또 한 사람, 노벨상 드라마의 무대 뒤에서 남모르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모 대학교의 문정O 학장을 들 수 있겠다. 내가 보기에, 노벨상 드라마의 남우조연상은 마땅히 그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그는 권력의 양지만 찾아다닌 변신의 귀재였다.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전형이었다. 김영삼 정권 때에는 정영O 실장과 오정소 차장과 가깝게 지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햇볕정책의 전도사 노릇을 했다. 노무현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노벨상 관련 금전 문제가 걸려 스스로 고사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동

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시사저널 2003. 4. 10.자 ‘국정원장 자리가 뭐길래’ 제하 기사 및 연합뉴스 2003. 4. 23.자 ‘국정원 고위직 인선 주목’ 제하 기사 참조).

그는 김한정과 함께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등 노벨상 공작의 고비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사업에 정부 대신 나섰다. 햇볕정책을 선전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 김대중은 퇴임 후 아태재단을 김대중도서관으로 개칭하고 모 대학교에 기증했는데, 그가 이 일을 성사시키는 데에도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8장 안에서 본 국민의 정부 I

할 일을 잃다

1999년 5월 말, 천용택 원장이 부임하여 노벨상 공작을 전면 중단시키자 우리는 졸지에 할 일을 잃어버렸다. 겉으로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늉을 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두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렸다. 사무실 멤버들은 하나 둘씩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갔다.

먼저 같이 일하던 박 선배가 원장 통역관 자리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잘렸다. 그는 어느 날 통역하러 들어갔다가 원장 비서실로부터 “오늘부터 통역을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졸지에 일어난 일이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잘린 것이다. 그의 후임으로 정보협력과에서 일하던 전문직 여자 통역관이 임명되었다. 그녀는 전라도 출신이었다.

통역을 바꾼 이유를 이리저리 알아보았다. 그 이유라는 것이 기가 막혔다. 천 원장이 ‘통역의 악센트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상도 출신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박 선배는 미국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했다가 뒤늦게 안기부에 입사한 사람이었다. 영어 통역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다. 이종찬 원장은 그의 업무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특진시키려고까지 했던 적이 있었다. 이 일로 해서 자존심 강한 그는 마

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다음해 사무관 진급에서 낙방하자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다. 그가 진급을 못한 이유를 알아보니 개인 평가가 좋지 못했다. 대외협력보좌관이 나에게 A를 주느라 박 선배에게 C를 준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당시 인사 규정에 의하면, 같은 팀에서 한 명에게 A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는 무조건 C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비록 내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미안했다.

나에게는 권진호 차장의 비서실에서 “차장 보좌원으로 오라”는 제의가 들어 왔다.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던 차에 잘됐다 싶어 그 제의에 응했다. 며칠 후 전임 인사차 차장실에 들어갔더니, 권 차장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이소!”라며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내며 인사를 건네 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나의 노란색 인사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며칠 후 나의 인사는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김영O 박사와 후배 여직원은 권진호 차장 직속으로 분리해 나갔다. 김 박사는 차장실 맞은편에 사무실을 차리고 노벨상 공작 관련 청와대와의 연락업무를 계속했다. 그의 사무실 문에는 문패 대신 ‘관계자 외 출입엄금’이라는 표시가 나붙었다. 그의 방은 회사 내에서 몇 곳 안 되는 ‘비밀의 방’이 된 셈이다. 나는 물론 더 이상 관계자가 아니었지만, 그 후로도 안면으로 무단출입했다.

조준오는 정보비서관실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행정관 노릇을 했다. 그는 나이 들어 행정관으로 일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지 그 사무실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성격 탓인지 다른 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듯했다. 그는 틈만 나면 우리 방으로 놀러 와서는 “연에게 담당 수집관이 나 하고 싶다”며 신세를 한탄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딴 생각 말

고 정보비서관실 일이나 잘 배우라”고 충고해 줬다. 그러다가 그는 보안사고를 쳤다.

조준오는 정규과정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도무지 보안의식이란 게 없었다. 그는 김한정이 퇴사하고 난 후에도 계속 그의 노벨상 공작사업을 돕고 있었다. 둘은 서로 빈번히 전화연락도 하고 밖에서 가끔 만나기도 하는 눈치였다.

언젠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일 때 그는 대통령을 수행 중인 김한정에게 국제전화를 하면서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고 나니, 여기 있는 놈들은 군기가 완전히 빠졌다”는 등의 얘기를 떠들었다고 한다. 아마 그로서는 과학보안국에서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제전화로 내부사정(?)을 얘기한 죄로 그는 정보비서관실에서 쫓겨났다. 그리고는 내가 일했던 해외공작국 정보협력과로 잠시 옮겨오더니,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표를 냈다.

그는 국정원을 퇴사하고 아시아나항공에 재취업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아시아나의 전용기가 동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는 아시아나에서 일하면서도 한동안 김한정의 조수 노릇을 계속했다. 언제인가 그는 ‘청와대를 사칭한다’는 혐의로 사직동 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2000년 중반, 김한정은 조준오를 대신하여 김형민이라는 인물을 새로 조수로 채용했다. 김형민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외환은행 부행장을 지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소위 ‘검은 머리 대주주’가 김대중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도는 이유이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다. 1999년 12월 말, 임동원 원장이 부임하고 희망창 새 천년이 밝아왔는데도 대외협력보좌관실의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변한 것이라곤 대외협력보좌관실의 인원이 줄어들고 소

속도 원장 직속에서 해외공작국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사무실의 규모가 축소되고 지위가 강등된 것이다. 남아 있던 인력들은 별달리 하는 일 없이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TV에는 언제나 골프 채널이 켜져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2000년 7월경 이종오 대외협력보좌관이 옷을 벗으면서 사무실 자체도 해체되고 말았다. 인원들은 모두 해외공작국으로 원대복귀하기로 결정되었다. 북미과의 조병오 1계장이 두 번씩이나 전화하여 “같이 일하자”고 부탁해 왔다. 나는 북미과에서 일하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마침 행정과에서 일하던 동기인 김경오이 북미과에 관심이 있기에 나 대신 가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도 다른 이유로 결국 가지는 못했다.

국정원, 반역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다

그 즈음 나는 퇴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남들은 모두 새천년의 희망에 들떠 있던 와중에 나는 김대중 정권의 행태에 넋더리를 내고 있었다. 햇볕정책이란 이름의 기만적인 대북정책이 노벨상을 타기 위한 속임수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다. 북한의 참상을 하나 둘 확인하게 되면서 이 위선적인 정권에 구역질이 더해 갔다.

마음속에서 ‘과연 자신의 노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통령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불쑥불쑥 일어났다. ‘민족의 이익을 배신하고 반역의 중범 노릇을 하는 조직에 언제까지 몸을 담고 있어야 하는 건가?’ ‘간첩이란 의심이 드는 원장 밑

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저런 회의감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딱히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도 없기에 혼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소위 햇볕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국내 정책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지역감정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이 더욱 깊어졌다. 지역감정을 표출하는 전라도 사람들의 거들먹거림도 더 이상 보기가 싫었다. 월급봉투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한다면, 그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결심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한다. 소위 ‘잃어버린 10년간’ 국정원이 ‘반역의 종범’ 내지 ‘반역의 하수인’ 으로 전락하여 대한민국을 배신했던 발자취는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취임하자마자 김정일 눈치보기와 환심 사기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권 초 국정원의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심리전국(心理戰局)의 인원과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대북전략국에 편입시켰다. 대북심리전을 원천 봉쇄하여 김정일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대중은 대북공작국과 대공수사국의 활동을 강력히 억제했다. 비록 이들 부서의 조직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사실상 ‘식물 부서’ 로 만들었다. 김정일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김정일 정권에 대한 공격과 수비 양쪽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비록 시간상으로는 간격이 있었지만, 국방부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

해졌다. ‘교전수칙(交戰守則)’이라는 미명 하에 서해상에서 선제 사격이 금지되었다. 스스로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져서 노무현 정권 때에는 휴전선에서의 심리전 활동까지 전면 중단시켰다. 남북간 합의라는 미명 하에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었다.

김대중은 스스로 ‘인권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정작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중국을 떠도는 탈북 동포들의 참상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 남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항의는 고사하고 언급되는 것조차 철저히 회피했다.

이러한 굴욕적인 저자세는 소위 납(鉛)조기 사건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수입된 중국산 조기의 뱃속에서 납덩어리가 발견되어 온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다. 조기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누군가가 고의로 납을 집어넣은 것이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조기의 원산지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중국은 단지 중계지에 불과했다. 허겁지겁 덮을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이 정권 초기부터 햇볕정책에 목을 맨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국정원은 다소 애매하고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다. 아직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의중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이종찬 원장이나 라종일 차장이 햇볕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대중은 취임 첫 해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의 정치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지나치게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해 색깔논쟁이 재연되는 것을 경계했다. 취임 초 남북 간에 기 싸움과 신경전의 결과로 서해교전이 발발한 것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오는 데 장애가 되

었다.

사실 제1차 서해교전에서는 우리 해군이 ‘눈치 없이’ 너무 잘 싸우는 바람에 김대중 정권이 오히려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정원은 퇴각하는 북측 선박의 통신을 감청하여 북측의 피해상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 해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사상자의 수도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측의 사상자 숫자를 줄여 축소보도를 유도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김대중의 연사(言辭)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다. 김대중은 2001년 국군의 날 연설에서 “6·25는 실패한 통일전쟁”이라며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처음에는 ‘아마도 실수로 그런 말을 했겠지’ 또는 ‘김정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추앙받는 민족지도자가 되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김유신은 무력으로 삼국을 통일했지만, 자기는 평화적으로 통일의 초석을 놓은 사람으로 추앙받고 싶어 했다. 마치 노벨평화상을 목에 걸기만 하면 ‘세계적인 민주 지도자’ 내지는 ‘5천년 민족사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미 노벨상 수상 공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의 이러한 의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보였다.

김대중의 이상화 작업조직, 제2건국위원회

그즈음 난데없이 제2건국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대기 시작했다. 김대

중은 1998년 10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제2건국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는 취임 첫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50년사(史)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汚辱)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였다”고 전제하면서, 이제부터 “제2의 건국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황당한 시추에이션이었다.

관공서마다 제2건국위원회의 현판이 내걸리고 홍보 비디오가 상영되었다. 시골 마을 먼 단위까지 전국적인 조직망이 급조되었다. 어떤 부서에서는 제2건국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추진 실적에 따라 인사와 포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는 촌극을 벌이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제2건국이라는 말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개혁 과제의 발굴과 의식 개조를 내건 국민의식개혁운동이라고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김대중을 우상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2000년 중반, 내가 국내 부서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듣기로는, 김대중은 국정원에다 “나를 김구보다 더 추앙받는 민족지도자로 만들라”고 은밀히 지시했다고 한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김대중의 망상이 노욕 수준을 넘어 아예 범죄 수준에 이르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우상화 작업과 더불어 2000년도에 들어선 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이 물밑에서 은밀히 진행되었다. 1999년 12월 말, 임동원은 국정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해외의 모든 파견관들에게 “북측과 대화통로를 개척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00년 1월 중순부터 김보현 전략국장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의 제사라거나 다른 개인적인 핑계를 댔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해외에서 남북 간에 뒷거래가 시작되고 있구나’하고 짐작했다. 국정원의 국장이 가족의 제사 같은 사소한

(?) 집안 사정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2000년 2월, 김대중이 직접 일본 TV에 출연해 “김정일은 식견 있는 지도자”라는 요상한 얘기를 했다. 3월에는 독일까지 날아가 이른바 ‘베를린 선언’ 이라고 이름 붙인, 대대적인 대북원조 제의를 발표했다. 그리고는 총선을 사흘 앞두고 “남북간 정상회담을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나는 이들이 노벨상에 눈이 뒤집혀 나라를 팔아먹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알았다. 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4월 초순경, 국내 부서의 어느 친구에게서 “총선 결과를 예상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총선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획기적인 카드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친구는 남북정상회담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얘기하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그 카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우리 국민이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보고서의 결론도 그런 방향으로 쓰라고 조언해주었다.

나는 선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을 발표해서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후 실제로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일부 경기 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는 확연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상도와 강원 지역에서 역풍이 심하게 불었다. 결국, 새천년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TV에서 보도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나는 착잡한 심정을 가늠 길이 없었다.

“니가 그리 잘 났냐?”

그 즈음 나의 퇴사 결심을 확고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출신 지역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었다. 물론 불편한 경험은 여러 번 있었다. 앞서 말한 대로, 권진호 차장이 부임해 왔을 때 나는 그의 보좌관으로 내정되어 그에게 부임인사까지 마쳤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사가 없던 일로 되었다. 아마 나의 출신 지역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진로 문제에 대해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었는데 ‘퇴사할 때 하더라도 남북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00년 7월경 대외협력보좌관실이 해체되자 전략국으로 진출해 주기를 행정과에 요청했다.

나의 진출 희망을 접한 행정과는 황당해 했다. 국정원 내에서 해외공작국은 선망의 부서로 전입해 오고 싶어서 안달하는 직원이 줄을 섰는데 제 발로 걸어 나가겠다고 하니 의아했던 모양이다. 김내○ 행정과장은 ‘이 참에 타 부서 진출을 희망하는 직원이 더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예상 외로 10여명의 직원이 ‘전출을 희망한다’고 손을 들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에 행정과가 당황해 했다. 부랴부랴 달래서 몇 명은 주저 앉혔지만, 그 중 여섯 명은 끝까지 나가겠다고 버텼다. 그러자 한병○ 행정계장이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을 개별적으로 행정과로 불렀다. 내가 행정과에 불러 들어가니 한 계장은 나에게 종이를 한 장 내밀었다.

종이를 읽어보니 일종의 서약서 같은 것이었다. 그 서약서에는 “해

외공작국으로 다시 전입 오지 않겠다는 것과, 타국에 가서는 파견관 신청 등 해외공작국의 인사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서약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이미 서명을 한 상태였다.

나는 직감적으로 전출하는 직원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의도임을 눈치챘다. 나는 이들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무슨 양아치 조직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공조직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에 화가 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서명할 수 없습니다”하고 거절했다. 그러자 행정계장은 버럭 화를 냈다. 내가 양보하지 않고 버티자, 급기야 그는 “야, 이 xx야, 니가 그리 잘 났냐?”며 악다구니를 쓰고 욕박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잘난 건 없지만, 부당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공작국으로 다시 오고 싶고의 문제는 내가 후에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누구에게 서약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파견관을 신청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다 도리어 망신을 당한 셈이 되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행정과 직원들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과장이 소동을 알아채고 과장실에서 나왔다. 나도 그 길로 행정과에서 걸어 나왔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행정과 김광O 선배는 “김기삼 씨, 잘했어! 그런 서약서에 사인을 왜 해?”라고 맞장구를 쳐 주었다. 자기가 보기에다 행정과의 처사가 너무 경우에 어긋나 보였던 모양이다. 행정과에서는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눈치였다. 검찰실에 알려져 조사라도 받게 되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행정과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행정계장이 전출 직원들과 점심을 같이 하길 원한다”고 했다. 나는 쓴웃음이 났다. 해외공작국에서 전출해 나가면서 점심까지 얻어먹는 첫 케이스가 되었으니 말이다. 이 일을 겪고 난 후, 나는 이 사람들과 더 이상 상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퇴사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러나 우선은 대북전략국에 가서 대북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로 했다.

대북전략국 전략 1과

대북전략국으로 전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당시 전략국장은 서영교 씨였다. 나는 검찰실에서 전략국을 담당하고 있던 친구 이창〇에게 “전략1과에 가고 싶으니 서 실장에게 얘기 좀 잘 해라”고 부탁했다. 예상대로 서 실장은 검찰실 수집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사실 내가 자리를 차지하는 중견간부도 아니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전략국은 그때 대북 관련 행사가 폭주하는 바람에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였다.

전략1과는 대북전략국의 핵심과였다. 당시에는 아직 회담 조정관실이 설립되기 이전이라 대북 협상의 기획과 뒷조율은 모두 이 과가 도맡아서 했다. 과장은 김만복 씨였다. 김만복 과장 이전에는 전옥현 씨가 했다. 그 전에는 서영교 국장과 김보현 차장이 거쳐 갔다. 대한민국 안보전략의 최고 핵심 실무자들이 모두 전략1과장을 거쳤던 셈이다.

전략국은 국정원 내에서 별로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

문에 쓸 만한 인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계장 몇 명 정도만이 제대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차장이나 실장은 이들만 끼고 일했다. 자연히 ‘5공자’ 나 ‘7공자’ 나 하는 말들이 생겼다. 북한의 대남부서에 북한의 최고 인재가 모여 드는 것과 비교하면 국정원 대북 부서의 현실은 한심한 수준이다. 아마 지금쯤 김정일도 이 정도는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 같다.

내가 전략국으로 전입하자 회사 내에 몇 명 되지 않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같은 과에 근무하게 되어서 그런지, 주위 사람들의 보는 눈이 약간 이상했다. 게다가 내가 김만복 과장처럼 해외공작실에서 건너 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김만복 과장이 후배를 끌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실 나는 전입하기 전에 김만복 과장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 해외공작국에서 쫓겨온 처지여서 그런지, 그는 오히려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

말이 나온 김에 김만복 과장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본래 국내부서 학원과 수집관이었다. 그는 정보학교에서 영어 연수 후 해외공작국으로 옮겨갔다가 워싱턴으로 파견나갔다. 96년 8월 초, 워싱턴에서 귀국하면서 해외공작국 지원조정과장으로 발령받아 복귀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가 내곡동 신청사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마침 당직근무를 서고 있다가 그와 첫인사를 나눴다. 그의 새로운 사무실까지 내가 직접 안내까지 했다. 내가 “학교 후배입니다”며 내 자신을 소개하자 그는 “그래, 여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일해야 하는 곳이지”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정권 말기, 해외공작국 행정과장을 역임했다.

정권이 바뀌자 그에게도 시련의 시간이 왔다. 전라도 출신 점령군들이 노골적으로 그를 구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할 수 없이 전략

국으로 피신을 가서 전략1과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새옹지마(塞翁之馬)가 되었다. 남북뒷거래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전략국이 핵심 부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초인적으로 일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출근하는 생활을 2년여 동안 반복했다. 그리하여 그는 남북관계의 최고 전문가로 변신했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 뒷거래 작업은 임동원 — 김보현 — 서훈 라인이 협상을 주도했고, 서영교 — 김만복 두 사람이 후속 뒤처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만복 전략1과장은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행사, 그리고 후속 경제회담 등을 마친 뒤 다음해 단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진급하자마자 건강을 핑계로 ‘못하겠다’며 드러누웠다. 세종연구소에 자리를 하나 마련하여 몸을 피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닥칠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영교 국장은 김만복 단장의 공백으로 혼자서 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려 병원에 실려 가는 신세가 되었다. 전략국에서는 “다시는 해외공작국 출신 간부를 받지 않겠다”며 김만복 과장의 배신을 비난했다. 마침 전옥현 과장도 그 전에 비슷한 전철을 걸어 간 적이 있었다.

김만복 씨는 세종연구소에서 이종석과 친분을 쌓은 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승승장구했다. 청와대 정보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부터는 그의 장기인 ‘야전 침상을 깔았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컴백했다가 금세 해외차장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국정원장으로 승진했다. 국정원장으로서 그의 행적은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어찌됐건, 그는 국정원 직원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셈이다.

나는 전략1과에 출근하자마자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비밀문서부

터 재빨리 읽어 나갔다. 일요일에도 혼자 출근하여 공부(?)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의미 없는 문서들이었지만 나에게서는 소중한 정보들이었다. 일반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은 자기 일과 직접 관련된 자료가 아니면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들과 좀 달랐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나는 남북정상회담 회견 문건부터 살펴보았다. 그것은 평소 내가 제일 궁금해 하던 것이었다. 그 문서는 전략1과 직원들이 정상회담 테이프를 푼 녹취록이었는데, 청와대 등 극히 제한된 곳에만 한정 배포한 1급 비문(秘文)이었다. 1급 비문은 국정원 내에서도 그리 흔한 문건이 아니다.

나는 또한 황장엽 선생과 김덕홍 선생의 디브리핑 책자도 읽었다.

‘디브리핑(debriefing)’이란 사후에 일의 경과를 보고하는 절차이다. 그 책자를 읽고 나서 그가 왜 가족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망명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진심을 알고 나서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나는 틈만 나면 대북 첩보보고서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국내부서나 해외부서에 근무할 때에는 대북 첩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나, 전략국으로 전입하고 나서는 대북 첩보를 열람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나는 대공정책실 보좌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단편적인 대북 정보를 읽었기 때문에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다. 1994년 함경도 어느 지역의 군부대를 감청한 보고서에서 “군인들이 신발이 없어서 고무 타이어를 잘라 동여매고 다닌다”는 내용도 본 적이 있었다.

물론 나는 북한국(北韓局) 친구로부터 북한의 사정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다.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저지 군대가 따로 없었다. 북한 군인들은 영양실조로 인해 ‘난쟁이’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른바 ‘영실(영양 실조의 준말)’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병들의 평균 체중이 50kg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나돌았다. 북한에서는 이를 ‘영실군’ 또는 ‘강영실군’ 이라고 비아냥댄다고 한다. 풀이하자면 ‘영양 실조 군대’ 혹은 ‘강한 영양 실조 군대’ 라는 말이라고 한다.

직접 대북 첩보보고서를 읽어보니,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이 지난 후에도 북한의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았다.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단상

대북첩보 가운데 가끔은 혼자 읽기 아까운 것도 더러 있었다. 그 중에서 황OO 씨에 대한 첩보는 좀 소개할 만하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첩보는 첩보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둔다.

황OO 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좌파 문인이다. 나는 국정원에서 좌파인사들의 도덕적 일탈과 위선을 알게 되어 실망한 적이 많았는데, 그도 그들 중의 대표적인 인사였다.

그는 1980년대 말 무단으로 밀입북했다가 돌아온 후 투옥되었는데, 요즘도 반성은커녕 무슨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모양이다. 내가 읽어본 첩보에 의하면, 북측의 모 인사는 그를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 도덕관념을 가진 xx”라며 경멸하고 있었다. 이유인즉 이랬다.

그가 이른바 통일운동을 한답시고 북한에 체류 중일 때 “북측 요원

들에게 사흘 밤이 멀다 하고 아리따운 처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요원은 이 통일운동가의 유별난 색탐(色貪)에 진저리를 쳤다고 한다.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통일운동가든 누구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겠지만, 그의 경우는 정도가 좀 지나쳤던 모양이다.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는 ‘O구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백구라(백기완 씨)와 방구라(방동규 씨)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구라’의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조선일보 2008년 9월 12일자 ‘이들이 조선의 3대 구라’ 제하 기사 참조). 특히 ‘O구라’는 음담패설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나는 우리나라 운동권의 대부(代父)라고 할 수 있는 이영희 교수에게도 실망한 적이 있다. 내가 대외협력보좌관실에 전입하기 바로 직전인 1999년 초에, 김OO 박사가 “황 선생을 이영희 교수에게 소개해 북한 실정을 좀 얘기해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노(老) 교수는 황 선생이 전해주는 북한의 현실을 완강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진실도 믿지 않으려 했다. 황 선생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없는 X”이라며 크게 역정을 냈다고 한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한때나마 존경하고 정신적으로 따랐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다. 참으로 얼굴 두꺼운 뻔뻔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이 철저하게 자신 속에 갇혀 지내는 노인에게 대해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 그의 책 『우상과 이성』을 다시 읽어야 할 사람도, 그리고 『전환시대의 논리』를 새로 가다듬어야 할 사람도 다른 아닌 그 자신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가 한때 우리 사회의 젊은 지성들

을 오염시키고 오도한 죄는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의 책과 그의 칼럼을 읽고 고뇌하고 방황했던 나의 젊은 시절이 아까울 따름이었다.

남북교류 현장의 이모저모

각설하고, 전략국에 전입하자마자 나는 제1차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준비하는 상황실에 배속되었다. 상황실장은 김만복 과장이 겸했다. 이 행사는 남북한이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상황실에서의 행사 준비는 전략1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부서에서 행사 진행요원으로 차출되어 나온 수십 명의 직원들도 같이 근무했다. 수송, 통신, 안전 등 행사지원 부서에서 온 직원도 있었고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 국내부서에서 언론을 담당하러 나온 사람도 있었다.

행사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독일에 주재하는 파견관으로부터 “류미영 천도교 청우당 당수가 북한의 인솔단장으로 올 예정이다”라는 첩보가 들어왔다(*류미영은 최덕신의 아내이다. 최덕신은 중장으로 예편한 후 외교부 장관을 지낸 인사인데, 1970년대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1986년 아내를 대동하고 북한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죽었다. 그의 유해는 애국열사릉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독일에 있는 류미영의 아들이 북한의 정보기관 고위 간부인 김정남 참사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라고 했다.

상황실에서는 이 첩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한바탕 부산을 떨었다. 이 첩보에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부여해야 할지에 대해 서로 의견

이 부분했다. 결국 상황실에서는 ‘북측이 역사적인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재를 뿌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첩보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위로 올리는 보고서에도 그렇게 썼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며칠 후, 북측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실제로 류미영을 인솔단장으로 내려 보냈다. 정보 판단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했다. 김정일 집단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이성(非理性)과 광기(狂氣)를 간과한 때문이었다. 이런 집단의 두목격인 김정일을 일컬어 김대중은 “식견있는 지도자” 운운했던 것이다.

나는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적어도 북한을 다룰 때에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만 잠시 제쳐 놓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때가 종종 있었다. 김정일 집단을 이해하는 데 합리적인 추론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때가 허다했다. 이 사건도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했다.

행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해외공작국의 동기인 차병오로부터 전화가 왔다. 차병오(차병오)는 해외공작국 동구과 북구팀 소속으로 노벨상 공작 담당 실무 직원이었다. 그는 김만복 과장을 찾다가 내 목소리를 알아채고는 “형이 전화를 받으니 잘 됐네”라고 하면서 “분데빅 노르웨이 총리 일행의 방한이 있는데, 협조를 좀 잘해 달라”고 부탁해 왔다. 나는 “관련 보고서를 좀 보내 달라”고 부탁한 후 김만복 과장에게 그 일을 보고했다.

후에 들으니, 동구과 북구팀의 박노오 팀장이 극비리에 분데빅 총리 일행을 행사장으로 안내했다고 한다. 분데빅 총리는 수백 명이 엉겨서

올고볼고 하는 상봉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청와대를 예방한 후 노르웨이로 돌아갔다. 내가 노벨상 공작에 관한 글에서 밝힌 대로, 분데빅 총리의 이산가족상봉장 비밀 방문은 김한정이 노벨상 수상을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벤트였다. 그의 방한이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행사가 시작된 후 위커힐 호텔로 상황실을 옮겼다. 국정원과 통일부 직원들이 합동으로 행사 지휘를 했다. 표면적으로는 통일부가 행사를 주관했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에서 모든 행사를 관장했다. 통일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 행사의 제반 뒤치다꺼리를 했을 뿐, 그들은 국정원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상황실 한 쪽에서 서영O 실장이 통일부의 홍양O 국장에게 쌍욕을 퍼붓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 ‘통일부에서 국정원과 상의 없이 만찬장의 좌석배치를 마음대로 바꿨다’고 야단치고 있는 중이었다. 듣고 있던 통일부 직원들은 자신들의 상관이라 부쳐 간부에게 깨지고 있는 게 창피하고 민망했던지 “xx놈들, 지들끼리 나가서 싸울 일이지 왜 여기서 지랄들이야”라며 투덜거렸다.

행사 진행요원들로부터 북측 인사들의 동태에 관한 보고가 상황실로 속속 들어왔다. 상황실에서는 상황 보고로 정리하여 원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북쪽의 가족들은 단체로 맞춥옷을 입고 왔다. 그들은 철저히 단체로 움직였다. 그러다가 기자들을 만나면 오버액션을 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배려로…” 어찌고저찌고 떠들다가, 카메라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다. 어떤 이는 카메라 앞에서 김정일화(花)를 내보이며 할리우드 액션

을 연출해 뒀다.

그들은 사전에 무슨 교육을 그리도 철저히 받았는지 모두 하나같이 똑같은 소리만 했다. 더 이상 비난거리를 찾지 못하면 “남조선 처녀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깨를 다 드러내놓고 다닌다” 라거나 “남조선 젊은이들은 왜 줏대 없이 머리를 노랑색으로 물들이나?” 라는 등 고장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물론 그들도 남쪽이 훨씬 더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인정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발달한 서울 풍경에 내심 놀라는 눈치들이었다. 그들은 남쪽 가족이 몰래 주머니에 달러를 집어넣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루 행사가 끝나면 그들은 밤늦게 다시 모여 저희들끼리 소위 ‘총화(總和)’ 라는 것을 했다. ‘참으로 피곤하게 사는 인생들’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끝난 후, 나는 교류협력1과로 인사조치 되었다. 전략국의 인력과 업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 교류협력1과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괄하는 과였다. 남북의 모든 교류사업은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교류협력1과에서 관장하였다. 현대의 대북사업도 교류협력1과 소관이었다.

내가 교류협력1과에 가기 전에는 서훈 씨가 과장이었다. 그는 ‘일 잘하고 인간성 괜찮은 사람’ 이라는 평판을 들었다. 윗사람도 좋아하고 아랫사람들도 잘 따랐으며 동료들도 신임했다. 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정규과정 17기로 입사하여 국내 부서에서 일했다고 한다. 서동권 부장의 수행비서로 일한 적도 있고 경제과에서 수집관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대북 문제에 발을 담그게 된 것은 북한 신포에 있는 대북 경수로 사업단에 국정원의 대표로 파견되고부터였다. 그는 3년간의 경수로

사업단 대표를 마치고 돌아온 후 친정인 국내 부서에 돌아가지 않고 전 략국에 남았다. 서 과장이 경수로 현장에 파견 나가 있을 때, 외교부에서 이현주 참사라는 분이 대표로 나가 있었다고 한다.

서 과장이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인 데 비해 이 참사는 요란스럽게 일을 했던가 보다. 이 참사가 하도 설쳐댔기 때문에 북한 애들은 이 참사를 안기부 요원으로 착각했다고 한다. 이현주 참사는 99년경, 경수로 사업장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펴내려 했다가 국정원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나는 전략1과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이현주 참사의 원고를 읽어 보았다. 책으로 출판하기 전 초고 형태의 원고였는데, 그의 북한 견문기는 대단히 잘 쓰여진 것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한국 사람으로서 북한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정밀하게 잘한 글을 보지 못했다. 이현주 참사는 후에 『햇불과 촛불』(2003, 조선일보사간)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을 출판했다.

서 과장은 김보현 차장의 총애를 받았다. 그는 대북협상 때마다 김보현 차장을 수행했다. 서 과장의 북측 파트너는 권호웅 참사였다. 서-권 라인은 이후 오랫동안 남북관계의 접착 창구가 되었다. 서 과장은 남북정상회담 후 초대 회담조정관으로 승진했다. 동기들이 계장 자리에 있을 때 그는 단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그 후 그는 참여정권에서 NSC 내의 정보관리실장을 역임한 후 대북전략국장이 되었다가 3차장으로 승진했다.

(*참고로, 북측의 권호웅(실명 권민) 참사는 참여정부 시절 북측의 '내 각 참사'란 직급으로 당시 통일부 장관 정동영 씨의 회담 파트너가 되어 남과 북을 오가면서 남북장관급회담을 하였다. 남한의 통일부 장관의 회담 파트너가 북측 정보국의 일개 과장 또는 차장이었으니,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게 하는 사건이다. 이런 사실

을 모르지 않았을 정동영 씨가 북한 정보국의 일개 직원과 마주앉아 남북장관급 회담이란 것을 한 사실을 자신의 재임 중 큰 실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은 블랙코미디에 다름 아니다.)

내가 2000년 9월 초 교류협력1과에 전입하니 김해O이라는 분이 새로 과장으로 부임해 와 있었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의 간부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라도 정권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정권 교체 후 국정원의 조직개편이라는 중책을 맡았다가 격무로 인해 건강을 해쳤다고 한다. 그 후 정보학교로 잠시 쉬러(?) 갔다가 전략국의 교류협력1과로 실무 복귀한 참이었다.

김 과장은 내가 국정원에서 겪어 본 간부 가운데 드물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도 성치 않으면서 아랫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다. 언제나 술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교류협력1과의 1팀에 배속되었다. 팀장은 박광O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는 소위 ‘풍선’ 전문가였다. 심리전국에서 평생 북한에 심리전 물자를 날려 보내던 사람이었다. 풍속과 풍향이 얼마일 경우, 얼마 무게의 풍선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날려 보내면, 언제, 북한의 어느 지방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등의 문제에는 전문가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전문성은 햇볕정책이라는 유탄에 맞아 처참하게 땅에 떨어져버렸다.

그는 남북관계나 교류협력 분야에는 그야말로 문외한이었다. 간단한 보고서를 기획할 만한 능력도 없어 보였고, 사소한 문제를 판단할 소신도 없어 보였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아랫사람으로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없었다.

나는 교류협력1과에서 <제1차 남북장관급 경제교류회의>에 행사 진행요원으로 참가했다. 행사장은 평창동에 있는 올림픽아 호텔이었다. 이번에는 상황실이 아니라 행사 현장에서 직접 북측 인사들의 동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북쪽의 단장으로는 정운업이라는 사람이 왔다.

이들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방부터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자기들 생각에, 우리가 도청장치를 설치해 놓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모양이다. 방을 바꾼다고 못 듣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런 우스운(?) 요구를 해왔다.

북측 인사들의 동태를 살펴보니, 정보요원으로 보이는 젊은 친구가 뒤에서 모든 일을 조종하고 있었다. 가명이겠지만 그의 명찰에는 한 OO 씨라고 되어 있었다. 만찬장에서 그와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을 때 “당신이나 나나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은데 이야기나 좀 하자”고 노골적으로 제안해 봤다.

얘기를 나눠보니, 그는 다방면에 아는 게 많았다. 전문가라고 할 만했다. 말도 거침없이 했다. 남북의 경제협력에서 뭐가 문제인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북한의 열악한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정했다. 그와 이야기 해보니 북측 사람들이 다 명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기들의 소신대로 살 수 없을 뿐이었다.

정운업은 처음부터 경제교류 따위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쌀’이었다. 그는 회담 막판까지 ‘공짜 쌀을 얼마나 많이 뜯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 쌀을 뜯어가지 못하면 마치 큰 문책이나 당할 것처럼 막판까지 떼를 썼다.

전략국에 들어가 남북 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보고 난 후, 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김대중 정권이 하는 짓을 이제 볼 만큼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에 김대중 정권에게 가졌던 기대는 철저히 배반당했다. 더 기대할 것도 없었다.

나는 2000년 10월 초, 인사과에 있는 친구 최중O와 퇴사 문제를 상의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의 퇴사를 만류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나를 인사계장에게 데리고 갔다. 인사계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며 “지부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웃음이 저절로 났다. 친구 최중O는 기회 있을 때마다 “너는 인사질서 문란자로 빨간 줄이 올라가 있다. 다시는 부서 옮길 생각을 하지 마라”고 농담을 하곤 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수차례 옮겨 다닌 것은 사실이었다.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5년 여의 짧은 근무기간 중에 무려 다섯 개 부서를 옮겨 다녔다. 그것도 원장 비서실과 1, 2, 3차장 산하를 두루 거쳤으니, 나의 이력서는 분명 이례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국정원 내에서 같은 차장의 산하 부서로 옮기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물며 다른 차장의 산하로 옮기는 것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대형사고(?)를 쳤으니 아마 요즘은 부서를 옮기는 것이 몹시 까다로워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가 인사질서 문란자로 낙인찍혔다는 말은 무리가 아니었다. 인사계장은 나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국정원은 나의 이러한 근무경력을 이유로 나를 업무 부적응자 내지는 정신 불안자로 몰았다. 나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근무경력에 나의 성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제9장 안에서 본 국민의 정부 II

‘악마적인’ 사기꾼

김대중 정권 시절, 국정원 내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간략히 기록해 두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듯싶다. 이 시절 국정원 내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여러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들이 말한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황된 구호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김대중 정권은 국가정보원이라는 공적 기관을 완전히 사설 흥신소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권력을 잡은 전라도 출신들은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철저히 사유화했다. 김대중 자신은 국정원을 ‘반역의 도구’로 이용했고, 그의 가족들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김대중 정권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사기와 협잡으로 일관했다. 대북 송금, 불법 도청, 그리고 각종 게이트는 이러한 범죄행위 가운데 일부 마각(馬脚)이 드러난 사건들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라는 공조직은 찢기고 갈라져 처참하게 골병이 들었다.

김대중 정권이 국정원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설명하기 전에, 김대중 씨의 개인적 성향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나을 성 싶다. 대한민국이

라는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김대중이라는 사람에 대해 왜 이다지도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가?’에 대해 내 나름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김대중이란 사람을 기본적으로 ‘악마적인 사기꾼’으로 판단한다. 남을 속이는 데는 과히 천재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말끝마다 국민을 들먹이고, 정권의 명칭도 ‘국민의정부’라고 이름지었지만, 그가 말하는 국민은 언제나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특정 지역 사람들만을 의미했다.

생전에 김대중 씨는 정치인의 자질을 언급할 때 소위 ‘서생(書生)과 상인론(商人論)’을 즐겨 거론하곤 했다. 그의 이 유명한 지론에 의하면, “정치인은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한다”고 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보기에 따라선 절묘한 대구(對句)가 멋있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 이론을 김대중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그의 정치적인 족적을 따라가 보면, 그는 언제나 ‘이상주의자의 가면을 쓴 현실주의자’의 모습으로 투영된다. 지독한 마키아벨리스트의 전형이었다.

그 자신의 서생적 문제의식이란 것도 진지한 자기 성찰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계산 위에서 비롯되었다. 감옥 속에서 읽은 몇 권의 책에서 주워 얻은 지식에 불과했다. 일부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속임수로 사용되었고, 짧은 가방끈을 커버하기 위한 술수로 이용되었다.

여담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전두환·김영삼·노무현 대통령처럼 감정적이고, 걱정적이고, 직선적이고, 직접적이고, 의리를 중시하는 부류이다.

이들은 대개 이상주의자에 가깝다. 기분파들이다. 돈키호테형이다.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결정한다. 아랫사람을 쓸 때도 한 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 스타일이다. 이들은 정적에게 도끼를 들더라도 앞이마를 정조준해서 깎는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편의상 ‘앞통수’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두 번째는 노태우·김대중 대통령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은유적이고, 간접적이고, 이해관계에 밝은 부류이다. 이들은 대체로 현실파들이다. 햄릿형이다. 이리저리 재고 신중히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뒤로 호박씨 까는’ 스타일이다. 아랫사람을 쓸 때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견제한다. 이들은 정적에게 도끼를 들이댈 때는 느닷없이 등 뒤에서 뒤통수를 내리친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편의상 ‘뒤통수’라고 부른다.

내가 보기엔, 지난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앞통수’와 ‘뒤통수’가 번갈아 가며 집권해 왔다. 나의 이론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뒤통수에 해당해야 하는데, 아직 그의 집권기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노태우 씨와 김대중 씨 간에 소위 ‘20억 + 알파’라는 은밀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두 사람이 공유한 ‘뒤통수’ 성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 두 사람은 퇴임 후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을 감추어 두고 있는 점도 똑같은데, 물론 한 사람은 명칭하게 국내에 숨겨뒀다가 들통이 났고, 다른 한 사람은 현명하게 해외에 묻어 두고 있기에 아직 들통이 나지 않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다. 이 또한 그들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현실주의자로서의 김대중 씨의 면모는 그의 인사(人事)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김대중은 집권하고 나서 이른바 동교동 가신들에게는 국가

경영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충성심은 조금 있었을지 모르지만 국사를 함께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동교동의 행동대장 김옥두 의원 같은 사람은 별명이 ‘꼴통’이었다. 다른 이들도 대개 거기서 거기였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 돌격하는 데만 익숙한 자들이었다. 동교동의 만형이라고 불리던 권노갑 씨도 야당 시절 가내수공업 수준의 경영은 감당해 낼 수 있었겠지만 국가를 경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자신의 옛 가신들을 물리치고 이미 이전 정권에서 고위직에 올랐던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이른바 ‘신(新) 실세 트로이카’라고 불렸던 김중권 비서실장, 이종찬 국정원장, 김태정 검찰총장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1999년 후반, 이른바 ‘옷 로비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실세로 활약했다.

김영삼 정권에서 비상계획위원장을 지낸 천용택 씨도 마찬가지로 케이스였다. 이들뿐만 아니라 임동원·이기호·신건 등 정권을 끝까지 지탱했던 핵심 인사들도 모두 이전 정권에서 이미 장관·차관 등 고위직을 거친 인사들이었다. 김대중 씨는 “전라도 출신이 경상도 정권에서 그만큼 인정받고 출세했다면 이미 능력은 검증된 게 아닌가?”라고 믿는 듯했다.

김대중 씨는 국가의 정보기관을 운영하는 데에도 현실주의자의 치밀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초대 국정원장을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 국정원을 잘 아는 이종찬 씨에게 맡겼다.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8년 초 정권 교체 후,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신들 도움을 받아 정치할 생각이 없으니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은 그의 무수한 다른 말들처럼 순도 높은 거짓말이었다. 그 말은 국정원 직원들이 아니라 신문 기자들이 들으라고 한 소리였다.

실제로는 그는 정권 초창기부터 국정원에다 “아침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국내 정보보고서의 분량을 더 늘려라”고 채근하곤 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가 갖다 주는 보고서도 잘 읽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점에서 양 김 씨는 확연하게 대조된다.

이종찬 국정원장은 ‘아침잠 없는’ 노인의 지칠 줄 모르는 정보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국내정보 부서의 분석관들을 닦달해야만 했다. 분석요원들뿐만 아니라 수집요원들의 활동도 크게 늘어났고, 특히 국내의 도청과 감청을 담당하는 과학보안국은 창설 이래 최고의 호황을 구가했다.

국정원 내에서 정치인이나 요인들의 사생활이나 가십거리를 정리한 보고서를 「조보(朝報)」라고 부른다. 보고서 이름에 왜 ‘아침 조(朝)’자가 붙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아마도 예전부터 아침에 보고한 보고서였거나 조정에 보고한 보고서였다는 데서 붙지 않았을까 한다. 「조보」는 국가 지도자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정보들이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 조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은 ‘허리 아래 일’에 관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점에서도 두 대통령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내가 대정실에 근무하던 시절만 해도, 조보는 보통 하루에 20쪽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김대중 시절에는 조보의 분량이 이전보다 두 배가

량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그가 ‘정치적 관음증(觀淫症)’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당연히 통치권자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향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고하는 주례보고의 분량도 대폭 늘어났다. 현안에 따라서는 보고서가 아니라 아예 책자 형태로 만들어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정원 안에서는 이를 ‘대작(大作)’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일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김대중 시절에는 보고서의 내용이나 분량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형식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한동안 “노(老) 대통령이 읽기 편하고 보기 좋게 글자체도 키워라. 도표와 그래프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라”는 등 시시콜콜한 지시가 내려오곤 했다. 아마 국정원 역사상 이 시절만큼 국내정보 분석관들이 보고서를 쓰느라 바빴던 때가 없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종찬 국정원의 개혁의 망치소리

이종찬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고 나섰다. 청사 내에는 개혁의 망치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먼저, 문패부터 갈아치웠다. ‘안전기획부(安全企劃部)’라는 거창한 이름을 없애고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이라는 다소 소박한 이름으로 변경했다.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대적인 숙청과 조직 개편이 뒤따랐다.

하드웨어를 수리하는 작업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국정원 내외의 이미지 개선 작업이 요란스레 진행되었다. 우

선 청사 정면에 있던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한다’라는 운치 있던 부훈석(部訓石)을 내다버렸다. 그 자리에는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멋대加里 없는 부훈석이 새로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이라는 부훈(部訓)을 새로 제정하고 부훈석 제막식을 했다고 한다. 이는, 성경 구절에서 따온 CIA의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Truth will set you free)’라는 부훈과, CIA 벽에 걸려 있다는 ‘익명(匿名)에의 정열(Passion for Anonymity)’이라는 모토를 적당히 짜깁기한 느낌이 든다.)

그는 뜬금없이 ‘고구려의 웅혼한 기상을 본받는다’면서 광개토대왕비의 실물 모형을 건립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면서 청사 강당에 신채호 선생의 영정을 내다 걸기도 했다. 청사 바깥에는 최덕근 영사를 비롯한 순직 요원들을 기념하는 보국탑도 새로 세웠다.

이러한 작업과 병행하여 국정원의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공보기능을 보강하여 공보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었다. 국정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새로 깔끔하게 단장했다. 국가정보관을 새로 지어 민원인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영화 「쉬리」를 제작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군 시설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가 하면, 현행법상으로 수입해 들여올 수 없는 총기류 등 영화 소품들을 수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도 했다. 특히 영화의 현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 귀순자 안 모 씨를 어드바이저로 투입해 주기도 했다.

심지어는 영화 대본까지 손질해 주는 과잉 친절을 베풀려고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작자 측에서 현명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되었다. 국정원의 영화 「쉬리」 제작 지원은 ‘대성공’으로 평가되었다. 그 후 국정원은 여러 편의 방송 드라마에 제작 편의를 제공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개혁 작업은 한바탕 ‘쇼’에 지나지 않았다. 얼굴에 분칠만 약간 하다가 그친 수준이었다. 되돌아보면,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는커녕 정권에 더욱 철저하게 예속된 ‘정권의 창녀’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었다.

개혁의 과정에서 오히려 부작용만 크게 불거졌다. 검찰에서 파견되어 온 소OO 검사의 지휘 아래 피 물은 칼날이 번뜩였다.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잘려 나갔다. 이 중에는 100여 명의 간부급 직원들도 포함되었다. 미림팀을 이끌던 공운O 팀장도 이때 옷을 벗었다.

인적 청산은 국정원 내 지역감정의 뇌관에 불을 댕겼다. 국정원 청사 내에 흥흥한 소문이 을씨년스럽게 나돌았다. 잘린 간부들 대부분이 경상도 출신이었다. 해임된 간부들 중에서 전라도 출신은 단 세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정성O 씨 같은 사람은 김홍일에게 구명하여 나중에 살아남았다.

해임된 간부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강제 해직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적지 않은 액수의 명예퇴직 위로금을 거부하고,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국사모(국정원을 사랑하는 모임)’와 ‘국강투(국정원 강제해직자 복직 투쟁)’ 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끈질기게 법적 투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국정원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다. 국정원 내의 지역간 갈등과 분열은 고착화되

어 갔고,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가 되어버렸다.

김대중 정권 초기에 벌어진 소위 「5·29호실 사건」은 몇 마디 언급할 만한 일인 것 같다(*이 방은 원래 김영삼 정권 초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법제화되면서 국정원의 대 국회 연락관이 사용하던 방이었다. 당시 초대 국회연락관으로 나간 사람은 김은성 씨였다). 김대중 정권 초기의 국정원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일단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의 529호실을 급습했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정형근 의원이 작심하고 제대로 한 방 먹인 것이었다.

이 한나라당판 ‘국회습격 사건’으로 인해 국회 내에서 마치 조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살풍경이 연출되었다. 여당 의원들이 육탄전을 벌이며 저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망치를 들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예상한대로, 사무실 한쪽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대량 발견되었다. 당시 발견된 문건 중에서 국회 담당이었던 안철O 수집관이 작성한 것이 많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사직했는데, 그 후 그는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의 모 국장으로 재직할 바 있다. 이로써 국정원의 ‘국내정치 불개입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숙이 국내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국정원의 개혁 작업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사실이 웅변으로 입증된 셈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애꿎은 국정원 직원들만 생고생을 해야만 했다. 당황한 이종찬 원장이 마치 국가에 큰 변란이라도 터진 것처럼 새해 벽두부터 전 직원들에게 비상소집을 걸었기 때문이다. 신정 공휴일에 전체 비상이 걸린 것은 국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날 국정원 내에는 초유의 비상사태(?)로 인해 곳곳에서 웃지 못할 촌극이 연출되었다. 멀리 동해까지 새해맞이 일출을 보러 갔던 동료들은 오후 늦게 허겁지겁 귀원했지만, 지각으로 인한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참에 이종찬 원장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 이 원장은 정보기관장으로서 유능한 사람이었다. 내가 겪은 국정원장들 가운데 그만큼 정보기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 원장은 자신의 사적(私的) 이해관계에 정보기관이라는 공조직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한번은 자기 집안이 독립운동의 명문가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국정원의 전 해외조직을 동원하여 “독립운동 자료를 수집하라”는 특별 수집지시를 내렸다. 그 후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자료를 원 내에 전시하기도 하고 관련 책자도 만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출판된 책자를 살펴보니, 그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구 선생 등 독립 운동가들이 귀국할 때 마중 나갔던 이종찬 어린이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다. 너무나 뻔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처사였다.

한편, 그는 마치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을 조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 신채호 선생이 한때 무정부주의에 심취하여 의열단의 행동강령인 「조선독립선언」을 집필하는 등 일시적으로 의열단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열단을 창설하고 지휘한 사람은 엄연히 약산 김원봉 선생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범죄이다. 그 후 김원봉은 좌익으로 돌아선 후 광복군을 창설했다. 해방 후에는 북으로

올라가 국방상이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독립선언」은 조선의 젊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읽어 봐야 할 명문장이다. 그의 글뿐만 아니라 그가 쓴 『조선상고사』는 묘하게도 사람의 피를 뜨겁게 하는 마력이 있다.

이 원장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벌였다.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 원장이 추진한 일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것이 노벨상 수상 공작이다(*이에 대해서는, 제1부 양심선언 ‘회칠한 가면, 악마의 초상’ 참조). 나는 이 원장이 무리하게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을 벌인 이유가 김대중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기 위한 것’ 이었다고 짐작한다. 지나고 나서 보니, 결국은 김칫국부터 마신 형국이 되고 말았지만 말이다.

1999년 5월, 이종찬 원장은 일요일 오후 골프를 치다가 경질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는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에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원의 부서장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 인사안에는 이 원장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 원장이 자기 사람들을 심어 국정원을 장악하려 하자 동교동 측에서는 이 원장이 차기를 노린다고 판단하고 먼저 선수를 쳤던 것이다. 이 원장의 전격적인 경질에는 “신건 차장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당시 이 원장과 신 차장은 사이가 좋지 못했다.

당시 신건 차장은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심 탐내고 있었는데, 김태정 검찰총장이 강력한 경쟁자였다. 신건 차장으로서의 김 총장과 사이가 좋은 이 원장이 ‘중간에서 초를 치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 후 결국 김태정 총장이 신건 차장을 물리치고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비록 옷 로비 사건으로 조기 낙마하긴 했지만.

신건 차장은 동교동 쪽에 줄을 대고 있었다. 동교동에서도 ‘신 실세 트로이카’를 줄곧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내가 정치과 친구에게 듣기로는 “신 차장은 전주출신 직원 한 명을 정치과에 배치시켜 은밀히 이종찬 원장에 대한 정보만을 전달하도록 시켰다”고 한다.

만약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원 역사상 초유의 하극상 사건이었다.

천용택 국정원의 막가파식 행태

1999년 5월 말, 새로 부임한 천용택 원장은 이종찬 원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모두 중단시켰다. 두 사람은 육사 동기였는데, 둘 사이에 무슨 악연이 그리 깊었던지, 천 원장은 감정적으로 이 원장의 흔적을 전부 지우려고 애썼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원장이 추진하던 노벨상 공작도 전면 중단시켰다.

그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 등장한 많은 벼락출세자들이 으레 그렇듯이 개념 없고 저열한 인물이었다. 지시사항을 들으면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식한 원장일수록 보고서에 트집을 많이 잡는다. 자기 자신의 무식함은 탓하지 않고 글 쓴 사람의 유식함을 비난한다.

천 원장은 “보고서에 한자를 줄여라”거나 “경제보고서는 쉬운 용어를 쓰라”거나 “모든 보고서는 16줄 이내로 줄여라”는 등의 엉터리 같은 지시를 하곤 했다. 그의 말을 풀이하자면 “내가 가방끈이 짧아 그러니까로 알아서 내 수준에 맞춰 쉽게 쓰라잉~”이라는 말이었다.

천 원장 재직 중에 해외 분석부서 직원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이 무식한 원장은 해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도통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해외 분석관들은 그저 ‘밥이나 축내는 머저리들’ 일 뿐이었다.

대신 그는 국내 부서는 파격적으로 우대했다. 정치인 출신답게 정보를 정치에 악용하려고 했다. 국내첩보 수집을 독려하면서 수집관의 활동비를 무한정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감청부서에게는 도청활동을 강화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은 또다시 국내 정치판으로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되었다.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천 원장의 부임 직후에 벌어진 「남촌 사건」은 좀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을 듯하다. 정권 교체 후 국정원의 해이해진 기강과 전라도 출신들의 전횡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한겨레신문 1999. 8. 28. ‘나사 풀린 국정원 간부들’ 제하 기사 참조).

사건의 전말은 대충 이렇다. 양재역 부근에 ‘남촌’이라는 고깃집이 있었는데, 이 고깃집 마담은 안기부가 이문동에 있을 때 그 부근에서 음식점을 하던 여자였다.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이전하자 그녀도 따라서 강남으로 이사해 와서 문제의 남촌을 개업했다.

그런데 국정원 간부들이 저녁마다 그 고깃집에 몰려가 죽치는 일이 많았다. 그 중에서 대북전략국 간부들은 거기서 고돌이 판을 벌이는 일이 많았는데, 서영O 단장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아예 보고서까지 손 보기도 한 모양이었다. 이들을 통해 “황장엽 선생의 전화번호가 누출되어 북쪽으로부터 황 선생에게 한 밤중에 전화가 걸려왔다”는 괴소문까지 생겼다.

국정원 간부들이 “이 마담 마타하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

다”는 말도 들었다. 이견모 감찰실장이 조사를 지시했다. 감찰실이 나서서 조사를 해보니 의외로 연루된 물고기들이 많았다. 이 중에는 정권이 바뀌고 난 후 한창 잘 나가던 목포상고 출신 간부 4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앞에서 ‘국정원 최고의 한량’ 이라고 소개한 최OO 감사관과 정OO 감찰과장도 그들 4인방의 일원이었다. 이들 목포상고 4인방은 남촌에서 놀면서 “마담 마타하리와 구멍동서로서 우의(?)를 다졌다”는 말까지 들었다. 특히 최 감사관은 감찰실의 조사에 격분하여 이견모 감찰실장의 먹살을 잡고 흔들며 “죽고 싶냐”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이견모 감찰실장은 이들을 조사한 파일을 들고 신임 천용택 원장에게 올라갔다. 천 원장은 즉각 최 감사관을 파면 조치하고, 정 감찰과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의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서 목포상고 4인방은 한 순간에 묵사발이 됐다. 서 단장은 보직 해임되어 총무국 대기 발령을 받았다.

천 원장 시절 벌어진 소위 「언론대책 문건 사건」도 대표적인 황당 시추에이션이었다. 이번에도 정형근 의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1999년 10월, 정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현 정권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동원하여 언론사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곧 이어 “정 의원이 문제의 대책 문건을 모 방송국 기자로부터 입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서 “모 언론사의 문 모 기자가 이 문건을 작성하여 이종찬 전 원장에게 건넸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국정원은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렸다.

국정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종찬

전 원장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 반출된 문서를 회수해 오는 소동을 벌였다. “천용택 원장이 전임 이종찬 원장의 국제전화를 도청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정원으로서는 이래저래 개망신이었다.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도 해매기는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한답시고 문 기사를 찾아 조사단을 북경 현지까지 파견했지만, 그의 거주지조차 찾지 못하고 헛발질만 해댔다. 결국 이 사건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조장하고 승자 없이 막을 내렸다.

김한정이 99년 12월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직후, 천 원장이 잘렸다. 그의 갑작스런 경질 이유는 한 편의 코미디다. 천 원장은 99년 12월 법조 담당 사회부 기자들을 청사로 초청했다. 자신의 부인이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되어 언론에 자주 거론되자 기자들을 무마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를 흘렸다. 정형근 씨를 도청한 문제라든가, 홍석현 씨의 뇌물정보 등 국내 현안은 물론이고 민감한 대북 정보까지 흘려주었다. 그는 평소 직원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보안을 강조했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안의식이 없었던 셈이다. 나중에 확인된 것이지만, 천 원장의 정보는 미림팀의 도청 테이프에 나온 내용들이었다.

며칠 후 그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보안누설에 대해 질책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다음 날 터졌다. 남궁진 정부수석이 기자들의 취재수첩을 회수하여 발언내용을 확인했더니, 천 원장이 대통령을 “김대중이가…”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당시의 분위기로는 대통령을 거명할 때 ‘대통령님’ 이라거나 ‘선생

님’ 또는 최소한 ‘DJ’ 라고 불러야 했다. “김대중이가…”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경한 언사였다. 그 즉시 해임이었다(*내일신문 2000년 1월 6일자, 천용택 정질 특종 기사 참조).

그 후 그는 재기하기 위해 이희호의 치맛자락을 잡고 늘어졌다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브레이크 없는 호남선 인사 열차

김대중 정권 시절의 국정원 인사편중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다소간의 지역편중 인사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김영삼 시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인사편중이 자행되었다. 전라도 출신 인사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마치 권력의 화신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50년간 굶었으니 5년 동안 포식하자”며 덤벼드는 아귀떼 같았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지역편중 인사 조짐은 이종찬 원장 시절에 이미 시작되었다.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 내에서는 속칭 ‘복도 통신’ 등을 통해 ‘성지 순례’와 ‘어학 연수’를 갔다 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농담처럼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지만, 전라도 출신들이 끼리끼리 모여 ‘다 해 처먹는’ 현실을 빚낸 농담이었다. 물론 ‘성지 순례’란 광주를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고, ‘어학 연수’란 전라도 사투리를 익혀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종찬 원장 시절에는 전라도 출신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행

세하지는 못했다. 이종찬 원장이 국정원 내부를 잘 아는 데다가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들은 드러내놓고 설치지는 못했다.

물론 이종찬 원장 시절에도 인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측근들을 중용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수행비서와 의전비서를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왔다. 내가 겪어본 원장들 중에서 수행과 의전비서를 모두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온 것은 이 원장이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좌파 성향의 학자들을 십 수 명씩이나 특채했다. 그나마 수십 명 여당 인사들의 인사 청탁 압력을 거부한 것이 그 정도였다고 한다. 이때 이미 국정원의 사용(私用)의 단초가 열린 셈이었다.

그러다 천용택 원장이 부임하자마자 사정은 급격히 돌변했다. 이때부터 전라도 출신들은 “형님 아우” 하면서 사실상 모든 인사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인사 명령지(命令紙)는 온통 전라도 출신 일색으로 변했다. 국정원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호남선 열차’ 처럼 난장판이 되어갔다.

천 원장은 국내 차장으로 엄익준 씨를 임명했다. 엄익준 차장은 국내 부서에 대한 경험이 일천했는데, 예상외로 국내 담당 차장으로 임명된 것이었다. 엄익준 씨는 김영삼 정권에서 3차장(북한 담당)이었다.

그는 ‘대선 때 김대중 측에 북풍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으로 지목되었다. 그가 제공한 정보 덕택에 김대중 측에서는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을 배신하고 새로운 정권의 창출에 기여한 개국공신이었던 셈이다. 그는 또한 정권이 바뀐 후에는 소위 국정원 살생부를 작성한 장본인으로 지목받은 사람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료들의 등 뒤에 칼질을 해댄 사람’ 이었다는 말이다.

보도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종찬 원장에게 “엄익준 씨를 기용해 달라”고 두 차례나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종찬 원장은 “조직을 배신한 사람을 기용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또한 천 원장은 전 감찰실 직원이었던 김홍O 씨를 복직시켰다. 김홍O 씨는 대선 직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기자회견을 시도했다가 파면된 사람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정권교체에 대단한 공을 세우기라도 한 것처럼 “기조실장으로 컴백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한다. 이 원장은 김 씨에 대해서도 “조직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복직시키지 않았다(*월간조선은 1999년 9월호에서 이러한 국정원의 인사 난맥상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월간조선 1999년 8월호 우종창 기자가 쓴 ‘끊이지 않는 국정원의 지역인사 시비’ 제하 기사 참조).

국정원 내부의 인사문제가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도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회사 내의 누군가가 기자에게 인사 명령지를 통째로 넘겨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익명으로 처리된 동그라미를 누가 많이 채워 넣을 수 있는지 내기를 했다. 그 기사는 “국정원의 모든 정보라인이 전부 전라도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그랬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청와대로 정보를 배달하는 조준오의 이름은 아직 월간조선 기자에게 노출되지 않았다”고 키득거리기도 했다.

사실 이전 정권에서는 인사편중이 다소 있었다고는 해도 이렇게 악랄하지는 않았다. 차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표시나지 않게, 눈치껏 하려고 했다. 김영삼 정권 때까지만 해도, 비록 전라도 출신이라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동교동 쪽에 줄만 대지 않으면, 능력에 따

라 진급하는 데 별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전라도 출신인 엄익준·최규백·김은성 같은 간부들이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때는 사정이 변했다. 인사문제에 관한 한 전라도 출신 인사들은 체면이고 염치고 없었다. 정권이 바뀐 후 전라도 사람들은 인사 관련 핵심보직부터 장악했다. 각 부서의 인사과, 총무국 인사과, 검찰실 평가계와 수집과 등은 전라도 출신들로 새로 채워졌다.

이러한 인사편중은 인사과 보임팀장이었던 김영O라는 사람이 주도했다. 그는 광주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정규과정 21기로 국정원에 입사한 엘리트 요원이었다. 그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출신이었는데, 그는 고향의 역사를 정리한 『섬으로 흐르는 역사』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신입사원 시절, 그는 국내 부서에서 활동하다가 동교동으로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발각되어 강원지부로 전보되었다고 한다. 그는 강원지부에서 근무하면서 권노갑 등 동교동 인사들에게 줄을 댔다고 한다.

또한 그는 국정원의 살생부를 실질적으로 작성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소문에 의하면 “김영O가 각 부서의 젊은 직원들을 선발하여 호텔에 합숙하면서 문제의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인사과 보임1팀장이라는 중책을 차지했다.

인사과 보임팀장은 국정원 내에서 요직 중의 요직으로 인식된다. 마치 조선시대 이조전랑(吏曹銓郎)과 비슷하다. 직급은 높지 않지만 국정원의 모든 인사를 틀어쥔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러니 “모 기조실장은 일개 팀장에 불과한 보임계장에게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상식 이하의 인사 파행이 버젓이 자행되었다.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다. 승진 연한이 지난 전라도 출신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정원 내규의

진급제한 조항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쳤다. 이들은 구(舊)정권에서 자신들이 능력이 모자라 진급하지 못한 것을 지역차별로 인해 진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호도했다.

당시 박홍○ 해외공작국장은 타 부서의 인사에 관여하려고 시도하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는 우명○ 국제정책실장에게 자신의 광주일고 후배인 김 모 씨를 부이사관으로 진급시키라며 압력을 넣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나중에 김 모 씨는 국제정책실 행정과장으로 진급했다.

해외공작국의 이성○ 행정과장은 기수를 고려하여 러시아과에 있는 21기 경상도 출신 직원을 서기관으로 먼저 진급시키려다 같은 과의 23기 전라도 출신 직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23기 직원이 승진했다. 그리고 눈치 없이 세상 바뀐 줄 몰랐던 그는 행정과장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다.

이와 같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전라도 출신들은 약진을 거듭했다. 최고위직인 관리관은 물론이고 이사관과 부이사관 승진 자리는 거의 전라도 출신들이 도맡아 차지했다. 이들은 “고위직을 주려고 해도 줄 사람이 없다”며 자기네들끼리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경상도 출신이 부이사관 이상의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경우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서기관 승진 시에도 네 명 중 세 명은 전라도 출신으로 채우고 한 명 정도만 타 지역 출신을 적당히 끼워넣는 식이었다. 해외파견관 같은 알짜배기 자리는 능력에 관계없이 전라도 출신들이 싹쓸이 했다.

심지어 이들은 하위직인 사무관 진급에서도 지역차별을 했다. 일 잘하는 직원도 전라도 출신이 아니면 떨어뜨리고, 반면에 전라도 출신은 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진급시켰다. 참으로 개탄할만한 현상이 버젓

이 벌어졌으나 누구 한 명 이에 대해 대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와 같은 극심한 인사편중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권에 대한 직원들의 민심이반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경상도 출신들이 불만을 표출했으나 차츰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됐다. 정권 후반으로 가면서 아예 체념하는 분위기로 변해 갔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국내정보 부서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되었다. 특히 국내정보 수집부서인 정치수집과의 경우에는 거의 전부 물갈이가 되었다. 정권 교체 후 신임 정치과장은 임정O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후 김대중 정권 내내 국내정치 수집부서의 핵심 인물로 역할을 했다.

임정O 과장은 취임 일성으로 기존 직원들에게 “정치과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스스로 알아서 떠나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과장의 요구에 못 이겨 정치과 요원들이 하나 둘씩 떠밀려 자리를 뒀다.

이들 가운데 미운털이 많이 박힌 직원들은 지부로 쫓겨 가야 했다. 황화O은 충북지부로, 강욱O은 경남지부로, 그리고 김채O은 제주지부로 각각 유배를 떠나야 했다. 이들이 떠난 빈자리는 전라도 출신들로 채워졌다. 정치과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과나 다른 과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김영삼 정권 때까지 국내 부서에는 전라도 출신들이 드물었다. 전주고 출신은 몇 명 있었지만 전라남도 출신은 거의 없었다. 다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차별을 경험하고 일찌감치 다른 부서로 뺏기 때문

이었다. 그나마 국내 부서에 남아 있던 전라도 출신들도 모두 고향으로 내려갔다.

정권이 바뀌자 광주지부에 있던 전라도 출신 직원들이 대거 상경했다. 최규백 광주지부장과 김형운 광주지부 정보과장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들은 올라오자마자 국내정보 부서의 핵심 보직을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광주지부는 전체 직원이 대거 올라오다 보니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하는 수 없이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다 광주지부 근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대중 정권은 국정원의 공채 요원을 선발하는 데에도 지역편중 인사를 했다. 원래 국정원 안에서 전라도 출신은 소수였다. 경상도 출신들은 인구비례보다 많았고, 전라도 출신은 인구비례보다 적었다. 몇 십년간 경상도 정권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경향이 심화되어 온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소위 ‘종자론’ 이니 ‘꿈나무론’ 이니 하면서 전라도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했다. 그들에게는 부당하게 가산점을 주는 편법을 썼다. 국정원의 인적 구성 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라도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심지어 전혀 자격이 없는 젊은이를 영부인 이희호의 조카라는 이유로 특채하기도 했다.

한편, 전라도 출신 간부들끼리 자리다툼도 치열했다. 처음에는 전남 출신들 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다. 한동안 목포 출신 성골들과 광주 출신 진골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이는 「남촌사건」에서 목포상고 출신들이 일거에 목사발이 되면서 자연히 소멸되었다.

그 후 광주지역 출신들 간에 경쟁이 벌어졌다. 고등학교 동문별로 ‘일고파(一高派)’ 다, ‘광고파(光高派)’ 다, ‘광상파(光商派)’ 다 하면서 서로 분열하였다. 같은 광주일고 출신들 간에도 분쟁이 일어났다. 기조 실장 자리를 놓고 최규백 씨와 박홍○ 씨가 서로 으르렁거렸다. 이들은 둘 다 광주서중(光州西中) 출신이었는데, 최씨가 1년 선배였다. 최규백 씨는 국내정보 기획판단국장이었고, 박홍○ 씨는 해외공작국장이었다. 결국 기조실장 자리는 최규백 씨에게 돌아갔다.

온통 강패들의 세상이 되다

김대중 정권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소위 ‘남북전쟁’이 벌어졌다. 신진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세력과 김은성 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세력이 서로 피 튀기는 전쟁을 벌였다. 이 싸움은 2001년 말 진승현 게이트가 터진 후 김은성 씨가 구속되는 것으로 끝났다.

신진 원장은 재임 중에 전주고 후배들을 중용했다. 특히 국내정보 부서 간부들은 거의 전주고 출신으로 채웠다. 정권이 끝나갈 즈음, 그는 전주고 동문 간부들을 불러 고별회식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고OO 씨는 “후배를 챙겨주지 않았다”며 신 원장에게 술잔을 집어 던졌다고 한다. 국정원에서 선후배간의 의리라는 게 그런 것인가 보다.

사실 신진 원장과 김은성 차장 간의 골육상쟁은 김대중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정성○ 과장이 김홍일에게 부탁하여 김은성 기획판단국장을 국내정보 차장으로 승진시켰다”고 한다. 한편, 김홍일의 최측근인 정학모는 “신진 전 차장을 국정

원장으로 밀었다”고 한다.

당시 “정성O과 정확모는 전라도 깡패 세력을 양분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둘은 사이가 극히 좋지 못했다. 김은성 차장과 신건 원장은 어쩌면 이들 양 정씨의 대리전을 벌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성O은 1998년도에 제주도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김홍일 씨가 전라도 깡패들을 대동하고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고 한다. 이때 정성O은 김홍일의 무릎을 잡고 “형님, 깡패들이랑 어울리지 마세요”라고 호소했다고 한다(*정성O과 정확모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2001. 11. 20. 조선일보 ‘국정원 현 간부도 진승현 게이트 연루’ 제하 정성O의 인터뷰 기사 참조). 여기서 정성O이 언급한 깡패가 정확모이다.

김대중 정권에서 살아남은 정성O 씨는 원래 엄익준 차장의 심부름을 했었다. 어린 벤처사업가 진승현의 돈으로 김홍일과 김대중의 사생아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소위 ‘특수사업’도 실상은 엄익준 차장이 지시한 일이었다. 엄 차장이 예기치 않게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김은성 씨가 그의 자리를 대신했는데, 정성O과 김은성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가 본 김은성 씨는 세간에 알려진 만큼 부패한 사람은 아니었다. 나와 친한 동기와 선배가 그의 보좌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나는 가끔 그의 사무실에 놀러 갔는데, 그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아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편이었다. 본의 아니게 진승현 게이트에 말려들어 그가 진승현 게이트의 원흉인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은 모든 죄를 뒤집어쓴 면이 있다. 신건 원장 측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에 당해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대중 정권 내내 전라도 깡패들이 온 사회에 득세했다. 정권 교체

후 전라도 조폭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사업가로 변신했다. 이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크고 작은 이권에 개입했다. 전통적인 요식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부동산, 사채시장, 벤처기업 등 각 방면으로 진출했다. 심지어 영화산업에까지 투자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 “온통 깡패들의 세상이 되었다”고 한탄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해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대한매일 2001. 10. 19. ‘벤처 사건마다 조폭 공동주연’ 제하 기사 참조).

제10장 국정원을 퇴사하고 나서

‘김대중의 심장에 비수를!’

2000년 10월 28일, 나는 7년 10개월간 몸담았던 국정원을 떠났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직후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이 겪은 정치적인 고난의 의미를 잘 되새겨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하고 고질적인 지역감정 문제도 극복해 주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런데 나의 그런 바람이 순진한 희망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변해 갔다. 나는 깊은 회의와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갑갑했다. 탈출구가 필요했다. 의논할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사표를 생각하게 되었다.

국정원은 이직률이 매우 낮은 직장이다. 일반 사회의 직장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고, 다른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국정원의 이직률은 가장 낮은 편이다. 이유 없이 사표를 쓴다는 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직원이, 그것도 앞날이 창창한 젊은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니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더군다나 국정원에서는 사표를 쓰고 떠나는 동료에 대해 인식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아마도 은연중에 일종의 공범의식 같은 게 있어

서 그럴 것이다. 나의 등 뒤에도 “서울대 출신은 할 수 없어!”라는 비아냥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다.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직원들 중에 서울대 출신이 비교적 많기는 할 것이다. 나는 주위에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퇴사한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사표를 제출하고, 늦가을 색으로 물든 청사를 뒤로하고 나오는 나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무작정 퇴사를 결심했지만, 아직은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일말의 자신감은 있었다. 친하게 지냈던 회사 내의 친구들은 나의 퇴사를 걱정해 주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들은 “매달 얼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테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눈물겨운 우정을 보여주었다. 그 카드는 책상 속에 처박아 두고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퇴사 후 집에서 얼마간 쉬면서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았다. 문득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의 젊은 날을 온전히 다 바친 국정원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김대중 정권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제 국정원 직원이라는 족쇄가 풀렸으니 ‘나 혼자서라도 김대중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나는 조용히 비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먼저 임동원의 간첩혐의를 추적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나는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동원의 행적에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항상 무엇에 쫓기는 듯, 병적으로 보안에 신경을 썼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최측근 보좌관에게까지 자신의 속내를 잘 털어 놓지 않는다는 얘기가 돌았다. 나는 그러한 그의 태도가 항상 마음에 걸렸다. 퇴사하기 직전, 동료로부터

박지원의 워커힐 호텔에서서의 난동 이야기를 들은 후 그에 대한 의심은 더욱 굳어졌다(*박지원의 워커힐 난동 사건은, 제1부 양심선언 ‘분철한 가면, 간첩의 초상’을 참조).

나는 국정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임동원에 대한 혐의 사실들을 차곡차곡 모아갔다. 나는 당시 강남에 있는 미국 변호사 시험준비학원에 다녔는데, 공부보다는 임동원을 추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편적인 첩보는 입수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혼자 힘으로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여러 가지 공개 자료를 뒤지며 지난날 국정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들추어 보기로 했다.

쪽방에 갇힌 대붕(大鵬)

회사를 나오기 하루 전날, 나는 작별인사를 드리기 위해 황장엽 선생을 찾아뵈었다. 퇴사하고 나면 다시는 만나 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전략1과에서 같이 근무했던 황 선생 담당관인 유덕O 선배에게 특별히 청을 넣었다. 나는 황 선생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친분은 없었으나, 2000년 1월에서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에 개최되었던 그의 인간중심 철학 세미나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콧감 한 점을 사들고 갔다. 황 선생이 콧감을 좋아한다는 것은 황 선생 관리팀에 있던 동기 O일건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 전 해 추석 때에도 찾아가 안부를 묻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에 콧감을 한 점 사 보내드린 적이 있었다. 그때 황 선생은 『개인의 생명보

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이란 자신의 책에 자필 사인을 해서 선물로 보내왔다.

황 선생의 처소는 수사국 건물 내에 있었다. 이문열 작가는 언젠가 황 선생을 가리켜 ‘조롱 속의 매’ 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수사국 건물의 계단을 오르면서 ‘쪽방에 갇힌 대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당시 황 선생이 지구상에 숨 쉬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었다. 나 자신도 황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 중심주의자로 개종했다”고 농담하고 다녔을 정도였다.

황 선생은 작별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조금만 더 조이면 곧 붕괴할 것으로 판단하고 넘어왔는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말았다”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다. 또한 그는 “내가 정세를 오판하여 북에 있는 가족을 희생시켰다”며 괴로워했다. 황 선생은 중요한 대목을 얘기할 때는 필담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밖에서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황 선생에게 “너무 심려 마십시오. 설마 대한민국이 김정일에게 당하기야 하겠습니까?”며 안심시켜 드리려고 했다. 그에게는 나의 이런 실없는 언급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듯했다. 황 선생은 허탈한 눈빛을 지었다. 그의 처지가 그렇게 딱해 보일 수 없었다. 나는 헤어지면서 ‘황 선생이 갇힌 몸이 되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대신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전략1과에 근무할 때 황 선생 파일을 볼 기회가 있었다. 황 선생 담당관이었던 유덕O 선배가 내 옆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파일 속에는 황 선생의 외부 인사 접견기록도 있었다. 황 선생은 외부 인사를 만날 때마다 “자살하고 싶다”고 토로하곤 했다. 그는 갇힌 몸이 되어, 남쪽으로 망명한 뜻은 고사하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작별인사를 마치고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홍 모 관리팀장이 “김 선생,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절대 밖에 나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주의를 주었다. 그는 나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것이었다. 나는 황 선생의 모든 언동이 철저히 감시 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감시할 줄은 몰랐다.

사실 황 선생은 1999년 4월 말부터 유폐생활을 시작했다. 황 선생이 그렇게 된 것은 나의 대외협력보좌관실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 전말은 대충 이렇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기자가 황 선생과의 면담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99년 4월 중순, 김영O 박사는 황 선생 대신 김덕홍 선생을 소개해 주었다. 김덕홍 선생은 인터뷰에서 “황 선생이 북한의 전병호 군수비서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다섯 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5기 보유설은 이미 1994년 탈북자 강명도가 기자회견에서 예정에 없이 발설하여 큰 말썽이 난 적이 있었다.

산케이 신문은 김덕홍 선생의 북한 핵보유 언급을 크게 보도했고, 국내 언론은 다시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사안이 사안인 지라 당연히 큰 파장이 일어났다. 햇볕정책에 하등 좋을 게 없는 언급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은 황 선생의 외부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라종일 차장이 황 선생을 불러서 직접 이와 같은 조치를 전달했다.

외부장연이 중단되자 황 선생은 탈북자동지회가 발행하는 『민족통일』이라는 조그만 월간지를 통해 가끔씩 자신의 생각을 외부에 전달하

곤 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직후, 임동원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은 이 잡지마저도 폐간시키고 말았다. 황 선생이 그 잡지에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기 때문이다(*탈북자 동지회 출간, 『민족통일』 2000년 7월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제하 기사 참조. 동 기사는 월간조선 출판, 황장엽 비록 공개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제하 책자 184 페이지에도 수록되어 있음).

내가 황 선생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03년 11월 워싱턴에서였다. 그의 방미 여행 중에 나는 가까이서 황 선생의 방미를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같이 온 일행과는 호텔에서 같이 지내기도 했다. 나는 그때 워싱턴에서 황 선생의 저녁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만찬장까지 들어와 감시하고 있었다(*황 선생의 방미 행사에 대해서는 월간조선 2003년 12월호, 김미영 기자가 쓴 ‘황장엽 방미의 뒤편길 — 공식 수행원의 수기’ 기사 참조).

그때에도 국정원은 밀착경호를 핑계로 황 선생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황 선생의 입을 막으려고만 했다. 황 선생이 무슨 발언을 하는지 극도로 신경을 썼다. 황 선생이 상원의원실을 방문했을 때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북풍, 세풍, 안풍

김대중 정권 초기에 일어난 「북풍(北風)사건」은 좀 언급할 가치가 있을 법하다. 「북풍사건」은 당시 권력을 잡은 측의 일방적인 매도로 세상에 너무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당시의

사건들을 하나씩 복기해 보면, 「북풍사건」이란 것은 ‘김대중 정권에서 주장한 것처럼 허무맹랑한 정치공작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북풍사건」이란 1997년,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대선 판에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했던 일련의 정치공작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른바 「윤홍준 기자회견 사건」, 「오익제·김병식 편지 사건」, 「충풍사건」 등이 북풍사건의 주요 줄거리였다. 안기부의 공작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아무런 근거도 배경도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었다.

「윤홍준 기자회견 사건」이란, 97년 12월 선거 바로 직전에 젊은 재미교포 사업가인 윤홍준이 안기부의 사주를 받아 대선 직전 북경, 동경, 서울에서 “김대중은 72년 선거 때부터 김일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현재도 북한과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폭로한 기자회견을 말한다.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 민감한 사안인지라 우리 언론들은 윤 씨의 이러한 주장을 성의 있게 보도해 주지 않았다.

대북 사업가였던 윤홍준은 김정남의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김대중과 김일성 부자 간의 여러 커넥션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안기부의 대북 협조자로 일하면서 조선족 교포 출신의 대북 사업가였던 ‘허동웅’이라는 인물이 간첩 혐의가 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허동웅은 2007년 12월 북경에서 자신의 간첩혐의를 강력 부인하면서, 자신이 북풍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를 밝힌 『북풍사건』이라는 책자를 출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김대중의 측근이자 국민회의 조직국장이었던 조만진이라는 인물이 여러 차례 북한을 드나들면서 김대중 측과 북측 간에 수행해 온 은밀한 거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조만진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부서에서도 간첩협의를 두고 오랫동안 주시해 오던 인물이었는데, 그는 김대중 정권에서 장관급인 정부산하 기관의 기관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안기부 공작관에게 보고하였다.

비록 대선 바로 직전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개한 내용이기는 하나, 내용 자체가 조작되거나 과장된 것은 아니었다. 정권 교체 직후 윤홍준은 멋모르고 입국했다가 체포되었다. 당시 수사당국은 그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하지 않고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죄목으로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여 그를 구속했다. 그는 유죄를 선고받고 1년 6개월간 감옥살이를 했다.

「오익제 편지사건」이란 1997년 천도교 수장(교령)이었던 오익제가 자진 월북한 후, 무슨 연유에서인지 민감한 시기에 김대중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을 안기부가 입수한 사건이었다. 아마도 북측은 편지가 우리 정보당국에 입수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편지를 내려보냈을 것이다. 편지 내용에는 김대중의 대북 커넥션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들어 있었다.

당시 안기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편지를 보내온 북한의 의도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오익제는, 아니 북한 정보기관은, 겉털 줄 뻔히 알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안기부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안기부에서는 편지를 입수하고 한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선거 직전에 가서야 TV에 공개하고 부랴부랴 여론화를 시도했다. 김대중 측에서는 안기부의 ‘조작극’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공작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다. 김대중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오익제의 편지가 ‘조작극’이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공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안기부가 나서서 오익제의 월복을 주선한 것도 아니고, 편지를 보내도록 유도한 것도 아니었다. 편지내용을 조작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 편지가 온 사실을 공개한 것뿐이었다. 다만 문제라면 언론에 보도되도록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 것 정도였다.

「김병식 편지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이 편지도 북측이 우리의 대선 판을 흔들려고 고의로 편지를 내려보낸 것이었다. 김병식은 이 편지를 재미교포인 김영훈 목사와 한때 김대중의 총북이었던 임춘원 전 의원을 통해 김대중에게 보냈다. 그 편지에서 그는 고의적으로 김일성 수령의 김대중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언급했다. 편지 내용 중에는 김일성과 김대중 간의 돈 거래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이른바 「총풍(銃風)사건」이란 대북 사업가 장석중과 한성기,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이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 측에게 휴전선에서 도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 후 지리한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가 없고 고문과 강압으로 인해 조작된 사건으로 판명되었다. 김대중 정권이 한나라당을 확실히 누르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사건을 확대시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국 요원들이 무리한 조사를 했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을 듣기 위해 북한 공작원이었던 최인수라는 자를 중국으로부터 몰래 유인해 들여왔다. 국정원은 그를 감금하고 혹독하게 구타했다. 이에 최인수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에 도주하여 중앙일보에 뛰어 들어갔다. 국정원으로서는 참담하게 망신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후 최인수는 중국으로 추방되어 북한으로 소환되었다고 한다. 북

한에서의 그의 최후는 불문가지이다. 최인수 사건의 여파로 중국에 심어놓았던 국정원의 흑색 공작망이 중국의 안전부에 의해 철저히 괴멸되었다. 이른바 「백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국정원의 공작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최인수 사건의 자세한 경과는 동아일보사 간, 이정훈 저 ‘공작’ 참조). 그 후 국정원은 오랫동안 중국 내 대북 공작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처럼 이른바 「북풍 사건」은 김대중 정권이 정권을 잡은 후 안기부에 대해 악랄하게 정치적인 보복을 가한 사건이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간부들을 고문하는 바람에 국정원 조직 자체가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전모가 다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머지않아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를 본다.

김대중 정권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사례는 「북풍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소위 「세풍(稅風)사건」과 「안풍(安風)사건」이라는 것도 유사한 ‘바람몰이’였다. 이른바 「세풍 사건」의 주요 골자는 ‘1997년 대선 당시 이석희 국세청 차장 등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이회창 후보 진영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석희 차장은 선거가 끝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김대중 정권 초기에 국정원은 한동안 미국 내의 파견관들이 총동원되어 그의 행방을 찾는 데 혈안이 되었다. 이회창이라는 정적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석희라는 뇌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김대중 정권이 끝난 후 미국에서 송환되어 징역 1년여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도 ‘김대중 정권이 사건을 과도하게 부풀려 정치적으

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른바 「안풍사건」이란 ‘김기섭 기조실장이 안기부 내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하여 1996년 총선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이 사건은 오랫동안 법정에서의 지루한 공방 끝에 정확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미제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짐작컨대, 이 돈은 김영삼 정권이 1992년 대선에서 쓰고 남은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연유로 쓰고 남은 정치자금을 안기부의 기조실장이 관리하고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강삼재 신한국당 총장이 김기섭 기조실장에 게서 이 돈을 인계받아 1996년에 총선자금으로 사용한 모양이다. 어쨌거나, 그 이전에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김대중 정권이 주장했던 것처럼 안기부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도 김대중 정권이 과장하고 왜곡하여 정치보복에 이용한 경우였다.

우선 공개된 자료부터 살펴보았다. 나는 신동아가 보도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검찰신문 내용을 발췌한 기사에 주목하게 되었다(*신동아 98년 6월호 ‘윤홍준 기자회견 조작 아니다’ 제하 기사 참조).

신동아가 보도한 검찰의 신문조서에서는 안기부가 윤홍준이라는 대북사업가를 이용하여 「상황 사업」과 「고인돌 사업」을 벌인 경위와, 권 부장이 윤홍준의 기자회견에 직접 개입한 「아말렉 공작」의 경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윤홍준 담당관이었던 전 직원 이재O 씨를 수소문했다. 그가 윤홍준의 기자회견을 기획한 공작 담당관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O 씨는 윤홍준 기자회견으로 인해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중국에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었다. 그는 법정의 최후진술에서 “다시 이 같은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용기있게 발언했었다.

나는 분당의 어느 곱창집 등에서 그를 몇 차례 만났다. 나는 내가 왜 북풍공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윤홍준 기자회견의 개요와 공작원이었던 윤홍준에 대해 물어보았다. 소주 몇 잔을 기울이자마자 그는 허심탄회하게 그 간의 일들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이재O 씨는 “윤홍준 기자회견은 대선 바로 직전에 권영해 부장의 지시로 급조된 것이지만,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한 것이다. 윤홍준은 믿을만한 공작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윤홍준은 실제 김정남과 가까운 사이며 김정일도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미국에 가면 윤홍준을 한 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으로 피신하다

2001년 여름, 나는 임동원을 추적하는 일이 혼자 힘으로는 턱 없이 벅찬 일이라고 생각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았다. 우선 생각나는 사람이 고향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었다. 그를 찾아가 임동원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김용갑 의원은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그의 부인도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힘없이 돌아섰다.

미국에서 9·11 테러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쯤 지난 후, 동아일보가 김형O 경제단장의 뇌물사건을 특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이

용호 게이트 수사에서 김형O 단장이 사채업자인 이경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수사하고서도 외압으로 사건을 덮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2001. 9. 18. ‘국정원 간부 작년 거액수수혐의 검찰 소환조사 않고 덮었다’ 제하 기사 참조).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드디어 국정원에도 9·11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미 회사 내에 있을 때부터 김형O 사건의 윤곽에 대해서는 친구들에게 대강 들어서 알고 있었다.

2001년 3월 말, 이견모 감찰실장은 새로 부임한 신건 원장에게 정성O과 김형O의 비리파일을 들고 들어가 보고했다. 브리핑을 받은 신 원장은 그 즉시 정성O 경제과장과 김형O 경제단장을 제거하려 했으나 정성O의 강력한 반발과 김은성 차장의 비호로 인해 실패하였다. 오히려 이견모 감찰실장이 되치기를 당해 광주 지부장으로 좌천되었다(*한국일보 2003. 8. 19. ‘신 원장 — 김 차장 파워게임’ 제하 기사 참조).

동아일보의 기사는 신건 원장의 반격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었다. 이어서 11월 초에는 한국일보가 정성O 폭행사건을 특종 보도했다 (*한국일보 2001. 11. 13. ‘국정원 차장, 진승현 로비창구 김재환씨 폭행’ 제하 기사 참조). 이로써 진승현 게이트가 재점화되었다. 타이밍이나 정황으로 보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 신건 원장 측에서 여론전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김은성 차장과 정성O 과장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성O 씨는 구속되었다.

나도 더 이상 숨어서 활동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동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나는 그동안 망설이던 일을 행동으로 옮겼다.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에게 전화를 했다. 내가 “좀 만나 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기자가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며

순순히 응해 주었다. 나는 조 편집장을 세 차례 만나 해외, 대북, 국내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던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공작의 개요와 임동원의 간첩 혐의, 그리고 정성O의 진승현 게이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는 조 편집장에게 보강 취재하여 기사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졌다. 나는 2001년 10월 중순 즈음에 내부 인사로부터 “조갑제 편집장이 청와대 김한정에게 전화하여 노벨상 공작에 대해 취재 확인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직원은 또한 “김한정과 조준오, 그리고 박노O 팀장이 노벨상 관련 자료를 파기하면서 정보누설자를 색출하느라 아주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나는 겁이 덜컥 났다. 그렇지 않아도 2000년 10월, 한나라당 유홍수 의원이 국회에서 분데빅 노르웨이 전 총리의 극비방한 사실에 대해 질문하여 크게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 분데빅 전 총리의 방한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는데, 국회에서 그런 일이 터진 것이다. 분데빅 전 총리의 방한 건은 사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돌고 돌아 정형근 의원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았다. 이제 의심의 눈길이 나에게 쏠릴 게 뻔했다. 나는 우선 김한정의 의심을 피해야 했다. 그래서 급히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보러간다”고 소문을 내고 서울을 빠져나갔다.

2001년 11월 초, 나는 혼자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갑자기 미국으로 가려니 아는 데도 마땅찮고 해서 내가 연수하던 지역인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로 갔다. 거기서 몇 개월 동안 머물면서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다. 2002년 2월 말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행히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에세이(논술) 부분에 대한 준비 부족이 원인이었다.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은 이듬해에 재도전하여 합격했다.

나는 2002년 3월, 잠시 귀국하여 전셋집을 정리하고 가족을 동반하여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귀국 기간 동안에 조갑제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미 의회연구소의 닉쉬 연구원이 쓴 연례보고서를 읽어 보았느냐?”고 물으면서 “그 보고서에 김대중의 대북 비밀송금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그에게 실망하고 있던 터라 “읽어보지 않았다”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 후 조 편집장을 미국에서 두어 차례 더 만났지만 더 이상의 생산적인 논의는 없었다.

월간조선은 2002년 5월호에서 닉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번역하여 실었다(*월간조선 2002년 5월호 ‘래리 닉쉬 작성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와 금강산 관광’ 제하 기사 참조).

그 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이 기사의 내용을 심층 추적했다. 엄 의원은 2002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증인석에 세우고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불법으로 대출해 준 경위를 캐물었다. 이로써 대북 비밀송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권은 ‘터무니없는 음해’ 라면서 극력 부인으로 일관했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국회에서도 “북한에 단 돈 1달러도 보낸 적이 없다”며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밀었다(*조선일보 2002. 10. 05. ‘윤영위 대북지원설 공방’ 제하 기사 참조). 참으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곧 드러날 일도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었다. 2002년 대선정국을 통해 배부른 돼지들 같은 한나라당은 이 같은 절호의 호재를 가지고도 김대중 정권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지 못했다.

“15억 달러랍니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피신한 나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하고 틸 틸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2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김대중 측이 김대업을 앞세워 더러운 공작을 꾸미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이라도 한나라당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광복절인 2002년 8월 15일, 나는 한나라당의 이병기 특보에게 인편으로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과 임동원의 간첩혐의에 대해 은밀히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윤여준 특보와 접촉해볼까 생각을 했으나 이병기 특보가 더 적합한 사람 같아 보였다. 국정원 차장을 지낸 사람이니 노벨상 공작 등에 대해 이해가 더 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회창 후보 측이 김대중측의 비열한 공작을 저지하는 데 나의 정보를 현명하게 사용해 주기를 바랐다.

나는 그즈음 간간이 워싱턴에 살고 있다는 윤홍준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2002년 9월경,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워싱턴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직접 찾아갔다. 그는 신변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고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 그는 나를 무척 경계하는 눈치였다. 나를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시간이 지나고 만남이 여러 번 계속되면서 그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서로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당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던 대북송금에 대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는 지나가는 말로 “15억 달러랍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언제인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2000년 초 날씨가 제법 쌀쌀한 날 동경에서 김정남을 만났는데, 그때 김정남과 그의 수행원인 황 대장이라는 친구로부터 남북 간의 뒷거래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패스पोर्ट를 확인해 보았다. 그의 여권에는 2000년 2월과 4월초에 일본에 갔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윤홍준의 설명에 의하면, “남과 북은 1999년 12월 말, 국정원의 파우치(외교행낭)를 이용하여 남측이 북측에 유로화로 미화 15억 달러를 송금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다. 당초에 윤홍준은 김정남 일행으로부터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지금에야 그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뒷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윤홍준은 당시 김정남이 이야기하던 자세와 감정 상태까지 기억해내어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지만, 나는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의 얘기를 듣고, 나는 내가 아는 김한정의 행적과 그가 말해준 김정남의 이야기를 서로 맞추어 보았다.

99년 12월 말이면 김한정이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부임하던 시기였다. 그는 99년 7월, 김대중에게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선사했고, 8월에서 12월까지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 나는 그때 ‘아무런 보직 없이 자유로운 몸이었던 그가 밀사로 활동하기에 제일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북쪽에서 김정남이 나섰다면 남쪽에서도 김정남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나섰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김한정이 63년생이니, 70년생인 김정남과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 “국정원의 파우치로 약속한 돈을 보내기로 했다”는 부분도 ‘김한정이 아니면 생각해 낼 수 없는 아이디어’라고 판단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파우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설령 국정원의 파우치에 대해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파우치를 직접 이용해 보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김한정과 같이 근무하면서 그가 파우치를 이용하여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물자를 보내고 받았던 것이 떠올랐다.

더욱이 유로화로 돈을 보내기로 약속한 점이 미심쩍었다. 왜 하필이면 유로화였을까? 달러화로 보내면 CIA의 추적에 걸릴 게 뻔하니,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었다. 그가 90년대 중반 미국 럿거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했으니 당연히 유럽연합과 유로화에 대해 상식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가 서울대에서 그래도 명색이 국제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사실도 떠올랐다. 당시 북한이 유로화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지대한 관심을 표했던 것도 떠올랐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남쪽의 밀사는 북쪽이 믿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김한정이 대학 다닐 때 운동권으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된 경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공개 자료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았다. 보안사 사찰대상 서울대생 명단에서 김한정이라는 이름을 확인하였다(*한겨레신문 1990. 10. 9. ‘보안사 사찰 서울대생 387명 명단’ 제하 기사 참조).

또한 김한정이 “간첩활동을 한 이근희를 이상수 의원의 비서관으로 추천했다”는 기사도 찾아냈다. 92년 9월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 발표

된 김대중 비서관 간첩사건의 주역인 이근희 국방비서관과 그가 밀접한 관계인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가 이근희를 김대중 캠프로 끌어들이려 왔을 게 틀림없었다. 그와 이근희, 그리고 간첩활동을 매개한 황인옥은 대학 다닐 때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비로소 ‘김대중의 밀사로 김한정이 활동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조선일보 1992. 10. 30. 4면 ‘국회 대정부 질문 지상 중계’ 기사 중에서).

(◆ 이정우 법무부장관: “국방 기밀문서의 대북 유출 혐의로 구속된 김대중 민주당 대표의 전 비서관 이근희는 86년 5월 3일 이적단체인 구국학생연맹에 가입, 이적 표현물 수종을 소지하고 있다가 87년 4월 20일 체포돼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91년 9월 중순쯤 모 의원의 6급 비서 김한정이 이상수 전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이근희를 적극 추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내보다 더 많이 아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왔다. 나는 내가 준 정보를 이병기 특보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도청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중전화로 이 특보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직접 한 번 들어갈까요?” 하고 물었다. 그는 선뜻 “들어오라”고 했다. 대선을 3주 정도 남긴 2002년 11월 28일, 나는 급히 비행기표를 끊어 서울로 향했다. 그 때는 내가 다니던 학교의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나는 학점 같은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한나라당 당사를 찾았다. 도착해 보니 마침 그 날이 한나라당이 1차 도청 자료를 폭로하는 날이었다. 한나라당 특

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젊은 보좌관들이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들은 너무 신사적이다. 민주당 놈들이 이런 자료를 입수했더라면 생난리를 쳤을 텐데…”라며 뭔가를 놓고 저희들끼리 희희덕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김칫국물에 취한 듯이 보였다.

나는 궁금하여 어깨 너머로 건너다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메모 보고서였다. 워드로 다시 짠 것이지만,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한 눈에 메모 보고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문건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1년간 밤낮으로 다루었던 문건이었으니 말이다. 나는 ‘저 문건이 어떻게 한나라당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특보에게 내가 건넨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그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가 막혔다. 특보라는 사람이 그 귀중한 정보를 얻고도 자신의 책상서랍 속에 처박아 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니…. 그게 한나라당의 현실 인식이고, 그게 한나라당의 한계였다.

그날 오후, 나는 이병기 특보와 정형근 의원 앞에서 다시 한 번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과 비밀 대북 뒷거래, 그리고 임동원의 간첩혐의 등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북한으로 송금된 돈이 실제로는 15억 달러에 이른다”는 얘기도 전했다. 정형근 의원은 도청자료 공개를 준비하느라 전날 잠을 못 잔 탓인지, 나의 이야기를 꾸벅꾸벅 졸면서 들었다.

브리핑을 마치자 정형근 의원은 “니는 우째 지난 일들을 날짜도 안 잊어 먹고 다 기억하고 있노? 내보다 더 마이(많이) 아네!”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당시엔 김한정이란 인물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내가 김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그는 많이 놀라는 듯했

다. 그는 옆에 있던 이병기 특보에게 “김한정이 고기(그놈이) 야시(여우)인 거라. 한화 돈심부름도 그놈이 다 했다 카이!” 라고 말했다.

나는 브리핑을 마친 후, 한나라당이 나의 기자회견을 주선했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신변안전만 보장되면 노벨상 공작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며칠간 말미를 달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충청도 공주, 부여 지방과 전라도 고창의 선운사 등지를 여행하며 며칠을 보냈다. 고향에 잠시 들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부산으로 내려가 친구들을 잠깐 만나기도 했다.

처음부터 서울에 오래 체류할 생각은 없었다.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내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국정원에 알려지고, 중국에는 김한정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극도로 로-키(lowkey)로 움직였다. 전화도 공중전화만 사용했다. 혹시 추적당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시내의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숙식을 해결했고, 낮에는 만화방에서 시간을 죽였다. 이때 『열혈강호』라는 무협 만화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신세대들의 발랄한 감수성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

국정원의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지만, 들어온 게 소문이 날까봐 그러지도 못했다. 극소수의 친구들만 만났다. 훈육관에게는 전화하여 안부만 묻고 입국한 목적 같은 것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급한 데 쓰라”며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해 주는 친구도 있었다.

그 즈음 아는 동생에게 미국에서 들어온 이유를 말했더니, 그는 지나가는 말로 “한국판 「드레퓔스」 사건이 되겠군!” 이라고 중얼거렸다.

「드레퓔스」 사건이란 100여 년 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드레퓔스 대위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수년간의 투쟁 끝에 가까스로 풀려났다. 당시 에밀 졸라를 비롯한

프랑스의 지성들이 드레퓔스를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 이 사건은 양심의 승리를 말할 때 흔히 인용되는 세계사에서 흔치 않은 사건이다. 그의 언급은 나의 양심이 겪게 될 고난의 세월을 예고한 것이었다.

내가 드레퓔스에 비견될 만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나에게서는 에밀 졸라 같은 사람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에서 양심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등장하는 검은 제복을 입은 성직자들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보수 측의 양심을 외치는 이들도 웬일인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양심이 마비되기는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그저 피차일반인가 보다. 대한민국은 진리가 말라죽은 절망의 땅으로 보였다.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한나라당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다시 이병기 특보를 찾아갔다. 내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그 사이 그의 태도는 변해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하든지 무얼 하든지 한나라당은 일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두 차례에 걸쳐 도청자료를 공개했지만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부각시키고 노무현 후보와 청와대 간의 유착관계를 알리려는 전략이었는데, 그게 잘 먹혀들지 않았다. 선거 직전의 네거티브 전략은 득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났다. 아마도 한나라당은 노벨상 공작을 폭로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별반 효과가 없으리라고 판단하는 듯했다. 이 특보를 비롯한 한나라 인사들은 자신들이 연루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였다. 비겁한 사람들이었다.

그 즈음 나는 신변이 걱정되어 한나라당 특보실에 있던 젊은 보좌관

에게 나의 가방을 좀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의 부탁을 들은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냉정하게 안으로 문을 걸어 잠갔다. 이런저런 일로 한나라당에게 심한 배신감만 느꼈다. 그래도 멀리서 시간과 경비를 써가며 위험을 감수하고 온 사람에게 한나라당은 기본적인 예의마저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사를 찾아갔다. 싸늘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동아일보 사옥 꼭대기에 있는 사장실로 찾아갔다. 나는 여비서에게 “김학준 사장이나 김병관 회장을 좀 만나고 싶다”고 했다. 여비서는 “회장님은 출근하지 않으시고,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없다”고 했다. 나는 운이 따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를 빠져 나왔다. 그 즉시 공항으로 갔다.

비행기를 탈 때 혹시 국정원 수사관들과 조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무사하게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비행기의 창에 기대어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면서 ‘한나라당이 선거에 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이병기 특보 같은 머저리들을 보좌관이랍시고 데리고 있는 이회창 후보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이런 멍청한 짓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비행기가 느리게만 느껴졌다. 모든 일이 꿈만 같았다.

미국으로 건너온 후 국내로 전화를 걸어 보았다. 지인들은 내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국내에 들어 왔다는 사실과, 한나라당 당사에 출입했던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고 했다. 내가 알던 친구들이 부서 행정과에 불려가서 “김기삼이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등에 관해 취조를 당하고,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내가 노벨상 공작에 관한 글을 발표한 후에 한국일보의 모 기자는 “김한정이가 국정원 감찰실에 직접 지시해서 무조건 김기삼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알려왔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감찰실에서 체포조를 풀었을 때에는 “김기삼은 이미 공항을 빠져나간 후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제11장 펜실베이니아의 어느 시골에서

양심선언을 발표하다

2002년 12월 19일, 이번은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회창 후보는 노무현 후보에게 석패했다.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보수 측의 표 ‘2인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그와 한나라당의 패배는 안일함 때문이었다. 김칫국부터 마신 게 패인이었다. 이회창 후보 자신은 일찌감치 대세론에 안주했고, 그의 측근들은 정권교체 후 차지할 잣밥에 관심이 더 많은 듯 보였다. 모두가 ‘한여름 밤의 꿈’에 젖어 있었다.

돌이켜 보면, 이회창 후보는 5년 전 패배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19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한 이유는 보수진영의 분열과 DJP 연합이었다. 이회창 후보가 김종필 총재와 이인제 후보를 끌어안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2002년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는 보수성향의 정몽준 후보 진영을 포용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노무현-정몽준의 단일화를 저지하지도 못했다. 노무현 후보의 충청도 행정수도 건설 공약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반미 촛불시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해 세모는 어느 해보다 우울하게 보냈다. 김대중 정권의 ‘반역의 세월’을 정리할 기회가 사라진 데 대해 나는 깊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5년 동안 저질러진 반역과 부패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나 개인적으로도 불행했지만,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도 불운이었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려니, 생각했다.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무현 당선자가 청와대를 예방하고 걸어 나오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게 잘 됐다”고 말했다. 대체 무엇이 잘 되었단 말인가? 나에게 그 말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덮을 수 있게 되어서 잘 되었다는 말로 들렸다. 두 사람의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만이라도 노벨상 공작과 대북 뒷거래 실상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점차 굳어져 갔다.

해가 바뀌고 2003년 1월 중순이 되자 정권 인수위의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가 “현 정권에서 대북송금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새 정권이 전 정권과 뭔가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싸고 신·구 정권 간에 불편함이 있는 듯했다. 두 진영 간에 뭔가 의견정리가 제대로 안 된 느낌이 들었다. 어쨌거나 이로써 잠시 잠잠했던 대북 비밀송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대북송금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던 와중에 2003년 1월 29일 놀랍게도, 아니 고맙게도, 오마이뉴스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에 2억 달러를 보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오마이뉴스 2002. 1. 29. ‘북에 2억불 송금했다’ 제하 기사 참조).

오마이뉴스는 자신들이 대단한 특종이라도 한 것처럼 발광을 떨었

다. 처음으로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대북송금 사실을 확인했으니 그럴 만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눈에는 더러운 권언유착(權言癒着)의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청와대의 누군가가 — 아마 박지원 실장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 오마이뉴스에 일부러 흘린 게 분명해 보였다.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매체에 자신들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를 축소하여 슬쩍 흘린 게 틀림 없었다. 그 기사를 읽고 나는 직감적으로 ‘김대중이 부분적으로 대북 송금을 시인하는 척하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나도 팔짱을 끼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행동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마침 그날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세상에 알리기에 가장 적당한 시점이었다. 사람이 움직이면 정보도 따라 움직이고, 설날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히 정치 얘기도 나눌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2003년 1월 30일, 조갑제닷컴 홈페이지 게시판을 비롯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다 ‘회칠한 가면, 악마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과 반역적인 대북 뒷거래에 관한 글을 올렸다(*제1부 양심선언 중 ‘회칠한 가면, 악마의 초상’ 참조).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심한 후에는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2주일이 지난 2003년 1월 14일, 퇴임을 열흘 앞둔 김대중 대통령이 박지원 실장과 임동원 특보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끝내 완전한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대중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측에 5억불을 송금했다”며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통치행위라는 억지논리를 동원하며 시종 변명으로 일관했다. “단 1달러도 보내지 않았다”고 박박 우기던 자세에서 조금도 나아

지지 않았다.

이들의 영악한 위선을 지켜보면서 나는 다시 한 번 분노에 치를 떨었다. 다음날인 1월 15일, 나는 준비해 두었던 두 번째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그 글은 임동원 씨의 대북 커넥션 의혹을 상세하게 다룬 글이었다(*제1부 양심선언 중 ‘분칠한 가면, 간첩의 초상’ 참조).

내가 혼자서 오랫동안 임동원의 간첩혐의를 내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나의 발품과 정성이 배여 있는 글이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런지 기대와는 달리 반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편, 정권이 바뀌고 3월로 접어들자 대선 직전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 문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재연되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변인과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문건은 조작된 가짜 문서다”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이들의 고질병적 거짓말을 들으면서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다.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거짓이 엄정히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한 번은 부딪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난다면 ‘조직의 배신자’라는 비난은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2003년 3월 24일,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실태를 고발하는 글을 다시 인터넷에 올렸다(*제1부 양심선언 중 ‘거짓의 희극, 도청의 진실’ 참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제까지 한 번도 세상에 공

개되지 않은 정보를 내놓았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는 것이었다. 뭔가 소동이 벌어져야 정상인데 여당도, 야당도, 국정원도, 언론들도 어떠한 반향도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조차 침묵하는 데에는 어이가 없었다. 자기들이 선거 전에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서 말이다. 이 글은 2년 후 미림팀의 도청사건이 다시 불거지기 전까지는 철저히 잊혀졌다.

양심선언의 언저리

노벨상 공작과 대북송금에 관한 나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가자 애국적인 네티즌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었다. 대선 패배에 의기소침해 있던 그들에게는 마치 청량제 같은 정보였을 것이다. 여러 인터넷 신문들이 나의 글을 전제하고 인터뷰 기사를 실어주었다. 특히 인터넷 독립신문과 사이버뉴스24라는 매체가 열심이었다. 개인 네티즌들이 이 글들을 퍼다 날랐다. 설 연휴가 지나자 일간지들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조선일보 2003. 2. 3. ‘DJ 노벨상 수상하려고 北에 15억弗 송금’ 제하 기사 참조).

특히 동아일보는 여러 날 동안 후속 기사를 실었다(*동아일보 2003. 2. 3. ‘북한에 겨백 비밀지원 DJ 노벨상 수상 공작’, 2003. 2. 4. ‘노벨평화상 공작설 일파만파’, ‘김기삼씨 - 국정원 공방’, ‘청와대 실장 로비했다.’ 2003. 2. 5. ‘김 실장, 동티모르 의사당 건립 건의’, ‘노벨상 로비의혹 청와대 실장 ‘생트집’ 반발, DJ 노벨상과 동티모르 관계는?’ 2003. 3. 26. “비화 국민의 정부(13): DJ 노벨상 수상 막전막후” 제하 기사 참조).

동아일보는 전직 장관급 인사 — 아마도 이정빈 전 외교장관이라

고 짐작되지만 — 언급을 기사화 하면서, 김한정의 노벨상 공작을 기정 사실화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역시 앞뒤 안 가리고 나가기로는 동아일보를 따를 언론이 없었다. 동아일보는 또한 동티모르에서의 김한정의 여러 활동도 취재하여 기사화하기도 했다. 예상한 대로 김한정은 이에 대해 모든 일을 부인으로 일관했다.

월간조선의 조갑제 편집장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나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주며 많은 관심을 표시해 주었다. 특히 월간조선은 즉각 후속 취재에 나서 2003년 3월호에서 장문의 상세한 후속 기사를 게재했다(*월간조선 2003. 3월호 ‘김대중 노벨상 국제로비 진상’ 제하 기사 참조).

그 기사는 국정원의 노벨상 로비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고도 정확하게 기술한 것이었다. 약간 아쉽기로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취재내용을 확신하지 못해서인지 기사의 톤이 조금 낮은 점이였다. 그 후에도 월간조선은 후속 취재를 계속하여 2004년 11월호에서 다시 기사화하기도 했다(*월간조선 2004. 11월호 ‘김대중 노벨상 수상 로비와 국정원의 역할’ 제하 기사 참조).

나의 양심선언이 나가자 국정원과 청와대는 나를 악랄하게 음해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보다 심했다. 그들은 나에게 대해 “정신이 불안정하다.” “업무에 부적응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비열한 친구다.” “돈을 노리고 했다.”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자다.” 등 온갖 험구를 쏟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돈 떼먹고 튼 놈”이라거나 “여자 건드리고 달아난 놈”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인데도 말이다.

그때 국정원에서 오래 전에 퇴사한 박지O 선배가 국정원 안의 분위기를 이메일로 전해 왔다. 그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국정원 지휘부와

청와대 부속실은 마치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설 연휴를 악몽같이 보냈다”고 했다. 또한 “국정원의 최명O 1차장과 해외공작국 한병O 행정팀장 등이 ‘김기삼이를 죽여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 소식을 “국정원 안에 있는 ‘산적 같이 생긴’ 지인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일련의 글을 발표하고 난 후 세계 각지로부터 많은 메일을 받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프랑스에서 메일을 보내온 사람도 있었다. 나를 비난하는 내용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나의 용기를 격려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들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는 ‘간첩 신고를 했지만 햇볕정책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으로부터 구박을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도 있었다. 이 지면을 빌려 나에게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나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나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았다. 내가 모셨던 오정소 차장이 생각났다. 그에게 전화하여 글을 쓴 동기를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에게서 짜늘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나에게 “안에서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밖에서 떠드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마치 나의 활동으로 인해 ‘노무현 정권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려던 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투였다. 할 말이 없었다. 그것으로 오 차장과의 인연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오 차장을 변호하지 않았다. 이때 이미 그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사라진 탓이었을 것이다.

내가 올린 글에 대해 한국의 기자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그 중에서 한국일보의 이 모 기자는 하이얏트에 장기 체류하던 한국계 프랑스인에 대한 후속 취재결과를 나에게 알려 왔다. 그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녀는 “마담 정이라고 불리는 여자로서 프랑스 고위 관료의 며느리”라고 했다. 그녀는 명동 외환시장에서는 유명한 인물로 “정권의 돈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아쉽게도 그 후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고, 이 여인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노벨상 공작에 관한 글을 발표하면서 나는 보호해야 할 몇 사람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나는 해외공작실 동구과 북구팀에서 노벨상 공작의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차병○ 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나와 가까운 입사동기였기 때문에 차마 그를 언급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나의 글이 나가고 난 후 그는 감찰실에 불려가서 꽤나 시달렸을 것이다. 지금에서야 밝히지만, 그는 사실 나의 글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나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었을 그를 비롯한 동료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평소 차병○ 씨는 자신이 노벨상 업무의 실무자이면서도 그 일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뜬금없이 “형, 김한정이가 자꾸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왔다. 그는 나와 같은 동기지만 나를 부를 때에는 항상 “형!”이라고 불렀다. 내가 저보다 몇 살 연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소위 신세대 ‘오렌지’ 요원이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 밥 먹자고 하면 그냥 같이 먹으면 되는 거지”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다.

2001년도에 차병O 씨는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노벨상 공작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갔던 인사들은 저마다 훈·포장을 받고 난리를 쳤는데, 실무 직원은 고작 사무관 진급도 못한 것이다. 노벨상 공작에 관해 모든 것을 비밀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인사부서에 미처 그의 공적을 보고하지 못했던 것이다. 부랴부랴 대책이 마련되었다. 연수를 가장하여 그를 해외로 내보내기로 했다. 혼자 연수 보내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부서의 다른 동기들도 덩달아 보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또한 나는 노벨상 공작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김영O 박사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다. 그는 나의 존경하는 선배이자 직속 팀장이었다. 내가 친형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라종일 차장과 권진호 차장에게 직보(直報)하면서 노벨상 업무에 관한 국정원과 청와대 간의 모든 연락업무를 맡았다. 앞서 설명한 대로, 그는 국정원의 외신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다. 그는 나의 글이 발표되고 난 후 이제까지 인사상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지금까지 최소한 두 차례 이상 검찰실에 불려가 가혹한 조사를 받았다. 이 글을 빌어 그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김영O 박사라는 연결고리를 제외하다 보니 라종일 차장과 권진호 차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쓸 수 없었다. 사실 국정원 내에서 노벨상 공작의 실질적인 최종 책임자는 라 차장과 권 차장이었다. 특히 라 차장은 노벨상 수상의 일등공신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노벨상 공작의 초기 공작을 기획하고 추진한 핵심인물이었다. 그는 햇볕정책에 관해서는 임동원 씨와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둘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임 원장의 특보로 재임명되어 회사 바깥에 사무실을 차리고 활동했다. 권진호 차장은 라 차장에 이어 국정원 내에서 공작을

총 지휘하고 마무리하였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들은 정보기관의 요직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었다. 소신도 없었고 배짱도 없었다. 요즘 보면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든다. 참여정부에서 “라종일과 권진호 두 안보보좌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NSC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나는 가끔 ‘내 글에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었더라면 이들이 노무현 정권에서 안보 최고책임자로 일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상상해 보곤 했다.

노벨상 공작의 최고 수훈감은 아무래도 임동원 원장이었다. 그는 햇볕정책이 김대중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기만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반역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정권이 바뀌고 난 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고 한다. 그는 그 후 『피스 메이커』라는 회고록을 내기도 했다. 그만큼 자기 보호와 자기변명이 절실했던 모양이다.

나는 임동원 씨의 간첩협의에 관한 글을 공개하고 난 후 믿을만한 출처로부터 “임동원이 90년대 초 남북합의서 문제를 협의하러 평양에 드나들 때, 양각도호텔 지하에서 북한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가족과 관련 협박을 받고 굴복한 것으로 안다”라는 말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 한참 지난 후 국내 정보계통의 고위인사로부터도 그런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훗날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 평양의 3호청사 내에 있는 캐비닛이 열리게 되는 날, 이 모든 일들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대북송금 특검과 정몽헌 회장의 타살 의혹

다시 대북송금 얘기다. 정권이 바뀌고 3월로 접어들면서 대선에 패배하여 주눅이 들어 있던 한나라당이 서서히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신임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승인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검이란 승부수를 가지고 김대중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전·현직 대통령간의 관계에 금이 가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에서는, 이때 노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게 된 사연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230쪽 이하 참조). 그 책의 설명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송금 사실을 인정하면 통치행위론으로 무마하여 넘어갈 수 있었는데, 끝내 송금 사실을 몰랐다고 우겼기 때문에 통치행위론을 주장할 근거가 없었다고 한다. 박지원이라도 총대를 땀더라면 특검 없이 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특검으로 갔다고 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애초부터 특검을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출발은 했지만, 처음부터 송두환 특별검사 팀에게는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검에 참여한 인사의 면면으로 보나 그들의 자세로 보나, 초유의 반역사건을 엄정하게 다루려는 의지가 묻어나지 않았다. 나는 특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들은 것이 없다. 그들은 의혹을 제기했던 나에게는 수사협조 요청도 해 오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김대중은 물론이고 김한정도 조사하지 않았

다. 빈껍데기 수사였다.

특검의 결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몇 달간의 조사를 통해 송두환 특검팀은 “북한으로 송금된 돈의 액수는 총 5억 달러이며, 이 중 5천만 달러는 현물로 보내졌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특검팀은 “5억 달러 중에는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김대중 정부가 북측에 건네기로 약속한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특검 수사가 끝나고 그 부산물로 권노갑과 박지원의 비리가 불거져 나왔다. 이들이 김대중의 죄를 일부나마 대신 뒤집어쓰는 형국으로 변했다. 지루한 수사와 공방 끝에 박지원 씨와 권노갑 씨는 구속되었지만, 한참 지나 이들도 결국 특사로 풀려났다. 대북송금에 관여했던 다른 인사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은 자는 없었던 셈이다. 용두사미(龍頭蛇尾)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격이 되고 말았다. 반역범들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만 쥐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한편, 2003년 8월 초 검찰의 후속 수사과정에서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이 그만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정황으로 보아 타살 의혹을 숨길 수 없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자살해야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정몽헌 회장은 반역적인 대북 불법송금의 공범이긴 했지만, 그가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통감했다.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그 분의 명복을 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06년 초 “정몽헌 회장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월간조선에 잇달아 보도되었다(*월

간조선 2006년 2월호 ‘정몽헌 현대 회장의 죽음의 행로’ 제하 기사 및 동 잡지 2006년 3월호 ‘정몽헌 사망 사건의 5대 미스터리’ 제하 기사 참조).

그 기사들은 타살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기사의 골자는 “정몽헌 회장의 유서는 사전에 조작된 것이었고, 그의 자살극도 사전 각본에 의해 연출된 것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자살극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누군가의 천재적인 각본에 따라 정 회장이 자살을 가장하여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월간조선의 기사는 주로 익명의 검찰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의 신빙성은 제보자의 신뢰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기사의 제보자는 극히 믿을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월간조선 2006년 1월호에 인터뷰 기사가 실린 박주원 씨였기 때문이다(*월간조선 2006년 1월호 ‘대검 범죄정보기획실에서 24년간 수사관 생활 마감한 범죄정보 수집의 대가 박주원씨’ 제하 인터뷰 기사 참조). 기사에 소개된 대로 그는 대검 중수부 범죄정보기획실에서 오랜 세월 근무한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사실 나는 이전에 한나라당의 박 모 의원으로부터 “정성O 씨와 박주원 씨가 찾아와 정몽헌 피살설에 대해 제보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사를 쓴 김성동 기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관계자라는 사람이 월간조선 1월호에 나온 그 사람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이에 김 기자는 “김 선생님은 눈치가 참 빠르신 분이군요”라며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나는 그 후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그 제보자가 박주원 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박주원 씨는 그 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안산시장에 당선되었다. 최근에는 그가 뇌물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

었다.

한편, 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정몽헌 회장의 자살 연극을 모의한 사람은, 문맥으로 보아 현대아산의 김윤규 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현대그룹 대북사업의 최고 핵심인사이다. 정 회장의 유서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정 회장의 유서에는 “당신 너무 자주 윈크하는 버릇을 고치세요”라는 구절이 있다. 하지만, 저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하면, 두 사람은 유서의 내용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2005년 말경, 김윤규 씨는 현정은 회장에 의해 현대아산 사장직에서 쫓겨났다. 그가 쫓겨난 사유는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경미한 부정사건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시점(時點)이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경우가 있다. 아마 여기에도 적용될는지 모른다. 박주원 씨가 한나라당과 언론에 이러한 일들을 제보한 시기와, 김윤규 씨가 현대에서 쫓겨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그것은 2005년 말이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믿기에는 너무 요상하다.

과연 정몽헌 회장을 살해한 주범은 누구란 말인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다. 누군가 정몽헌 회장의 입을 막아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의 짐작에는 김대중 측이 가장 그런 입장에 가까울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기사에 의하면, 정몽헌 회장이 죽기 직전에 박주원 씨에게 4통의 유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통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사라진 유서에서 정몽헌 회장은 김대중 정권의 어느 고위 인사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동안 정몽헌 회장을 타살한 청부업자를 추

적해 보았다. 내가 어렵פות이 듣기로는 “살인 청부업자가 미국으로 도피하여 뉴욕 지역의 어느 전 한인회장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난리를 부린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 일은 현정은 회장과 가까운 어느 무속인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그 무속인은 원통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는 ‘구명시식(救命施食)’이라는 술법(術法)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소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했다. 나의 신변의 안전부터 먼저 걱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무기도입 비리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

2003년, 특검이 허무하게 끝나고 그해 연말이 되었다. 갑자기 청와대에 소속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무기비리에 대해 수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 정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가 싶어 한 때나마 약간의 희망과 설렘이 다시 일었다. 참여정부에 참여한 부산 출신 인사들이 뭔가 제대로 하려는가 보다고 기대되었다. 그래서 이호철 민정비서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에 협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도 즉각 관심을 표명해 왔다.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는 “국방비리만 근절하면 국방예산 10% 증액이 온다는 마음으로 타협을 하지 않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는 “필요하다면 건너가겠다” 고까지 했다. 하지만 그 후 외교부의 청와대 항명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연락이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얼마 안 가서 비서관직을 그만두었고,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방부 품질

관리소장을 역임한 이원형 씨가 혼자 뒤집어쓰는 형국이 됐다. 결국 기
대할 게 없었다.

2004년 5월, 나는 그동안 수집해 왔던 무기도입 비리 의혹을 장문의
글로 정리하여 몇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렸다(*제1부 양심선언 중 ‘무
기의 그늘, 부패의 온실’ 참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했던 올리
컨포 개량사업, 케이블 어셈블리 납품사업, 견인소나 시스템 납품사업
등 세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에서 벌어진 굵직한
여덟 가지 무기도입 비리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다. 글의 말미에는
작심하고 전직 대통령들의 해외 비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는 노
대통령에게 이 부분을 수사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나는 몇 편의 글을 발표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
다’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손에 개혁의 칼을
쥐어 준다’는 심정이었다. 나는 노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저질러진 거
악(巨惡)들을 척결해 주기를 기대했다. 어쩌면 그러면 할 수 있을지
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의 바람은 전
혀 실현되지 못했다. 애초에 기대 난망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노 대통령은 대북송금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척하다가 중도에 그만
두었다. 아마 갓 정권을 잡은 그에게 너무 무거웠나 보다고 생각되었
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가볍고 잘 드는 칼을 제시해 주는 마음으로 무기
비리와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에는 아예 칼을 들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후 문재인 민정수석
에게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어 거듭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해 여름,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대

리로 재직 중이던 최강욱 소령이었다. 무기비리에 대해 직접 조사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 시골까지 어려운 걸음을 해준 것이었다. 그는 군대 내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소신과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장교였다.

‘깡다구’ 하나는 대단한 친구였다. 이에 앞서 그는 공금횡령을 이유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4성 장군을 구속시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생면부지였지만 우리는 만나자마자 말이 통했다. 알고 보니 그는 대학 후배이자 나의 회사 친구인 O용태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했다. 그는 나에게 대해 “떠나기 전에 용태 형으로부터 언론에 알려진 것과 같은 ‘꼴통’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우리는 카일라일의 허름한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가 무기비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의 있게 얘기해 주었다.

그 즈음 시사저널이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속 취재를 했다. 그 잡지의 탐사전문기자인 정희상 씨가 멀리까지 찾아와 주었다. 그는 기자 정신에 충일(充溢)한 사람이었다. 한국 사회의 부패 실상과 특히 무기도입 비리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시사저널 2004. 5. 11. ‘『시사저널』이 추적한 무기도입 비리’ 제하 기사 및 2004. 6. 6. ‘무기도입 6천억 원 사기극의 전모’ 제하 기사 참조).

기사가 나가자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나에게에는 끝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한참 지난 후, 정희상 씨는 나의 국정원 체험기의 요약본을 시사저널에 실기도 했다(*시사저널 2006. 1. 6. ‘김기삼 씨의 국정원 8년 체험수기’ 제하 기사 참조).

나는 그 글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규모와 소재지 등을 대략 설명했다. 재미있었던 사실은, 내가 글을 발표하고 난 후 그들이 보인

반응이었다. 내가 글을 발표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의 스위스 방문이 그의 비자금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후에도 비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지역 주위로만 여행을 했다. 어느 해에는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아마도 홍콩과 가까운 여행지여서 거기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글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비자금이 대만에 있다고 했는데,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만을 방문했다.

한편, 2006년 6월 저스틴 림씨 등 일부 뉴욕 교민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대중 비자금 뉴욕 유입 사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억 달러 규모의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이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되었다고 주장했다. 직접 비자금을 날랐다는 사람이 나타나 양심 고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른바 뉴욕의 피자금은 김대중 비자금이라기보다는 그 측근들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더 커 보였다. 부동산에 투자된 액수를 모두 합산하다보니 액수도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싶었다.

2008년 10월 20일,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 김대중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날 주 의원은 “2006년 3월 초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의 일부인 100억 짜리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평화방송 라디오 2008. 10. 21. ‘열린 세상 김석우입니다’ 방송내용 참조).

내가 확인한 바로는, 주 의원이 언급한 검찰 관계자도 다른 아님 앞에서 언급한 박주원 씨였다. 검찰 조사 결과 그 증서는 비자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비자금 의혹이 말끔히 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다.

2007년 1월 월간조선은 김대중 정권 당시 정부기관 고위 인사의 전언을 토대로 “김대중 정권이 2001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3,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놀랄만한 기사를 실었다(*월간조선 2007년 1월호 ‘김대중 정권 정부 고위인사 충격 증언’ 제하 기사 참조).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 내용을 제보한 정부의 고위 인사는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 씨였다. 내가 아는 한 그는 결코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었다. 더욱이 그는 한때나마 김대중 정권의 최고 핵심정보를 관장했던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김대중 정권에 의해 철저히 망가진 사람이기도 했다. 그의 증언이 지니는 남다른 무게는 그가 가진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내가 좀 더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1년 여름 즈음 김은성 차장은 경제부서의 수집관으로부터 “청와대 지시로 시중의 6개 은행이 각각 5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그는 이 첩보를 신진 원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와대의 이기호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기호 수석은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모르는 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기호 수석이 당시 국정원의 경제단장이었던 김여O 씨를 통해 이 일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

애초에 이 자금은 김대중 정권이 대북 송금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어느 경제부처의 장관급 인사가 언론에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이 돈은 사실은 “2002년 대선 준비자금이었다”고 한다. 김대중 정권은 2002년에 선거자금을 모금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001년부터 미리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는 주장처럼 보인다. 그 용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이 자금은 결국 집행되지 않았고 김대중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나는 그 후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이기호 수석의 근황을 은밀히 추적해 본 적이 있었다. 2008년 겨울, 약간의 노력에 행운까지 더해져 나는 페어팩스에 있는 그의 소재지를 어렵게 찾아 낼 수 있었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이 끝날 즈음에 유럽으로 출국하여 2년여 동안 머물다가 귀국하지 않고 2005년경부터 워싱턴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리티지재단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연구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출근했다. 교포 한인들과도 일체 교류하지 않았다. 집도 여러 번 옮겼고 전화번호도 자주 바꿨다. 이를테면 그는 극도의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모 언론사 기자와 함께 그의 집 앞에서 그와 통화를 시도해 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3,000억 원 모금설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자신의 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신건 원장에게 물어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의 과장된 부인이 그의 연관성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기호 씨에 대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나에게는 그를 내사할 수 있는 돈도, 시간도, 인력도, 그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그의 뒤를 캐려다가 내가 먼저 당할 수도 있다. 언젠가 그가 송환되어 정식 조사를 받을 때가 있기를 기원하는 일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드러나게 된 경위

2005년 여름,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물론 국정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불법도청을 부인해 왔었다. 급기야 ‘국정원은 불법 도청을 하지 않는다’는 엽기적인 신문광고까지 냈다. 애초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정원의 한 부서인 과학

보안국의 조직적인 불법도청이었다.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 도청 문제가 쟁점이 됐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나는 이에 대해 2003년도에 상세히 밝힌 적이 있었다.

국정원의 도청이 밝혀지게 된 연유는 이렇다.

2005년 초 MBC의 이상호 기자가 재미 교포인 박인회 씨로부터 도청한 내용을 녹음한 CD자료를 입수했다. 이른바 ‘X파일’ 이었다. 그 CD의 주요 녹음 내용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여야의 대통령 후보에게 어떻게 선거자금을 제공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후에 밝혀지기로는, 문제의 CD는 98년 미림팀의 공운O 팀장이 박인회에게 넘겨준 것으로, 박인회는 이 CD를 이용하여 삼성에게 접근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삼성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인회 씨가 이 CD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MBC에 넘긴 것이다. 이상호 기자는 입수한 정보를 보도하려고 했으나 MBC 수뇌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CD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물론 안 봐도 아는 문제지만, 청와대의 압력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MBC가 세기의 특종을 확보하고서도 반년이나 보도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CD에 관한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 퍼져 나갔다. 그해 7월 초, 조선일보의 이진동 기자가 내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98년 공 모 서기관이라는 직원이 퇴직하면서 도·감청 테이프를 왕창 들고 나갔다가 엄 차장 시절 압수당한 적이 있었다면서 “공 모 서기관의 이름과 인적 사항 등 혹시 아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며 나에게 협조를 구해 왔다.

나는 민감한 문제인지라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대답했다. 고민이 되었다. 과연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심각하게 생각했다. 미립팀의 존재가 알려지면 틀림없이 벌집 쑺시는 꼴이 될 것이었다. 아니면 예전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갈지도 몰랐다. 만약 소동이 벌어지게 되면 국정원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국정원의 동료들로부터 다시 한 번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걸 각오해야 했다.

그렇다고 마냥 숨길 수 있는 문제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이미 언론에서 CD 제작자의 직급과 이름까지 파악하고 있는 마당이기에 더욱 그랬다. 이참에 김대중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진실은 언젠가는 들어날 것이고, 모든 것은 진실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생각을 정리한 후 내가 아는 미립팀의 불법도청 사실을 조선일보에 제보해 주었다. 7월 21일, 조선일보는 내가 제보한 내용을 특종 보도했다(*조선일보 2005. 07.21. ‘안기부 YS정부 때 비밀조직 운영 정·재·언 인사들 대화 불법도청’ 제하 기사 참조).

그 기사는 취재원을 숨기기 위해 이리저리 여러 출처를 인용했지만 대부분 나의 제보에 기초한 내용이었다. 즉각 커다란 파장이 일었다.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의 일부 관계자들은 새벽 4시에 긴급 호출을 받아 출근했고, 오전 6시에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다”고 한다. 삼성도 “이학수 부회장 등 구조조정본부 수뇌부들이 연쇄 마라톤 회의를 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5. 7. 21. ‘발각 뒤집어진 삼성, 테이프 내용, 사실과 달라’ 제하 기사 참조).

다음날 나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담당자로 부터 전화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미 내가 조선일보의 취재원이란 사실을 알고 연락해온 것이었다. 인터뷰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인터뷰에 응해 내가 아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 미림팀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미림팀의 도청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의 휴대전화 도청 문제까지 다시 거론했다(*2005. 7. 22.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참조). 이 방송이 계기가 되어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었다(*주간동아 2005년 8월호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도 도청했다’ 제하 기사 참조).

7월 말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기자들이 공운O 미림팀장을 사냥하듯 찾아 나섰다. 숨어 지내던 공운O 실장은 이윽고 자술서를 남기고 할복 자해를 기도했다.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유출한 데 대해 자복으로 책임을 지려고 했다. 그의 자해는 쇼가 아니라 진정성이 보였다. 나는 미림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최초 제보한 사람으로서 그의 자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날 새벽 나는 급히 도청 문제와 국정원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발표했던 글을 여기에 다시 싣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림 팀’의 불법도청 문제를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삼입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 전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공운O 팀장의 자해를 보면서

저는 미림팀의 존재와 활동상황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으로서, 오

늘 공 팀장께서 자해(自害)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접하고 무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공 팀장이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조국을 반역한 몇몇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부역한 무리들입니다. 저는 이번 제보를 통해 국정원에게 무의미한 4~50년 전의 과거사가 아니라 4~5년 전의 중대한 일이나 제대로 조사하라고 충언하고 싶었습니다. 한 용기 있는 젊은 기자의 노력으로 특종을 입수하고서도 돈과 권력에 눌러 압사당한 MBC로 하여금 상황을 타개하도록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제보가 결과적으로 공 팀장님을 극단으로 몰고간 이유 중의 하나가 된 것 같아 깊은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공 팀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2. 저에 대한 소환조사 발표에 대하여

국정원직원법에 의하면 모든 직원은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제보한 안기부의 불법도청에 관한 내용은 제가 ‘직무상’ 지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림팀의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림팀의 활동과는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제보한 안기부의 불법도청에 관한 내용은 ‘비밀’이 아닙니다. 미림팀은 국정원의 직제에도 없는 사적인 비밀조직이기 때문에 미림팀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국정원직원법상 보호되어야 할 비밀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림팀의 활동은 프라이버시권 등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활동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세상에 공개되어야 마땅한 것이지 보호받아야 할 비밀이 아닙니다.

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과거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밝힌 저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소환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저의 퇴직 문제에 대하여

국정원은 저의 퇴직에 대하여 “외국연수 후 의무복무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직권 면직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퇴직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암시한 것은 국정원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6~1997년간 안기부 내 정보대학원에서 영어 연수를 마치고 난 후, 1997~1998년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디킨슨 법과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무복무 규정이란 2년 이상 외국연수를 갔다 오는 경우 5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무효 판결이 내려진 규정입니다. 저의 경우, 연수 후 2년 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무복무 규정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는 등 퇴직과정에서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고,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습니다.

4. 저의 가족의 망명신청에 대하여

국정원은 저의 가족의 망명신청에 대해 “정치적 박해를 당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저를 인터폴에 수배한 상태라면서 마치 범죄인인 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망명은 인종, 성별, 이념, 종교,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해 박해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 허락됩니다. 저는 현재 국정원으로부터 기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를 당할 염려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정부가 저의 망명신청에 대해 결정을 못하고 곤혹스런 처지에 있는 점을 이해합니다.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걸려 있는데다 저의 신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선뜻 망명을 허락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진정 저를 형사범이라고 판단한다면, 한미 형사공조협정에 의해 저를 인도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2년여 동안 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청하기만 한다면 저는 당연히 조사에 응할 뜻이 있습니다.

5. 국정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2003년 1월, 제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 공작과 반역적인 비밀 대북 뒷거래를 폭로하자 국정원은 저에 대해 성격이 불안정해 정보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시로 옮겨 다녔으며, 금전을 목적으로 폭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정원의 악의적인 발표가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저는 국정원이 발표한 대로 성격 이상자도 아니며, 능력 부족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6. 일부 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최근 일부 언론은 제가 MBC 이상호 기자에게 X파일을 유출했고, 테이프를 가지고 삼성에게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한 파렴

치범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악의적인 내용이 보도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향후에 이러한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05년 8월 초,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있는 대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승규 신임 원장은 검찰 출신이었기에,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국정원은 창사 이래 최대의 수모를 겪어야 했다. 백여 명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나와 가까웠던 분들도 불려갔다는 소식도 들렸다.

몇 달 간의 수사로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확인되었다. 국정원은 과거를 털어놓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임동원, 신건 원장과 김은성 차장 등이 구속되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수일 차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은성 차장의 딸도 가족의 처지를 비판하여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비록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어찌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은 뻔뻔하게 살아남고 애꿎은 사람들만 죽어 나가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다

2003년 2월, 노벨상 공작과 대북 비밀송금에 대한 글을 올리고 난 후, 나는 우리 정부로부터 국정원직원법상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

지 위반과 일부 직원으로부터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발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나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다. 언론도 나에 대한 고발 사실을 보도했다.

유 모 담당검사에게 전화해서 나에 대한 고소사실을 문의했으나 그는 확인해 주기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을 했구먼!” 하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명예훼손은 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은 진실을 밝혔을 경우에도 성립할 수는 있으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우리나라 형법 제310조 참조).

나는 이 일로 인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조국에서 쫓겨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망명자의 신분으로 살았다. 일말의 사익(私益)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의 처참한 안보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힌 것으로 모두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 나와 내 가족은 이 일로 인해 많은 희생과 피해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밝힌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이처럼 유죄의 예단(豫斷)을 하는 검사의 무성의하고 저열한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노벨상 공작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는커녕 내가 노벨상 공작의 주요 인물로 지목한 박경O 씨는 2001년 4월 이스라엘 대사로 영전되어 나갔다. 이리저리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인사들은 모두 영전되었다. 대북 비밀송금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져 일부 내용이 확인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도대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명예훼손이라니, 우스운 일이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나에 대해 “정보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정신이상자”라고 낙인찍었다. 김한정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삼은 도덕적으로 비열한 사람이다”라며 나를 비난했다. 그 후에도 그들은 “김기삼은 그런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억지를 썼다. 어째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만 그런 일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그들은 내가 돈이나 바라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으로 폄하했다. 명예훼손이라면 그들이 나에게 범한 것이라고 믿는다.

2003년 1월, 내가 일련의 글을 발표하고 난 후 워싱턴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부 나타났다. 미국의 언론인과 전·현직 관료들 중에서 나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나는 대북송금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던 미 의회연구소 닉쉬 선임연구원도 만났다. 의회 보좌관 중에서도 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이리저리 바쁜 나날이 이어졌다. 그즈음 회사 내부에 있던 지인이 나의 신변을 걱정하는 메일을 보내왔다. 나는 김대중 측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워싱턴에는 “모 권력 실세가 운영하는 청부업자가 있다더라”고 하는 소문도 들렸다. 미국도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동안 조심하며 지냈다. 그러다 보니 다니던 학교에는 결석이 잦아졌다. 얼마 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출석 미달로 제적되었다.

2003년 후반기에 다시 학적을 회복하기 위한 수속(reinstate)을 밟았다. 이민국 심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쓰고 비자 회복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민국의 심사관은 “당신은 나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다시 학생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 낫겠다”
고 연락해 왔다.

나는 그때까지 망명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망명이라면 제3세계나 공산권 출신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자유 대한민국 출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일로 생각했었다. 한미동맹을 생각하더라도 망명이 쉽게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더욱이 전직 정보요원이 망명을 꿈꾸기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변호사와 상담해 봐도 내가 동맹국의 전직 정보기관 요원이기 때문에 망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나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추방을 피하려면 일단 망명신청부터 해야 했다.

2001년 벌어진 9·11 사건 이후, 미국 사회는 외국인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자세로 돌변했다. 내가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은 나를 추방절차(Removal Procedure)에 집어넣었다. 예전 같으면 추방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그들은 나를 즉각 추방 재판에 회부했다. 일단 추방절차에 들어가면 망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2004년 1월, 내 대신 나의 가족이 망명을 다시 신청했다. 우리 가족은 2004년 3월, 뉴저지 망명사무소에서 망명 심사 인터뷰를 했다.

보통의 경우 인터뷰를 하고 나서 2주 후면 결과를 통보받는다. 대개는 망명 거부 통보를 받게 된다. 우리 가족은 인터뷰를 한 지 2주 후 결과를 확인하러 망명사무소로 찾아갔다. 망명사무소 담당관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집에 가서 기다리면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우체통을 쳐다보는 시간이 늘

어났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내의 세월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여러 통로로 우리 가족의 망명심사 결과를 문의했지만 이민국은 묵묵부답이었다. 아마 그들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였다. 그들도 곤혹스러운 처지였을 것이다. 나에게 망명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 정부를 물 먹이는 결과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의 망명신청을 거부하여 내가 한국에 돌아가 처벌을 받을 경우,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 미국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나에 대한 추방절차가 진행되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우리 가족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나의 재판을 십여 차례나 연기했다. 드디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판사는 2008년 4월 15일 마침내 나에게 망명을 허락해 주었다.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남신우 선생과 수잔 솔티 여사, 척 다운스 씨 등 나를 위해 증언해 주고 탄원해준 분들의 도움이 컸다.

내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허니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태인이었다. 보기만 해도 제대로 할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필라델피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민판사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허니맨 판사는 그의 판결문에서 나의 사건이 자신의 재임 중에 가장 증거자료가 완비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잡담 중에 내 사건이 자신의 재임 중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미국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했다. 항소 이유는 네 가지였다. 그 중에서도 내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전직 정보요원이란 신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와중에 한국의 정권이 교체

되었다는 사실이 주요 이유였다.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는 정확히 2년이 걸렸다.

2010년 4월 15일, 항소위원회는 항소 이유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기각하고, 한국의 정권이 바뀐 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후 다시 한 번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나의 사건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제12장 밖에서 본 대한민국

백척간두에 선 우리의 안보

나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관해 좀 안다고 생각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청년기 이후 우리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해 왔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더 다양한 체험을 했다. 지난 몇 년간 적어도 미 대륙에서는 나보다 한반도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요즘 내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아직도 내가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될 때가 많다.

지구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남쪽 부분은 태평성대 그 자체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단군 이래 최고의 풍요를 구가하고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사회 전체가 역동적인 모습이다. 사람들은 보다 친절해졌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 곳곳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새 고속도로가 생겨나고 있다. 물질적으로 발전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자신감이 넘친다.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여러모로 월등히 나아 보인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하다. 사회 곳곳에서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 사회기강은 해이해졌고, 도덕은 문란해졌다. 모두가 방관자로 돌아앉은

모습이다. 사회의 각 분야에 도덕적 해이가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본다. 무엇보다 걱정스런 현상은 국가공동체 의식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그저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밥숟가락이 누구 덕택에 가능했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혼란스런 풍경을 대하게 된다. 이념으로 나뉘고, 계급으로 찢기고, 지역으로 쪼개지고, 세대 간에 막히고, 종교 간에 갈라진, 그야말로 만신창이의 모습이 드러난다. 경제개발의 그늘에서 소외된 계층은 불만 세력, 체제부정 세력이 되어 가고 있다. 지난 2~30년 동안 자생적인 공산주의자와 맹목적인 종북주의자(從北主義者)들이 위험한 수준까지 증가되었다. 이제 우리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 비율이 30%에 육박한 것 같다. 지역 간의 화합은 아예 물건너 간 형국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통합에 대해 논의조차 없다. 아예 체념상태다.

생각이 안보 현실에 미치면 사정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우리가 휴전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산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편하게 잊고 산다. 번영은 거저 굴러 들어오는 것이고, 안보는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믿는다. 우리 발 아래 북한의 특수군이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이 개미굴처럼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는 아예 눈을 감고 있다. 우리 머리 위로 북한의 장사정포가 곧바로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애써 외면한다. 이제는 김정일이 만든 원자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태연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괴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악

의 극단적인 호전세력과 휴전상태를 지속해 왔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거짓말처럼 안보가 보장되어 왔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기적처럼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은 그야말로 불가사의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노라면, 안보의식이란 것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깡그리 실종되고 없다. 어쩌다 우리의 안보를 우려하는 척이라도 하면 당장 냉전주의자로 매도된다. 애국을 말하면 금세 팔불출로 취급된다. 전쟁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먼 나라 이야기다. 통일이고 뭐고 다 귀찮고, 나와 내 가족만 무사하면 그만이라는 소아병적인 이기심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다. 모두가 무임승차자들 뿐이다. 어떻게 해서든 군대는 빠지는 게 최고가 되어버렸다. 한심한 일이다.

우리 사회 어디를 둘러봐도 좌파가 다수를 점했다. 종교계, 문화계, 언론계 등 어디나 마찬가지다. 교육현장에서는 전교조가 의식화된 청소년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극단적인 쟁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노동운동의 메카’가 되었다. 선진국 노조들이 우리에게 배우러 온다. 그들은 우리의 노조전임자 제도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요즈음은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법조계에까지 좌파가 침투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우리 사회에 좌파에 오염되지 않은 영역이 없는 것 같다.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 하는 느낌이다.

지난 10여년 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가장 특기할만한 일은 촛불 세력의 등장이다. 이들은 미군 장갑차의 단순한 과실치사 사고를 양기 군대에 의한 고의 살인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또한 노무현 대통령

의 탄핵 때에는 정권을 방어하는 홍위병이 되었다. 광우병 소동에서는 멸절한 미국산 쇠고기를 청산가리보다 더 위험한 물건으로 탈바꿈시켰다. 유모차 돌격대를 앞세우고 이른바 명박산성(明博山城)을 타고 넘어 돌진해 나갔다. 이들은 걸핏하면 광화문 네거리를 해방구로 점령한다. 이들에게는 논리도 이성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대체 이들의 광기는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지난 10여년 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특기할만한 경향은 조직간첩 사건에 관한 뉴스가 사라진 일이다. 물론 「일심회(一心會) 사건」 같은 피라미 간첩사건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규모 지하당 조직 사건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다. 김정일이 개과천선하여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대공(對共) 여건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발톱 빠진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지 오래 되었다. 우리 사회는 온통 간첩들의 온상이 되었고, 그들의 천국으로 변했다. 우글거리지만 잡지 못한다. 역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최후의 조직간첩 사건이었던 「민혁명당(民革黨) 사건」이 발표된 지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당시 우리 정보 당국은 여수 앞바다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의 통신을 완벽하게 감청하고 있었다. 우리 군은 그 배를 포위하고 생포작전을 펼쳤으나 이들이 저항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침몰시켰다. 가라앉은 잠수정을 인양하자 간첩의 접선자 명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간첩들이 먹고 버린 봉천동 어느 빵집의 빵 포장지까지 건져 올렸다. 이들을 접선하려고 호남고속도로를 달렸던 간첩 일행의 자동차 번호판도 촬영하였다. 이들의 대북 이메일 교신도 포착해 냈다. 완벽한 수사였다. 하지만 이 간첩들은 그 후 재판과정에서 모든 일에 대해 철저히 부인으로 일관했다.

민혁명 사건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는 울산에서 부부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1997년 10월, 안기부는 최정남과 강연정이라는 부부간첩을 체포했다. 체포 직후 강연정은 자살했다. 그녀는 안기부 여자 수사관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에서 독약 앰풀을 삼켰다. 그녀는 독약 앰풀을 자신의 몸 속 은밀한 곳에 감추고 있었다. 내가 수사국 친구에게 듣기로는, 그녀는 음모(陰毛)를 꼬아서 독약 앰풀을 몸속에 고정시켰다고 한다. 나는 인체 구조상 그런 일이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

당시 이들 부부간첩이 체포된 과정은 한동안 안주거리가 되었다. 당초 이들은 울산 지역의 노동계에 직접 침투하기 위해 남파되었다. 이들은 전국연합 간부 정 모 씨에게 접근하여 “조국통일 사업을 위해 북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마침 대선 직전 민감한 시기였던 터라, 이 노동운동가는 정보기관이 자신을 공안사건에 엮으려는 줄로 지레 짐작하고 이들을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안기부와 경찰은 잠복 끝에 이 이상한 간첩단을 체포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코미디 같은 현실이었다.

사실은 1995년 10월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부여 간첩 김동식 사건」이었다. 당시 간첩 김동식은 남파된 후 대담하게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허인회, 이인영, 함운경 등 80년대 학생운동 지도자들에게 접근했다. 허인회는 그 후 김동식과의 회합에 대해 끝내 부인했다. 남파간첩과 접촉한 많은 인사들이 북한이 제공하는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을 무상출입했다. 앞서 말한 민혁당의 주도자였던 김영환 씨도 90년대 초, 강화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두 차례나 북한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예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안보 여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노무현 정권에서 벌어진 「송두율(宋斗律) 사건」이 아닌가 싶다.

2003년 11월, 독일에 체류 중이던 송두율이 귀국했다. 그는 그 전에도 수차례 귀국을 시도했으나 보안기관의 조사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런 그가 무슨 생각에서였든지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아마 그의 추종자들의 권유 내지 강권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국정원의 내사(內査)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정원은 그에 대해 이미 20여년 간의 내사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었다.

국정원이 송두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그가 1970년대 독일에서 ‘민주사회건설협의회(소위 ‘민건’)'라는 조직의 회장이 되면서부터였다. 1980년초, 남쪽으로 망명해 온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이 “김정일이 구주(歐洲) 위원회 회장인 송두율을 아낀다”는 진술을 했다. 이때부터 안기부는 본격적으로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94년 김일성 사망시 김철수라는 인물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장례위원회에 서열 23위로 등재되었다. 그 전에는 김일성이 김철수라고 소개된 송두율을 접견하는 사진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부터 안기부의 수사국과 해외공작국은 송두율의 행적을 더욱 면밀히 추적했다. 1998년 12월, 황장엽 선생이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소책자를 펴냈다. 그 책자에서 황 선생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가 송두율”이라고 밝히면서, 송두율에게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조언했다(*황장엽 저 『북한의 진실과 허위』, 통일정책연구소, 77쪽 관련 부분 참조).

그 후 송두율은 한국 법정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황 선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했다. 한겨레를 비롯한 여러 좌파 언론들도 벌떼처럼 일어나 송두율을 비호하고 나섰다. 당시 안기부는 송두율이 김

철수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에 대한 비밀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소송은 부분적으로 송두율의 승리로 끝났다.

국정원이 송두율이 북한의 거물간첩 김철수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1998년 경 국정원 해외공작국 독일 거점의 기발한 공작의 성과물이었다. 국정원의 독일 거점은 공작이라는 기망수단을 동원하여 송두율을 담당하고 있던 북한 이익대표부 내의 김정필 서기관을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공작을 담당한 직원은 베를린에 파견된 국정원 해외공작국 서구과의 H 공작관이였다. 공작을 완수하고 난 후 그는 신변안전을 우려하여 이름까지 바꿨다. 그 후 그가 실행한 공작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일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월간조선 2003년 11월호 ‘송두율-국정원의 공작 비화’ 제하 기사 및 동지 2004년 5월호 ‘송두율의 친북활동을 담은 두 장의 디스켓의 실체’ 제하의 기사 참조).

당시 H 공작관은 유럽 범민련 간부로 활동하고 있던 최 모씨를 포섭했다. 물론 H 공작관은 최 씨가 김정필과 각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H 공작관은 최 씨를 통해 김정필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입수하기 위해 묘안을 짜냈다. H씨는 최 씨로 하여금 김정필에게 하소연하여 김정필의 컴퓨터를 잠시 빌려 쓸 수 있도록 공작했다. 김정필은 의심 없이 자신의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최 씨에게 건네주었다. 김정필은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백업 파일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점이 이 기발한 공작의 핵심 노림수였다. 국정원은 김정필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복구하여 손쉽게 그의 전문(電文) 원본을 손에 넣었다.

국정원이 복구한 김정필의 파일에는 북한 정보기관이 송두율에게 지

령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그 파일에 의하면, 1997년 2월, 황장엽 선생이 중국에서 망명을 선언하자, 송두율은 김정필에게 “황장엽이 내가 노동당 지도기관 성원임을 아는가?”라고 문의했다. 그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정필은 이를 평양에 보고했다. 평양 당국은 “조국에서는 황가가 당신이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임을 모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모략선전으로 강하게 반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앞서 언급한 명예훼손 소송은 이러한 배경 아래 진행된 것이었다.

한편, 뒤늦게 자신이 국정원의 공작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된 김정필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1999년 1월, 정기적인 교체시기가 아닌데도 평양으로부터 소환명령이 떨어졌다. 김정필 부부는 북한에 남겨둔 아이들의 안위가 위협해질 것을 알면서도 유럽 소재 미국 대사관으로 망명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으로 오지 않은 것은 한국에는 이미 북한 간첩이 침투해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후 그는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에 송두율의 정체에 대해 상세하게 실토했다. 김정필 부부는 요즘 미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미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송두율은 아마도 국정원의 이러한 완벽한 내사 동향을 몰랐던 듯하다. 만약 알면서도 귀국했다면 그는 이종석·서동만·정연주 같은 청와대와 국정원, KBS의 핵심 위치에 있던 그의 ‘내재적 접근론’의 제자들이(*소위 ‘내재적 접근론(內在的 接近論)’이란 “북한을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이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었던가 보다. 국정원 수사요원들이 제시하는 명백한 물증과 끈질긴 추궁에, 결국 송두율은 자신의 정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

었다. 그 후 그는 권력의 비호 아래 허겁지겁 독일로 되돌아갔다. 이 사건은 사실이 권력을 이긴 드문 경우로 기록되었지만, 당시 이 나라의 권력은 명백한 간첩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였다.

북한의 가공할 비대칭 전력

나는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김정일이 인민군대에게 “일주일만은 너무 길다. 3일 만에 끝내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첩보를 본 적이 있다. 무슨 소리인가 하니, 북괴군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데 일주일씩이나 걸리지 말고 사흘 만에 해치울 수 있도록 작전을 짜라는 말이다. 실제로 김정일의 계산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툭 건드리면 넘어가고, 혹 불면 날아갈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가 뒷골목의 깡패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다.

북한이 지독한 경제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대칭적 전력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도 이제는 전통적인 군비경쟁으로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재래식 무력보다는 뭔가 특별한 군사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김정일이 생각하고 있는 전술은 소위 ABC (핵, 생물학, 화학) 무기를 장전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여 미국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남침 땅굴을 통해 일거에 대규모 특수군을 침투시켜 속전속결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의 남침 땅굴이 네 차례 발견되었다.

그런데 최근 20여 년 간 추가로 땅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없다. 김정일이 땅굴 건설을 중단한 것일까?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면 왜 발견되지 않았는가? 땅굴을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난 시절 땅굴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그것은 극히 운이 좋았거나 제보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제3 땅굴과 제4 땅굴은 땅굴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여 땅굴 입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보해 주었다. 제3 땅굴의 제보자는 땅굴 수색을 위해 휴전선 일대를 뒤희다가 지뢰를 밟고 불구자가 되기도 했다. 제4 땅굴을 제보한 병사는 햇볕 정책이 한창이던 2000년경에 다시 북으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북한군이 20여 개의 장거리 땅굴을 굴착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남침 땅굴의 출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어디까지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땅굴의 작업 내용을 상세히 아는 자가 귀순해 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땅굴이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땅굴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이다. 지난 몇 십 년 간 그들이 땅굴 작업을 계속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미 우리나라의 땅 밑은 그들에게 점령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998년 8월 말, 북한은 대포동1호라고 불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06년도에는 더욱 개량된 형태의 대포동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노동1호 노동2호라고 불리는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이미 수백 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김정일이 어려운 경제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서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의 무력충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박의 지렛대로 활

용하기 위해서이다.

당초 김일성은 미사일 개발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여 미사일 개발에 미온적이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중거리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해 봐야 주변 국가들만 자극할 뿐 통일전쟁에는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우리는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만 갖추면 된다. 미사일에 들어갈 화약이 있으면 그것으로 탄알을 더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인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고 훈시하였다.

이에 비해 김정일은 처음부터 미사일 개발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섰다. 북한군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1년 초부터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모방 설계하면서 미사일 연구개발을 시작하였다. 김정일이 미사일 개발에 나서게 된 동기는 소련과 중국의 군사지원 중단 때문이었다. 김정일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일·대미 공갈용, 테러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북한은 이제 미·러·중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의 가공할만한 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2002년 10월 켈리 부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자신들이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 두 차례의 핵실험은 모두 플루토늄 원자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는 핵무기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핵무기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 개발된 원자무기는 세 가지 종류

이다. 우라늄폭탄, 플루토늄폭탄, 수소폭탄이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핵 분열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수소폭탄은 수소원자의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원자가 분열하거나 융합될 때에는 미량의 질량(質量) 손실이 있게 되는데, 이 질량의 손실은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E=MC^2$ 라는 공식에 따라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은 우라늄 원자탄이었다. 이것은 길쭉한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리틀 보이(어린애)’라는 별명이 붙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은 플루토늄 원자탄이었다. 이것은 모양이 공처럼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별명이 ‘팻맨(똥똥이)’이 되었다. 이제까지 수소폭탄이 실제 사용된 적은 없지만, 1950년대에 실험에서 성공한 이래 미국과 러시아는 다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라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92개의 원소 가운데 가장 무거운 원소이다. 우라늄의 원자번호는 92번인데, 이는 원자 핵 속 양성자의 숫자가 92개라는 말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질량수가 234개인 것과 235개인 것, 그리고 238개인 것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를 ‘동위원소(同位元素)’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핵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우라늄 235이다. 자연계에 있는 99% 이상의 우라늄은 238의 형태로 존재한다. 우라늄 235는 약 0.7% 정도, 우라늄 234는 극소 미량만 존재한다. 원자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238에서 우라늄 235를 추출해 내야 한다. 이 과정을 ‘농축(濃縮)’이라고 한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원심분리법(遠心分離法)이다. 이는 우라늄 동위원소 간의 미세한 질량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 원심분리기는 1분에 수만 회를 회전하는 초(超)정밀기기이다. 우라늄 원석을 원심분리기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원심력으로 인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238이 바깥으로 모이고 무게가 가벼운 235가 안쪽에 몰린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속칭 ‘옐로우 케이크(Yellow Cake)’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라늄 235의 농도가 90% 이상이 되면 무기급(武器級) 우라늄으로 분류한다.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일정 정도 이상 모아야 한다. 이를 ‘임계질량(臨界質量)’이라고 한다. 보통 고농축 우라늄 15kg 정도 이상이 임계질량이다. 수천 기의 원심분리기를 일년 간 가동하면 임계질량에 해당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다. 고농축 우라늄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핵분열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라늄 원자탄은 특별한 기폭장치가 필요 없다. ‘리틀보이’는 평범한 기폭장치로 격발시켰다.

우라늄 농축과정은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작업이다.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특수 알루미늄 합금을 구입해야 한다. 원심분리기를 24시간 가동하려면 전기도 아주 많이 소모된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은 지하공장이나 좁은 장소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닉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우라늄 농축은 원심분리기의 설계도면을 구하기만 하면 기술적으로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비해 플루토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가 아니다. 원자번호 94번인 플루토늄은 일반적으로 우라늄의 핵폐기물에서 추출한다. 즉, 우라늄 원자로만 있으면 플루토늄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북한이 영변에 5메가와트짜리 실험용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이유는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북한은 영변에 있는 실험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원자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플루토늄 원자탄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우라늄 원자로를 건설해야 한다. 우라늄 원자로는 당연히 은닉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국가들은 사용 후 핵폐기물의 처리에 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플루토늄은 안정적인 원소이기 때문에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주 큰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플루토늄 원자탄은 ‘고폭장치’라는 특수한 기폭(起爆) 장치가 필수적이다. 기폭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플루토늄 기폭장치는 백만 분의 일초 단위의 초정밀 연쇄폭발을 일으켜야 한다. 앞서 말한 ‘팻맨’이 공 모양 형태로 제작된 것은, 기폭장치가 폭약(플루토늄) 주변을 구형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상 원구형(圓球形) 기폭장치가 가장 큰 기폭력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평북 용덕동이란 곳에서 줄기차게 고폭장치 실험을 반복 실시해 왔다. 내가 국정원에 근무하던 2000년에, 북한은 이미 130여 회 이상 고폭 실험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이미 오래 전에 기폭장치의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 북한의 1,2차 핵실험이 성공함으로써 그들의 고폭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북한은 또한 1990년대 말경에 파키스탄의 칸 연구소로부터 원심분리기 도면과 우라늄 농축기술을 전수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선일보 2004. 2. 5. ‘칸 박사, 핵기술 유출 시인’ 제하 기사 및 주간조선 2006. 10. 23. ‘우라늄 핵무기는 북한 최후의 카드’ 제하 기사 참조).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죽음의 거래는 양자의 이익이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성

사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농축기술을 얻는 대가로 북한은 파키스탄에게 중거리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파키스탄이 자랑하는 가우리 미사일은 실제로 북한 노동 미사일의 복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이 얼마만큼의 고농축 우라늄을 획득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지금쯤이면 충분한 양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어느 산속 지하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원심분리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제 아무도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포기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는 영원히 김정일의 핵 공갈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우리도 우라늄을 농축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우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 현주소와 파경에 이르게 된 경위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일이 ‘일주일 꺼리’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접수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 위대한 영도자의 결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가? 단언하건데,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때문이 아니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그것은 주한미군 덕택이다. 김정일은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체제가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보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이 최근 20년 동안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이라크 파병문제와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등

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미동맹의 파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차제에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는 동맹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기막힌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양 행동했지만, 양국 간에는 마치 거대한 얼음장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잠시 되돌아보겠다.

2002년 대선 선거기간 중 노무현 후보는 “반미면 어떠냐?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괜찮다”며 도발적인 언급을 했다. 그는 또한 “미국에 사진 찍으러 가진 않겠다”고도 했다. 그의 측근 중 한 명은 공개적으로 미국에다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과 의견이 다른 것은 달라야 한다”면서 반미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물론 의도적으로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말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계룡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자주국방이 가능한지를 분석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주(自主)’라는 그럴듯한 말로 ‘반미(反美)’라는 말을 교묘하게 위장했다. 정권 내내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국방(自主國防)’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CBS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60분’은 한국 데모대가 성조기를 찢고 불태우는 장면과 주한미군 장성이 한국의 반미 정서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했다. 우리가 미처 느끼기도 전에 미국의 여론 지도층 사이에서는 한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급속히 퍼져나갔다. 이즈음 백악관 주변에

서는 청와대의 젊은 측근들을 가리켜 ‘탈레반’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 주가가 급락하고 경제가 흔들리면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방미 대표단을 파견했다. 2004년 5월 방미 시에는 “50년 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마음에도 없는 아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리하게 통역을 따돌린 가운데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조약(Non-aggression Pact)을 체결해 달라”고 직접 영어로 요청했다. 그 말을 들은 부시 대통령은 한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이없는 표정만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노무현 정권은 6자회담 과정에서도 우방들과 보조를 맞추기 보다는 끝없이 김정일의 눈치만 살폈다. 당연히 미국과는 아무런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2003년 10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방미했을 때 조지타운대의 빅터 차 교수는 “한미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언급하였다. 사실 한미관계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워싱턴 주변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현실이었다. 그 정도의 우회적 표현은 아주 점잖은 축에 속한 것이었다. 부시 정부는 이례적으로 이미 ‘깽판’이 되어버린 한미관계의 현실을 언론에다 우회적으로 흘리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그때 방문단의 일원으로 온 정형근 의원을 워싱턴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워싱턴에 오기 전에는 한미 동맹관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나는 그에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외교적 수사(修辭) 뒤에 가려져 있는

진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참혹합니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 간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된 이유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 그리고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등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동맹의지를 시험하려고 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통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라크 파병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고압적으로 통보해 왔다. 미국은 노무현 정권이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양 의사를 표명했다. 마치 ‘말만 하면 언제든 군대를 빼겠다’는 식이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라크 파병문제를 협의할 때 청와대는 백악관 에다 ‘5천이 아니라 5만이라도 보낼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대신 노 정권은 두 가지 파병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포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백악관은 또 한 번 어이없어 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동맹국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점잖게 반응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분개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노무현 정권 내내 한미연합사는 완전히 곁돌았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 ‘도망가고 있는(Run away) 동맹’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가 임박한 것처럼 보였던 때도 있었다. 실제로 럽스펠드 국방장관이나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 대놓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는 의미 있는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측은 내내 등을 돌리고 지냈다. 정권 초기, 라종일, 권진호 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몇 차례 워싱턴을 다녀

갔다. 이종석 NSC 차장과 박선원 비서관이 다녀가기도 했다. 그들은 워싱턴에서 마치 ‘소 닭 보듯’ 하는 대우를 받았거나, 아예 ‘찬밥’ 취급을 당했다.

이종석은 언젠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나는 ‘자주파’가 아니라 ‘상식파’라고 말해서 사람들을 웃겼다. 당시 모 신문은 “이종석이 라이스, 아미티지, 월포워츠를 만났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정확한 기사가 아니었다. 사실은 자신의 파트너인 해들리나 그린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겨우 스트로브 국무부 한국과장을 만났다고 한다. 그는 머쓱했던 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관계가 좋아서 풀어야 할 오해도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경향신문 2003. 12. 10. ‘방미 이종석, 나는 상식파’ 제하 기사 참조).

이종석은 김대중 정권에서 임동원 밑에서 햇볕정책의 꼬마 전도사 노릇을 하던 사람이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알렌은 어느 일본 잡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고위인사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인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 고관(高官)이 다름 아닌 이종석 씨였다. 황장엽 선생은 그를 가리켜 “서울에는 천재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내뿜는 젓내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미동맹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줄기찬 노력의 결과였다. 미국 조야 사정에 밝은 유명환 장관이 이 같은 일에 어느 정도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후유증을 모두 다 치료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를 위해 자국의 병사들이 피를 흘리는 일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한미동맹이 망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인가? 물론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양측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둘 다에게 원인이 있다. 하지만 둘 중에서 원인을 더 많이 제공한 당사자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 그동안 미국은 분명히 ‘저만 아는 거인’ 처럼 행동해 왔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아직도 우리를 50년 전의 대한민국으로 착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미관계가 금이 가게 된 것은 한국 지도층의 오만과 기만, 그리고 부정과 부패에 연유한 바가 크다. 대통령 자질이 안 되는 자가 오만방자한 외교정책을 펴면서 동맹에 금이 갔다. 사기꾼 같은 대통령이 동맹국을 배신하면서 동맹을 파탄냈다. 게다가 부패한 대통령들이 안보를 갖고 장난을 치면서 우방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김영삼 정권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걸쳐 이루어졌다.

사실 한미 동맹관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단초는 이미 노태우 정권 때부터 나타났다. 박철언이 주도한 북방정책은 미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의 공산권에 대한 맹목적인 호의는 동맹국 미국의 불신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소련에 대한 30억 달러의 현금차관 문제가 미국의 심사를 크게 자극했다. 당시 레이건 정부는 소련으로 들어가는 경화(硬貨)를 차단하여 소련을 고사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에 재를 뿌렸다. 미국은 박철언 씨를 워싱턴으로 불러 이에 보복했다.

김영삼 정권 시절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은 일관성과 철학의 결여로 요약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은 그의 무지와 무능에 책임이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동족(同族)은 우방(友邦)에 앞선다”라는

영똥한 소리를 했다. 물론 이는 김일성을 흥분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냉소를 샀다. 이후 그는 좌충우돌 대외정책과 우왕좌왕 대북정책으로 동맹국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더욱이 그는 줄곧 우방국에 대해 가르치려 들거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란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한미 동맹관계가 결정적으로 깨어지게 된 계기는 김영삼 정권 말기와 김대중 정권 초기에 있었던 몇 가지 무기도입 비리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스팅어를 거부하고 프랑스로부터 미스트랄이라는 대공 유도미사일을 도입한 사건이 결정타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말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

한편, 1996년 9월 26일, 미국의 해군정보부에 근무하던 로버트 김이란 사람이 미 FBI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강릉에서 발견된 북한 잠수함의 침투경로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의 무관으로 근무하던 백동일 대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김영삼 정권의 한미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미국 정부가 로버트 김을 체포하자 권영해의 안기부는 도널드 레드클리프라는 미국인을 간첩혐의로 체포했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한미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주간동아 1997. 5. 15. ‘미국인 군사기밀 유출사건 사법처리 향방’ 제하 기사 및 중앙일보 2005. 11. 14. ‘안기부 로버트 김 구하려고 했다.’ 제하 기사 참조).

김영삼 정권의 의도적인 대미 대립각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의 임기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빠졌다. 외환관리의 실패로 인해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도움이 절실한 때에 우방국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정부에

게 클린턴 행정부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한미관계는 완전히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그 주된 이유는 햇볕정책과 대북송금 때문이었다. 김대중은 김정일과 뒷거래하면서 동맹국을 속이고 주적과 내통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이러한 김대중의 행각을 모른 척하면서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김대중 정권은 길으로는 “미국에게 남북대화의 숨소리까지 전해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속이려고만 들었다. 이 모든 일이 노벨상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대로다.

저자 후기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조국의 젊은 세대에게 몇 마디 권고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와 기성 세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불만을 이해한다.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젊은 세대의 소망은 승고한 것이다.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년 3월 26일 밤, 서해에서 훈련 중이던 우리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고 즉석에서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46명의 꽃다운 수병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은 북한의 호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 시절 대북 유화정책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찾아낸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종북좌파(從北左派) 세력들은 온갖 잡쓰레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를 기만하려 들었다.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을 부인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선전선동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또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국민이 무려 30%에 달하게 되었다.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나는 우리의 젊은 후배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이 어떻게 해서, 누구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는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진심으로 권고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때에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세 세대 이전에,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국권을 잃었다. 그리고 우리는 일제가 일으킨 대동아전쟁에 동원되어 원하지 않는 참화를 입었다. 젊은이들은 군인으로 징집되고 강제노역에 징용되었다. 수많은 처녀들도 정신대(挺身隊)라는 미명 하에 반강제로 동원되어 처참한 인권유린을 당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손을 빌었다. 그 결과 나라가 두 동강 났다.

분단의 대가는 가혹한 것이었다. 우리는 3년간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어야 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전 국민의 약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단일 사건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였다. 부상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생이별하는 이산가족이 되었다. 우리 민족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되고 말았다. 이는 분명히 김일성 집단의 침략전쟁의 결과였다. 김정일 집단은 아직도 자신의 침략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불과 두 세대 이전에,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하고 비참한 나라였다. 일제의 수탈과 대동아전쟁, 그리고 곧 뒤이은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철저히 황폐화되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아프리카 오지의 일부 국가들뿐이었다. 한때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한참 앞선 선진국이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의 국가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했다. 우리에게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 맨주먹 이외에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었다.

나는 군사독재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군사독재를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의 한 단계에서 그들의 공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사실 우리나라의 군부독재는 세계 어느 나라의 군부독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한 집단이었다. 1930년대 소비에트를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우리 같은 성과를 거둔 예가 없다. 게다가 우리의 군부독재는 ‘비교적’ 청렴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북한 김정일 집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극단적인 폭압체제이다. 이들은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극도로 낙후된 봉건 왕조 정권일 뿐이다. 그들의 주체사상이란 것은 고대 이집트의 신권(神權) 정치에서나 있을 법한 사고체계이다. 김정일 집단은 히틀러 정권과 비견될만한 광기의 집단이다. 이들에게선 인간성이나 이성이나 합리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나는 친미주의자로 비취지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미국을 비난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비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미관계를 이야기 할 때 제너럴셔만호 사건, 카스라-테프트 조약, 에치슨 라인 등을 거론하기 이전에, 미국은 우리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준 해방군이었고 — 비록 다소의 실수는 있었지만 — 6·25 때는 5만여 명의 젊은 생명을 희생해 가며 우리를 지켜준 구원군(救援軍)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되

새겨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국제정치적인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라는 세계 최강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살고 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휴전선이라는 휴화산이 언제 다시 활화산으로 변질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계 변방의 작은 구석에 있는 나라에 불과하다. 월드컵에서 16강, 8강이 아니라 우승하더라도 우리의 국력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우스개 소리로, 겁 없이 미국에 대드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고,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남한이라는 말이 있다. 마치 남북한이 힘을 합치면 무서울 게 없다는 투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군사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한심한 수준이다. 국방비 규모만 비교해 봐도 우리의 처지를 알 수 있다. GDP 대비 국방비의 지출은 우리는 약 3%, 일본은 약 1%, 미국은 약 5% 정도가 된다. 일본의 GDP 규모가 우리의 여섯 배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방비는 우리의 2배 정도가 된다. 미국의 GDP 규모는 우리의 약 1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비 규모는 우리보다 20배 정도가 된다. 이에 기술력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감안하면 실질적인 군사력의 격차는 이보다 훨씬 심각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역사와 환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평화를 구걸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평화를 돈으로 사서 일시적으로 성공한 듯 보인 적은 있지만 그것도 대개 오래가지 못했다. 평화는 큰소리로 외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평화는

쟁취하는 것이다. 평화는 누릴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고자 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을 잊으면 평화가 깨진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업은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다.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의 완성도 자유시장 경제의 성숙도 이룩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극악한 폭압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녘의 동족들을 구해내야 한다. 헐벗고 굶주리는 동족들을 하루라도 빨리 살려내야 한다. 우리는 민족적인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불의에 분노할 줄 알아야 하고, 북녘 동포들의 비참한 처지에 동정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난 시절, 냉전시대 때에 우리는 미국이 예를 들고 싶어하던 모범적인 개발국가였다. 단기간에 우리처럼 압축성장을 거둔 나라는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이 단지 우리가 잘나고 부지런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경제적으로 또는 안보상으로 미국의 원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대북문제와 한미관계를 판단할 때 어설픈 민족주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충언하고 싶다.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符合)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수백만 동포를 굶겨 죽인 악마를 추종하는 세력은 항상 민족을 제일 먼저 내세운다. ‘우리민족끼리’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일말의 동포애도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한 남북의 현실을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도 많은 부분 잘못 전달되었거나 왜곡된 메시지로 인해 생긴 것이다. 한미 간에 이간질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집

단이 의도적으로 전파한 것들이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같은 일을 반복해 왔다. 이제 그들은 그 결실의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한다.

- THE END -

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 증언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2010년 8월 5일 초판 인쇄

2010년 8월 10일 초판 발행

저 자 | 김기삼

펴낸이 | 박기봉

펴낸곳 | 비봉출판사

출판등록 | 317-2007-57 (1980년 5월 23일)

주 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롯데 IT캐슬 2동 808호

전 화 | (02)2082-7444

팩 스 | (02)2082-7449

E-mail | bbongbooks@hanmail.net / beebooks@hitel.net

ISBN | 978-89-376-0378-5 03810

값 16,000원

© 이 책의 판권은 본사에 있습니다.

본사의 허락 없이 이 책의 복사, 일부 무단전제, 전자책 제작 유통 등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금지됩니다.